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4. 5. 8. (수요일), 14:00 ~ 19:20
- ▣ 장 소 : 덕수궁 증명전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승용, 김길식, 김영심, 김재홍, 김충식,
성정용, 신웅주, 유병권, 유재춘, 윤용혁,
윤주, 이순희, 홍보식(이상 13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공 개)
2	고성 동외동 유적 사적 지정	(공 개)
3	부산 연산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공 개)
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	(공 개)
5	강화 삼랑성 보호구역 내 전등사 주변 정비	(공 개)
6	공주 공산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7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양묘장 설치	(공 개)
8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 개)
9	서울 몽촌토성 내 전시 및 관련 부대행사	(공 개)
10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외 정원 조성	(공 개)
11	완도 청해진 유적 보호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 및 도로 개설	(공 개)
12	강화산성 내외 보행로 개선 및 쉼터 조성	(공 개)
13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4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15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골재채취	(공 개)
16	익산 토성 주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 개)
17	부여 나성 내외 옹벽 설치	(공 개)
18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신설	(공 개)
19	태안 안흥진성 주변 전통한옥건축물 신축	(공 개)
20	홍성 홍주읍성 내 광장 물고임 및 잔디 정비	(공 개)
21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태양광 시설 설치	(공 개)
22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소매점 신축	(공 개)
23	경주 흥덕왕릉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 개)
24	강화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공 개)
25	강화 외성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6	나주목 관아와 향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7	나주읍성 주변 건축물 신축	(공 개)

28	나주 반남 고분군 내 조형물 설치	(공 개)
29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보호구역 내 마을표지석 설치	(공 개)
30	완도 청해진 유적 보호구역 내 주택 신축	(공 개)
31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2	영주 순흥 어숙묘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3	광주 충효동 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4	사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검토사항】		
35	성주 회연서원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36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37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동헌터 복원·정비계획(안) 검토	(공 개)
【보고사항】		
38	고도지역(익산) 문화유산 주변 지반조사 보고	(공 개)
3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4-05-001

1.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 봉업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4년 문화재위원회 3차 회의(2024.3.13.)에서 사적 지정을 검토한 사항으로 30일간의 지정예고 후 사적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임
- 사적 지정예고 결과 : 주민의견 5건 접수
 - 공 고 명 : 「안성 봉업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 공 고 일 : 2024. 4. 2.(문화재청공고 제2024-185호)
 - 주민의견

연번	성명	지번(죽산면 죽산리)	주요내용
1	서○○	178-2	○ 178-2번지 일부만 문화재구역에 포함되므로 필지 전체를 포함하거나 전체필지를 문화재구역에서 제척 요청 ○ 문화재구역 포함 필지에 대한 감정가를 높게 쳐준다면 향후 토지매입 시 분할하여 매각할 의사 있음
2	조○○	141-1, 142, 151-2, 68-3	○ 141-1번지 일부만 문화재구역에 편입되므로 전체 필지 포함 요청
3	주○○	178-7	○ 178-7번지 일부만 보호구역에 포함되므로 전체필지 편입 요청, 불가하다면 편입 안된 토지에 대한 도로 개설 등 건축규제 완화
4	정○○	197	○ 편입되는 197번지(답)에 있는 시설(관정) 이전비 책정 요청 ○ 봉업사지 일대 신속한 토지매입 ○ 봉업사지 일대 제초 및 경관정비
5	고○○ 외 6인	68-1	○ 68-1번지 일부만 문화재구역에 편입되므로 전체 필지 포함 요청

- 안성시 의견 : 의견제출자 대부분이 소유지(1필지) 일부만이 문화재구역에 편입된 소유자들로 전체필지 편입을 원하므로, 추후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 경기도기념물(2003.04.21.))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5-3번지 일원
- (3) 지정명칭 :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Bonggeopsa Temple Site, Anseong
- (4) 지정범위 : 106필지 66,274㎡(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문화재구역 87필지 47,504㎡ / 문화재보호구역 19필지 18,770㎡
- (5) 관리단체(안) : 경기도 안성시
- (6) 신청사유
 - 안성 봉업사지는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 유일하게 고고학적으로 규명된 유적으로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으로 구분된 다원체계로 구성됨. 그동안 사적지정을 위한 보완 사유인 고려시대 사지 및 진전사원으로서의 특성 및 근거 등이 발굴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됨. 따라서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충분히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안성 봉업사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라. 참고사항

(1) 사적지정 추진경과

- 경기도 기념물 지정(2003.4.21.)
-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09.9.23.)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신청(경기도→문화재청, 2009.9.30.)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0.2.4.)
- 2010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2010.4.14.) : 보류(발굴조사 확대 등 유구 성격 확인 후 재검토)
- 2019년 제27차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19.11.14.)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신청(2차)(경기도→문화재청, 2019.12.3.)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1.2.18.)
- 2021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2021.4.14.) : 보류(중심사역 추가 발굴조사 등을 통해 고려시대 사지 및 진전사원으로서의 특성 및 근거 보완 필요)
-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 신청(3차)(경기도→문화재청, 2023.12.21.)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4.2.5.)

※ 발굴조사 현황

차수	조사기간	면적	주요유구	주요유물
1차 발굴조사	1997.09.24. ~ 1998.03.31	약 6,612m ²	건물지 21개소 및 부속시설	명문기와 ‘皆次’, ‘竹州’ 중국산 자기, 나발편 청동제완, 철부, 철제환
2차 발굴조사	2000.10.01. ~ 2001.03.31	약 12,561m ²	적심 기단석렬	명문기와 ‘華次寺’. 峻豐四年’(963) ‘乾德五年’(967), 인동당초문 암막새, 인화문병편 청자접시, 청자잔 은제도금 단추형장식 ‘主女光’명 벼루
3차 발굴조사 (3층석탑 일대)	2004.03.10. ~ 2004.09.30	약 4,529m ²	죽산리 3층석탑 건물지 부석유구, 범종유구	명문기와 ‘乾德’, ‘興國’, ‘丁丑’ 납구슬
4차 발굴조사 (주변부지)	2018.11.15. ~ 2018.11.29. 2018.12.14. ~ 2018.12.26.	시굴 13,593m ² 발굴 160m ²	적심 석재다짐 중복유구	청자베개편, 기와편
5차 시굴 및 발굴조사	2022.09.07. ~2022.09.21. 2022.10.31. ~2023.07.07.	시굴 27,335m ² 발굴 11,553m ²	중심사역 중문지, 담장지 진전영역 건물지, 외담지	명문기와 차맷돌 청자편

(2) 주요 학술대회

- 봉업사 1000년 그리고 새로운 출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6)
- 고려 태조 진전사원 봉업사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경기도박물관, 2017)
- 안성 봉업사지의 활용과 보존(한백문화재연구원, 2018)
- 안성 봉업사지 사적 지정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한백문화재연구원, 2023)
- 개성 만월大學의 지평(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23)

(3) 안성 봉업사지 및 관련 지정문화재 현황

- (유적지 내) 보물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1966.2.28.)
- (유적지 내) 경기도 유형문화재 ‘안성죽산리 당간지주’(1979.9.3.)
- 보물 ‘봉업사명 청동북’(1973.12.31.)
- 보물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1989.4.10.)
- 보물 ‘봉업사명 청동향로’(2004.8.31.)
- 경기도 유형문화재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1978.11.10.)
- 경기도 유형문화재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1980.6.2.)

(4) 현지조사의견('24.02.05./문화재위원 ○○○, ○○○, ○○○, ○○○, 전문위원 ○○○)

- 본 건은 안성 봉업사지의 사적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 5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사역의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으로 추정되는 구역, 사역의 전반적인 범위가 확인되고, 유물의 출토를 통해 볼 때,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의 위상과 가치가 충분히 확인되므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단, 아직 발굴 미완료 된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발굴 성과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정리가 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4.2.05 (월)	대상 문화재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건축	○○대학교	교수
	○○○	고고학	○○대학교	교수
	○○○	고고학	○○대학교	교수
	○○○	건축사	○○대학교	교수
○○○	건축사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 보호구역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2월 05일</p> <p>제출자 : 문화재위원 ○○○ · ○○○ · ○○○ · ○○○ 문화재전문위원 ○○○</p> <p style="text-align: right;">문화재청장 귀하</p>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4.02.05.(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 ○○○ · ○○○, 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경기도기념물 제189호(2003년 4월 21일)인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사찰명은 유물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봉업사지이며, 지역명+유적명을 고려할 때, **안성 봉업사지(安城 奉業寺址)**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봉업사지는 동경 127°25' 56" ~ 127°26' 02", 북위 37°04' 32" ~ 37°04' 35"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5-2번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를 포함한다. 안성시는 조선시대 안성과 죽산이 합쳐진 곳으로 원래 죽산은 삼국시대부터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였다. 안성과 죽산이 구분되었던 것은 지리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안성과 죽산 사이에는 칠현산(516m)에서 시작된 한남정맥이 북서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그 서쪽은 안성천 유역의 안성, 그 동쪽은 죽산천 유역의 죽산으로 구분되었다.
- 죽산 주변 산지는 전체적으로 해발 500m 미만의 남북방향 또는 북북서-북북동 방향의 저산성 산지가 우세하게 발달하였다. 남쪽부터 무이산-덕성산-칠현산-칠장산-국사봉-구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비교적 뚜렷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산줄기가 한남정맥으로도 불리는데 용인 광교산을 거쳐서 김포반도로 이어지면서 경기도를 해안지대와 내륙지대로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
- 봉업사지는 죽산천 북쪽의 비봉산 남동 사면 말단부에 입지한다. 죽산지역은 비봉산 주변으로 고리 형태의 침식분지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이전 죽산현의 범위가 대체로 이것과 유사하며, 현재 안성시 죽산면, 삼죽면, 일죽면 등을 포함한다.



죽산 일대 지형 및 수계

- 죽산지역은 죽산천 수계의 영향권 내에 생활권이 위치한다. 죽산천은 삼죽면 배태리 덕산저수지 상류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굽이치면서 죽산의 중앙부를 관통한 후 일죽면 월정리에서 용인시 백암면 방향에서 흘러온 청미천과 합류한다. 남쪽에서는 정개천과 용설천이 죽산천으로 흘러들어온다. 정개천은 칠장산 서쪽 산록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곡류하여 죽산시가지 서쪽 두현리에서 죽산천에 합류한다. 용설천은 죽산 남쪽의 남산 남동쪽 산록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곡류하다가 봉업사지 동쪽에서 죽산천과 합류한다.
- 죽산지역은 이상의 하천들이 곡류하면서 형성된 소규모의 하곡평야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농사짓고 생활하기에 유리한 곳이었다. 죽산천 주변 하곡평야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넓어진다. 죽산천이 청미천과 합류하는 지역이 가장 넓으며, 여기부터 청미천을 따라 동쪽 장호원 방향으로 넓은 들이 이어진다.
- 죽산지역에서 가장 중심지는 정개천이 합류하는 곳부터 용설천이 합류하는 곳까지이다. 이 지역이 조선시대 죽산현의 중심지가 위치하였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봉업사지는 그 동쪽 끝부분에 위치한다. 하지만 고려시대 이전의 죽산 중심지는 봉업사, 죽주산성, 매산리고분군 등의 위치로 보아 이보다 훨씬 동쪽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봉업사지와 죽주산성을 중심으로 산록부가 당시의 생활 중심지로 보인다.



안성 봉업사지 및 죽산리 일대 원경



안성 봉업사지 및 죽주산성 일대 원경

■ 역사문화 환경

- 봉업사지가 위치하고 있는 죽산지역은 다수의 불교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시대 불교유적이 집중되어 있어 이 일대의 불교사적 · 미술사적 역사문화 환경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 특히, 봉업사지 인근 주변지역에는 죽산 관음당의 장명사지, 미륵당의 매산리사지, 장광마을의 장광사지, 그리고 칠장사에 이르기까지 고려시대 사찰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봉업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매우 융성하였음을 보여준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8번지 일대 비봉산 인근에 자리 잡은 봉업사지는 고려 태조 왕건의 어진을 모셨다고 전해지는 고려시대 진전사원이다. 원래 죽산리사지로 알려져 왔으나, 1966년 오층석탑 주변 농경지에서 출토된 향로와 향완, 청동북 등에 나타난 글귀를 통해 ‘奉業寺’라는 사찰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봉업사는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남천하였다가 1363년 2월 청주로부터 환도할 때에 들러서 태조의 진영을 알현한 곳으로 고려시대 태조 왕건의 진영을 봉안한 진전(眞殿) 사원이었다. 봉업사가 자리한 죽산지역은 주변 하천로를 이용한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지리의 요충지였다.
- 봉업사가 폐사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석탑만 잔존하고 있어 조선 초기에 폐사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주변에는 역참제도의 정비에 따라 太平院이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 인근지역에는 봉업사지 오층석탑(보물), 봉업사지 당간지주(경기도 유형문화재), 죽산리 석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죽산리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봉업사지 석불입상(보물) 등 많은 석조 문화재와 주춧돌, 다듬어진 석재 등이 남아있어 사찰이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특히 인근지역에는 죽산 관음당의 장명사지, 미륵당의 매산리사지, 장광마을의 장광사지, 그리고 칠장사에 이르기까지 고려시대 사찰 유적이 곳곳에 남아있어 봉업사지가 위치한 죽산이 당시 불교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봉업사에 대한 문헌기록은 다음과 같다.

□ 『高麗史』 第40卷, 世家卷第40, 恭愍王3, 12年癸卯

“丙子次竹州謁太祖眞于奉業寺”

→ 병자년 죽주 봉업사에서 태조의 진영을 알현하였다.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8, 竹山, 古跡, 奉業寺

“奉業寺在飛鳳山下高麗時安太祖眞恭愍王十二年二月駕發清州次是寺謁眞殿今只有石塔”

→ 봉업사는 비봉산 아래에 있으며, 고려시대 태조의 진영을 안치하였다. 공민왕 12년 2월 청주에서 출발한 어가가 이 절에 들려 진전을 알현하였는데 지금은 단지 석탑이 남아있다.

○ 봉업사지에서 출토되어 외부로 유출된 문화재를 살펴보면, 봉업사명 청동북(보물 : 연세대학교 소장), 안성 봉업사 석불입상(보물 : 칠장사 소장), 봉업사명 청동향로(보물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있으며, 그 외 보물에 준하는 문화재로는 청동봉업사대강7년명향완(개인 소장), 청동쌍사자광명대(경희대 박물관소장), 금동제사리병과 납석제사리호(국립박물관 소장)가 있다.

○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청동유물의 명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봉업사명 청동향로(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奉業寺三重大師元洵(?)”(봉업사 삼중대사 원준(?): 덮개부 명문)

“□□重廿六斤□”(무게는 26근이다 : 받침부 명문)

□ 청동봉업사대강칠년명향완(『韓國金石全文』「奉業寺香垵」, p.509, 개인소장)

“大康七年辛酉正月日奉業寺□□安小待父母長命”

→ 대강7년(문종 35년, 1081) 신유 정월에 봉업사 안소지가 부모의 장수를 위해 만들다.

□ 봉업사명 청동북(『韓國金石全文』「奉業寺盤子」, p.966,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貞祐五年歲在丁丑名字沙門榮謙住于此竹州奉業寺發願鑄成印上大匠夫金大匠阿角三大匠景文都色大師洪植”

→ 정우5년(고종4년, 1217) 죽주 봉업사 주지 찬겸이 발원하여 만들고 새기다. 상대장은 부금, 대장은 아각, 삼대장은 경문, 도색대사는 홍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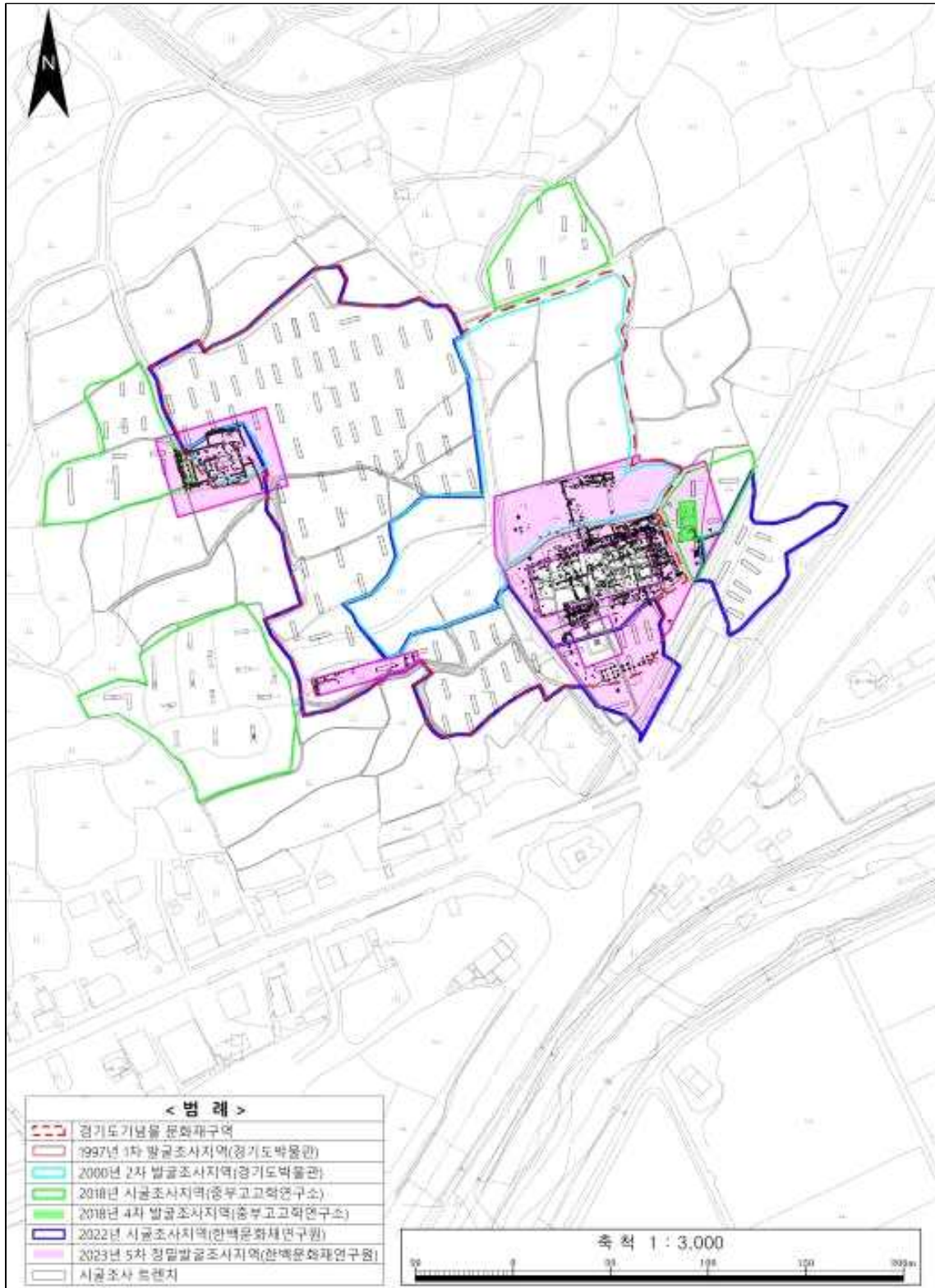
○ 현재 봉업사지에 남아있는 유물로는 안성죽산리오층석탑(보물), 죽산리 당간지주(경기도 유형문화재)등이 있으며, 안성 봉업사지는 2003년 4월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었다.

■ 발굴조사

- 안성 봉업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1966년 경지정리 중 청동제 향완과 청동 북이 우연히 발견되었고 확인된 명문으로부터 ‘봉업사’의 존재가 알려졌다. 안성시는 봉업사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기획하였다.
- 봉업사지는 경기도박물관 발굴조사단에 의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18년 중부고고학연구소에 의해 시굴 및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백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수많은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어 봉업사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 차수별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차수	조사기간	면적	주요유구	주요유물	조사기관
1차 발굴조사	1997.09.24. ~ 1998.03.31	약 6,612㎡	건물지 21개소 및 부속시설	명문기와 ‘皆次’, ‘竹州’ 중국산 자기, 나발편 청동제완, 철부 철제환	경기도 박물관
2차 발굴조사	2000.10.01. ~ 2001.03.31	약 12,561㎡	적심 기단석렬	명문기와 ‘華次寺’, ‘峻豊四年’(963) ‘乾德五年’(967) 인동당초문 암막새 인화문병편 청자접시, 청자잔 은제도금 단추형장식 ‘主女光’명 벼루,	경기도 박물관
3차 발굴조사 (3층석탑 일대)	2004.03.10. ~ 2004.09.30	약 4,529㎡	죽산리 3층석탑 건물지 부석유구 범종유구	명문기와 ‘乾德’, ‘興國’, ‘丁丑’ 납구슬	경기도 박물관
4차 (주변부지 시굴 및 발굴조사)	2018.11.15. ~ 2018.11.29. 2018.12.14. ~ 2018.12.26.	시굴 13,593㎡ 발굴 160㎡	적심 석재다짐 중복유구	청자배개편, 기와편	중부고고학 연구소
5차 시굴 및 발굴조사	2022.09.07. ~2022.09.21. 2022.10.31. ~2023.07.07.	시굴 27,335㎡ 발굴 11,553㎡	중심사역 중문지, 담장지 진전영역 건물지, 외담지	명문기와 차맷돌 청자편	한백문화재 연구원

1차~5차 발굴조사 주요 유구 및 유물 현황



안성 봉업사지 조사 경과도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역사적 가치

- 봉업사지는 태조의 진영을 모신 진전사원으로 알려져 왔다.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당시 봉업사를 방문하여 태조의 진영을 알현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업사지가 언제부터 진전사원이 되었으며 그 진전은 어떤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점도 남아 있었다. 다만 이전부터 있었던 사찰을 고려 초에 진전사원으로 창건하였을 가능성만 제시되었을 뿐이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봉업사지는 충분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 이번 5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봉업사지 진전영역의 모습이 대부분 출토됨으로써 그동안 의문점은 모두 해소되었다. 봉업사가 진전사원으로 개편되는 시기는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봉업사지 진전영역에서는 ‘준풍’명 기와(峻豐四年 : 광종 14년, 963년)를 비롯하여 960년대에서 980년대 성종 집권 후기까지의 시기에 해당되는 명문기와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 시기 봉업사지가 진전사원으로서 크게 창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광종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것도 분명해졌다.
- 한편, 봉업사지 진전영역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는 관아에서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자명 기와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에서 제작하여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기와도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옹희2년’명 기와이다. 여기에는 ‘백사 능달’, ‘만선리’ 등 당시 지방인의 관직과 인명, 행정 지명 등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제작 주체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죽주 지역 지방 세력이 제작하여 봉업사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봉업사가 진전사원 건립에 죽주 지방 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 봉업사지 인근의 다른 유적에서도 같은 양상이 보인다. 봉업사에서 출토된 기와들과 동일한 명문기와나 평기와가 인근의 죽주산성, 망이산성, 장명사지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이것은 봉업사지가 진전사원으로 창건되고, 동시에 그 인근에서 축성과 불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종대 죽주 지역이 왕권 강화와 지방지배의 거점으로 재탄생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봉업사지가 그러한 변화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 광종이 집권하면서 태조대부터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광주의 왕규 세력은 제거되었고, 그 대신에 충주 유씨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죽산은 광주를 경계하며 충주를 연결하는 요충지였다. 왕규 세력은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잔존세력은 여전히 경계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웃한 죽산 박씨 세력은 충주 유씨와 함께 통일신라말부터 남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지방세력 중 하나였다. 광종이 죽산 지역과 죽산 박씨 세력을 장악하는 것은 경기 남부지역은 물론 충청 일대 지방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 긴요한 것이었다.
- 충주에서 죽산으로 연결되는 길목에는 송선사지가 있다. 이는 광종의 어머니

신명황후를 위한 원찰이었고 여기에 태조와 신명황후를 모신 영당도 세웠다. 여기에 더하여 죽주에 봉업사지를 세운 것이다. 충주에서 죽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의 핵심지대를 공고히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죽산 박씨세력을 비롯한 죽산의 지방세력이 광종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봉업사지는 불교를 활용한 지방 세력의 포섭 및 왕권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광종의 정책을 상징하는 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 경관적 가치

- 죽산은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지로 역사 및 고고 환경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또한 죽산의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지리적 요인과 함께 봉업사지의 건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봉업사는 죽산천에 접한 자연제방과 배후 습지를 메워서 조성하면서 지역의 토지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광종대 봉업사를 창건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사찰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등 도시 경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봉업사 남쪽으로 접한 죽산천변에 나루터가 있었던 조선시대 고지도를 통해 이 일대가 핵심적인 교통의 요지였던 것을 증명해주었다.
- 한편, 현재의 죽산 시내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사찰유적인 장명사지 · 장광사지 · 매곡사지 등을 통해 당시 도시 경관이 이 일대까지 확대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명사지는 고려 광종대 창건한 사찰로 봉업사지를 중심에 두고 사방으로 사찰을 배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봉업사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사찰이 밀집되어 있었다는 것은 봉업사지와 고려왕실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러한 죽산의 중세 도시 경관의 변화에 봉업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렇게 온전하게 경관이 남아 있는 죽산이 유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역사경관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봉업사지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

■ 학술적 가치

- 학술적 가치는 발굴조사를 통해 얻은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봉업사지는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해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사역의 범위와 구조적 특징 등이 불명확하다는 보완의견으로 인해 보류되었다. 이에 2023년에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점들을 모두 해소하였다. 특히,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의 외곽으로 담장이 확인되어 정확한 범위를 특정할 수 있었으며, 현재 확인된 이 범위는 고려시대 진전사원인 봉업사지의 사역 범위임이 명확하다.
- 봉업사지는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으로 이루어진 다원 체계로 구성되었다.
- 중심사역은 주불전구역과 승방으로 구분된다. 주불전구역에서는 중문지-오층

석탑-금당지-강당지 등으로 이루어진 1탑 1금당 양식으로 조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승방구역은 위계에 따라 수행공간과 생활공간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심사역은 사역의 범위와 구조, 건물지의 성격 및 특징 등이 모두 규명되었다.

- 진전영역은 중심사역의 서북쪽으로 이격하여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別院형식으로 외곽에 담장을 둘러 그 영역을 신성화하였는데, 개성 만월대, 파주 혜음원지 등 대표적인 고려시대 궁궐유적과의 고고학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다례의식에 사용되었던 유물들이 출토되어 진전으로서의 기능을 규명하는데 뒷받침하였다.
- 또한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 전하는 많은 사찰유적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구조적 특징이 명확히 규명된 유적은 안성 봉업사지가 유일하다. 따라서 봉업사지가 가진 학술적 가치는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성 봉업사지는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의 대표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남한에서 유일한 진전사원으로서의 상징성과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

■ 예술적 가치

- 예술적 가치는 봉업사지 오층석탑,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의 석조문화재 외에도 봉업사지 출토 유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고려시대 불교의례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의식구와 공양구를 제작하였는데, 청동북, 향로, 향완, 촛대 등 다양한 고려시대 불구가 수습되기도 하였다.
- 봉업사명 청동북은 고려 장인 사회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며, 청동북은 13세기 고려시대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양식으로 주목된다. 더불어 봉업사명 청동향로는 그 크기가 80cm의 대형이며, 일반적인 향완의 양식과는 다른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이 청동향로는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의 향로에서 고려시대의 향완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 이 외에도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60여 종이 넘는 명문기와에는 고려시대 특징적인 문양과 함께 연호 및 간지 등 절대연대가 남아 있어 평기와 편년 설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명, 지명, 인명 등도 확인되어 봉업사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금석문 자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또한 명문기와와 함께 공반 출토된 청자는 봉업사의 개창과 중창을 밝히는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또한 출토유물 중 용두, 치미, 치문, 귀면와 등이 다수의 마루장식기와가 확인되었다. 용마루 끝에 올리는 치문은 대략 11~12세기 고려사에 등장하여, 문헌기록의 실증적 고증에 있어 그 연구 가치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전기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치문은 화려한 마루장식기와와 함께 진전사원인 봉업사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따라서 봉업사지 오층석탑,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청동북, 청동향로 등은 그

역사적 ·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문화유산(보물)로 등재되었으며,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수많은 유물은 봉업사가 지닌 가치와 위상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안성 봉업사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고고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남한에서 유일한 고려시대 진전사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의 위상은 그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안성 봉업사지는 고려시대 진전사원으로서 대표성 · 상징성 · 희소성 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한 유적들과 비교했을 때 보편적인 탁월성이 있다. 이에 안성 봉업사지는 동일한 성격의 유적 중에서도 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한 자격은 충분히 갖추었으며,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이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면적 : 87필지, 47,504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죽산리	67-5	답	1,507	55		
2	죽산리	67-10	철	30	14		
3	죽산리	67-11	철	673	40		
4	죽산리	68-1	답	1,703	1,216		
5	죽산리	68-2	철	285	285		
6	죽산리	68-3	답	13	13		
7	죽산리	68-5	철	59	59		
8	죽산리	69-1	답	231	231		
9	죽산리	69-2	철	375	375		
10	죽산리	69-3	답	112	112		
11	죽산리	69-5	철	208	208		
12	죽산리	69-6	철	397	397		
13	죽산리	70-1	답	1,646	1,457		
14	죽산리	70-3	답	192	192		
15	죽산리	70-6	도	16	16		
16	죽산리	70-7	도	13	13		
17	죽산리	70-8	철	31	31		
18	죽산리	70-12	도	61	61		
19	죽산리	83-1	도	22	22		
20	죽산리	83-2	철	214	214		
21	죽산리	83-3	답	217	217		
22	죽산리	83-4	도	21	21		
23	죽산리	83-5	도	44	40		
24	죽산리	83-6	답	12	1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25	죽산리	83-7	도	182	181		
26	죽산리	83-8	도	16	16		
27	죽산리	84-1	도	136	136		
28	죽산리	84-2	철	50	50		
29	죽산리	84-3	답	109	109		
30	죽산리	84-4	철	19	19		
31	죽산리	140	답	2,774	1986		
32	죽산리	141-1	답	1,990	1,175		
33	죽산리	142	답	1,610	1,610		
34	죽산리	143	답	1,064	1,064		
35	죽산리	144	전	1,696	1,696		
36	죽산리	145-1	도	13	13		
37	죽산리	145-2	답	1,650	1,650		
38	죽산리	145-3	답	1,174	1,174		
39	죽산리	145-4	답	3,023	3,023		
40	죽산리	145-5	답	1,524	1,524		
41	죽산리	145-6	답	418	418		
42	죽산리	145-7	답	311	311		
43	죽산리	145-9	답	869	869		
44	죽산리	145-10	도	10	10		
45	죽산리	145-11	답	630	630		
46	죽산리	145-18	답	920	920		
47	죽산리	146-1	도	116	116		
48	죽산리	146-2	답	410	410		
49	죽산리	147	답	33	33		
50	죽산리	148-1	철	33	33		
51	죽산리	148-2	전	16	16		
52	죽산리	148-3	전	658	658		
53	죽산리	148-5	전	585	585		
54	죽산리	148-6	도	79	79		
55	죽산리	148-7	전	72	72		
56	죽산리	149-1	답	572	572		
57	죽산리	149-2	도	43	43		
58	죽산리	150-1	전	3,021	3,021		
59	죽산리	150-2	도	3	3		
60	죽산리	150-3	전	384	384		
61	죽산리	151-1	철	215	215		
62	죽산리	151-2	답	1,755	1,755		
63	죽산리	151-3	철	23	23		
64	죽산리	151-6	답	793	793		
65	죽산리	152	전	175	175		
66	죽산리	153-2	답	1,078	16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67	죽산리	153-3	답	1,580	350		
68	죽산리	153-4	답	1,458	77		
69	죽산리	154	답	1,848	55		
70	죽산리	155-2	답	1,445	345		
71	죽산리	155-3	답	1,643	1,643		
72	죽산리	155-5	도	73	73		
73	죽산리	172-1	답	789	214		
74	죽산리	173	진	863	863		
75	죽산리	177	답	1,610	1,610		
76	죽산리	177-1	답	1,025	1,025		
77	죽산리	178-1	답	3,084	1,033		
78	죽산리	178-2	답	3,216	2,134		
79	죽산리	178-5	답	2,393	366		
80	죽산리	178-6	답	1,739	1,670		
81	죽산리	178-7	답	1,286	591		
82	죽산리	196	답	2,159	419		
83	죽산리	197	답	1,174	92		
84	죽산리	728-8	도	281	251		
85	죽산리	729	구	25,537	305		
86	죽산리	736-2	구	1,560	964		
87	죽산리	743	도	390	390		
계				93,487	47,504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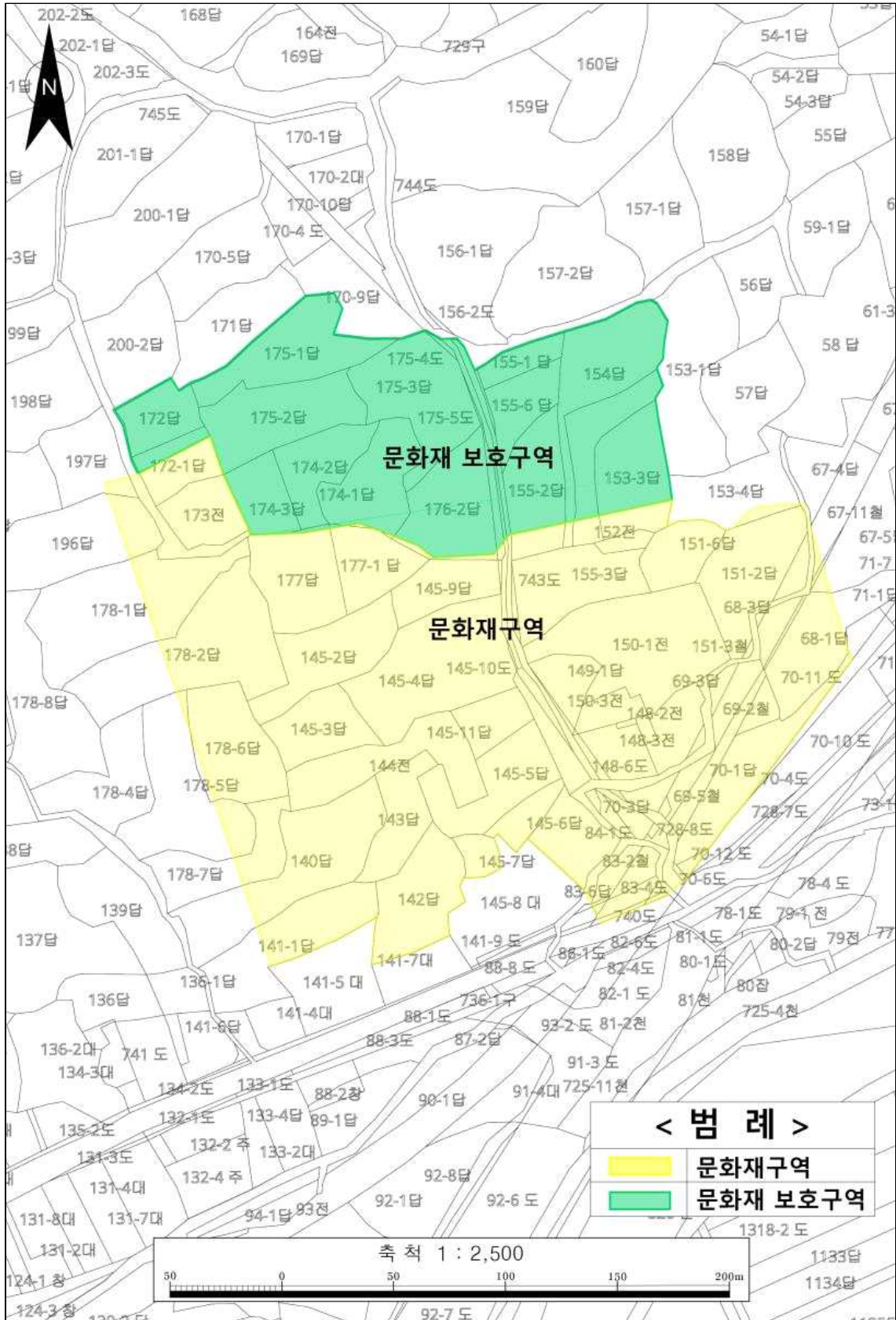
지정면적 : 19필지, 18,770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죽산리	153-2	답	1,078	923		
2	죽산리	153-3	답	1,580	1,230		
3	죽산리	154	답	1,848	1,793		
4	죽산리	155-1	답	444	444		
5	죽산리	155-2	답	1,445	1,100		
6	죽산리	155-4	도	13	13		
7	죽산리	155-6	답	839	839		
8	죽산리	172	답	778	778		
9	죽산리	172-1	답	789	575		
10	죽산리	174-1	답	1,438	1,438		
11	죽산리	174-2	답	1,088	1,088		
12	죽산리	174-3	답	783	783		
13	죽산리	175-1	답	1,785	1,785		
14	죽산리	175-2	답	1,921	1,921		
15	죽산리	175-3	답	2,076	2,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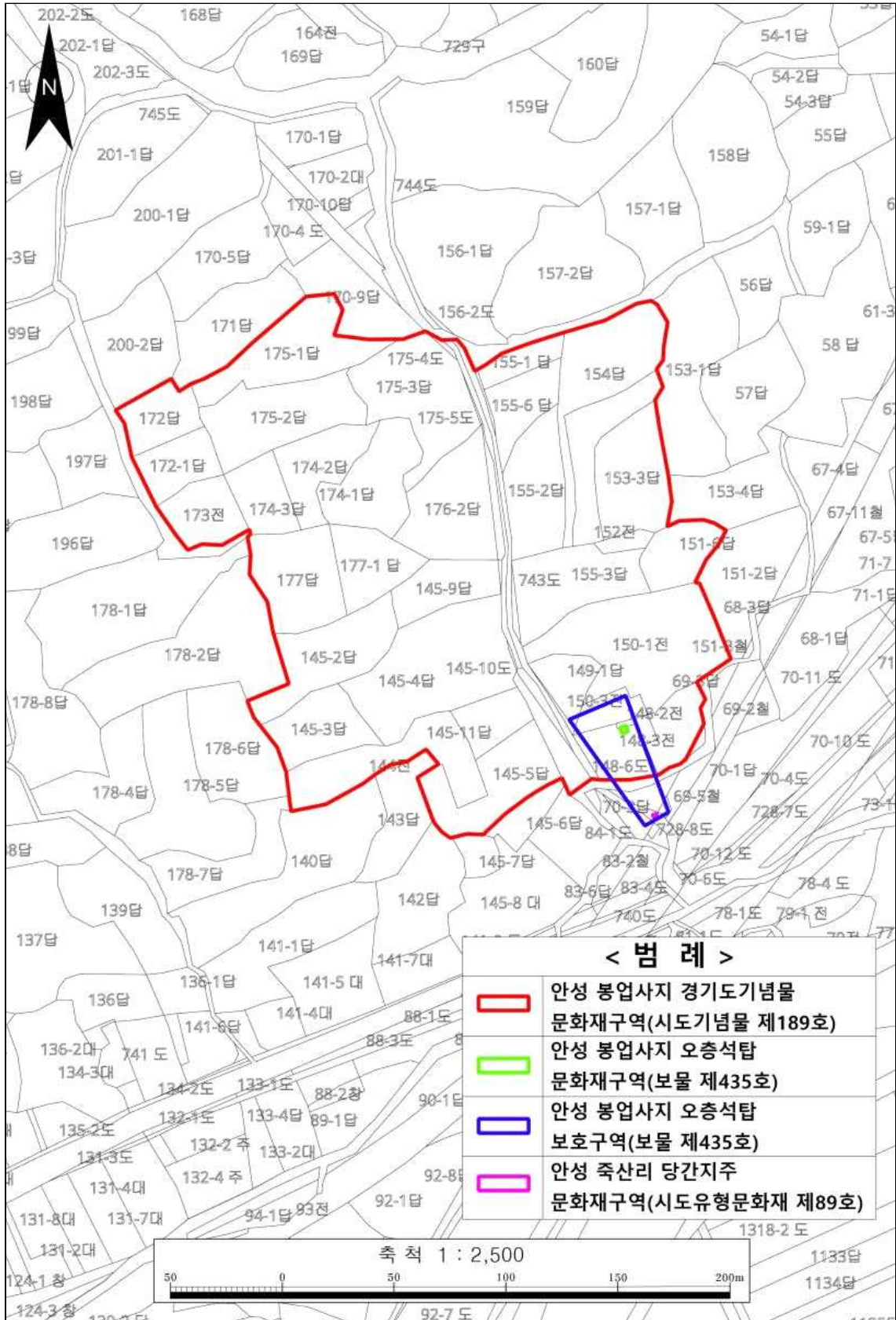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6	죽산리	175-4	도	30	30		
17	죽산리	175-5	도	10	10		
18	죽산리	176-1	도	185	185		
19	죽산리	176-2	답	1,759	1,759		
계				19,889	18,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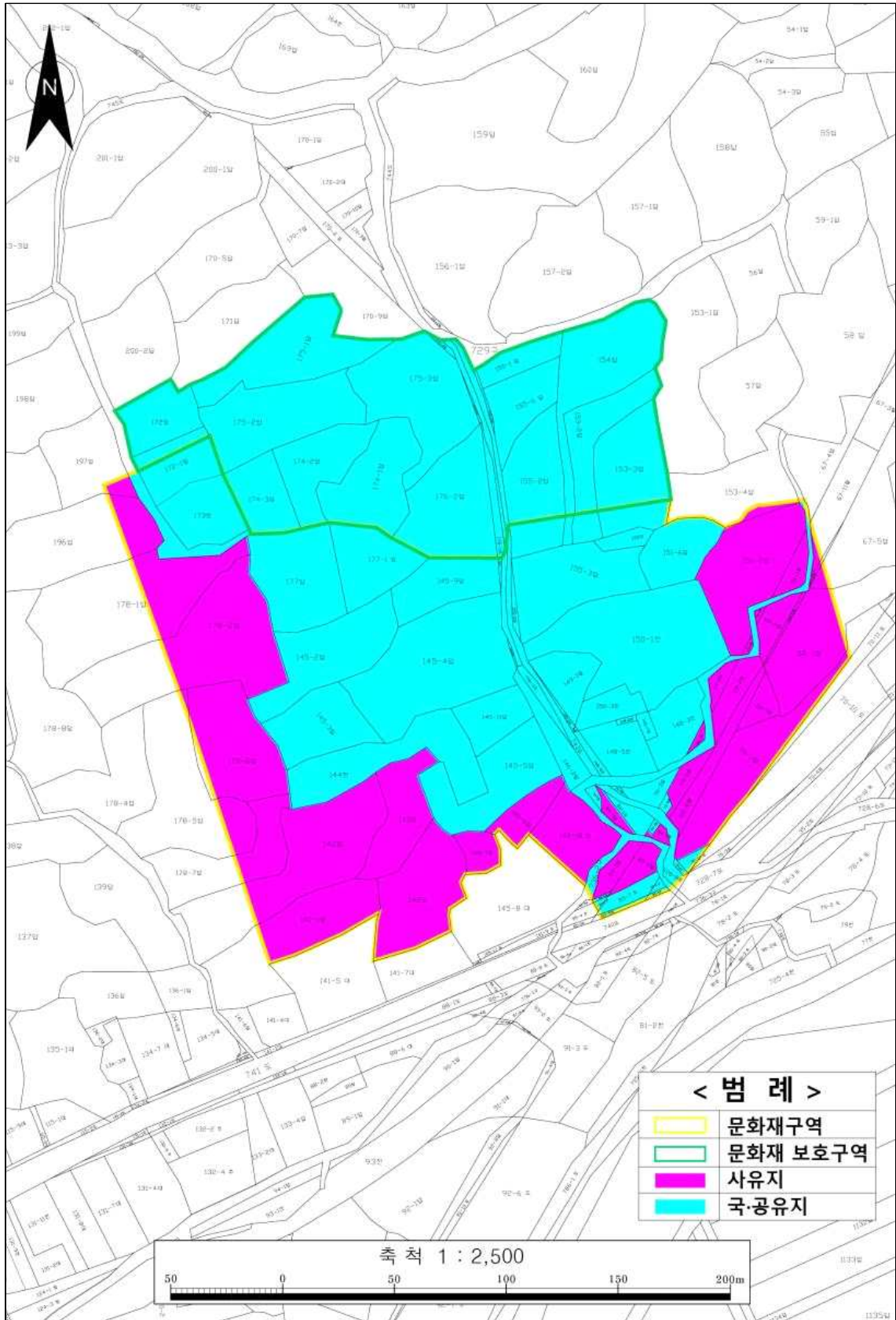
안성 봉업사지 수치지형도(1:5,000)



안성 봉업사지 지적도(1:2,500)



안성 봉업사지 현 문화재구역도(지적)



안성 봉업사지 지정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별 현황도



안성 봉업사지 중심사역 전체 평면도



오층석탑과 당간지주 전경



중심사역 주불전구역 전경(남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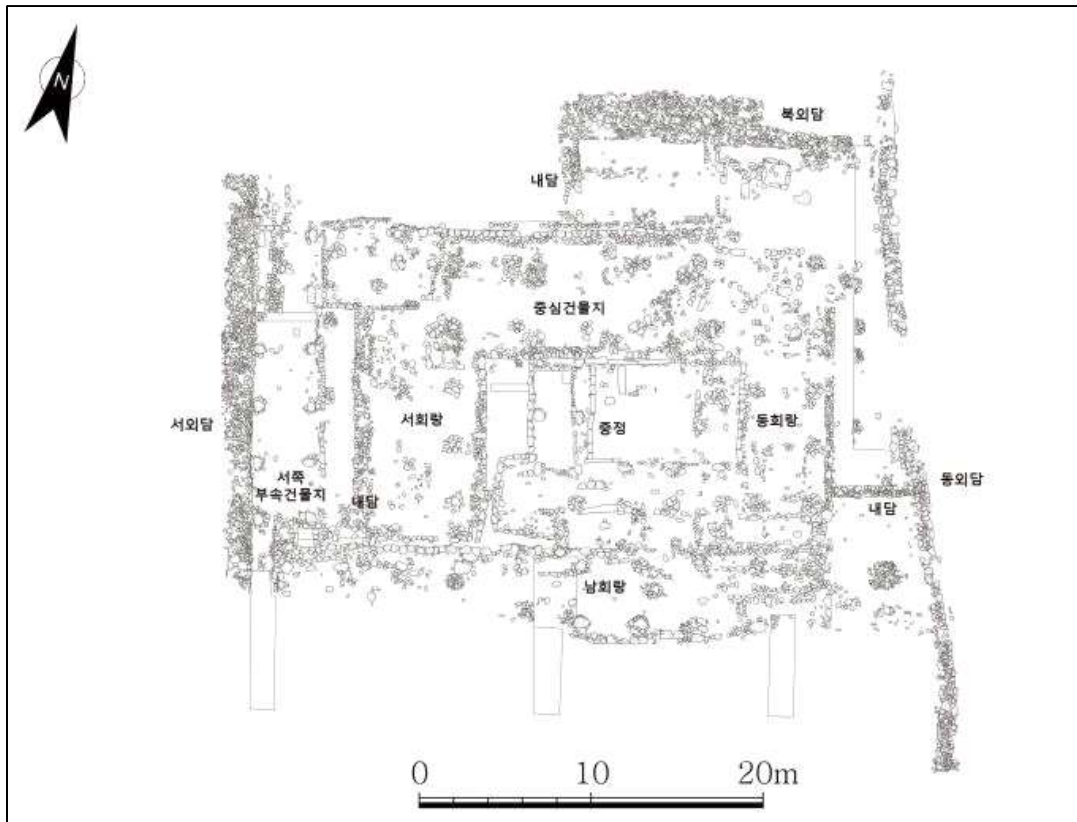
안성 봉업사지 중심영역 주불전구역 금당지와 답도 일대 전경(1997~1998)



승방구역 일대 전경(동쪽에서)



진전영역 전체 현황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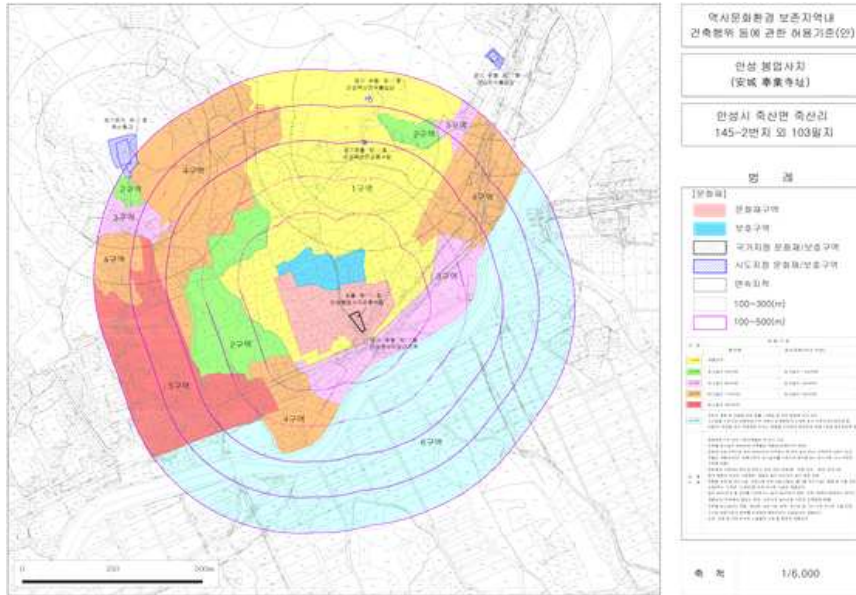
진전영역 전체 현황도



봉업사지 전체 현황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 의견 : 사지 전면 하천 건너 농경지의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 정도를 고려한 높이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성 봉업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32m 미만		
제6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제5구역 제외)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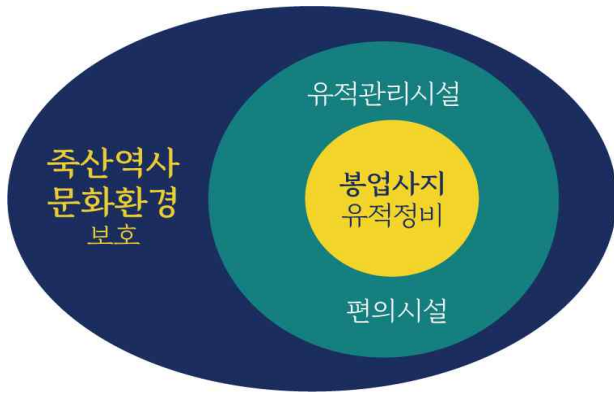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8-1. 기본방향

1) 보존정비 및 활용 계획 대상

- 보존정비 및 활용 계획대상지는 봉업사지 일원과 인접한 산지 및 하천을 중심으로 한 자연지형 그리고 봉업사지를 포함하는 죽산지역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포함하며, 계획 목적에 따라 봉업사지, 인근지역 그리고 죽산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봉업사지 지정구역 (보존지구 내)	봉업사지 주변지역 (보존지구 외곽 500m)	죽산 지역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존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유산 협의구역	죽산지역의 문화권 죽산역사문화 도시
유적정비	유적관리시설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 배치	장기적인 역사문화관광문화권 발전방향 제시



가. 봉업사지 지정구역

- ① 문화유산 지정구역으로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
- ② 문화유산구역과 보호구역은 현상변경이 어려운 지역
- ③ 유적의 성격과 관련하여 최대한 녹지 보존 및 자연환경 복원대상 지역

나. 봉업사지 주변지역

- ① 유적지와 생태환경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 등 시설지원이 가능한 지역
- ② 현상변경기준에 따른 문화재 협의가 필요한 지역
- ③ 정비·보존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시설 배치 및 합리적 방안이 필요한 지역

다. 죽산지역

- ① 봉업사지가 위치한 죽산면 일대 문화유적 및 생태환경의 유기적 보호
- ② 봉업사지 정비·보존 및 활용방안과 연계한 다각적인 계획이 필요한 지역
- ③ 안성시의 장기적 역사문화관광 발전방향이 모색되는 지역

2) 구역에 따른 종합정비계획의 전제

- 봉업사지와 그 주변지역의 문화유산가치의 보존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정비사업계획의 구상안을 마련한다.

가. 봉업사지 지정구역

- ① 봉업사지의 유적 훼손 최소화
- ② 유적의 영구적 보존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조속히 완결하여 장애요인 해결
- ③ 철저한 사실 고증을 통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 ④ 안성시 및 죽산지역의 문화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써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표출
- ⑤ 현 상태 유지의 수동적 보존개념에서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보호·활용하는 능동적 보존개념으로 전환

나. 봉업사지 주변지역

- ① 유적 이미지와 어울리는 주변지역의 미관 개선 노력
- ② 방문자 편의시설 및 유적 관리를 위한 공간 조성
- ③ 환경친화적 개념을 통한 유적 주변 개발계획 협의
- ④ 현실적인 문제 등 주민과의 관계설정을 정립하여 정비
- ⑤ 적극적 활용을 위한 장·단기프로그램 개발과 공간 마련

다. 죽산지역

- ① 죽산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유기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 ② 죽산의 대표유적으로 봉업사지와 부합되는 이미지 개선
- ③ 봉업사지를 활용한 장·단기적 프로그램 적극 개발 및 홍보
- ④ 죽산면 일대에 역사전통문화요소를 개발·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가능
- ⑤ 관리운영을 위한 투자예산은 지원예산 외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 발전에 부합 가능

3) 기능 설정 및 분배

가. 봉업사지 지정구역

- ① 유적 보존을 전제로 유적 내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화롭게 연결
- ② 유적 내 탐방로를 통한 각 시설물의 유기적 형성
- ③ 유적의 고유성격을 최대한 활용 : 봉업사지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유적을 일부 보존, 복원하여 역사적 체험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 조성

나. 봉업사지 주변지역

- ① 봉업사지의 이미지 및 접근성을 부각시키는 기능
- ② 전시·교육 등을 통해 유적의 기본적인 성격을 지원하는 기능
- ③ 유기적인 경관을 조성하여 문화유적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기능
- ④ 유적의 관리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기능 : 방문자센터 등 체험시설 마련

다. 죽산지역

- ① 봉업사지와 연계된 관광문화자원으로써 동적활동을 조성
- ② 교육·위락공간으로서의 기능 : 역사문화 및 생태관광도시조성

8-2. 기 추진 보존 정비 및 활용 실태

1) 발굴조사 및 GPR 지질탐사

- 봉업사지는 1997년 이후 5차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고려 광종대에 봉업사로 개창된 중심사역과 진전유구가 조사되어 왕실 진전사원으로서 고려시대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봉업사의 면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GPR 지질탐사를 통해 봉업사지의 자연지형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획득한 바 있다.

2) 지속적인 토지 매입

- 안성시는 2003년에 봉업사지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구역의 토지 상당 부분을 매입하였다. 문화재구역의 토지 매입을 통해 향후 봉업사지 문화재구역 내부를 보존·정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토지 소유주와의 불협화음이나 민원을 해결하고 보존정비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 현재 봉업사지의 문화재구역은 죽산리 145-2번지 외 48필지이며 면적은 43,314㎡에 달한다. 소유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다. 안성시는 도지정 문화재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문화재구역 상당 부분을 확보하였다.
- 2017년도에는 죽산리 145-9번지 외 8필지를 매입하였다. 매입면적은 13,056㎡, 취득가격은 1,543,752,000원(보상가액 산정기준)으로 재원은 도비 30%, 시비 70%로 조달하였다. 2019년에는 1필지를 매입하였다. 최근 들어서 도비와 시비 구성비율은 하위 지자체 부담이 더 확대된 추세를 보인다.
- 2023년 현재까지 매입된 사유지는 38,981㎡, 국유지 2,688㎡이며,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남아 있는 사유지의 면적은 24,973㎡이다. 향후 추가로 매입이 진행되어야 보존정비를 진행하는데 있어 용이할 것이다.

3)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07년에는 『봉업사지 종합정비 학술용역』¹⁾을 수립하였다. 계획년도는 2007년도부터 총 11개년으로 설정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였다. 2007년도 초에 제출된 『봉업사지 종합정비 학술용역』 계획대로 정비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면 발굴 20주년에 맞춰서 전시관 개관식이 열렸을 것이나, 당시 제시된 과업내용 가운데 토지 매입 외에는 대부분 계획으로 그쳤다.
- 단기는 3년(2007~2009), 중기는 5년(2010~2014), 장기는 3년(2015~2017)으로 기간을 설정하였는데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중·장기 방안 실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계획으로 보인다.
- 제시된 사업은 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복원(공원조성 포함), 유적지 정비, 전시관 건립, 전통문화 체험시설 건립 6개 분야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토지매입, 유적복원(공원조성 포함), 전시관 건립, 전통문화 체험시설 사업은 정부 예산이 집

1) 안성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봉업사지 종합정비 학술용역 보고서』, 2007.

중 투입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많은 시일이 지난 만큼 현 시점에 맞는 종합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4) 탐방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 개발 시도

(1) 영남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 현재 봉업사지를 대상으로 한 가장 활발한 활용은 영남길 탐방 프로그램이다.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인 신경준이 1770년 집필한 『도로고(道路考)』에 명시된 총 6개의 옛길(삼남로·의주로·영남로·강화루·경흥로·평해로)을 기반으로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 경기문화재단이 힘을 합쳐 조성한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삼남길(100km), 의주길(56.5km), 영남길(116km)이 구성되어 역사·경관·민속체험이 가능하다.¹⁾



영남길 제 8구간 ‘죽주산성길’과 함께하는 문화자원 탐방(경기옛길 청년기자단)

- 봉업사지 지점은 영남길 8구간으로 이어져 영남길 9구간이 이어진다. 죽주산성길로 명명된 제8길은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황새울마을에서 비봉산, 죽주산성, 매산리 석불입상, 봉업사 당간지주, 죽산면 소재지로 이어지는 13km로 전체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탐방은 죽주산성→매산리 석불입상→봉업사지→죽산성지까지 이어지는 순으로 경기옛길 역사탐방이 진행되었다.

(2) 죽주산성 일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실행계획

- 이 연구는 관광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 역사자원들의 숨은 이야기 거리들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 논리를 적용시켜서 안성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명품관광지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대상지는 역사, 환경자원이 풍부한 죽주산성으로 역사, 문화, 환경이 어우러지는 국내 대표 스토리텔링의 명소로 브랜드화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²⁾
- 죽주산성과 인근지역 콘텐츠 개발에 국한된 연구였으나 연구 종료 시점에 추가된 제언은 이번 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제기된 제언을 요약하면, 첫째 죽주산성 단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안성시의 특화된 문화유산인 미륵불, 봉업사, 칠장사를 연계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제기하였다. 둘째 지역의 역사, 문화유적, 유물, 설화 등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고려시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안성 죽산지역에 고려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고려문화단지’와 같은 헤리티지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³⁾

1)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인용.

2) 안성시·InterCulture, 『죽주산성 일원 히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실행계획』, 2014, 9쪽.

8-3. 봉업사지 현황

1) 봉업사지 주변 현황

- 도로에 비해 약간 지대가 낮은 봉업사지는 겨울은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나 다른 계절에는 수목으로 인해 사지의 위치를 인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봉업사지 주변 경작지에 식재된 유실수는 외부에서 당간지주와 오층석탑조차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안성시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토지매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오층석탑과 당간지주 주변은 유실수 외에도 경작용 비닐하우스, 불법건축물 등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경관은 물론 유구 보존과 관람환경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지 주변 노후 불법건축물



당간지주 주변 불법건축물

2) 봉업사지 관람 환경¹⁾

(1) 관람객의 유형과 연령

- 봉업사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수를 파악할 기초자료는 현재 전혀 없다. 안성시에서 발간한 『안성통계연보』에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를 수치로 밝히고 있으나 집계된 관광지는 유료관광지이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봉업사지를 방문했을 수 있으나 별도 집계가 어려워 봉업사지 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 어떤 유형의 관람객이 봉업사지를 방문하는지, 연령층의 분포나 방문 목적 등을 살필만한 자료 역시 파악이 어렵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인물사진은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되어 있는 편이며, 대체로 유적지 답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주류를 이룬다.

(2) 관람코스

- 봉업사지를 방문한 관람객으로서는 당간지주와 오층석탑 2개소 외에 관람할 대상이 지상에 없으므로 관람순서는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봉업사지 내에서의 관람코스는 단조롭다. 당간지주와 오층석탑을 관람한 뒤 대체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수순을 밟는 편이다.

3) 『죽주산성 일원 히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실행계획 연구용역』, 196쪽에서 고려문화단지에 포괄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고려성, 고려 죽주산성, 고려 관청, 고려 고분군, 고려 생활마을, 고려역사문화단지(고려시대 문화예술 상설공연, 고려시대 3D 체험존, 고려시대 불교미술 전시,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고려생활마을(고려시대 거리 재현, 미륵길), 고려시대 축제 등의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1) 봉업사지 관람 환경은 공식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뉴스 기사,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 일부 봉업사지 방문을 전후하여 죽주산성을 관람코스로 잡는 관람객도 있으나 두 유적 사이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순차로 방문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봉업사지→죽주산성으로 이동은 차량 외에 도보(옛길)도 가능하나 걸어서 죽주산성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기획된 프로그램인 경기옛길 답사 외에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3) 체류시간

- 봉업사지를 찾은 관람객이 얼마나 현장에 머무르는가를 수치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소개된 자료를 보면 대체로 15분에서 30분 범위로 추정된다. 답사코스를 계획하여 이동하는 답사팀은 답사자료에 이곳에 머무는 시간을 15분가량 할당한 경우도 보인다. 이들 역시 관람코스는 사역 내에서는 입구에 있는 당간지주, 이어서 오층석탑을 살피는 과정으로 답사를 마치고 있다.

(4) 관람객 편의시설

- 현재 봉업사지 내에는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무하다.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유형이 다양하다. 매점, 기념품 판매점, 화장실, 벤치, 그늘막, 주차장 등이 그 대상인데 문화유산별로 설치된 편의시설은 차이를 보인다. 관람객이 얼마나 방문하는가는 이러한 시설 설치와 규모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 하지만 봉업사지를 방문하는 인원을 집계한 통계는 조사된 적이 없고, 관람객의 체류시간 역시 대체로 짧은 편이어서 편의시설 부족의 불편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체류시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최소한의 기본요건인 편의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5) 정보의 제공

- 봉업사지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매체는 문화유산안내판이 유일하다. 봉업사지 안에 있는 지정문화재에는 전면부에 소형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영남길 안내판도 입구에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봉업사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만한 정보제공용 안내판은 설치되지 않았다.
- 안내판은 유적을 관람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제공 시설로서 기능을 구분하여 주변 관광안내판, 종합 유적안내판, 세부 유적 안내판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편이나 봉업사지는 이에 비하면 안내판 설치는 빈약한 편이다. 특히 그간의 발굴조사나 유구, 유물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어 사지의 전모나 역사적 가치를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봉업사지 오층석탑 안내판



영남길 안내판

3) 죽산리의 관광 여건

- 죽산리는 안성시 내에서도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풍부한 역사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죽산리에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 체육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차 공간 부족, 휴식시설 부족 등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¹⁾
- 죽산지역은 2012년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 2014년 10월 한국전력 지중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2015년부터 죽산면내 지중화, 가로경관개선, 다목적 광장 조성, 죽산 역사문화공원 재정비, 송문주 장군 동상 건립 등 4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 죽산리가 지닌 또 다른 관광요소는 죽산시장을 들 수 있다. 많이 쇠퇴했지만 현재 죽산시장은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으로 약 40여명의 상인들이 장날 좌판을 열고 있으며, 5일장 내 죽산상가 2동 11개의 점포를 포함 모두 50여개의 점포가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장날은 매월 5, 10, 15, 20, 25, 30일이다.
- 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서울, 천안, 충주, 부천, 고양, 이천, 광혜원 등 비교적 근거리지만 도내, 충청도, 서울로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운행횟수는 차이가 있으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봉업사지 관람객 또는 관광객 입장에서 보자면 죽산리의 관광여건은 전혀 다른 입장으로 다가온다. 죽산리의 음식점, 숙박, 휴게시설 등은 부족한 편이며 관광객이 흥미를 끌 만한 특화된 장점은 그다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8-4. 단계별 보존정비·활용방안

1) 매장문화재 조사계획 수립

- 봉업사지는 2023년까지 총 5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로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을 중심으로 사역의 범위가 규명되었으며, 그 밖에 주변부지 및 3층석탑 주변 등에 대해서도 유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사역은 중문지부터 강당지까지 남-북 일직선상에 고려시대 일탑식 가람배치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진전영역은 봉업사가 고려시대 진전사원임을 증명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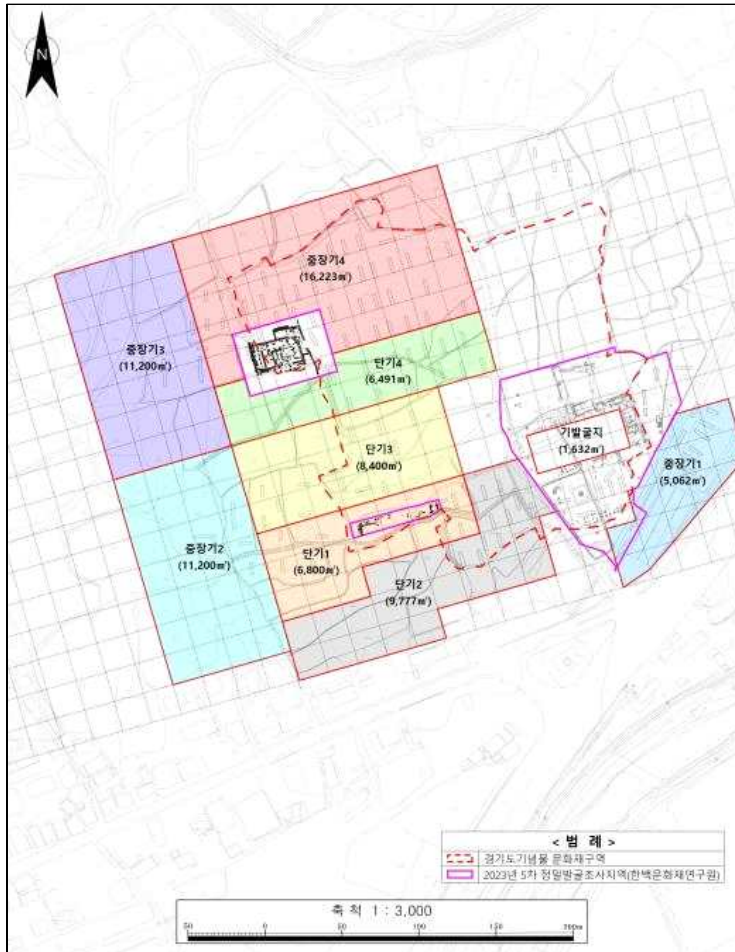
1) 안성시, 『고도(古都) 죽산의 역사문화 정체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 개선 사업』, 56쪽.

써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사역의 전체적인 현황과 성격, 구조 및 특징 등은 충분히 밝혀졌다. 다만 향후 정비복원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 이에 그동안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 분포를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발굴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기발굴지의 경우에는 향후 정비활용을 위한 3D데이터 등의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추가 발굴의 필요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단기계획은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 중심사역과 진전영역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과 사역의 전면부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 단기 1단계는 중심사역의 서쪽 일대에 해당한다. 5차 발굴조사에서 건물지의 흔적을 확인한 바 있으며, 그 주변으로 확장하여 전체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단기 2단계는 중심사역의 서남쪽 일대에 해당한다. 지역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1950~60년대까지도 이 일대에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봉업사 사역 내에 경관시설인 연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 단기 3 · 4단계는 중심사역의 서쪽이며, 진전영역의 남쪽에 해당한다. 봉업사지 전체 사역 내에서 두 영역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여 향후 보존정비 관련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중장기계획은 총 5단계로 구분하였다. 사역의 외곽 일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역 뿐만 아니라 주변의 변화상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장기 1단계는 중심사역의 남동쪽 일대이다. 오층석탑 전면부 중문지의 동쪽으로 연결되는 회랑이 이어지는 곳으로 사역의 전면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부 교통로에서 경내로 출입하는 동선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장기 2~4단계는 사역의 외곽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변 경관이나 부속시설, 그리고 현재 사역 내 동선과 마을길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중장기 5단계는 중심사역의 기발굴지에 해당한다. 향후 유적의 정비활용을 위해서 기존에 확보된 2D자료 뿐만 아니라 3D 자료 등 최신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폭넓은 범위 내에서 정비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단기				중장기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발굴지	
위치	중심사역		진전영역		중심사역	진전영역			중심사역	-
	서쪽	서남쪽	남쪽	남동쪽	남동쪽	남서쪽	서쪽	북쪽	중앙	-
면적 (㎡)	6,800	9,777	8,400	6,491	5,062	11,200	11,200	16,223	1,632	76,785
비용 (천원)	814,880	1,025,860	929,709	787,545	670,461	1,121,813	1,121,813	1,471,481	341,297	8,284,859

(문화재청 고시 제2023-1호 매장문화재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안성 봉업사지 단계별 조사계획도

2) 보존 정비·활용방안 수립

- 봉업사지의 유적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첫 번째 보존적 측면으로, 유적의 보호 및 보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발굴성가로 복원이 되지 않는 유적은 무리하게 복원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활용적 측면이다. 발굴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비 및 활용구역을 설정하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경작지는 녹지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요소를 배가시킨다.
- 봉업사지의 정비계획의 기본은 발굴자료를 기초로 구역을 설정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진전지, 중심사역의 성격이 명확히 확인된 건물지 등은 탐방로를 구성하고 유구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유구가 없거나 심하게 훼손된 지역, 불명확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된 지점 등은 자연 녹지 중심의 경관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유적지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배치와 함께 보행로 및 기타 편의시설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단기적, 단기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최단기 정비 활용방안 : 최소한의 시설 마련과 프로그램 운영

□ 주변 경관 정비

- 우선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및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를 중심으로 관람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 유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람로 주변을 정리하고 안내판 시설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식재된 나무는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땅속에 보존된 유구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지속적인 경작활동 및 비가림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

□ 그늘막과 벤치 설치

- 현재 봉업사지에는 관람객과 안내자가 혹서기를 피할 시설이 전무하다. 관람객의 체류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안내자가 대기하거나 설명을 들을 경우는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가 된다.
- 그늘막의 기능은 단순히 햇볕을 피하는 시설이 아니라 봉업사지 안에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되었음을 알리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간헐, 소규모라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늘막과 벤치 같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람자의 방문욕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 안성시 관내 행사 확대 운영: 관람 프로그램 운영과 공모사업 응모

구분	세부분류	목 표 설 정	방 법
학 생	대학·대학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 강좌 및 세미나 자원봉사자 및 인턴 참여	회원제, 홈페이지 관리 인턴십 운영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워크시트를 이용한 참여 교과목과의 연계 교내 특별활동 활용 전통문화 체험시설 이용	홈페이지 관리 학교 연계방안
	유치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워크시트를 이용한 참여 전통문화 체험시설 이용	유치원과 연계방안
일반인	안성시 문화시설 이용자	전시관 프로그램과 연계 참여	회원제, 홈페이지 관리 문화시설 연계방안
	가족단위 이용자	가족 체험 프로그램 자녀를 위한 부모용 워크시트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인, 주부, 노인	강좌 프로그램 참여 구성원별 답사 프로그램 참여	회원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답사 운영
전문인	관련연구단체	강좌 및 세미나 참여 전시관 및 연구기관, 대학 연계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연구기관·대학 연계방안
	교사	교육프로그램 수강 또는 연구	전문 프로그램 운영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 방안

□ 관람객 안내·탐방 프로그램 운영

- 안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프로그램을 봉업사지까지 확장하는 방안이다. 기존 운영 프로그램에 봉업사지를 포함시켜 시범으로 운영하며, 시범 운영기간에 관람객의 반응을 조사하는 동시에 이들을 통한 홍보효과를 얻고, 차후 정기화 방안을 마련한다.
- 최근 유적 자체를 현장으로 활용하거나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탐방·체험프로그램 위주의 활성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변화의 방향이다. 안성시와 죽산면(주민 포함)이 주도하여 봉업사지와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응모하도록 한다. 공모 사업의 기획은 문화유산에 집중하되 죽산면 일대의 농촌체험을 혼합한 경쟁력 있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문화재청 공모사업 응모

-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의 공모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봉업사지는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재야행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그 간 광역시와 지역 대도시 중심으로 펼쳐졌던 문화재야행 사업이 중소도시와 마을 중심형 소도시로도 한층 더 확대되어 더 많은 지역민이 야행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관심을 둘 만하다.
- 실제로 죽산지역은 「2019 죽산면 문화재 야행」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봉업사지와 죽산면 일대 문화재를 연계한 탐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 주변 고려시대 유적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로 봉업사지 및 죽산지역의 역사도시 이미지 구축
 - 봉업사지 활용한 다양한 상품 제작 및 배포
 - 유튜브, SNS, 페이스북 등 대중매체 동원하여 봉업사지 홍보
 - 인터넷 방문 및 안내 홈페이지 제작
 - 팸플렛, 리플렛 등 기획홍보물을 유적 주변에 상시 배치하여 정보제공

(2) 단기 : 사역에 대한 기초정보 제공과 임시 편의시설 마련

□ 안내판 설치

- 봉업사지에 마련할 안내판은 외부에서 봉업사지로 유도하는 표지와 봉업사지 내부 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진입유도 안내판은 국도변 갈래길과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한다. 사역 내 설치할 안내판은 전체 안내판, 개별 문화유산

안내판, 각 건물지별 안내판, 건물지와 건물지 사이 동선 연결용으로 세분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안내 유형	방 법	효 과
단순 안내	간단한 표식으로 그 위치를 알림	사유지 등 지역 제반 행정문제를 고려하여 위치만을 표시해 유적의 존재 공개
개괄 안내	문헌자료 및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유적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법
입체 안내	개괄 안내를 포함하여 조사결과를 사진도면 자료를 포함한 잔존현상 및 고유의 가치까지 복원한 입체적 안내	유적의 중요성 및 고유 가치까지 공개하여 활용 및 교육 효과 발생

안내판의 종류

□ 관람로 조성

- 국내에 정비된 사지 관람코스는 크게 코스형과 자율형으로 분류된다. 코스형은 관람하는 순서와 동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며, 유구 보존에도 유리하지만 관람에 제한적이며, 안내판이나 해설, 유인물 제공이 소홀하면 의미가 반감되는 단점이 있다. 자율형은 관람자 스스로 코스를 설정하므로 원하는 위치나 유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구를 훼손할 가능성과 체계적 이해에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다. 관람로는 건물지 정비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가 있으나 건물지 정비를 단기간에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관람로를 조성하여 사역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최근 확충되는 추세인 관람데크는 관람자의 접근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유구를 보호하는 효과를 인정받아왔으나 관람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멀리서 관망해도 이해될 만큼 유구가 분명한 사지와 달리 봉업사지 잔존유구는 하부구조만 남아 있어 상부 구조를 유추하기 어렵다. 결국 근접 관람방식이 효과가 높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봉업사지 내부에 유구가 없는 부분으로 관람로를 개설해 유구를 보존하며 관람환경도 개선 가능하다.

구분	시 설 물	배 치 계 획	시 설 내 용
편의 시설	화장실	유적지 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	조립식 간이화장실, 남·녀, 장애인과 어린이로 구분
	의자	산책로, 전망지점 등	나무의자, 간략한 형태의 디자인
	긴급전화기	유적 산책로 중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	응급 상황 대비
	식음료수대	사람의 활동이 많은 지점에 설치	이동식 식음료수대
	가로등	주진입부와 산책로 : 50m 단위	친환경적이고 단순한 디자인
	쓰레기통	시설밀집지역 등 5개소	친환경디자인
안내 시설	방향표지판	탐방로의 갈림길에 코스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설치	나무재질의 단순한 디자인
	전시설명	시설집중지역 및 발굴지점 등	용도마다 다른 나무 재질 디자인
	공원시설 배치도	주차장과 유적 진입부 등	유적과 주변일대에 대한 위치 조감도
보호 시설	담장시설	복원된 유적이 있거나 꼭 관리가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	친환경적이면서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
	CCTV	주요 관리 시설	가로등 및 주요시설과 연계 설치

유적지 내 주요 필요시설

□ 유적 정비

- 봉업사지는 발굴 조사 완료 후 복토됨에 따라 지상에서 유구의 흔적이나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비를 실시하여 시각적인 정보 제공은 필요하다. 보통 건물지를 정비하는 기법은 복토, 복토 위 재현, 유구노출, 유구 표시, 유구수복 등으로 실행 과정에서 유구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징을 드러내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 이런 방식은 건물 구조나 규모를 이해하기에 밋밋하다는 단점이 지적되지만 기둥 일부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세우는 입체적 접근은 거의 시도되지 않는다. 왜곡의 우려 때문이지만 적어도 초석에 남은 기둥자리는 기둥 바닥면 크기를 반영하므로 기둥 단면 크기를 추론하기에 부족한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봉업사지 건물지는 일부 치석된 초석과 기단용 석재가 잔존하기는 하나 대부분은 자연석으로 사용하여 적심과 기단, 아궁이, 배수로 등을 만들었고 잔존 높이도 낮아 유구를 노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 그러나 봉업사지의 기발굴지는 복토된 이후 발굴조사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20여년이 경과하였다. 일부는 경작지로 계속 사용되었으므로 하부 유구의 상태 확인은 필요하다. 현 상태로 계속 복토를 유지한다 해도 기발굴지의 유구 상태 점검은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 임시 편의·정보제공 시설

- 단기에 설치하는 시설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로서 추후 본격 정비 과정에서 제거하기 용이하고 봉업사지 보존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시설을 살펴보면 최근 이동과 철거가

순쉬운 컨테이너는 다양한 기능을 대신하는 시설로 주목받고 있어 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컨테이너는 기성품이지만 부자재 활용이 쉬워 다양한 공간과 입면 구성이 가능하여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화장실 기능도 컨테이너에 수용 가능하다.

- 우선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편의시설, 관리자의 사무실, 화장실을 갖추고 관람객이 증가할 경우 이 시설을 중심으로 확장도 가능하다.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화장실과 임시홍보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중·장기 단계에서도 전시관 보다는 방문자센터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임시홍보관, 방문자센터 단계에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학술적 가치가 진작된다면 전문시설 마련은 자연스럽게 대두될 문제이므로 건립 방향만 예시를 들어 제안한 것이다. 봉업사지 역시 혜음원지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임시시설로 출발하여 점차 방문자센터로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파주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이천 양녕대군 역사관

□ 주차시설 확보

- 봉업사지 방문객은 당간지주 앞이나 도로가에 주차하고 유적지를 관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로는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어 농기계 통행과 얽혀 불편함이 드러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편이긴 해도 대체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봉업사지 인근에 주차시설 확보는 우선 고려대상이다.
- 대개의 유적지 관람환경은 주차장, 안내시설과 전시관, 유적 순으로 상황에 맞게 배치됨으로써 기본 구성을 이루고 있다. 관람동선의 출발은 대개 주차장에서 출발하고 있을 정도로 필수 시설임은 분명하다.

(3) 중기 :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 『문화재보호법』 제6조 ①항에 문화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에 종합정비 학술연구를 시행한 봉업사지는 이에 근거하여 2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주기 5년은 최소요건이므로 재수립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토대로 작성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봉업

사지는 사찰 단일유적이 아니라 죽주산성과 연계된 특성을 지녔으며, 사역은 현 봉업사지 주변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방안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봉업사지 사역 내부는 되도록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한 보존·정비영역으로 계획하고, 매산리사지 즉 미륵당 일대에 존재했던 태평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면 이 일대는 지역경제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선시대의 원은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활용의 범위도 숙박, 음식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능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을 이루면 아무리 멀다 해도 사람들은 애써 그곳을 방문한다. 반면 접근성이 좋다고 해도 매력 없는 장소를, 유적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죽산면 그 가운데서도 죽산리는 ‘봉업사지 광역권’과 체험을 결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문화유산에 국한된 단조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죽산면(죽산리에 집중), 봉업사지와 죽주산성, 태평원과 영남길을 연계하는 ‘봉업사지 광역권’은 스토리텔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사·문화·불교·인물·민속·농촌체험 등 여러 분야 콘텐츠를 두루 갖추고 있다. 콘텐츠는 성장동력인 동시에 파급효과 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봉업사지 광역권’을 무대로 보존·체험·활용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체류시간은 증가하고 숙박까지 확장되는 답사, 여행으로 활성화될 여지는 충분하므로 이를 고려한 과업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9. 종합의견

- 안성 봉업사지는 기록에 의하면, 고려사(高麗史)에 광종이 병자년 죽주 봉업사에서 태조의 진영을 알현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봉업사는 비봉산 아래에 있으며, 고려시대 태조의 진영을 안치하였다. 공민왕 12년2월 청주에서 출발한 어가가 이 절에 들러 진전을 알현하였는데 지금은 단지 석탑이 남아 있다.” 는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태조 왕건의 어진을 모신 진전사원임을 알 수 있다.**
- 안성 봉업사지는 탑이 잔존하여 절터인 것은 알고 있었으며, 지역명을 붙여 죽산리사지로 불리어 왔으나, 1966년 오층석탑 주변에서 향로와 향완, 청동북이 발견되었고 이 유물에 봉업사(奉業寺)라고 적혀있는 것을 파악하게 되어 이곳이 봉업사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 안성의 죽산은 삼국시대부터 남북으로는 서울-청주, 동서로는 충주-평택의 교통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특히 죽주는 내륙과 해안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태조 왕건때부터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죽주지방을** 거점으로, 광종 때에는 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 통치의 거점으로서 죽주를 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증거는 죽주 지역 주변

에 고려시대 창건된 사찰들(죽산리 사지, 매산리사지, 장명사지, 칠장사 등등)과 망이산성, 죽주산성 등은 경기도 남부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안성 봉업사지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는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 2004년, 2018년, 2022년의 5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탑을 중심으로 한 주불전 영역, 이와 연접하여 승방구역, 북서측의 추정 진전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불전 영역을 남측부터 중문지-오층석탑-금당지-강당지로 연결되는 1탑1금당의 전형적인 고려시대 배치형태를 띄고 있으며, 출토 유물로 비정할 때, 고려 광종때 창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 진전 영역은 주불전의 북서측에 위치하며, 중심건물을 동서 회랑이 두르고 중심건물 남측으로 남회랑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건물군 전체를 두르는 외곽 담장이 있어 독특하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출토 유물에서도 준풍4년(광종4년, 963년), 건덕5년(광종18년, 967년)이 확인되어 고려 광종때, 중심사역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음을 부여주고 있다.

- 진전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파주 혜음원지와 개성 만월대의 사례를 통해 보면, 파주 혜음원지는 내담을 둘러 영역을 구분한다는 점, 동서 회랑을 두르고 중심 영역 남측에 회랑을 두고 외곽으로 내담을 둘러 독립적인 특별한 영역을 만드는 점이 유사하며, 개성 만월대의 경령전의 사례에서도 진전영역인 경령전이 북서측에 위치하며, 중심건물지를 회랑이 두르고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구성된 점을 볼 때, 충분히 진전 영역으로 추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양하다.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봉업사지 오층석탑,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이 있으며, 기와류는 11~12세기를 주 편년으로 하는 치미 ,용두, 암키와·수키와(연화문 당초문, 귀목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기와류 중에 중요한 명문화가 상당수 출토되어 준풍(峻豐), 건덕(乾德), 태평흥국(太平興國), 흥국(興國)등이 출토되어 봉업사지의 주요 창건연대가 10~11세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찰의 위세를 알 수 있는 의례용구로 청동북(봉업사 명 각인되어 있음), 청동 향로(보물), 향완, 청동 쌍사자 광명대, 금제 사리병과 납석제 외향아리 등은 당시 봉업사지의 위세가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와같이 안성 봉업사지는 기록, 입지, 특징, 발굴현황,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시대 사찰의 특징과 진전 사원으로서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성 동외동 유적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고성 동외동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3차 회의('24.03.13.)에서 「고성 동외동 유적」 사적 지정을 검토한 사항으로, 30일간 지정 예고(문화재청 공고 제2024-168호 /2024.03.25.~04.23.) 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임
- 사적 지정예고 결과 : 접수의견 1건
 - 제출자 : 김○○
 - 건의내용 : 고성군에서 문화재구역인 249번지에 교회 재건축 건의
 - 고성군 의견
 - 고성중앙교회(목사 김○○)에서 교회 재건축 건의한 249번지는 1974년 경남도문화재 '고성 동외동 유적'으로 지정된 곳으로, 2009.10.23. 한○○ (김○○ 배우자)가 취득당시 이미 문화재구역이었음.
 - 현재 도지정문화재구역인 249번지 교회 재건축은 불가하며 고성군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후 지속적인 발굴조사 계획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동외동 유적(固城 東外洞 遺蹟, 경남기념물)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404-1 일원
- (3) 지정범위 : 문화재구역 54필지 30,633㎡(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4) 관리단체(안) : 고성군수
- (5) 신청사유
 - 2~6세기 삼한·삼국(가야)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생활유적으로 패총, 주거지, 환호, 성토구조물 등 복합적인 생활유적으로 가치가 높음.

라. 참고사항

(1) 사적 지정 추진경과

-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1974.12.28.) : 「고성 동외동 패총」 (18,916㎡)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23.10.06.)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사적지정 신청서 제출(경상남도→문화재청 : 2023.10.23.)
-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3.11.14.)
- 현지조사 의견에 따른 보완요청(문화재청→경남, 고성 : 2023.11.24.)
- 보완자료 제출(2024.01.09.)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검토(2024.03.13.)

(2) 현지조사의견('23.11.14./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동외동유적은 기원전후의 월삼국시대부터 6세기 전반의 가야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된 소가야 최고지배층의 생활유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임.
- 동외동유적의 국가지정(사적)신청보고서에는 고자국 시기부터 소가야까지 지속적으로 조영된 유적으로서 환호, 패총, 제철유적, 성토 구조물에 의한 대지 확보 및 방어취락, 다양한 외래(계) 유물의 출토에 의한 대외교류 등 유적의 조성 기간과 성격, 구성, 출토 유물 등에 의한 특성들을 통한 동외동유적의 가치가 제시되었으나
- 동외동유적의 지정학적 위치, 주변에 분포된 유적들과의 관계, 소가야의 지배층 고분군인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동외동 유적과의 상관관계를 통한 소가야 중심 정치세력 집단의 성장 과정과 성격, 동외동유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유적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고성 동외동유적의 가치가 실증적이고 논리적으로 지정신청 보고서에 제시되어야 함.
- 동외동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설정 제시되어야 함.

(3) 보완자료에 대한 의견('24.01.14./문화재위원 ○○○)

- 고성 동외동유적은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삼한의 고자국에서 삼국의 소가야문화권의 중심세력으로서의 성장 및 발전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 교류네트워크의 성격과 거점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임.
- 고성 동외동유적과 비슷한 시기와 성격의 유적으로서 해남 군곡리패총, 창원 성산패총, 김해 봉황대유적, 부산 동래패총 등이 분포하는데, 유적의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례로는 김해 봉황대유적과 해남

군곡리패총, 그리고 고성 동외동유적이다.

- 김해 봉황대유적과 해남 군곡리패총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학술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유적의 구체적인 성격과 함께 가치를 상승시켜 가고 있음.
- 위의 유적들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고성 동외동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고대 남해안 일대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의 성립 및 성장 과정과 교류네트워크의 복원, 그리고 유적의 보호와 함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성 동외동유적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사적 지정 신청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지정 신청 보고서에 동외동유적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외동패총이 반복적으로 표기된 곳은 동외동유적으로 통일되어야 함.
- 고성 동외동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안)(653쪽)의 내용은 사적지정 후, 별도의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제시되어야 하지만, 지정 신청 보고서에는 현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 기준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4) 보완자료에 대한 의견('24.01.22./문화재위원 ○○○)

- 동외동유적은 고자국 시기부터 소가야까지 지속적으로 조영된 유적으로서 환호, 패총, 제철유적, 성토 구조물에 의한 대지 확보 및 방어취락, 다양한 외래(계) 유물의 출토에 의한 대외교류 등 유적의 조성 기간과 성격, 구성, 출토 유물 등에 의한 특성들을 통한 동외동유적의 가치가 제시되었으며, 현지조사시 요구한 자료보완에 대하여 많은 보충을 하였으나,
- 동외동유적은 당시의 생활유적에 속한다. 그럼 당대의 매장유적은 어디에 존재하며, 이후 고성 송학동고분군 조성시의 생활유적은 어디인지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가야의 왕성은 어디이며, 동 유적과 왕성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 고성송학동고분군의 조성 역시 외곽에서부터 중심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 고분군의 생활유적은 어디인지?
 - 동외동유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존의 송학동패총과 고성읍성 내의 삼한시대 유적 등과의 연결성은 무엇인가.
 - 동외동유적의 하단 외부에서 일부 확인된 소가야토기 사용집단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을 동 유적의 마지막 활용 집단으로 볼 수 있는가.
 - 동 유적이 지니는 성격에서 만립산토성과 남산토성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그리고 김해 봉황동이나 창원 성산패총의 경우 패총, 환호 외에도 성곽 유적이 같은 구릉상에 시기차를 두고 결합되는 양상인데 동외동유적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3.11.14 (화) 대상 문화재 고성 동외동 유적(固城 東外洞 遺蹟)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고고학	○○대학교	교수
	○○○	성곽	문화재위원회	위원
	○○○	건축사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고성 동외동 유적(固城 東外洞 遺蹟)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 보호구역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11월 14일</p> <p>제출자 : 문화재위원 ○○○ · ○○○ 문화재전문위원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문화재청장 귀하</p>				

고성 동외동 유적(固城 東外洞 遺蹟)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11.14(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경남 고성 동외동에 위치하는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의 복합 유적으로서 지역명+유적명인 “고성 동외동 유적(固城 東外洞 遺蹟)”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고성읍의 중심부 동쪽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현지형을 큰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 동외동유적은 고성읍 중심지에서 동쪽에 치우쳐 위치하는 해발 약 32.5m의 저구릉으로, 頂部는 평면 원형의 편평한 지형을 이룬다.
- 동외동유적이 위치한 구릉은 얼핏 독립구릉처럼 보이지만, 실은 남산에서 이어지는 능선에서 다시 뻗어나온 낮은 구릉이다. 명칭은 ‘동외리패총’, ‘고성패총’, ‘당산패총’이라고도 불린다. 패총이 위치하는 이 구릉을 지역에서는 ‘堂山’이라 불리는데, 과거에는 음력 선달그믐에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었다.
- 고성읍은 주지하다시피 해안을 沿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촌락이 바다를 끼고 조성되어 있거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외동 유적의 주변으로는 낮은 충적평야가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고, 동외동유적이 해안선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위치한다. 하지만 해안선이 현재보다 훨씬 상승했던 고대에는 현재의 고성읍의 평야지대인 동외리, 죽계리, 대평리 지역은 농경을 할 수 없는 저지대 또는 바다였을 것이다.
- 고성읍은 현재의 대가저수지 축조 이전까지만 해도 治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가 많을 때에는 침수되거나 뺄 층을 이루었다고 한다. 동외동유적에서 출토된 패각 중에는 海水性貝殼이 많고, 海獸骨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경관은 바다 혹은 潮汐의 영향을 받는 연안의 구릉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이 연안을 따라 형성된 크고 작은 灣은 良港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 현재 도기념물로 지정된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 중위까지는 텃밭 등의 밭경작지로 이용중이며, 그 외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구릉 말단부는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로확장공사 및 주택 건축으로 지속적으로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동외동패총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일본인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2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때는 유적의 확인과 짧은 일정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유물수습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후 도기념물 지정범위 내에는 1969·197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3차례 조사,¹⁾ 1995년도에 국립진주박물관의 기획조사, 1974년의 동아대학교박물관의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동외동패총 문화재지정범위 주변으로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주택 및 상가건설, 도로개설 등으로 소규모의 표본조사 및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는 문화재지정범위 및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조사현황이다.

동외동패총 조사일람

연번	조사년도	조사내용	보고서명	조사기관
1	1914	동외동패총 확인	보고서 미간	朝鮮總督府 鳥居龍藏
2	1917	1914년 조사에서 확인했던 동외동패총을 발굴조사하고, 유물을 수습함. 이때 수남리패총을 함께 발굴조사함.	보고서 미간	朝鮮總督府 鳥居龍藏
3	1969 ~ 1970	김해토기시대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구릉의 서남사면을 조사. 표토와 생토층을 제외한 4개층(표토(경작토, 갈색부식토)-흑갈색점질토(1층)-갈색부식토+패각층(2층)-흑색사질점토(3층)-4층-생토)의 포함층에서 다량의 토기편이 확인. 트렌치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음.	『固城貝塚』	國立中央 博物館
4	1974	천도교 교당건설공사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긴급조사를 실시. 옹관묘·석관묘·토광묘 및 야철지가 확인. 유물은 청동검과 두식·광형동모·漢鏡 및 印文陶·弥生土器 등의 외래계유물이 출토. 그 외 삼한~삼국시대의 토기편과 골각기가 출토.	『上老大島』 「固城東外洞貝塚」	東亞大學校 博物館
5	1995	동외동패총 정상부의 평탄지와 사면을 가,나,다지구로 나누어 발굴하여, 정상부에 제사시설, 동사면에 居住域, 남서사면에 묘역 및 철생산시설, 폐기장[패총]이 존재하였음을 파악하고, 일정한 공간구획이 있었음을 확인.	『固城東外洞遺蹟』	國立晉州 博物館
6	2003	조사지점은 동외동패총 구릉의 북사면 끝자락인데, 절토되어 원지형이 훼손되어 문화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음.	「固城 東外里 貝塚 周邊 建築行爲에 對한 文化財 試掘調査」略報告書	慶南發展 研究院 歷史文化 센터
7	2004 ~ 2005	고성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부지 시·발굴조사. 삼국시대 수혈3기와 고상건물지1	『固城地域 調査』 「固城 東外里遺蹟」	慶南考古學 研究所

1) 제1·2차 조사는 트렌치조사, 제3차 조사는 주변 지표조사.

연번	조사년도	조사내용	보고서명	조사기관
		동, 조선시대 수혈1기가 조사되어, 동외동패총의 동외동패총의 구릉 말단부까지 유적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함.	發掘調査 報告書」	
8	2014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발조성으로 절토되어 이미 원지형이 훼손되었다.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고성읍 동외리 228-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9	2014	현 발경작층 아래에서 바로 암반생토층 확인되었으며,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고성읍 동외리 23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10	2016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따른 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구상유구와 패각층, 조선시대 논층이 확인되었으며, 수습조사하여 완료.	「고성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경상문화재연구원
11	2016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따른 시굴조사에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고성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경상문화재연구원
12	2017	주차장 조성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고성 동외리 238-2번지 주차장 조성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경상문화재연구원
13	2017	주차장 조성공사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수혈 6기, 구상유구 4기, 주혈18개가 조사.	「고성 동외리 (247) 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해동문화재연구원
14	2018	동외리 249번지에서 제철 관련 추정제철로와 철재편·노벽편 확인함.	「고성 동외동패총(경상남도기념물 제26호) 복원정비를 위한 기본조사 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15	2021	동외리 255-1번지 일원. 조사결과 삼한~삼국시대 패총 1기, 주거지 19동, 환호 2기, 수혈 11기, 구상유구 2기, 주혈 2기, 조선시대 무덤 1기가 확인됨.	「고성 동외동패총(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16	2022	삼한시대 대지조성층 1개소를 비롯해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1동, 고상건물지 12동, 수혈 26기, 구상유구 1기, 패총 1기 등이 확인	「고성 동외동패총(253-2번지 일원)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43-2번지 일원 조사결과, 1-3·4·5·6·7트렌치에서 삼국시대 주혈, 2-1·2트렌치에서 삼국시대 수혈 2기 확인.	「고성 동외동패총 정상부 범위 확인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57-5번지외9필지. 조사결과, 1-1·3·4트렌치에서 삼국시대 수혈 3기, 2-1·2트렌치에서 삼한~삼국시대 구 2기, 3-1트렌	「고성 동외동패총 정상부 범위 확인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연번	조사년도	조사내용	보고서명	조사기관
		치에서 삼한~삼국시대 구 2기가 확인.		
17	202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406번지 외 1필지	「고성 동외동패총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5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경상문화재연구원

※ 연번3~5·14는 사적지정범위내 조사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동외동 유적의 보편적 가치

고성지역에는 삼국시대 소가야 지배층의 고분군으로서 송학동고분군, 울대리고분군, 연당리고분군, 내산리고분군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고분군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위계와 문화적 특징이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나마 동외동유적에 대한 수희의 조사는 변한~가야기 고성지역의 생활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성을 포함한 서부 경남 해안지역의 가야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동외동유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쪽의 마산만에서 서쪽으로 여수반도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에 고성 동외동유적에 버금갈 수 있는 삼국시대 생활유적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되었듯이 동외동 유적은 다양한 성격의 생활 유구들과 함께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이 유구와 유물들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지면, 변한·가야사회의 생활문화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변한에서 가야로의 전환 시기와 발전 양상을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지역은 소가야연맹 또는 소가야문화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송학동고분군과 더불어 동외동유적은 가장 핵심적인 유산이다.

송학동고분군은 과거의 개발에 의해 부분적으로 사라졌고, 특정 시기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동외동유적 또한 주변 일대가 개발되어 변한~가야기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는 다수의 자료들이 유존되어 있다. 특히 외피가 불분명하여 확인되지 않는 목관묘와 목곽묘의 조사가 전무하여 변한 및 가야 전기의 양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동외동유적에서 확인된 자료들은 이를 메울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소가야권에서 조사된 생활유적들은 사천 봉계리 유적, 진주 안간리와 평거동 유적 등 주거지와 경작유구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취락들을 통해 변한 및 소가야 정치체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구명하기에는 고성 동외동유적에 미치지 못한다.

동외동 유적에는 구릉 정상부의 의례시설, 광장, 주거군, 그리고 이 시설들을 감싸고 있는 방어시설로서의 환호 등은 변한과 가야기 지배층의 존재 및 위상을 표상하는 모습일 수 있다. 남해안 일대에 분포한 동 시기의 생활유적인 김해 봉황동 유적에는 주거군, 창고군, 접안시설 등이 확인되어 구야국~금관가야 지배층의 공간으로서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창원 성산패총은 한 차례의 발굴조사만 실시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운 현실이다. 김해 봉황동유적을 제외하면, 변한~가야 정치체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생활유적은 고성 동외동유적뿐이다.

○ 동외동유적의 독특성

- 삼한·삼국시대 남해안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동외동 유적은 소가야의 前史인 古自國부터 이 지역에서 대외활동이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삼한·삼국시대 고성지역을 상징하는 유적일 뿐만 아니라 해양교류를 통해 성장한 해상세력의 모습과 당시의 해양네트워크를 밝힐 수 있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 최고지배층의 해외 교역품이 확인된 중요한 유적

고성 동외동 유적에서 출토된 기원 2~3세기의 외래계 유물로는 야요이계 토기, 광형동모, 왕망의 신나라 화폐인 ‘대천오십’, 한경(漢鏡), 낙랑계 가락바퀴, 수레 부속구인 개궁모(蓋弓帽), 조문청동기(鳥文靑銅器) 등을 비롯하여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청동 허리띠 고리 장식 등이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 왜는 물론 중국, 낙랑과의 해상교역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 다중방어시설로서의 환호와 대지조성층이 확인된 유적

동외동 유적은 구릉성 지형을 이용하면서 삭토하거나 성토하여 段을 지게 하여 계단식 방어시설을 만들고 환호로 둘러싼 高地性 마을 유적이다. 그 잔존상태가 양호한 서기 2~4세기에 걸친 남해안지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 고자국의 시작과 소가야 멸망까지 연결된 고성지역의 생활문화 중심유적

아울러 정상부의 아랫단에서 확인된 대규모의 취락에서는 4세기대의 소가야 유물과 함께 대지조성층, 제철 관련 유구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유적은 변한~가야기 고성지역의 생활문화 중심유적의 독특성도 가지고 있다.

고성 동외동 유적에서 출토된 기원 2~3세기의 야요이계 토기들은 경기도 가평 대성리유적 출토품을 제외하면, 한반도, 특히 남해안 일대에서 그 수량은 매우 희소하다. 현재까지 남해안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 이 시기의 외래(계) 자료가 희소한 점을 고려하면, 동외동 유적 출토 외래계 자료들은 이 시기의 해양 교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 시기는 한반도 남부 지역의 변한 소국들이 주변의 집단들을 통합하여 보다 큰 정치체로 발전하는 전환기에 해당된다. 이 전환기에 있어 대외교류가 정치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이를 구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동외동 유적에 다수 존재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유적은 변한~가야기 고성지역의 생활문화 중심유적의 독특성도 가지고 있다. 기원 1~3세기 남해안을 무대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과 집단의 해양 교류의 모습, 특히 녹도 등 도서지역의 해양 국제교류의 중개기지 역할이 쇠퇴하고, 그 대안으로서 연안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동외동 유적에 잘 드러나는 점은 이 시기 해양 국제교류의 변화 실상 이해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가

야 양식 토기의 성립과 확산 등의 양상 해명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주요 문화유산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동외동 유적은 경상남도 기념물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남해안의 핵심 유산으로 보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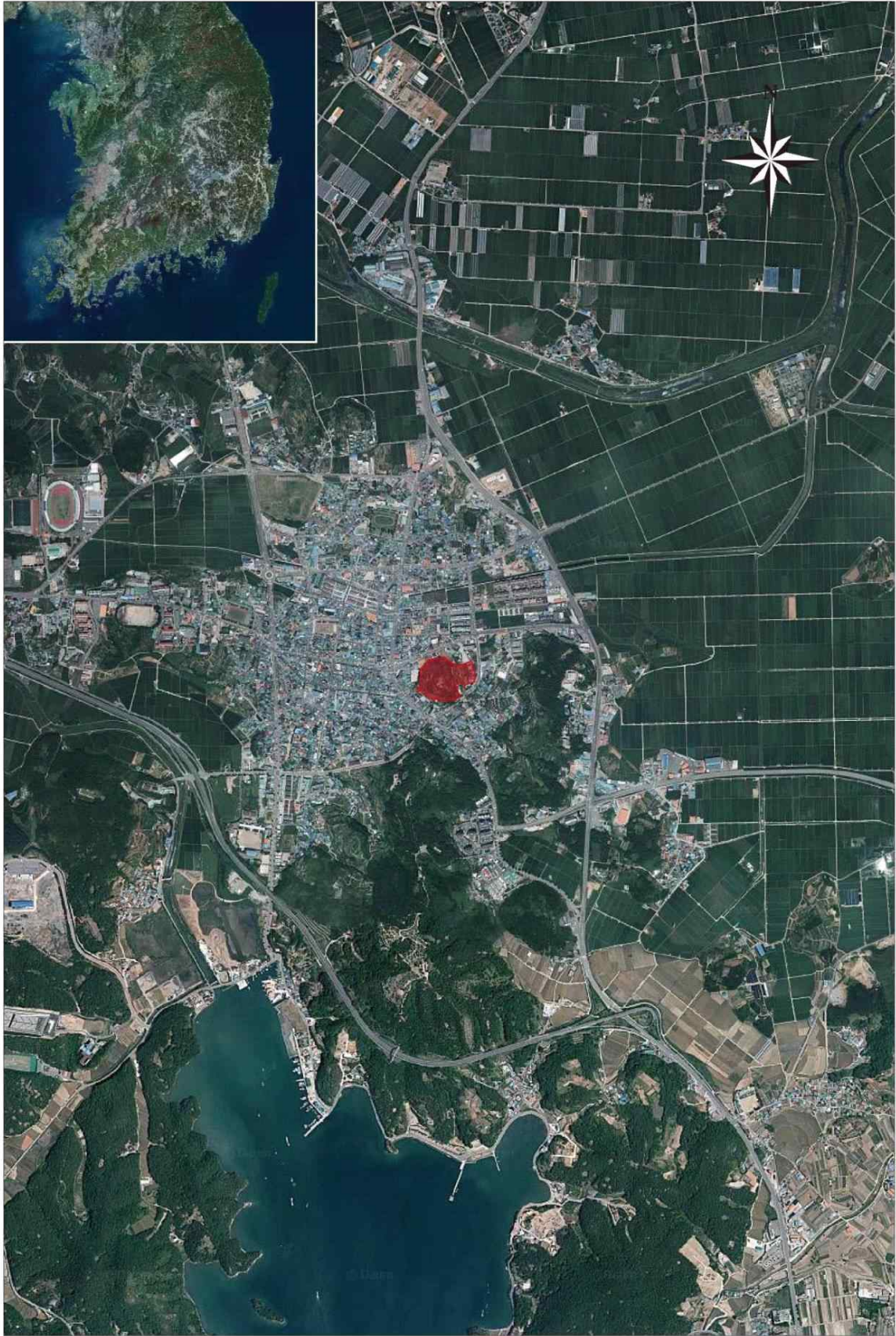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면적 : 54필지 30,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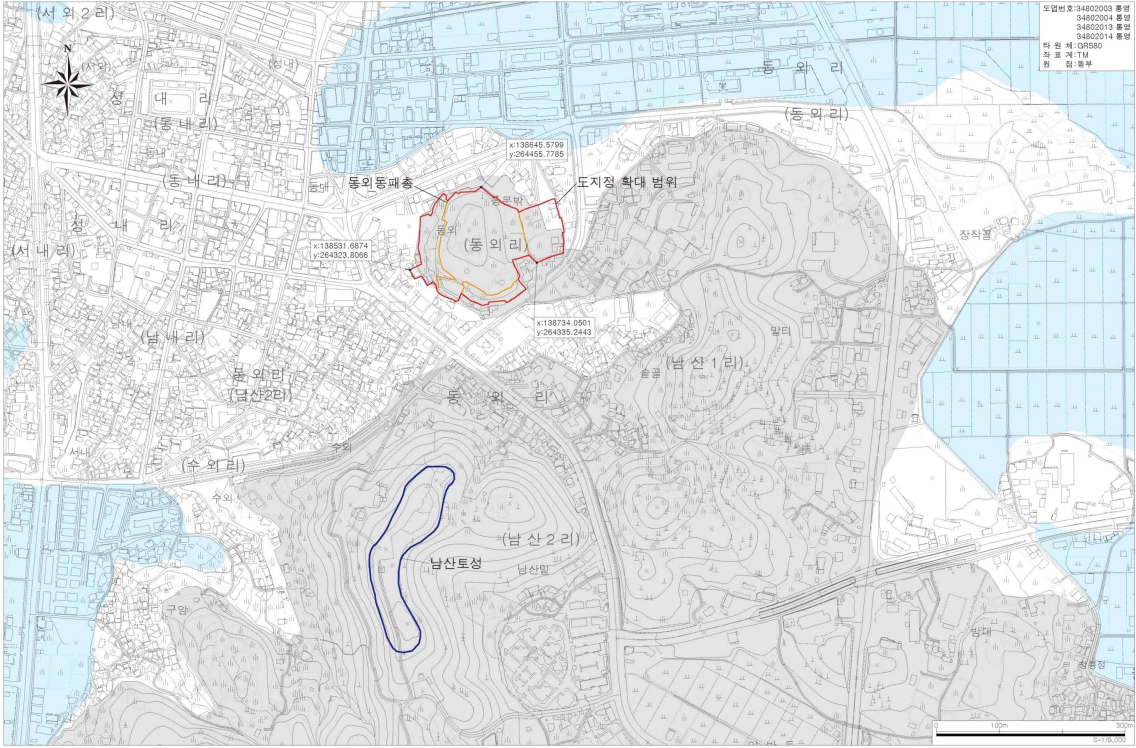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고성읍 동외리	255-2	전	1,038	1,038		
2	고성읍 동외리	237	묘지	1,382	1,382		
3	고성읍 동외리	255-1	전	721	721		
4	고성읍 동외리	254-1	전	1,686	1,686		
5	고성읍 동외리	255-3	전	843	843		
6	고성읍 동외리	253-1	전	1,415	1,415		
7	고성읍 동외리	254-2	전	780	780		
8	고성읍 동외리	254-3	전	856	856		
9	고성읍 동외리	253-2	전	1,498	1,498		
10	고성읍 동외리	252	전	757	757		
11	고성읍 동외리	249	전	1,183	1,183		
12	고성읍 동외리	250-2	묘지	165	165		
13	고성읍 동외리	250-1	전	1,901	1,901		
14	고성읍 동외리	251	전	2,198	2,198		
15	고성읍 동외리	404-1	전	1,187	1,187		
16	고성읍 동외리	406	전	1,306	1,306		
17	고성읍 동외리	255-4	전	479	479		
18	고성읍 동외리	255-6	전	112	112		

19	고성읍 동외리	257-1	전	165	165		
20	고성읍 동외리	257-2	전	165	165		
21	고성읍 동외리	257-3	전	175	175		
22	고성읍 동외리	257-5	전	330	330		
23	고성읍 동외리	255-5	전	1,084	1,084		
24	고성읍 동외리	257-4	전	556	556		
25	고성읍 동외리	256	전	902	902		
26	고성읍 동외리	260-2	대	319	319		
27	고성읍 동외리	260-3	도로	32	32		
28	고성읍 동외리	404-5	잡	152	152		
29	고성읍 동외리	404-6	전	162	162		
30	고성읍 동외리	405	묘지	912	912		
31	고성읍 동외리	407	전	241	241		
32	고성읍 동외리	408	전	549	549		
33	고성읍 동외리	408-2	전	226	226		
34	고성읍 동외리	244	전	495	495		
35	고성읍 동외리	244-1	전	372	372		
36	고성읍 동외리	244-2	전	376	376		
37	고성읍 동외리	243	전	1,021	1,021		
38	고성읍 동외리	243-2	전	458	458		
39	고성읍 동외리	243-3	전	104	104		
40	고성읍 동외리	242-7	전	1	1		
41	고성읍 동외리	242-3	전	96	96		
42	고성읍 동외리	242-4	전	385	385		

43	고성읍 동외리	242-6	전	27	27		
44	고성읍 동외리	243-4	전	21	21		
45	고성읍 동외리	243-1	전	39	39		
46	고성읍 동외리	245	전	262	262		
47	고성읍 동외리	245-1	전	244	244		
48	고성읍 동외리	245-2	전	244	244		
49	고성읍 동외리	245-3	도	93	93		
50	고성읍 동외리	241-7	도	72	72		
51	고성읍 동외리	242-5	전	225	225		
52	고성읍 동외리	242-2	대	225	225		
53	고성읍 동외리	242-1	대	226	226		
54	고성읍 동외리	242	전	170	170		
계				30,633	30,633		



동외동 유적 위성사진(■ :동외동 유적)





동외동 유적과 고성읍 전경(1) 및 동외동 유적 주변 전경(2)

(2018.6.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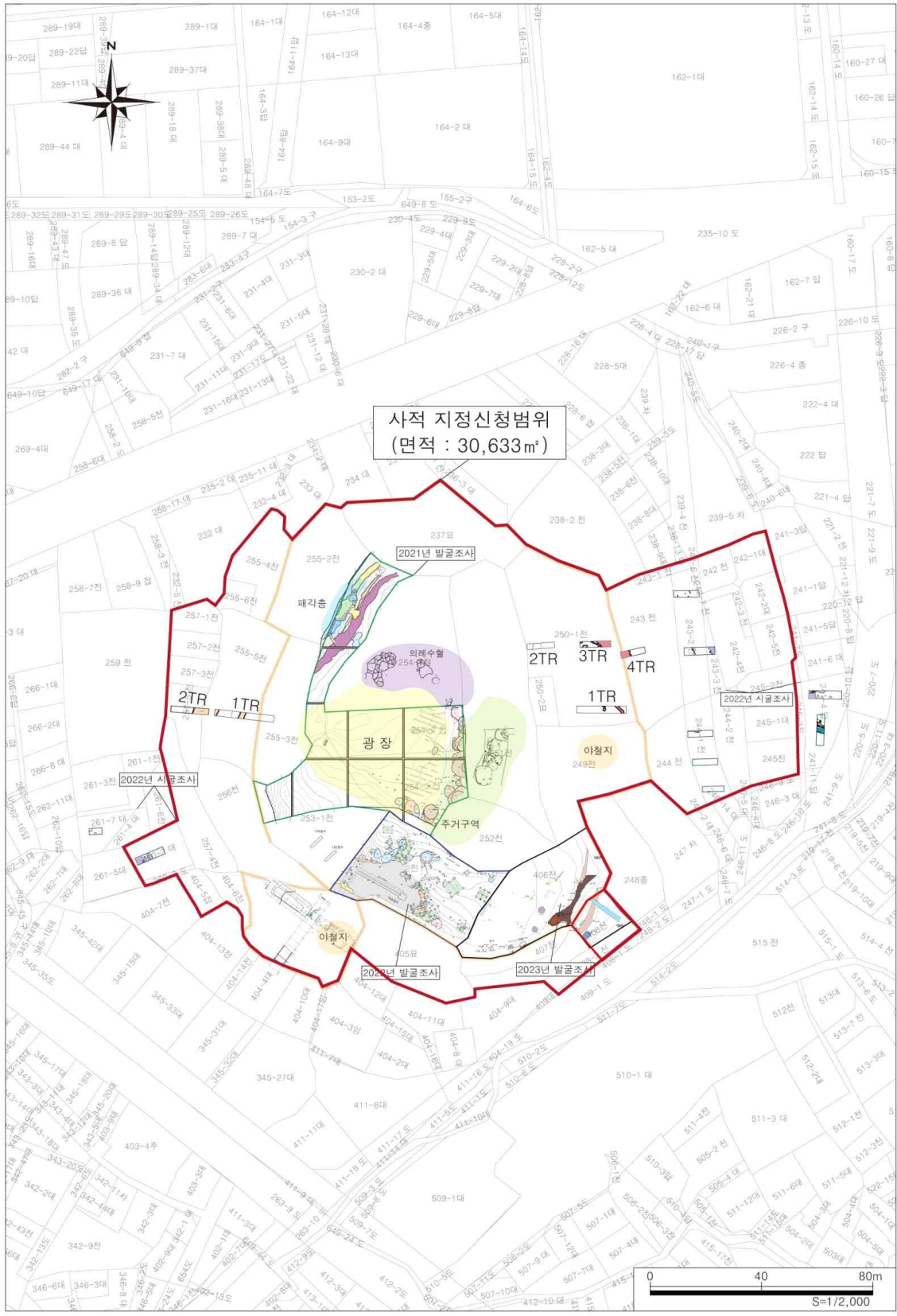
동외동 유적 공중사진1(1:서쪽에서, 2:남쪽에서)

(2018.6. 촬영)



동외동 유적 공중사진2(1:동쪽에서, 2:북쪽에서)

(2018.6. 촬영)



고성 동의동유적 사적지정 신청 범위 - 지적도



2021년도 발굴조사 공중사진(삼강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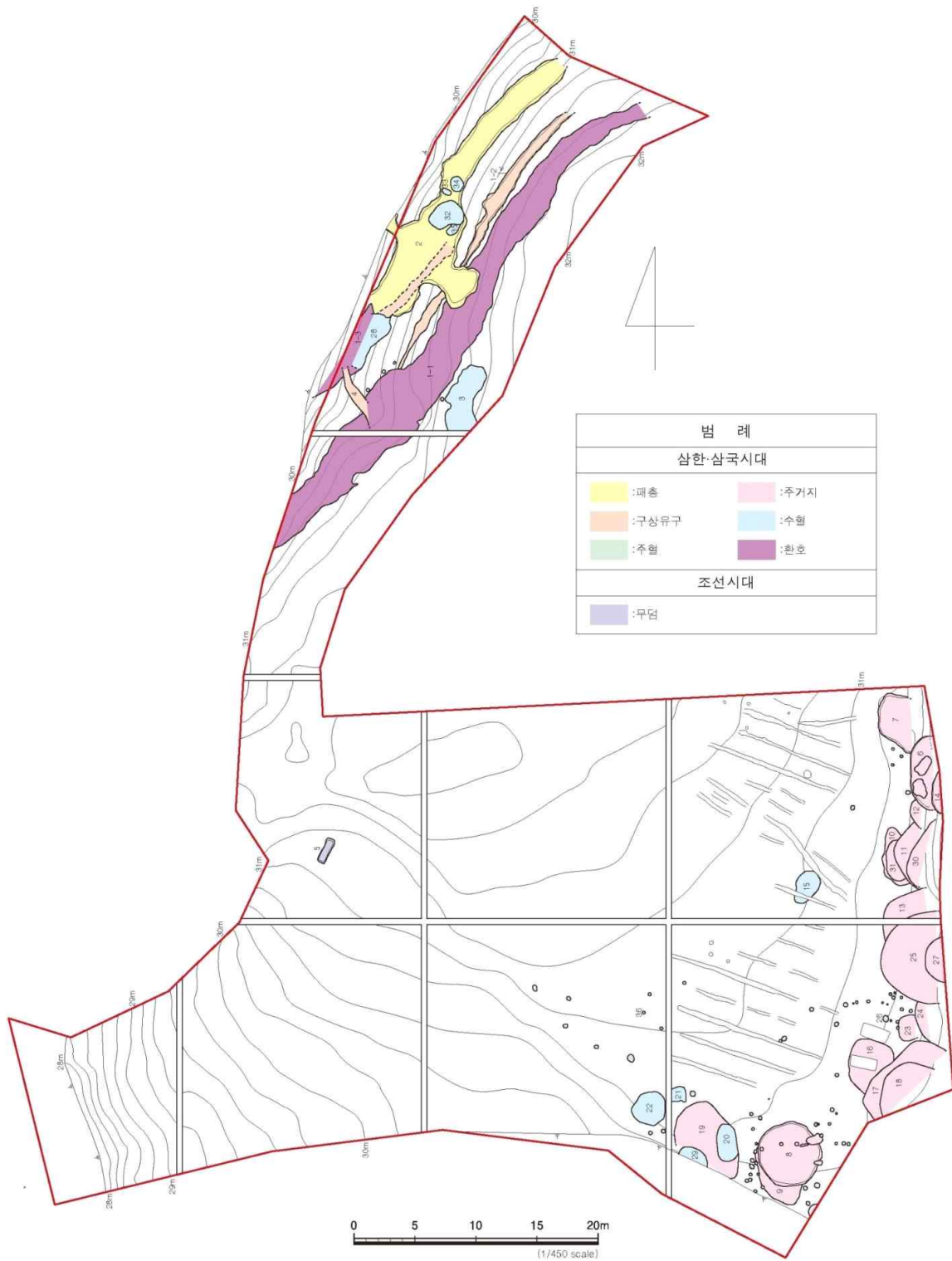
2021년도 발굴조사 - 환호와 패총(삼강문화재연구원)



2021년도 발굴조사 - 패총 조사중 전경 및 유물 노출상태(삼강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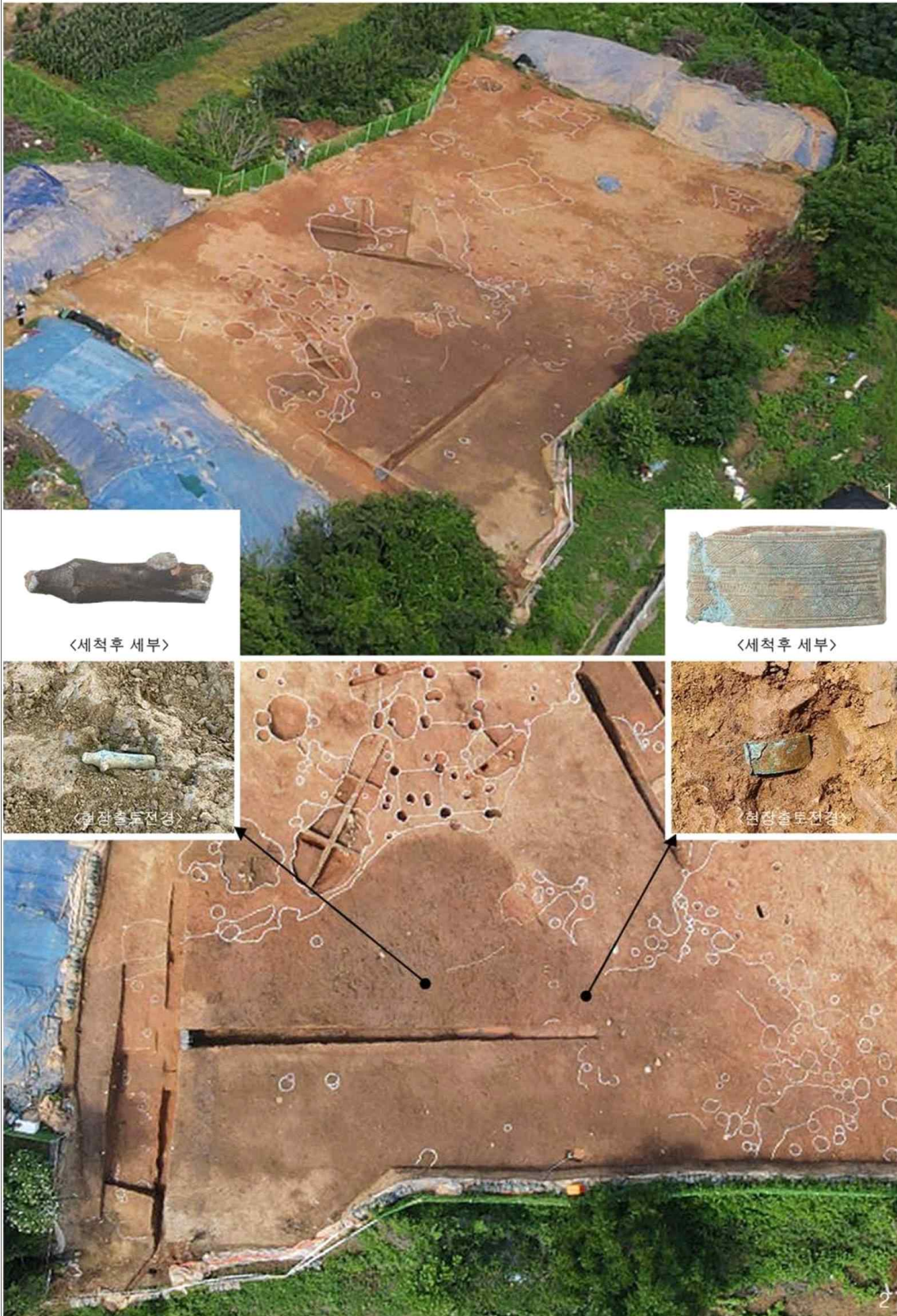
2021년도 발굴조사 - 패총 출토 패각의 종류(삼강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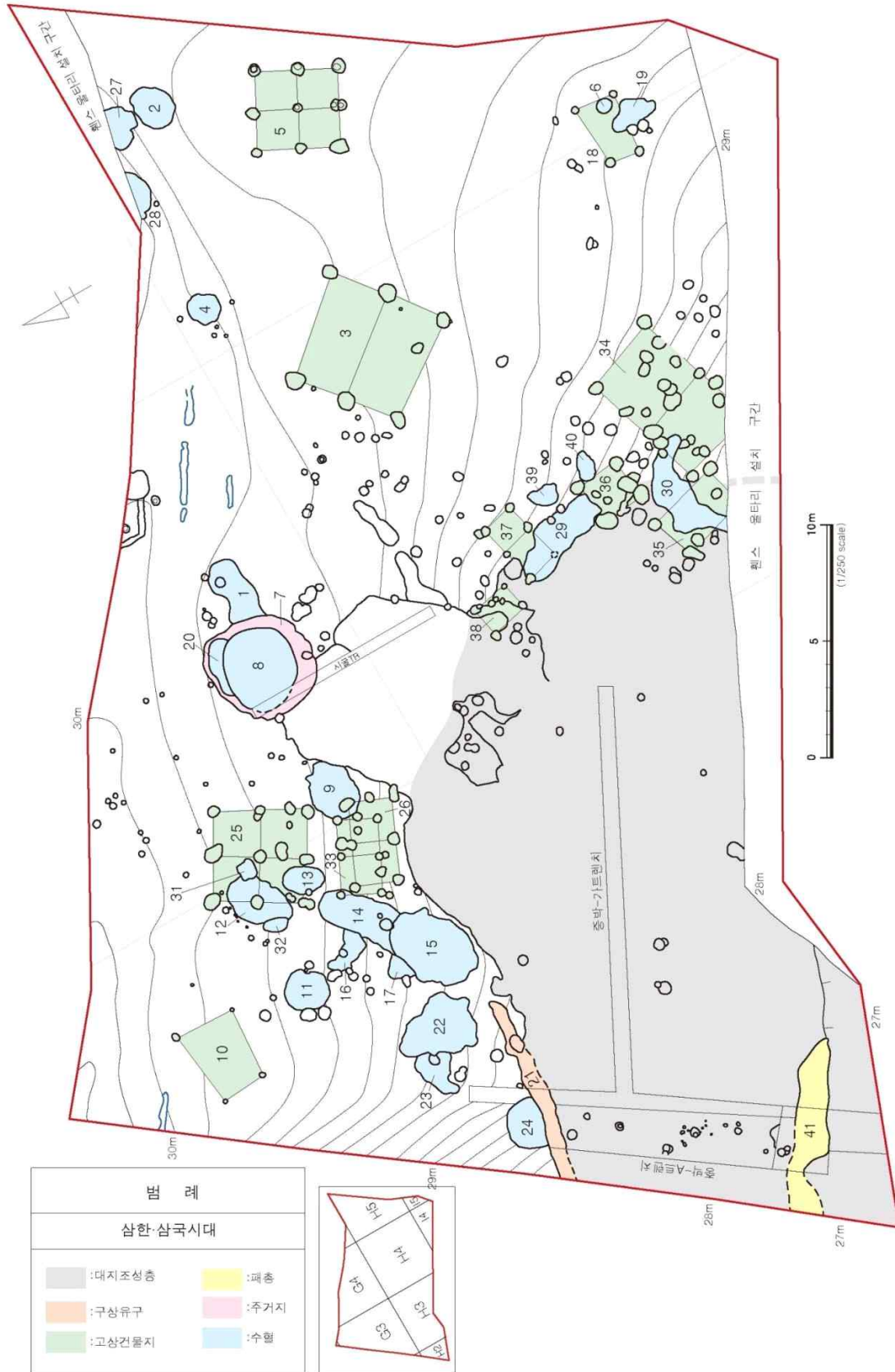
고성 동의동 유적(경남 기념물 제26호)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유구배치도(삼강문화재연구원, 2021년)



고성 동외동 유적(253-2번지 일원)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삼강문화재연구원, 2022년)



2022년도 발굴조사 - 대지조성층 전경(1:남서쪽에서, 2:직상방)



고성 동외동 유적(253-2번지 일원)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유구배치도(삼강문화재연구원, 2022년)



고성 동외동 유적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5차)(경상문화재연구원, 2023년)



1호 주거지 토층 전경



1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주거지 부뚜막 근경



주거지 상면 출토 의사점토대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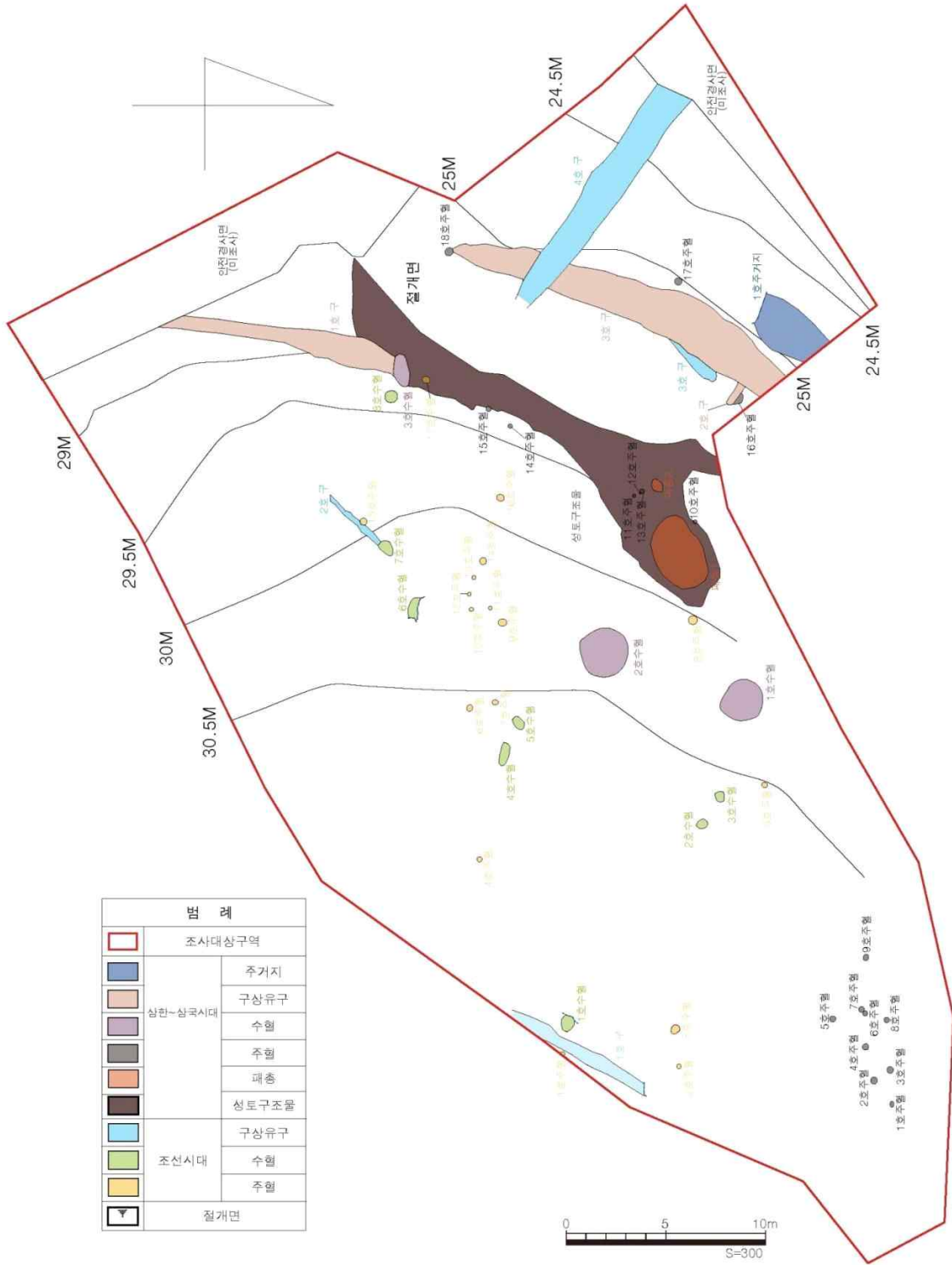


주거지 상면 출토 방추차



1호 수혈주거지 조사완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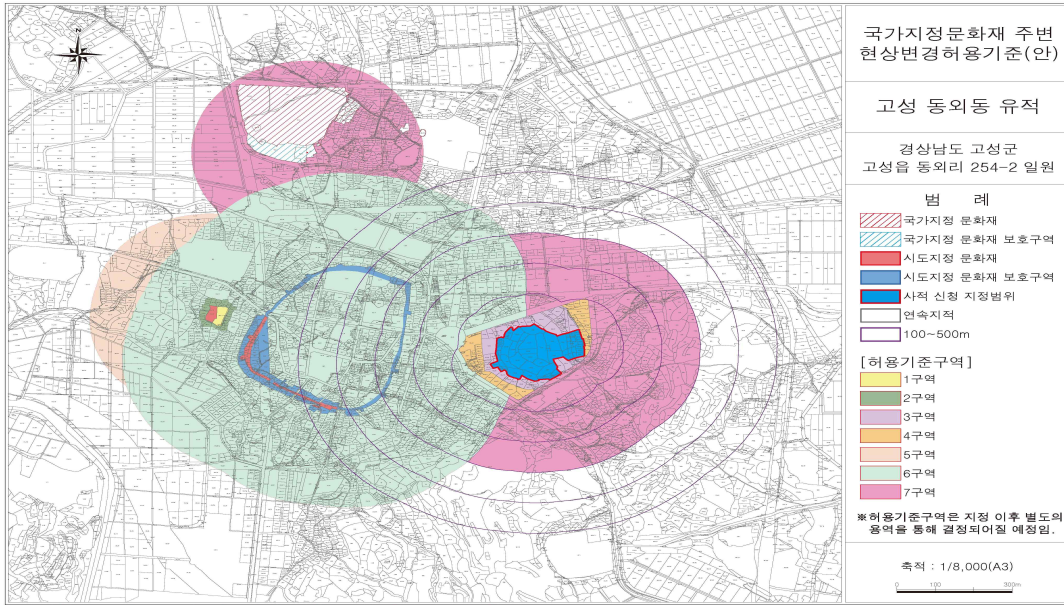
2023년도 발굴조사 1호 주거지 전경 및 출토유물(경상문화재연구원)



고성 동외동 유적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5차) 유구배치도(경상문화재연구원, 2023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동외동 유적의 지형적 특성과 향후 유적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도로를 기점으로 내부는 개별심의구역의 검토가 필요함.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1구역	○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이내)		
2구역	○ 각 시·군별로 대표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수립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각 시·군별로 대표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수립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 고성읍성(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89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7구역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번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등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가. 문화재 보존·정비 계획

1) 동외동유적 보존·정비 계획수립

고성군은 동외동유적의 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료 확보의 목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수차례의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동외동유적의 부분적인 모습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 유적 형성 당시의 범위, 유구의 성격과 분포현황 등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야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발굴결과를 통해, 향후 유적의 정비나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정비방안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않다. 하지만 유적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원론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동외동유적의 보존·정비는 기존의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가치 및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교육적 측면 및 관광 등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존·정비의 가장 큰 목적은 “유적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교육 및 관광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정비의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원형유지의 원칙(문화재보호법 제3조), 공개의 원칙(문화재보호법 제48조), 관리의 원칙이 있다. 때문에 보존·정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발굴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원형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도시화의 진행으로 유적이 점차 훼손 중이므로,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적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고성군의 관광자원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유적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이용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발굴조사와 현장공개행사 실시

동외동유적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일본인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2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때는 유적의 확인과 짧은 일정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유물수습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후 도기념물 지정범위 내에는 1969·197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3차례 조사,¹⁾ 1995년도에 국립진주박물관의 기획조사, 1974년의 동아대학교박물관의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동외동유적 문화재지정범위 주변으로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주택 및 상가건설, 도로개설 등으로 소규모의 표본조사 및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문화재지정범위 및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

1) 제1·2차 조사는 트랜치조사, 제3차 조사는 주변 지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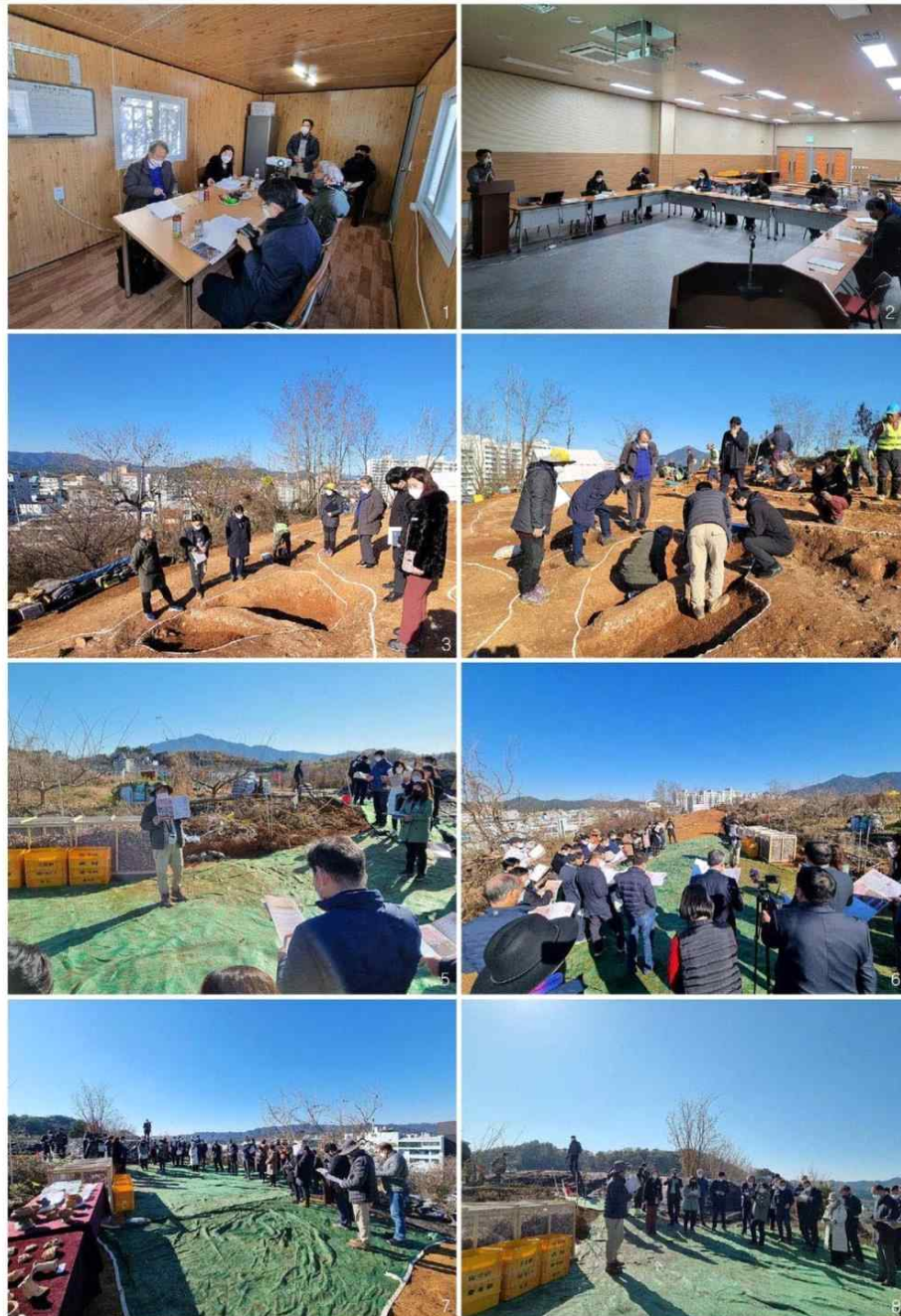
표 1. 동외동유적 조사일람

연번	조사년도	조사내용	보고서명	조사기관
1	1914	동외동유적 확인	보고서 미간	朝鮮總督府 鳥居龍藏
2	1917	1914년 조사에서 확인했던 동외동유적을 발굴조사하고, 유물을 수습함. 이때 수남리 패총을 함께 발굴조사함.	보고서 미간	朝鮮總督府 鳥居龍藏
3	1969 ~ 1970	김해토기시대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구릉의 서남사면을 조사. 표토와 생토층을 제외한 4개층(표토(경작토, 갈색부식토)-흑갈색점질토(1층)-갈색부식토+패각층(2층)-흑색사질점토(3층)-4층-생토)의 포함층에서 다량의 토기편이 확인. 트렌치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음.	『固城貝塚』	國立中央 博物館
4	1974	천도교 교당건설공사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긴급조사를 실시. 옹관묘·석관묘·토광묘 및 야철지가 확인. 유물은 청동검과두식·광형동모·漢鏡 및 印文陶·弥生土器 등의 외래계유물이 출토. 그 외 삼한~삼국시대의 토기편과 골각기가 출토.	『上老大島』 「固城東外洞貝塚」	東亞大學校 博物館
5	1995	동외동유적 정상부의 평탄지와 사면을 가, 나, 다지구로 나누어 발굴하여, 정상부에 제사시설, 동사면에 居住域, 남서사면에 묘역 및 철생산시설, 폐기장[패총]이 존재하였음을 파악하고, 일정한 공간구획이 있었음을 확인.	『固城東外洞遺蹟』	國立晉州 博物館
6	2003	조사지점은 동외동유적 구릉의 북사면 끝 자락인데, 절토되어 원지형이 훼손되어 문화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음.	「固城 東外里 貝塚 周邊 建築行爲에 對한 文化財 試掘調査」略報告書	慶南發展 研究院 歷史文化 센터
7	2004 ~ 2005	고성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부지 시·발굴조사. 삼국시대 수혈3기와 고상건물지1동, 조선시대 수혈1기가 조사되어, 동외동유적의 동외동유적의 구릉 말단부까지 유적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함.	『固城地域 調査』 「固城 東外里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慶南考古學 研究所
8	2014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발조성으로 절토되어 이미 원지형이 훼손되었다.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고성읍 동외리 228-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약보고서	삼강문화재 연구원
9	2014	현 발경작층 아래에서 바로 암반생토층 확인되었으며,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고성읍 동외리 23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약보고서	삼강문화재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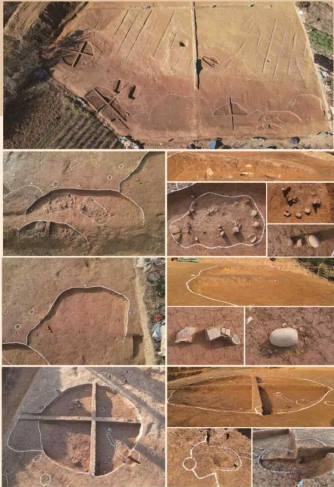
연번	조사년도	조사내용	보고서명	조사기관
10	2016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따른 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구상유구와 패각층, 조선시대 논층이 확인되었으며, 수습조사하여 완료.	「고성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경상문화재연구원
11	2016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따른 시굴조사에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고성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경상문화재연구원
12	2017	주차장 조성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고성 동외리 238-2번지 주차장 조성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경상문화재연구원
13	2017	주차장 조성공사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수혈 6기, 구상유구 4기, 주혈 18개가 조사.	「고성 동외리 (247) 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해동문화재연구원
14	2018	동외리 249번지에서 제철 관련 추정제철로와 철재편·노벽편 확인함.	「고성 동외동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기본조사 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15	2021	동외리 255-1번지 일원이며, 시·발굴 조사 결과 삼한~삼국시대 패총 1기, 주거지 19동, 환호 2기, 수혈 11기, 구상유구 2기, 주혈 2기, 조선시대 무덤 1기가 확인됨.	「고성 동외동유적(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16	2022	동외리 253-2번지 일원이며, 시·발굴 조사 결과 삼한시대 대지조성층 1개소를 비롯해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1동, 고상건물지 12동, 수혈 26기, 구상유구 1기, 패총 1기 등이 확인됨.	「고성 동외동유적(253-2번지 일원)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17	2022	동외리 243-2번지 일원이며, 시굴조사 결과 1지점에는 삼국시대 주혈과 조선시대 주거지 3동·도로 1기·수혈 3기·석축 1기·溝 2기·주혈이 확인되었고, 2지점에서는 삼국시대 수혈2기와 조선시대 주거지 2동이 확인됨.	「2022년도 고성 동외동 유적 유적 범위 확인을 위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18	2022	동외리 257-5번지 일원이며, 시굴조사 결과 1지점에서 삼국시대 수혈 3기와 조선시대 수혈 1기, 조선시대 구 5기가 확인되었고, 2지점에서 삼한~삼국시대 구 2기, 3지점에서 삼한~삼국시대 구2기가 확인됨.	「2022년도 고성 동외동 유적 정상부 범위 확인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19	2023	동외리 406번지 일원이며, 발굴조사 결과 삼한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성토구조물 외 溝, 패총, 수혈, 주혈 등 총 57기의 유구가 확인됨.	「고성 동외동패총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5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경상문화재연구원

※ 연번 3~5·14는 사적지정범위내 조사

고성 동외동유적에 대한 연도별로 순차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각 조사에 따라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내용과 향후 보존정비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학술자문회의 외에도 관련 연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고성군민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장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유적에 대해 관심있는 연구자와 지역주민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발굴조사성과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1년(동외리 255-1번지 일원) 발굴조사 후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공개설명회 전경



▶ 주저리 전경 및 4-호로 주저리 전경, 출토유물

고성 동외동유적 발굴조사의 필요성과 전망

固城東外洞貝塚

2021년 동외동패총 일원 발굴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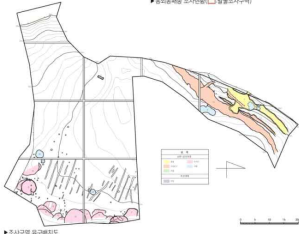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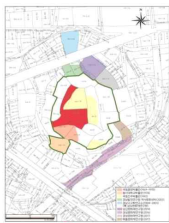
1. 동외동유적은 기원후 2~4세기 중국·왜·미얀 등 다양한 지역과 대외교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되고, 생활유적·제사유적·묘역·생산유적 등이 조합된 하나의 복합유적이다.
2. 동외동유적은 유적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유적의 구조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 동해대학교박물관, 국립한민족박물관, 삼강문화재단(연구원)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격의 구조를 추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의 조사는 동외동조사의 긴급수습조사에 치우친 것일 뿐이고, 정식발굴조사는 국립한민족박물관과 삼강문화재단(연구원)의 조사가 전부이다. 동외동패총 전체에서 보았을 때 발굴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뿐이다. 현재까지의 조사로 동외동패총의 공간배치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성과였지만, 앞으로는 부분적인 발굴을 거듭 통해 전체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동외동패총이 어떠한 구조이며,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3. 동외동유적이 해상교역활동의 중심지였다는 논리는 그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해 축적되어 왔으며, 연구자의 이견도 없다. 하지만 동외동유적과 당시의 후북한패총을 함께 살펴보면, 과연 연구는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후북한의 교섭은 어디에 있었는지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후북한 당시의 패총은 여전히 미발굴에 가려져 있다. 고성군은 고대국 또는 소국가의 중심지를 전역지나, 고대의 패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상문화대조사에도 전력이 필요하다.
4. 동외동유적 발굴에 수반하여 인근에 위치하는 남산토성, 만월산토성, 동외동유적과 동시기의 벽역되는 유적을 함께 조사하는 방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동외동패총과 남산토성이라는 남산토성(남산고분)과 만월산토성은 서로 마주보며 위치하는데, 고성군에서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되는 곳이다.



2021. 11

조사 개요

1. 조사 명: 고성 동외동패총 발굴조사
2. 조사 목적: 동외동패총은 고성읍의 중심에 위치한, 일원화 된 주거지를 형성하는 유적이다. 일원에서 파악되는 고성지역에 위치하며 출토된 유적들은 -유물(주거문화유적)이며, 인물(수급) 등 하나인 小部의 중심지를 형성하였다.
3. 위치: 고성읍 동외동 255-1번지
4. 조사면적: 3,050㎡
5. 조사현황: 고성군
6. 조사기관: (재)삼강문화재단연구원
7. 조사기간: 삼천사내 재작성 17, 주저리 17중, 고성읍구 11, 송동 5, 주저리에서 17가 일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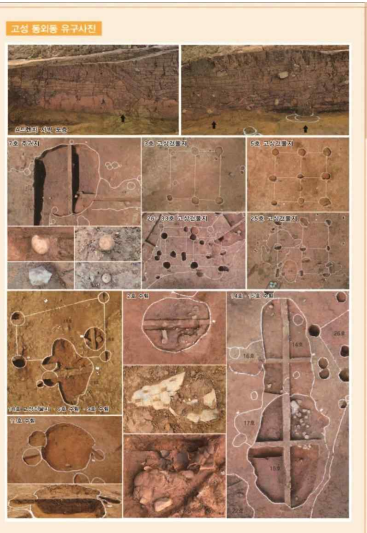


▶ 주저리 및 출토유물



▶ 발굴 출토 유물

2021년(동외리 255-1번지 일원) 현장공개 브로셔



고성 동외동 유구사진



<2022년 발굴조사 전경>

고성 동외동패총 253-2번지 일원 발굴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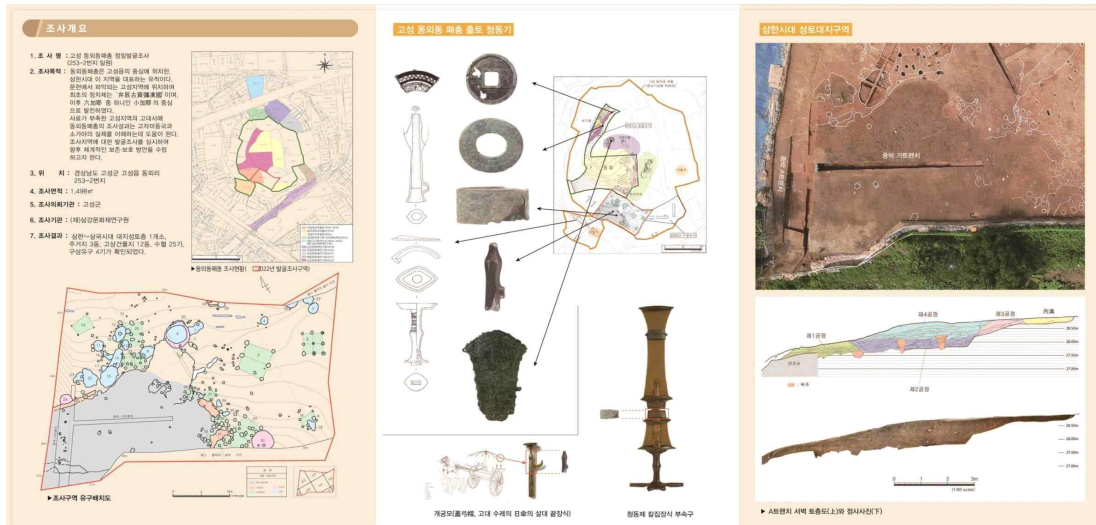
1. 고성동패총유적은 구릉의 양면 경사면과 양면 경사면에 두 고분군 분포한 것이 기존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구릉 양면부 동쪽으로 주거공간이, 서쪽으로는 이집현묘역 배후가 확인되었다. 주거·발굴조사 구역의 남서쪽에는 삼천사내 대저토성층 대상을 배후에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3곳, 고성간지 17중, 송동 25가, 구정유구 4이 등이 확인되었다.
2. 대저토성층은 구릉의 양면 경사면에서 남북으로 25~40m 길이에서 확인되었다. 대저토성층의 범위는 수천 동서당에 30.3m, 남북에 15.5m에 서쪽 20m를 넘지 않고 있다. 구릉의 양면 경사면 양면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지역언덕-구덩이-고대 건물 등이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대저토성층 일원 조사를 통해 양면 경사면에서 확인된 유적은 대저토성층의 대저토성층 대상을 배후에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3곳, 고성간지 17중, 송동 25가, 구정유구 4이 등이 확인되었다.
3. 출토유물은 회고(배후)에서 사용된 회고(배후)의 부속구 수에 부속구와 함께 회고(배후)로, 고대 수백개 단 송의 상에 장식된 등 대저토성층 1.1에서 출토되었다. 회고(배후)는 회고(배후)의 부속구 수에 부속구와 함께 회고(배후)로, 고대 수백개 단 송의 상에 장식된 등 대저토성층 1.1에서 출토되었다. 회고(배후)는 회고(배후)의 부속구 수에 부속구와 함께 회고(배후)로, 고대 수백개 단 송의 상에 장식된 등 대저토성층 1.1에서 출토되었다.
4. 대저토성층 대저토성층 가장 자리에 배치된 주저리 주거지와 고성간지 17중, 송동 25가 유적과 함께 확인되었다. 2021년도 조사 구역에서 확인된 구릉의 양면 경사면 동쪽 유적도 유망한 양면이다. 주거지 유적과 고성간지 17중, 송동 25가 유적은 대저토성층 대저토성층 대상을 배후에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3곳, 고성간지 17중, 송동 25가, 구정유구 4이 등이 확인되었다.

固城東外洞貝塚

2022년 동외동패총 발굴조사 자료



202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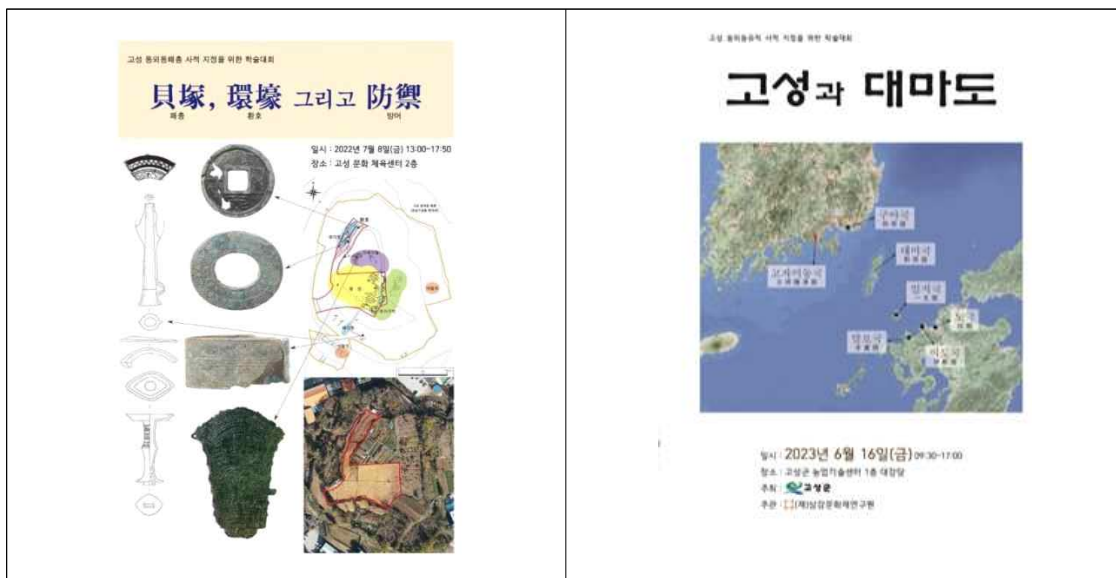


2022년(동외리 253-2번지 일원) 현장공개 브로셔

3) 학술심포지엄 개최

동외동유적은 일찍부터 그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으며,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함께 소가야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고성군은 보다 정확한 소가야사의 복원과 동외동유적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까지도 학술발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에는 “패총, 환호 그리고 방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그동안의 조사성과에서 소가야-송학동고분 시기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였다. 2023년에는 보다 외연을 넓혀보고자 일본 대마도까지를 시야에 넣은 “고성과 대마도”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4) 동외동유적 정비 관리계획

(1) 정비방향과 정비계획

동외동유적에 대한 정비를 위한 기본 원칙은 원형유지를 기본으로하고, 가치를 손상시키는 인위적, 물리적 조치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를 감안하여 수목정비, 경작지정비, 안내판 설치 등의 측면에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유적이 위치하는 구릉을 중심으로 수목정비와 함께 식생조사가 필요하다. 잡목과 잡풀에 대한 벌목 및 제초작업을 통해 현 상태를 확인·부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목제거 이전에 식생조사를 실시하여 제거해야 할 수목, 보존해야 할 수목, 추가로 식재 할 수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최소한의 식생정비로 유적을 보존하고, 인근지역주민들이 녹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적 내 경작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동외동유적은 전체적으로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계단식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적이 훼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유지매입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공유지에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작금지 안내판, 행정지도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공유지 또는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토지에는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안내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에 세워진 노후화된 안내판을 교체하고,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유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으로 그것에 맞게 안내판도 설치될 필요가 있다. 안내판에는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유적의 현황과 특징,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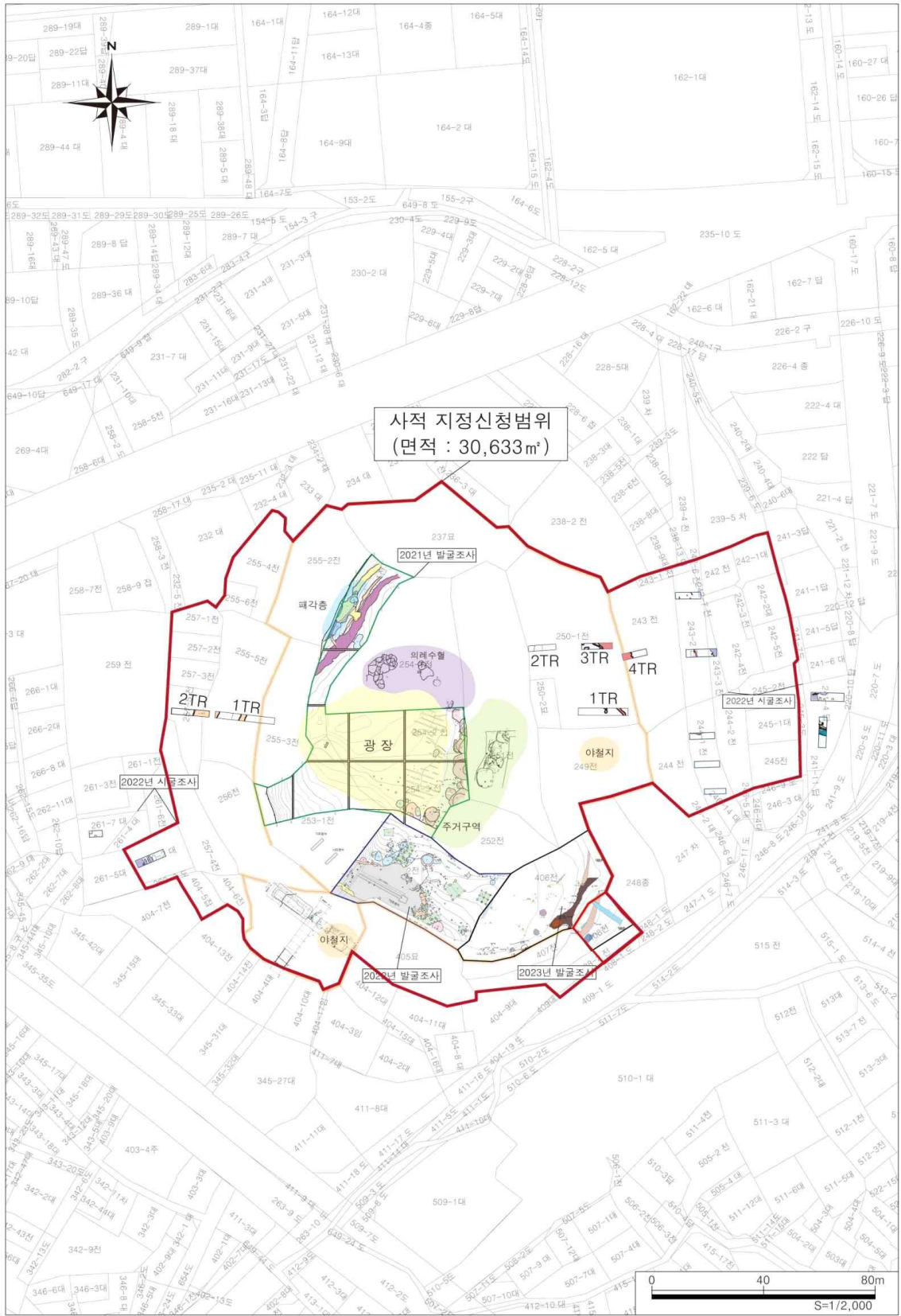
이 외에도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토지소유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등과 상호협의 및 연계로 유적을 보호·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기반시설확충

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와 탐방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동외동유적은 단독구릉이 전체적으로 유적이지만, 정상부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안내자료와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편의시설이나 관리시설이 전무하다. 특히 유적의 탐방로는 병원 주차장, 도로 옆, 민가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어 탐방객이 진입로를 찾기 어렵다. 또한 주차시설이 전무하다. 유적의 탐방동선을 계획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진입로·탐방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동외동유적의 문화재 추정범위는 도심화가 진행되어 건물 및 도로로 이용 중인 곳이 많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유적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한 도지정문화재 확대지정이 필요하며, 확대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의 구릉주변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성 동외동유적 사적지정 신청 범위 - 지적도

(4)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 계획

유적에 대한 기존의 발굴조사를 통해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일부 확보되었다.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 동외동유적의 환호의 조성과정과 폐기, 주거 및 생산시설의 발전을 비롯하여 2~6세기대 대외교류의 흔적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기초자료와 연구자료들을 수집하여 동외동유적의 중요성으로 파악하고, 현재 상태에서 대상 범위의 설정 및 현황자료 확인 등 국가사적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해안 일대에 분포한 동 시기의 생활유적인 김해 봉황동 유적에는 주거군, 창고군, 접안시설 등이 확인되어 구야국~금관가야 지배층의 공간으로서의 모습 확인. 창원 성산패총은 한 차례의 발굴조사만 실시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운 현실. 김해 봉황동유적을 제외하면, 변한~가야정치체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생활유적은 고성 동외동유적이 유일하다.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계획하여 원형고증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5) 토지매입현황

유적의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적이 확인된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 토지매입 이후에는 사유지 내의 경작을 금지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경작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경작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토지소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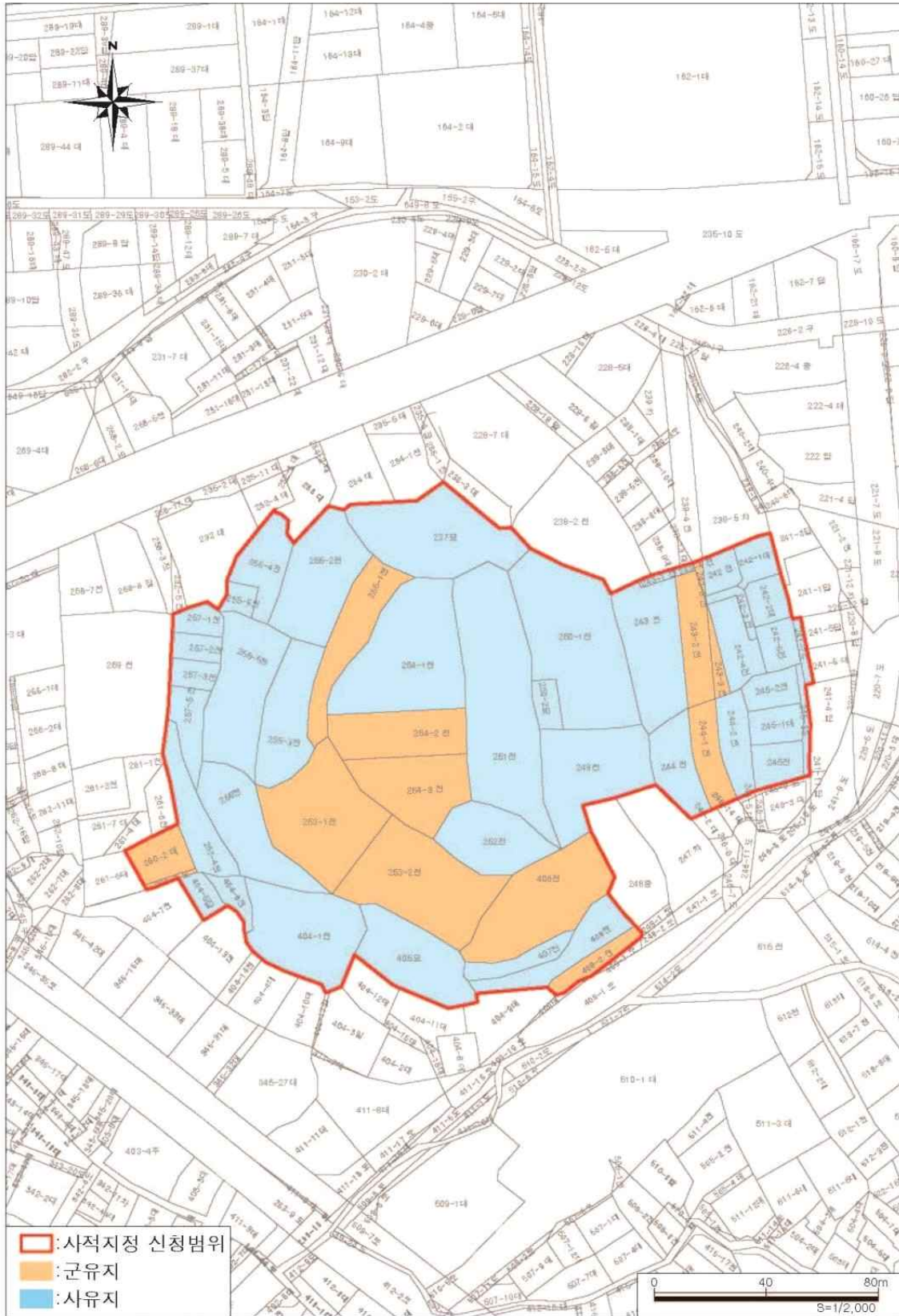
현재 동외동유적의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필지는 총 54개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0,633㎡이다. 이 가운데 공유지는 13개필지로, 면적은 8,114㎡이다. 그 외 41개필지는 사유지이며, 면적은 22,519㎡이다.

표 2. 동외동유적 토지소유현황

소유	필지수	면적	비율
공유지	13	8,114㎡	26%
사유지	41	22,519㎡	74%
계	54	30,633㎡	100%

② 토지매입 방향

동외동유적 주변에는 경작지, 민가, 묘지, 교회 등이 인접해 있다. 독립된 구릉에 위치하는 유적은 대부분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적이 훼손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에 구릉을 중심으로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적의 범위가 구릉 아래쪽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만큼 유적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 내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의동유적 문화재지정범위 내 공유지 및 사유지 현황

표 3. 동외동유적 내 공유지 현황

구분	소유자	지번(필지)	지목	면적(m ²)	비고
1	고성군	동외리 255-1	전	721	
2	고성군	동외리 253-1	전	1,415	
3	고성군	동외리 254-2	전	780	
4	고성군	동외리 254-3	전	856	
5	고성군	동외리 253-2	전	1,498	
6	고성군	동외리 406	전	1,306	
7	고성군	동외리 260-2	대	319	
8	고성군	동외리 260-3	도로	32	
9	고성군	동외리 408-2	전	226	
10	고성군	동외리 244-1	전	372	
11	고성군	동외리 243-2	전	458	
12	고성군	동외리 243-3	전	104	
13	고성군	동외리 242-6	전	27	
전체				8,114	

표 3. 동외동유적 내 사유지 현황

구분	소유자	지번(필지)	지목	면적(m ²)	비고
1	사유지	동외리 255-2	전	1,038	
2	사유지	동외리 237	묘지	1,382	
3	사유지	동외리 254-1	전	1,686	
4	사유지	동외리 255-3	전	843	
5	사유지	동외리 252	전	757	
6	사유지	동외리 249	전	1,183	
7	사유지	동외리 250-2	묘지	165	
8	사유지	동외리 250-1	전	1,901	
9	사유지	동외리 251	전	2,198	
10	사유지	동외리 404-1	전	1,187	
11	사유지	동외리 255-4	전	479	
12	사유지	동외리 255-6	전	112	
13	사유지	동외리 257-1	전	165	
14	사유지	동외리 257-2	전	165	
15	사유지	동외리 257-3	전	175	
16	사유지	동외리 257-5	전	330	
17	사유지	동외리 255-5	전	1,084	
18	사유지	동외리 257-4	전	556	
19	사유지	동외리 256	전	902	
20	사유지	동외리 404-5	잡	152	
21	사유지	동외리 404-6	전	162	
22	사유지	동외리 405	묘지	912	
23	사유지	동외리 407	전	241	
24	사유지	동외리 408	전	549	
25	사유지	동외리 244	전	495	

구분	소유자	지번(필지)	지목	면적(m ²)	비고
26	사유지	동외리 244-2	전	376	
27	사유지	동외리 243	전	1,021	
28	사유지	동외리 247-7	전	1	
29	사유지	동외리 242-3	전	96	
30	사유지	동외리 242-4	전	385	
31	사유지	동외리 243-4	전	21	
32	사유지	동외리 243-1	전	39	
33	사유지	동외리 245	전	262	
34	사유지	동외리 245-1	전	244	
35	사유지	동외리 245-2	전	244	
36	사유지	동외리 245-3	도	93	
37	사유지	동외리 241-7	도	72	
38	사유지	동외리 242-5	전	225	
39	사유지	동외리 242-2	대	225	
40	사유지	동외리 242-1	대	226	
41	사유지	동외리 242	전	170	
전체				22,519	

나. 문화재 활용계획

1) 현황 및 활용 기본방향

동외동유적의 보존활용은 발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유적의 가치 및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교육적 측면 및 관광 등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발굴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원형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도시화의 진행으로 유적이 점차 훼손중이므로,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적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고성군의 관광자원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유적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이용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현황 및 여건

고성군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하는데, 체계적인 조사와 자원 발굴을 통해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내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알려지지 않거나 문화재로 비지정되어 행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송학동고분 정비 및 고성박물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부족과 읍면지역 간에 문화기반시설의 격차가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동외동유적은 고성을 대표할 만한 유적이다. 그러나 유적은 일부구간이 발굴된 후,

동아대학교에서 유적보호를 위해 매입한 조사구간(404-1번지)을 제외하면 현재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어 문화자원으로서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도 기념물 지정범위 주변은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시가지가 되면서 동외동유적 원형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주들은 재산권을 누리지 못하고, 야산으로 방치되다시피 하여 지역민들의 원성이 큰 지경이다. 오히려 문화재가 고성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동외동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기본방향 및 전략

① 체계적인 시·발굴조사를 통해 향후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단계별 또는 전략적으로 발굴조사지를 선택하여 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존,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동외동유적에서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경우는 1995년에 실시된 국립진주박물관의 조사가 처음이었다. 그 이전의 조사는 트렌치조사 또는 긴급수습조사에 불과하였다. 동외동유적 주민들의 住居域(나지구)으로 파악된 경사면의 주거지는 당시여건상 上層部의 주거지만 조사되어 完掘되지 못했다. 따라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 추가로 시·발굴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성군은 2021년과 2022년에 학술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동외동유적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② 경남도기념물 지정범위 외 실제 동외동유적의 유적범위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경남도기념물로 지정된 범위 바깥에도 유구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대부분 건물이 위치하고 있지만, 향후 건물개축이나 공사를 진행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곳이다.

③ 동외동유적을 지역의 문화자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드는 복원정비를 바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동외동유적 주변에 문화재 안내판(개별안내판,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정비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리플렛 같은 간단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성박물관이나 군청,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여 유적의 존재를 알리고 홍보하는 작업도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분, 읍성, 사직단 같은 등 군내의 역사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테마별 또는 소요시간별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개별로 존재하는 유적들을 연계시킨다. 예를 들어, 고성읍내에 소재하는 동외동유적, 송학동 고분군·박물관, 고성읍성, 만림산 토성, 남산토성, 사직단을 연결하는 역사탐방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여건이 된다면, 문화유산 해설사가 동반하여 안내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소가야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함께 강구되어 한다. 유적은 지역민들의 공동자산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유적을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이 지역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인식

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

④ 유적의 안정적 보호조치를 위해 향후 국가사적으로의 승급을 추진한다.

동외동유적은 경남도기념물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불안정한 상태의 보존조치이다. 보다 안정적인 조치를 위하여 국가사적 승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사적 지정은 국가가 직접 유적에 대한 보존과 보호를 약속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동외동유적이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사적에 걸맞은 중요한 유적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고성군은 단계적인 추가조사 및 주변유적과의 연계조사, 학술대회 등을 통한 국가사적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2) 동외동유적의 활용방안 및 사례

(1) 유적의 활용방안

유적활용은 원형훼손금지, 유적의 가치와 존엄성 존중, 지속가능한 활용방안모색, 학술조사 성과의 공유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동외동유적의 활용방안의 기본은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유적에 대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② 주변 유적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의 개발, ③ 학술성과 공유를 위한 안내서·리플렛 발간, SNS의 활용, ④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유적관리 및 보호활동 진행 등이 필요하다.

(2) 유적의 정비·활용 사례

① 김해 봉황동 유적

지정구분	사적 제2호
소재지	경남 김해시
정비특징	패총전시관을 통한 패총 단면 관람 봉황대 유적과 함께 유적공원으로 정비
정비현황 및 방향	유적에 설치된 관람로는 대체로 편평하고, 고르게 포장되어 있으며 일정거리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관람을 위한 이정표와 음수시설이 부족하고 개별 안내판의 경우 비닐이 벗겨지거나 안내판 안에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복원된 고상가옥과 주거 같은 경우 일부 건물이 퇴락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패총전시관 전경



패총전시관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패총전시관 진입로(자연친화적 목재 사용)



유적 주변 보호책



복원된 고상가옥



복원된 가야시대 선박

② 창원 성산 패총

지정구분	사적 제240호
소재지	경남 창원시
정비특징	야철지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노출전시 유물전시관에서 관련 유물과 패총 단면 표본 전시
정비현황 및 방향	창원 성산패총은 낮은 구릉위에 위치하고 있고, 구릉의 꼭대기에는 유물전시관이 있으며, 전시관 내부에는 창원지역의 패총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유물전시관을 건립한 뒤 성산패총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여 일반인들에게 역사교육의 자료로 공개하고 있다. 성산패총에서는 매년 야철제례가 열린다. 야철지 보호시설은 1975년 설치되었으며, 2층에서 1층을 바라보는 형식으로 관람할 수 있다. 노출전시에는 야철지와 야철지 위 토층에 쌓인 패총의 단면까지 전시하고 있다. 비교적 단정하게 정비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적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야철지 보호시설 전경



야철지 보호시설 내부: 유구 노출전시 모습



성산패총유물전시관 전경



성산패총유물전시관 내부

9. 종합의견

- 삼한시대의 고성지역은 『三國志』 弁辰傳에 기록된 ‘弁辰古資彌凍國’ 혹은 『三國史記』 勿稽子傳에 등장하는 浦上八國의 일국인 ‘古史浦國’ 로 비정된다.¹⁾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고성읍의 동외동패총, 송학리 309-1유적,²⁾ 고성읍성지³⁾ 내 삼한유구와 고성읍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하일면의 송천리 솔섬석관묘유적⁴⁾을 들 수 있다.

삼국시대의 고성은 六加耶의 일국인 小加耶의 중심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 고성 지역에 존재한 소국의 명칭은 『三國史記』 地理志의 ‘古自郡’과 『三國遺事』 避隱編의 ‘古自國’의 용례에 근거하여 ‘古自國’으로 불리었을 것으로 본다.

- 고성 동외동 유적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패총의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고성패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왔다.
- 이후 1969~1970 국립중앙박물관, 1974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어 삼한·삼국시대 문화층, 옹관묘, 석관묘, 야철지 등이 조사되었으며 청동검과두식, 광형동모편, 후한경, 야요이계 토기 등 출토되어 2~3세기에 축조된 유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 1995년 국립 진주박물관의 조사에서는 삼한·삼국시대 의례수혈, 주거지, 수혈 등이

1) 『三國志』 卷二十 魏書二十 烏丸鮮卑東夷傳二十 弁辰傳
『三國史記』 卷第四十八列傳八 勿稽子傳
『三國遺事』 卷五 避隱八 勿稽子

2)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 『固城 松鶴里 309-1 番地 遺蹟』

3) 東亞大學校博物館, 2006, 『固城邑城址』

4) 東亞大學校博物館, 1977, 『固城 松川里솔섬石棺墓』

조사되어 새무늬청동기 등이 발견되어, 동외동유적의 성격이 정상부에 의례공간과 생활공간이 구획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 2021~2023년 소가야사복원사업의 일환으로 3차례의 정밀발굴조사에서는 외곽, 내곽부 시굴조사가 이루어져, 패총, 주거지, 고상건물지, 환호, 성토구조물 등 중요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청동대구 부속구, 왕망전, 금동일산살조각, 세형동검 검집결속구 등이 발견되어 환호로 둘러싸인 마을유적으로서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었다.
- 이러한 고성 동외동 유적의 입지와 조사결과로 보아, 외래계 유물을 통해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한 세력이며, 늑도 세력의 소멸 이후에 대외 교역을 이어받은 소가야 세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 동외동 유적은 늦어도 기원 후 2세기 이후부터 6세기 후반 초까지의 토기 자료들이 출토되는 점에 송학동 고분군의 전신 세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성 지역의 고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유적으로서 구릉성 지형을 이용하면서 삭토하거나 성토하여 段을 지게 하여 계단식 방어시설을 만들고 환호로 둘러싼 고지성 마을유적으로, 구릉 정상부의 의례시설, 광장, 주거군, 그리고 이 시설들을 감싸고 있는 방어시설로서의 환호 등은 변함과 가야기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성 동외동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부산 연산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및 조정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24.3.13.)에서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지정구역의 추가지정 및 조정(문화재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을 검토한 사항으로 30일간 행정예고(문화재청 공고 제2024-172호 '24.3.25부터 30일) 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및 조정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임.
- 제3차 문화재위원회('24.3.13.)검토결과 : 원안가결
- 추가지정 예고기간동안 별도 접수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사적 / 2017.06.30. 지정)
 - 소재지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구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952-47번지(1필지 3,014㎡)
 - 문화재구역 조정
 - 당초(문화재구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274번지(1필지 2,764㎡)
 - 변경(문화재보호구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274번지(1필지 2,764㎡)
- (4) 신청사유
 - 2022년에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고분이 형성된 일부 영역의 문화재 구역 지정 누락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영역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장기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구역의 조정을 신청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4.2.23 (금)	대상 문화재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건축사	○○대학교	교수
	○○○	성곽	○○대학교	교수
	○○○	고고학	○○대학교	교수
	○○○	건축사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 보호구역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제출자 : 문화재위원 ○○○ · ○○○ ·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청장 귀하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4.02.23.(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 ○○○ 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 본 건은 부산 연산동 고분의 고분이 잔존하는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현 지정된 구역 중 유적이 잔존하지 않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산동 고분군과 같은 성격을 가진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명+유적명인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연제구 소재지의 배산(254m)의 완만한 구릉 하단부에 조성되어있으며,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과 마주 보고 있다. 연산동 고분군은 구릉 정상부의 고층고분과 주변의 소형고분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고분군으로, 구릉 정상부의 고층고분은 18기가 확인되며 능선 정상부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일렬로 배치되어있다. 주변 문화유적으로는 배산성지, 부산 복천동 고분군, 부산 동래 패총, 동래읍성, 동래고읍성, 경상좌수영성지, 거제동 유적 등이 위치하고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유적으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유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5~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층고분의 경우는 영남지역 삼국시대 고분 중 가장 큰 규모의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적으로 판단된다.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조영적 특징을 살펴보면, 연산동 고분군은 3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으로 1기의 대형 고분을 중심으로 4~7기의 중·대형의 고분이 모인 형태를 보이며, 중심고분과 주변 고분들의 조성시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 수정들과 관련 계보들의 무덤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매장주체시설의 축축방향은 구릉의 능선 방향과 거의 같은 남북 또는 남서-북동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M6호분만 동서방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M6호분을 제외한 석곽의 축축방향이 구릉의 능선 방향과 동일한 것은 양쪽의

지형 고저 차이가 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구릉 능선의 7~8부 능선을 수평으로 삭평하여 묘광 상면 높이를 같게 함으로서 석곽을 지하에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고분이 위치한 지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매장주체부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 중요시되었고, 피장자의 두향은 매장주체부의 주축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영공법과 연약지반의 치환공법, 점토덩어리를 이용한 봉토 쌓기, 석곽 내 목곽 설치 등의 독자적인 고총고분 축조방식이 확인되었다.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출토유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갈·등자·안교·마갑·행엽 등의 마구류와 만곡종장판주·판갑·찰갑 등의 무기류, 철촉·철모·철부·철검 등 무기류 등의 철제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출토유물로 보아 무장적인 성격이 강한 지배층의 고분으로 추정된다. 당시 시대상황과 출토유물³⁾의 형태를 보았을 때 신라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독자적인 활동 세력으로 추정되며, 특히 출토 유물 중 국내 최초로 깃이 있는 판갑이 확인되었는데, 고분의 조영 당시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제체육공원 조성부지 내에서 취사시설(화덕지)이 확인되었는데, 과거 장지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장례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조성집단은 신라 복속 전(기원전~ 5C 후반)까지 복천동 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체체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6C 전반까지 복천동 고분군의 축조집단이 연산동 고분군으로 주도권이 이동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도 세력의 교체가 아닌 복천동 고분군의 축조집단이 연산동 고분군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대형 봉분을 가진 고총고분과 봉분은 소실되었지만 지하에 매장되어있는 중·소형 고분이 전시기를 걸쳐 분포하고 있어 고대 부산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확인되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부산 연산동고분군은 삼국시대 5~6C에 축조된 영남지역의 중심고분중 하나로 이 일대 집단 세력의생활상,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현재까지 조사된내용을살펴보면, 1987년 부산여자대학박물관(현 신라대학교박물관)과 경성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고분2기(M4·M8호분)가 정식 발굴조사된 이후 1989년 수습조사, 2000년 연산동 산12-1번지발굴조사, 2007년연산동322번지 일원 공용 주택 예정부지 발굴조사가 각 진행되었고,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3차례에 걸쳐 연산동 고분군 일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총284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2008년에는 연산동 고분군 정비 및 복원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기존 부산광역시 기념물에서 사적으로 승격됨으로 고분군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연제구에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설정⁴⁾된 문화재(보호)

구역은발굴조사시유적이확인되지않은대상지1(옛골공원: 연산동2274)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M11호분의 일부 영역인 대상지2(연산동952-47)을 누락하여 고시되었다. 이에 당해 유적의 장기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대상지1(옛골공원)은 문화재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M11호분의 미지정 영역은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연산동고부군문화재구역의조정에필요한영역은기존문화재구역에서보호구역으로 변경설정이 필요한 영역(대상지1)은 총1필지, 지적/지정면적2,764㎡/2,764㎡이며, 추가 문화재구역으로 설정할 영역(대상지2)은 총 1필지, 지정/지정면적: 3,014㎡/3,014㎡이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보호)구역)

지정 면적 : 추가 문화재 구역 1필지 3014㎡,
지정구역 →보호구역 1필지/2,764㎡

1: 사표로표시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적면적: 66,318㎡, 지정면적: 66,31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연산동	산90-4	일	164	164					기지정
2	연산동	산90-5	일	694	694					기지정
3	연산동	산90-7	일	14,408	14,408					기지정
4	연산동	산90-18	토	81	81					기지정
5	연산동	산90-19	일	5,078	5,078					기지정
6	연산동	산90-20	일	993	993					기지정
7	연산동	산90-21	일	1,828	1,828					기지정
8	연산동	산90-22	일	6,507	6,507					기지정
9	연산동	산90-23	일	169	169					기지정
10	연산동	산90-24	일	27	27					기지정
11	연산동	산90-25	일	21	21					기지정
12	연산동	산90-26	일	37	37					기지정
13	연산동	산90-27	일	42	42					기지정
14	연산동	산91-1	일	218	218					기지정
15	연산동	산91-3	일	1,779	1,779					기지정
16	연산동	산91-4	일	89	89					기지정 산 91-3 분할
17	연산동	산91-5	일	6	6					기지정 산 91-3 분할
18	연산동	산92-2	일	4,860	4,860					기지정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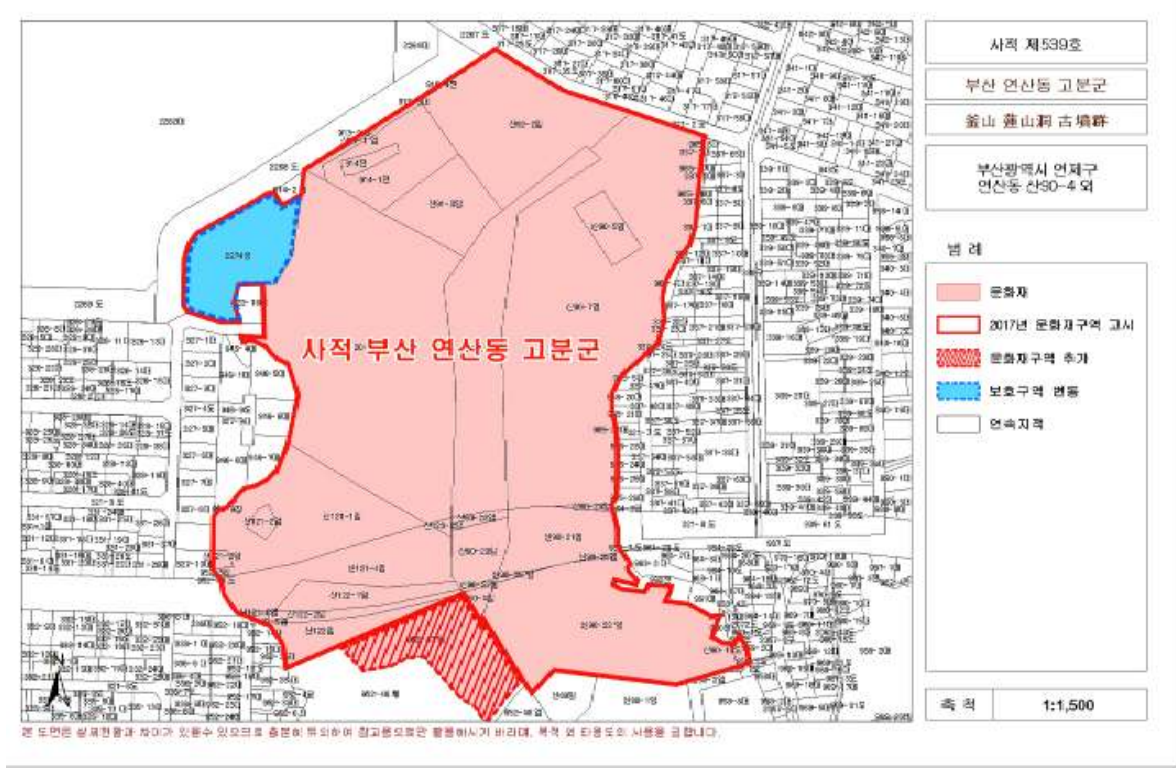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적면적: 66,318㎡, 지정면적: 66,31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9	연산동	산120-1	일	13,918	13,918							기지정
20	연산동	산120-2	일	62	62							기지정
21	연산동	산121-1	일	4,265	4,265							기지정
22	연산동	산121-2	일	198	198							기지정
23	연산동	산121-3	일	99	99							기지정
24	연산동	산121-4	일	2,962	2,962							기지정
25	연산동	산121-5	일	11	11							기지정
26	연산동	산121-6	일	45	45							기지정
27	연산동	산122	일	1,074	1,074							기지정
28	연산동	산122-1	일	1,057	1,057							기지정
29	연산동	산122-2	일	348	348							기지정
30	연산동	913-2	대	36	36							기지정
31	연산동	914	전	231	231							기지정
32	연산동	914-1	전	1,987	1,987							기지정
33	연산동	915-4	전	17	17							기지정
34	연산동	915-5	대	3	3							기지정
35	연산동	952-47	일	3,014	3,014							규회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
36	연산동	2274	광복	2,764	2,764							규회 문화재 구역 지정해제

구분	필지수	지적면적	지정면적
기지정	35	66,069㎡	66,069㎡
규회지정	1	3,014㎡	3,014㎡
지정해제	1	2,764㎡	2,764㎡
총	35	66,318㎡	66,318㎡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보호구역)							(면적: 2,76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연산동	2274	광복	2,764	2,764							규회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

구분	필지수	지적면적	지정면적
규회 보호구역 추가지정	1필지	2,764	2,764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름.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검토의견 :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름.

9. 종합의견

- 본 건은 부산 연산동 고분군의 지정구역 중,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종합정비기본 계획에서 편의시설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으로, 그리고 지정 구역 내 11호분 일부를 포함한 경사지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구역은 유구가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구역에 한하여 보호구역으로 하고 11호분의 일부를 포함한 연접지는 유구가 잔존하므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공동주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공동주택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4년 4차 위원회('24.04.17.) 보류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자료 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 1985.11.0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일원(신대리 5호, 7호)
- (3) 신청내용<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91-3번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연결 /1구역(개별검토),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4구역(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24년 4차-보류	금회
경관녹지	2,765.4m ² (교목 124주, 관목 10,220주 등)	2,765.4m ² (교목 68주, 관목 9,440주 등)
소공원	1,444.0m ² (교목 108주, 관목 1,910주, 파고라, 체력단련시설 등)	1,444.0m ² (교목 84주, 관목 1,920주, 파고라, 체력단련시설, 안내판 등)
도로	14,978.0m ² (소로(4개로) B=8~10m, L=731m, 중로(3개로) B=12~18.5m, L=539m)	좌동
주차장	1,860m ² (포장(아스콘) 1,766m ² , 녹지 94m ²)	1,860m ² (포장(잔디블럭) 1,562m ² , 녹지 298m ² , 관목 1,909주)

라. 참고사항

- '23년 제2차 사적분과 소위원회('23.4.26.)에서 공동주택 신축 허가
 - 대지면적 : 33,393.00m²
 - 건축면적 : 6,487.53m²
 - 연면적 : 114,242.84m²
 - 지상 : 72,876.85m²
 - 지하 : 41,365.99m²
 - 규모 : 10개동, 지하 3층 ~ 지상 22층
 - 최고높이 : 69m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마.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5. 강화 삼랑성 보호구역 내 전등사 주변 정비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삼랑성」 보호구역 내 전등사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삼랑성 보호구역 내 전등사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삼랑성(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3) 신청내용<전등사 주변 정비>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2, 646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석축공사

- 석축해체(30.3m) : ①L=15.7m, H=1.0m ②L=7.2m, H=0.6m ③L=7.4m, H=0.6m

- 석축설치(128m) : 자연석 석축 ①L=44m, H=0.8~1.0m ②L=16.5m, H=0.8~1.0m

③L=14m, H=1.0~1.3m ④L=8.5m, H=1.0m

⑤L=5.0m, H=1.5m ⑥L=15m, H=1.7m

⑦L=22m, H=1.0m ⑧L=3m, H=0.6m

- 담장공사

- 담장해체(55.5m) : ①L=34.5m, H=1.25m ②L=21m, H=1.0m

- 담장설치(52m) : 막돌담장 ①L=21m, H=1.0m ②L=16m, H=1.0m

③L=15m, H=1.0m

- 부대토목공사

- 주차장 : 주차대수 12대, 차량전기충전기 2대 설치
- 자연석 배수로설치(69.6m) : ①L=40m, $0.3 \times 0.3\text{m}^2$, ②L=13.6m, $0.3 \times 0.3\text{m}^2$
③L=16m, $0.3 \times 0.3\text{m}^2$ / PE이중벽관
설치(D200, L=16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6. 공주 공산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공주 공산성」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공산성 주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한 사항임
 - '21년 9차('21.12.22.) ~ '23년 1차('23.03.22.) : 보류(1회), 부결(7회)
 - '23년 2차 소위원회('23.04.26.) 조건부가결
 - ※ 허가조건 : 건물의 입면, 배치 등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와 협의 후 시행
 - '23년 11차('23.11.08.), '24.2차('24.03.27.) : 부결(2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충남 공주시 옥룡동 260-7번지 외 30필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75m 이격/5구역(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동사항(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
 - 사업내용

구분	당초(허가, '23.04.26.)	변경	비고
대지면적	10,995㎡	10,995㎡	-
용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건축면적	2,796.33㎡	2,317.35㎡	감 478.98㎡
연면적	31,218.03㎡	32,366.82㎡	증 1,148.79㎡(3.68%)
용적률	191%	212%	증 21%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15층	지하 2층, 지상 9층~18층	증 3층

구 분	당초(허가, '23.04.26.)	변 경	비고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43.5m	53.7m	증 10.2m
해발고도	84.5m	96.8m	증 12.3m
건축물 동수	4동(216세대)	4동(218세대)	증 2세대

라. 참고사항(그 간의 추진경과)

구분	'21년 9차 (‘21.12.22.)	'22년 2차 (‘22.4.27.)	'22년 3차 (‘22.5.25.)	'22년 4차 (‘22.6.22.)	'22년 5차 (‘22.8.24.)	'22년 6차 (‘22.10.26.)	'22년 7차 (‘22.11.23.)	'23년 1차 (‘23.3.22.)	'23년 2차 (‘23.4.26.)	'23년 11차 (‘23.11.8.)	'24년 2차 (‘24.3.27.)	'24년 5차 (‘24.5.8.)	비고
대지면적	10,995㎡	10,995㎡	10,995㎡	10,995㎡	10,995㎡	10,995㎡	10,995㎡	10,995㎡	10,995㎡	10,995㎡	10,995㎡	10,995㎡	-
용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건축면적	2,222.01㎡	2,199.26㎡	2,199.26㎡	2,295.64㎡	2,295.64㎡	2,295.64㎡	2,295.64㎡	2,295.64㎡	2,796.33㎡	2,232.12㎡	2,301.05㎡	2,317.35㎡	감 478.98㎡
연면적	34,295㎡	32,153,85㎡	31,236.61㎡	31,092.25㎡	31,092.25㎡	30,882.14㎡	31,735㎡	31,340㎡	31,218.03㎡	34,299.81㎡	34,219.73㎡	32,366.82㎡	증1,148.78㎡
용적률	217%	206%	198%	196%	196%	191%	192%	192%	191%	218%	216%	212%	증 21%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20층	지하 2층, 지상 10층~18층	지하 2층, 지상 10층~17층	지하 2층, 지상 10층~16층	지하 2층, 지상 10층~16층	지하 2층, 지상 7층~15층	지하 2층, 지상 7층~15층	지하 2층, 지상 6층~15층	지하 2층, 지상 6층~15층	지하 2층, 지상 10층~20층	지하 2층, 지상 9층~20층	지하 2층, 지상 9층~18층	증 3층
건축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60.2m	54.5m	51.7m	48.8m	48.8m	45.1m	44.1m	43.5m	43.5m	59.3m	59.3m	53.7m	증 10.2m
해발고도	95.2m	89.5m	86.7m	89.1m	89.1m	89.1m	89.1m	85.65m	84.5m	96.8m	96.8m	96.8m	증 12.3m
건축물 동수	3동 (222세대)	3동 (208세대)	3동 (201세대)	3동 (204세대)	4동 (204세대)	4동 (216세대)	4동 (220세대)	4동 (217세대)	4동 (216세대)	3동 (222세대)	4동 (221세대)	3동 (218세대)	증 2세대
심의결과	부결	부결	부결	보류 (현지조사 후 재심의)	부결	부결	부결	부결	조건부 가결*	부결	부결	-	

※ 조건부가결('23.04.26.) 시 허가조건 : 건물의 입면, 배치 등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와 협의 후 시행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7.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양묘장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 사적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양묘장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릉 초당동 주변 양묘장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4년 3차 소위원회('24.03.27.)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초당동 유적(사적 / 2007.12.03.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양묘장 설치>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41-13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

구분	'24년 소위3차-부결	금회	증△감
용도	양묘장	양묘장	
동수/면적	6동 1,631㎡ ·1동 : 7m × 31m × H4.2m ·2동 : 7m × 34m × H4.2m ·3동 : 7m × 37m × H4.2m ·4동 : 7m × 40m × H4.2m ·5동 : 7m × 43m × H4.2m ·6동 : 7m × 48m × H4.2m	3동 1,008㎡ ·1동 : 7m × 48m × H4.2m ·2동 : 7m × 48m × H4.2m ·3동 : 7m × 48m × H4.2m	△623㎡
높이	4.2m	4.2m	변경없음
구조	강파이프구조	강파이프구조	변경없음
기타공사	·관정 설치(비닐하우스 내) : 0.8m × 0.8m, 굴착깊이 20m	·관정 설치(비닐하우스 내) : 0.8m × 0.8m, 굴착깊이 20m ·나무식재 : 관목류 1,000주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8.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4년 3차 위원회('24.03.13.)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24년 4차 위원회('24.04.17.) 보류 : 자료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72-1번지 외
- (3) 신청내용<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19번지(풍납토성 관리구역(IV권역))
(문화재구역과 연접/허용기준 미수립)
 - 사업내용 : 공동주택 8동, 상가건물 등 부대시설 3동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17,379.00㎡	사업구역 19,505.00㎡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3,472㎡	지하는 주차시설로 연결
건폐율	19.98%	법정 건폐율 60%
연면적	66,822.93㎡(지상 42,322.38㎡)	
용적률	243.5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0%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법정 250%
규모	○ 공동주택 : (지상) 6층~29층, (지하) 3층~2층 ○ 부대시설 : 지상 1층	최고높이 92m 이하, 지하 13m 이내
총세대수	400세대	275세대→400세대

○ 참고자료

- 풍납미성아파트 현황 대비 계획

구분	현황	재건축계획	비고
준공년도	1985.06.17.	-	
대지면적	19,505.0㎡	17,379.00㎡	사업구역 19,505.00㎡
세대수	275세대(4개동)	400세대(8개동)	
용적률	167%	243.53%	
층수	지하 1층/지상 11층	지하 2~3층/지상 6~29층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타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공동주택 7층이상 서울시 건축위원회 경관심의 대상

-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추진경과

- 1985. 06. : 풍납미성아파트 준공
- 2019. 06. :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발족
- 2021. 03.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
- 2023. 02. :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
- 2023. 06.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송파구 접수
- 2024. 02. : 풍납미성아파트 정비계획 송파구 영향검토(결과 : 영향있음)
- ※ 양각 적용 및 지하 매장문화재 유존조사 필요 등
- 2024. 0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신청아파트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4.02./문화재위원 ○○○, ○○○, ○○○, ○○○, ○○○, 전문위원 ○○○)

- 주변과의 일체성 및 조화를 고려한 규모로 조정 필요
 - 제시된 계획 규모(최대 29층)은 풍납토성 내 현황(최대 23층 규모)을 고려했을 때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규모(건축높이,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등)를 조정할 대안 제시 필요
- 사업계획에 매장문화유산에 대한 조치 또는 대응계획 마련 필요
 - 풍납미성아파트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 제시 필요
 - 아파트 주변 매장문화유산 시·발굴조사 및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사업대상지 내 유존층 추정 높이 자료 제시 필요
 - 풍납미성아파트 지하구조물 현황과 주변 매장문화유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장문화유산 잔존 상황을 추정, 매장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 및 대응 방안을 사업계획안에 보완하여 제시 필요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향검토 의견('24.02.08./○○○, ○○○, ○○○)

- 풍납토성 사적 지정구역에 근접한 곳으로 최고높이 95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매장문화재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사업지역에 인접한 문화재구역(I 권역 백제문화공원, II 권역 서성벽 추정 구간) 양각 적용 및 지하 매장문화재 조사가 필요함
- 지하구조물이 없는 구간은 매장문화재 유존 가능성이 높음.
서성벽 추정구간(풍납나들목 구역에서 서성벽 확인) 및 백제문화공원(1권역) 양각 적용 필요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9. 서울 몽촌토성 내 전시 및 관련 부대행사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몽촌토성」 내 전시 등의 행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몽촌토성 내에서 전시 및 관련 부대행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몽촌토성(사적 / 1982.07.22.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24

(3) 신청내용<전시 및 관련 부대 행사>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24(문화재구역)

○ 행사개요

- 행사명 : '세계적 항공영상 거장' 안 아르튀스 베르트랑의 반려동물 이야기
< 캣츠&독스: 위대한 동행, 사랑과 교감의 순간들 >

- 행사장소 : 몽촌토성 내 나홀로 나무 아래 잔디 구역(면적 : 약 1,500m²)

- 행사기간 : 2024.09.01. ~ 10.30.(2달)

※ 전시 가설시설물 설치기간 20일 별도

- 행사내용

· (전시) 사진 및 미디어작품 전시<생명과 동물권,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동행>

· (캠페인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캠페인 및 청년마켓 플랫폼 연계

· (작가 방한 시민 참여 기록 이벤트) 시민과 반려동물 사진촬영

- 참고사항 : 수익금 기부 및 시민참여 행사, 기업펀딩과 입장료로 행사 운영

- 가설시설물 설치
 - 전시시설 규모 : A동(가로 20m × 세로 40m × 최고높이 8m),
B동(가로 15m × 세로 45m × 최고높이 7.2m)
 - 텐트지붕원단 : PVC코팅 폴리에스테르 패브릭
 - H빔(0.3m × 0.3m) 구조
 - 목재데크 : 재질-방부목(15T), 합판(1.82m × 0.9m)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의견

- 토성 경관을 저해하는 대형 구조물 설치 건으로 행사기간도 길어 무리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0.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외 정원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외에 정원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외에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0년 4차 위원회('20.04.08.) 조건부가결 : 금회 신청사항 중 오향마당-책정원, 정자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22년 1차 위원회('22.01.12.) 보류 : 계획이 과다하고 통일감이 부족하여 조정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 2007.07.31.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계동 일원, 남내동 2-20 외
- (3) 신청내용<정원 조성>
 - 위치 : 전남 나주시 과원동 132 등{문화재구역, 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이하)}
 - 사업내용 :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

사업명	'22년 1차-보류		금회	비고
	주요내용	사업량		
천년 한마당 조성사업	전라도역사문화 홍보 등	건물 3동 신축, 광장 조성	(변경) 공원 조성 4,610㎡, 화장실 건립 19.2㎡	문화재 구역
오향마당 조성사업	책향정원	“책” 관련 전시, 체험 등	건물 2동 신축, 담장정비	계획 취소
	맛향정원	“맛” 관련 체험 등	건물 2동 신축 등 ①동 121.13㎡, 높이 6.4m ②동 144.9㎡, 높이 6.4m	(변경) 건물 2동 신축 ①동 344.4㎡, 높이 11.5m

사업명	'22년 1차-보류		금회	비고
	주요내용	사업량		
			②동 225.6㎡, 높이 11.5m	
차향정원	“차문화” 관련 체험 등	건물 2동 리모델링 등	계획 취소	
미향정원	“예술문화” 관련 체험 등	건물 3동 신축 등	계획 취소	
소리정원	판소리 등 체험 등	<u>기존 건물 활용 전시(완료)</u>	변경 없음(기완료)	
천보길 조성사업	서성벽 주변 탐방로 조성	황토포장, 디자인 판석 설치	계획 취소	
물빛마당 조성사업	물,빛을 활용한 놀이마당 조성	나주천 내 분수 설치	계획 취소	
천년 역사관 건립		-	(신규) 기존 건물 리모델링, 건물 1동 신축(면적 118.8㎡, 높이 5.65m)	문화재 구역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11. 완도 청해진 유적 보호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 및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사적 「완도 청해진 유적」 보호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 및 도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완도 청해진 유적 보호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 및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완도 청해진 유적(사적 / 1984.09.01. 지정)
 - 소재지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734번지
- (3) 신청내용<공유수면 매립 및 도로 개설>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251번지 지선 공유수면(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공유수면 매립 : 면적 980㎡, 연장 114.4m, 폭 8.5m, 사석매립방식, 비탈면 피복석 마감
 - 도로 개설 : 연장 114.4m, 폭 8.5m, 아스콘 포장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2. 강화산성 내외 보행로 개선 및 쉼터 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산성」 내외 보행로 개선 및 쉼터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내외 무단적치물 제거 등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신청내용<보행로 개선 및 쉼터 조성>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23-8~41-22번지 일원{문화재구역, 1, 2-1, 2-2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348㎡(보행로 및 쉼터)

- 토목공사

· 토 공 : 흙쌓기(H=0.4m) 171.7㎡, 흙깎기(H=-0.3m) 208.4㎡

· 포 장 공 : 보도블럭(T=0.1m) A=1,001㎡

· 쉼터조성 : A=500㎡

· 부 대 공 : 등의자(6개), 운동기구(6개), 파고라 H=4.0m(1개), 잡목 벌채(10주)

구분	해당필지	행위내용
지정구역	224-6 외 15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행로(보도블럭) 보수 : L=75m, B=2.0m ● 신규 보행로 설치 : L=135m, B=2.0m, 흙깎기 최대 0.3m, 흙쌓기 없음 ● 산성 주변 수목 벌채(벌근 없음) ● 쉼터 조성 : 블럭 포장(A=500㎡), 파고라 설치(1개, H:4.0m), 관목류 식재
1구역	22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행로(보도블럭) 보수 : L=5.0m, B=2.0m
2-1구역	41-20 외 1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조성 : 운동기구, 등의자 등 설치
2-2구역	223-6 외 3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행로(보도블럭) 보수 : L=50m, B=2.0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13.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사적 / 1964.08.29.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343-2, 343-20(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31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375m²

- 건축면적/연면적 : 62.1m² / 62.1m²

- 구조 : 경량철골조

- 층수/최고높이 : 지상 1층 / 4.32m

- 부지조성 : 옹벽 H=0.0~1.5m, L=22.8m, 경계석 62m, 콘크리트포장 120m², 잔디식재 180m² 등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4.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사적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 근린생활시설 5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4년 2차 위원회('24.02.21.) 부결 : 근린생활시설 신축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사적 / 1969.11.24. 지정)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충열1길 6 (단월동)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
 - 위치 : 충북 충주시 단월동 산5-1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5동 신축
 - 대지면적 : 9,238㎡(사업부지 7,498㎡, 도로 1,740㎡)
 - 건축면적/연면적 : (당초) 8동 각 97.62㎡/97.62㎡,
(변경) 5동 각 180.00㎡/180.00㎡
 - 건축규모 : (당초) 지상 1층 8동/최고높이(5.1m), 경량철골구조(경사지붕),
(변경) 지상 1층 5동/ 최고높이(6.1m), 일반철골구조
 - 토목공사 : (당초) 성토 1,614㎡, 절토 27,541㎡,
(변경) 성토 6,098㎡, 절토 22,958㎡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5.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골재채취

가. 제안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 사적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골재를 채취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릉 초당동 주변 골재채취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초당동 유적(사적 / 2007.12.03.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번지 일원

(3) 신청내용<골재채취>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36 외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m 이격 /1구역(개별검토)}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9,463m²(골재채취 22,762m³)
- 굴착깊이 : 5m
- 분진방지시설 : 분진망 H=2m, L=363m, 세륜시설 1개소
- 골재채취기간 : '25. 12. 31.까지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16. 익산 토성 주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가. 제안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토성」 주변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토성 주변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0-3
- (3) 신청내용<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445-2{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23m 이격/2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1동 : 설치면적 211.76㎡, 높이 0.7m(최고높이 4.912m), 51.46kW
 - 2동 : 설치면적 223.05㎡, 높이 0.7m(최고높이 4.967m), 57.04kW
 - 3동 : 설치면적 211.18㎡, 높이 0.65m(최고높이 4.967m), 55.18kW
 - 4동 : 설치면적 221.51㎡, 높이 0.66m(최고높이 4.460m), 50.84kW

라. 참고사항

- (1) 서면검토의견('24.05.01./문화재위원 ○○○)
 - 익산 토성에 인접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2) 현지조사의견('24.03.15./문화재위원 ○○○)
 -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제출된 도면과 현장의 상황이 상이하여 자료 보완이 필요함

(3) 지자체의견

- 문화재와 약 123미터 떨어져 있으며, 태양광 설치 면적이 넓고 구조물이 높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7. 부여 나성 내외 옹벽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부여 나성」 내외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나성 내외 쌍북3리 마을진입로 급경사지에 반중력식 옹벽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염창리 565-1번지 외
- (3) 신청내용<옹벽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89-1{문화재구역, 8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05㎡(지정구역 55㎡, 8구역 50㎡)
 - 규모 : 길이 27m, 높이 2.5m
 - 형태 : 반중력식 옹벽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4.05.01./문화재위원 ○○○)
 - 부여 나성에 접해있는 마을 진입도로 측면에 우수 등 자연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안전 옹벽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27m 길이에서 문화재와 접하는 부분은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문화재에 접한 구간은 방향 설정 후 시행 필요

(2) 지자체 의견

- 본 신청건은 사적 부여 나성 주변에 마을진입로 급경사지에 옹벽 설치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사업 대상 부지는 「부여 나성」 문화재구역 및 8구역에 위치하며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개별심의 대상임
- 2017년 부여 나성에 대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대상지역에서는 성벽과 관련한 시설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토된 유물은 없음(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 나성(북나성) 시굴조사 약보고서」)
- 마을진입로 급경사지 옹벽설치 사업으로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경관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3)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의견

- 기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옹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시굴조사 시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서측 성벽을 연결하는 성벽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설계, 시공 등은 수리법에 따를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18.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신설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을 신설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쌍북리 요지(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90 외
- (3) 신청내용<도시계획도로 조성>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97-2{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5m 이격 /5구역(도로, 교량 등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6,037㎡
 - 규모
 - 중로 2-21 : L=103m, B=10~17m
 - 중로 3-14 : L=278m, B=12~15m
 - 중로 2-25 : L=25m, B=17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4.05.01./문화재위원 ○○○)
 - 부여 쌍북리 요지 인근에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건으로 필요시설로 이해되며,
 - 또한, 시굴 시 유구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됨

(2) 지자체 의견

- 본 신청건은 사적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 신설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사업 대상부지는 사적 부여 쌍북리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제5구역에 위치하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신설 및 확장에 해당하여 개별심의 대상에 해당함
- 도시계획도로 신설 사업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어 경관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19. 태안 안흥진성 주변 전통한옥건축물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사적 「태안 안흥진성」 주변 전통한옥건축물 신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태안 안흥진성 주변 전통한옥건축물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0년 9차 소위원회('20.11.25.)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태안 안흥진성(사적 / 2020.11.02. 지정)
 - 소재지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155-1
- (3) 신청내용<전통한옥건축물 신축>
 - 위치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109-1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6m 이격/1구역(개별검토)}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014㎡, 건축면적/연면적: 74.16㎡
 - 토 공 : 흙깎기(H=1.1m), 230㎡
 - 구조물공 : 줄떼-75㎡
 - 우수 공 : 우수관(400) L=60m, U형측구 L=62m, 집수정 3개소
 - 오 수 공 : 우수관(D200, PVC) L=15m
 -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T=20cm) A=380㎡

구분	'20년 소위9차-부결	금회	증감
건축면적/연면적	99,90㎡	74,16㎡	감 25.74㎡
건축규모	지상1층(1동)	지상1층(1동)	-
최고높이	7m	6.55m (경사지붕,기단포함)	감0.55m
건축구조	경량철골조	일반목구조	-
보강토옹벽	120m(H=2m~4.9m)	-	감 120m
최대 절토고	3.07m	1.1m	감1.97m
최대 성토고	3.50m	-	감 3.50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4.11./문화재위원 ○○○)

- 신청 내용은 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대상지는 안흥진성 북문 진입도로 우측 능선(산마루)에 입지하고 있고,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기단 높이 0.5m, 건축물 높이 6.0m의 한옥으로 계획되어 있음. 원경에서 보았을 때 건축물이 산마루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전에 이곳에 건물이 있었던 곳이고 신축하고자 하는 유형이 한옥으로 계획되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다만 제시된 계획안은 대지의 높은 곳을 기준으로 성토하고 축대를 계획하였으며, 대지 주변의 수목에 대한 계획이 고려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따라서 대지의 낮은 곳을 기준으로 대지의 레벨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수목 이외에 원경을 고려하여 수목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수목식재 관련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20. 홍성 홍주읍성 내 광장 물고임 및 잔디 정비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홍성 홍주읍성」 내 광장 물고임 및 잔디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 홍주읍성 내 광장 물고임 및 잔디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사적 / 1972.10.24. 지정)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
- (3) 신청내용<광장 물고임 및 잔디 정비>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08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광장 물고임 정비 및 잔디보식
 - D200 유공관(L=189m), D150 유공관 설치(L=690m), 매설깊이: 50cm
 - 맨암거+부직포 설치(L=879m)
 - 콘크리트 수로관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L=43m)
 - U형 플룸관(W=300, H=300, L=2m), 스틸그레이팅(W=995, H=295)
 - 잔디보식(A=1,550m²)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21.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태양광 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충남 보령시 소재 사적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 2009.08.24. 지정)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931
- (3) 신청내용<태양광 시설 설치>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442(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태양광 설치(625W×96ea=60kW) A=262.5m²
 - 건축면적/연면적 : 674.74m²/497.88m²
 - A동 구조물 : 5,600×4,930×2,885 / B·C동 구조물 : 3,000×4,930×2,272 / D동 구조물 : 3,000×4,930×1,819 / E동 구조물 : 3,000×4,930×2,164 / F동 구조물 : 3,000×4,930×2,090
 - 태양광 설치시 전체높이: A동 7.9m, B·C동 7.3m, D동 6.8m E동 7.1m F동 7m(기존 건축물 높이 : 5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22.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4년 4차 위원회('24.04.17.)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등
- (3) 신청내용<소매점 신축>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사용면적) : 2,194㎡(330㎡)
 - 건축면적 : 40㎡
 - 층수/구조 : 지상 1층(최고높이 3.77m) / 경량철골구조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4.05.01./문화재위원 ○○○)
 - 본 건물은 지정유산인 함안 말이산 고분군 서고분군의 구릉 서쪽의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된 곳에 3.7m 높이의 제1종근생(소매점)을 건축하고자 신청한 것임.

-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되었을 경우, 문화재구역 바깥의 서쪽에 위치한 소구릉에 의해 대부분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재로부터 일부 가시 되는 건축물의 동측에 차폐식재하면 지정유산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말이산 고분군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건물 배치 조정
 - 차폐식재를 통해 경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23. 경주 흥덕왕릉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흥덕왕릉」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흥덕왕릉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흥덕왕릉(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

(3) 신청내용<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길 193-19(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0m 이격 /3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설치면적 : 2,891,75m² / 876m²
- 건축물 높이 : 1동(9.7m), 2동(8.4m), 3동(6.9m)
- 태양광설치 후 최고높이 : 1동(10.4m), 2동(9.5m), 3동(9.5m)
- 설치용량 : 198.75kW

(4) 신청인 의견

- 기존 건축물(축사)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4.03./문화재위원 ○○○)

- 문화재구역에서 230m 이격된 축사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축사지붕이 중첩되어 문화재에서의 경관이 현재도 좋지는 않으나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가 일부 노출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 다만, 설치예정인 1~3지붕면에서 각각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고 추후 주변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설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24. 강화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산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4년 3차 위원회('24.03.13.)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50-3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61m 이격/1구역(개별검토)}
 - 사업내용

구분	'24년 3차-부결	금회
대지면적	374.0㎡(사업부지 369.0㎡, 도로 5.0㎡)	374.0㎡(사업부지 369.0㎡, 도로 5.0㎡)
건축면적/ 연면적	73.60㎡ / 147.20㎡(주1동)	72.19㎡ / 72.19㎡(주1동)
건축규모	지상2층 / 최고높이(8.8m)	지상1층 최고높이 5.6m
건축구조 (지붕형태)	일반철골구조(경사지붕 - 박공지붕)	일반철골구조(경사지붕 - 박공지붕)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흙쌓기(H=+0.7m) V=80.8㎡, 흙깎기(H=-1.2m) V=55.3㎡ · 구조물공 : L형옹벽(H=0~1.2m) L=40.42m · 상수공 : 관정 2개소, 상수관(D20) L=12.0m · 우수공 : 우수관(D100) L=56.8m, U형 트렌치(200×200×1,000) L=6.90m, 집수정(300×400) 4개소 · 오수공 : 오수합병정화조 3톤(15인용)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V=55.30㎡ · 부대공 : 보차도경계석(H=0.2m) L=28.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흙쌓기(H=+0.7m) V=80.8㎡, 흙깎기(H=-1.2m) V=55.3㎡ · 구조물공 : L형옹벽(H=0~1.2m) L=40.42m · 상수공 : 관정 2개소, 상수관(D20) L=12.0m · 우수공 : 우수관(D100) L=56.8m, U형 트렌치(200×200×1,000) L=6.90m, 집수정(300×400) 4개소 · 오수공 : 오수합병정화조 3톤(15인용)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V=55.30㎡ · 부대공 : 보차도경계석(H=0.2m) L=28.8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25. 강화 외성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외성」 주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주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4년 2차 위원회('24.02.21.)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 2003.10.2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강화도 동해안 일대)
- (3) 신청내용<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470-2(문화재구역으로부터 0.35m 이격 /1, 2-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4년 2차-부결	금회
대지면적	1,217㎡(사업부지 893㎡)	1,217㎡(사업부지 586㎡)
건축면적/ 연면적	118.48㎡ / 197.76㎡	73.56㎡ / 73.56㎡
건축규모	지상2층(7.2m)	지상1층(4.75m)
건축구조 (지붕형태)	평지붕	평지붕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치(200×200mm) : 7.9m · U형 측구(300×200mm) : 31.96m · 보강토옹벽(250×510×350mm) : 42.28㎡ · 식생블럭(1000×700×500mm) : 183.55㎡ · 맨홀(600×600mm) : 2개 · 빗물받이(400×500×600mm) : 10개 · PVC관(D150) : 99.43m · PE관(D200) : 15.4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치(200×200mm) : 5.03m · U형 측구(300×200mm) : 29.5m · 보강토옹벽(500×420×250mm) : 105.77㎡ · 식생블럭(248×248×80mm) : 172.09㎡ · 맨홀(600×600mm) : 2개 · 빗물받이(400×500×600mm) : 10개 · PVC관(D150) : 91.61m · PE관(D200) : 15.99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2.13./문화재위원 ○○○)

- 본 사업부지 중 2-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은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외성과 연결한 1구역에 대한 토목공사(특히 옹벽)는 경관 뿐만 아니라 성벽 기저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남측의 보강토 옹벽 대신 식생블럭을 사용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26. 나주목 관아와 향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나주목 관아와 향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목 관아와 향교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4년 2차 소위원회('24.03.27.)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 2007.07.31.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계동 일원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전남 나주시 경현동 116-1번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90m 이격 /1구역(개별검토)}
 - 사업내용
 - 건축면적 288.34㎡, 연면적 264.84㎡ / 평지붕, 최고높이 6.6m
 -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4.04.16./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나주목 관아와 향교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건축물 계획 내용이 저수지 측(향교 반대 측)에 단층(평지붕 6.6m)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교 측에 면한 지형 및 수목 환경은 유지하고 건축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향교 측에 면한 수목은 유지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명, 조건부가결 12명

27. 나주읍성 주변 건축물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나주읍성」 주변 건축물 신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읍성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2년 11차 위원회('22.11.09.)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4년 3차 위원회('24.03.13.)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읍성(사적 / 1990.10.31.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물 신축>
 - 위치 : 전남 나주시 삼도동 856-15{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3m 이격 /6구역(타 문화재 허용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타 문화재 :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2동 신축

구분	'22년 11차-부결	금회	비고
사업내용	주택 2동 신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2동 신축	
건축면적 연면적	42㎡ (1동당 21㎡)	좌동	
최고높이	6.5m	좌동	
구조	판넬조립식	좌동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4.04.16./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나주읍성 보호구역으로부터 13m 이격된 6구역(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의한 구역)이며, 나주 동점문 석당간의 역사문화환경 1구역(개별 검토 구역)에 해당하는 곳에 건축면적 21㎡, 높이 6.5m,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크게 지형 변화없이 작은 규모로 건축되나 그 높이가 높아 1층 기준 경사지붕으로 건축됨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2) 지자체 의견
 - 신청대지는 동점문 밖 석당간(1구역) 및 나주읍성(6구역)에 해당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임
 - 신청 필지 인근 성북동 13-1, 13-2번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22.5.영해 문화유산연구원) 읍성의 외벽부와 내벽부 채움석이 확인되어, 성벽구간 일원을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 예정이나 정확한 시기 미정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28. 나주 반남 고분군 내 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나주 반남 고분군」 내 조형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 반남 고분군 내 조형물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 반남 고분군(사적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3 등
- (3) 신청내용<조형물 설치>
 - 위치 :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71-2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금동관 조형물 1식 설치(폭 3.2m, 높이 2.5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29.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보호구역 내 마을표지석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사적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보호구역 내 마을표지석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보호구역 내 마을표지석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사적 / 1998.09.17. 지정)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68-1번지 외, 춘양면 대신리 외
- (3) 신청내용<도로 확장>
 - 위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39-4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표지석 1식 설치(면적 15m², 높이 3.3M)
 - * 효산2리 모산마을 2023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30. 완도 청해진 유적 보호구역 내 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사적 「완도 청해진 유적」 보호구역 내 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완도 청해진 유적 보호구역 내 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완도 청해진 유적(사적 / 1984.09.01. 지정)
 - 소재지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734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주택 신축>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36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45.17㎡, 연면적 81.34㎡, 높이 7.923m(외쪽경사지붕), 철골구조, 판넬 마감

라. 참고사항

- (1) 보호구역 내 주택신축 허가 현황
 - 2023년 6차 위원회('23.06.14.) 조건부허가
 - (규모) 건축면적 57.54㎡, 연면적 110.92㎡, 높이 7.5m(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 (조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31.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적 「영주 소수서원」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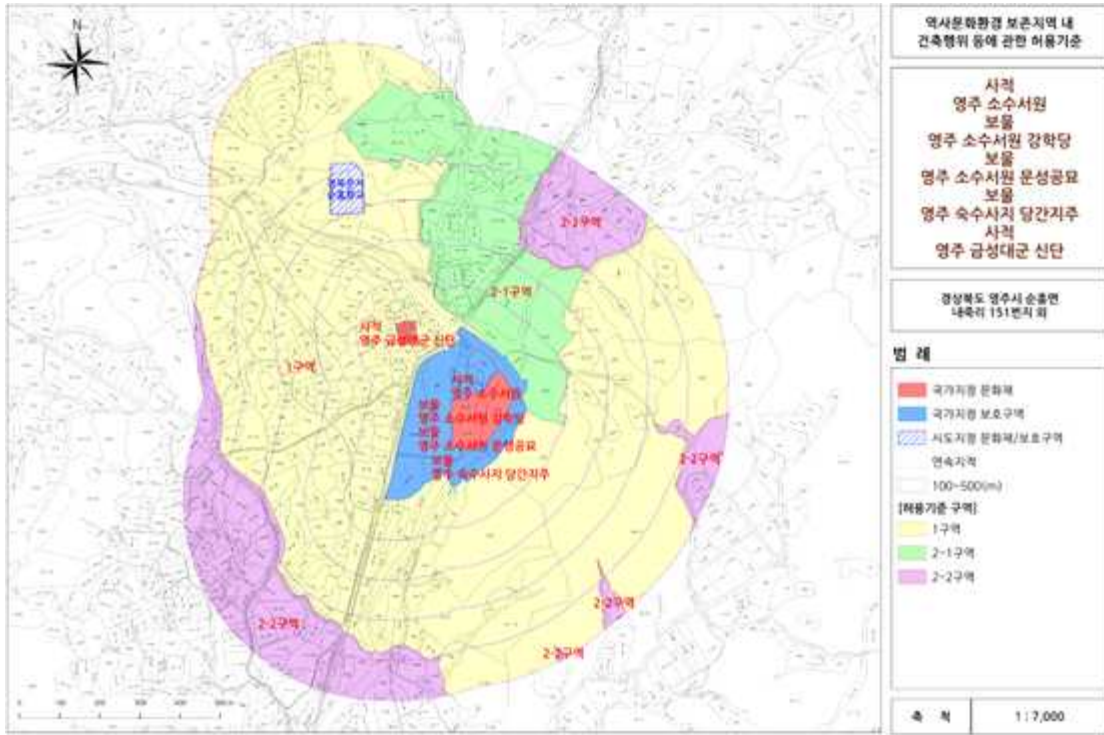
- 영주 소수서원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영주 순흥향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의견 없음 : 2024.04.02.~04.22.(20일간)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2개소와 보물 3개소, 시도지정문화재 1개소 통합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영주 소수서원(사적 / 1963.01.21. 지정),
영주 금성대군 신단(사적 / 2007.12.31. 지정),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보물 / 2007.01.21. 지정),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보물 / 2004.04.06. 지정),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보물 / 2004.04.06. 지정),
영주 순흥향교(경상북도 문화재자료 / 1998.04.13. 지정)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번지 등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7.03.29. 고시)		허용기준 조정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높이규제 표준안 사용
2-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높이규제 표준안 사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재축 및 보수 허용		○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재축 및 보수 허용함		공통사항 표준안 사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표준안 사용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p>중첩부분 명확화/ 개별검토 용어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3m 이상의 성·절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3m 이상의 성·절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p>개별검토 용어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p>타법관련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봄 	<p>세계유산 관련사항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p>타법관련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p>불필요 문구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p>불필요 문구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p>개별검토 용어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p>공통사항 협의기준</p>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32. 영주 순흥 어숙묘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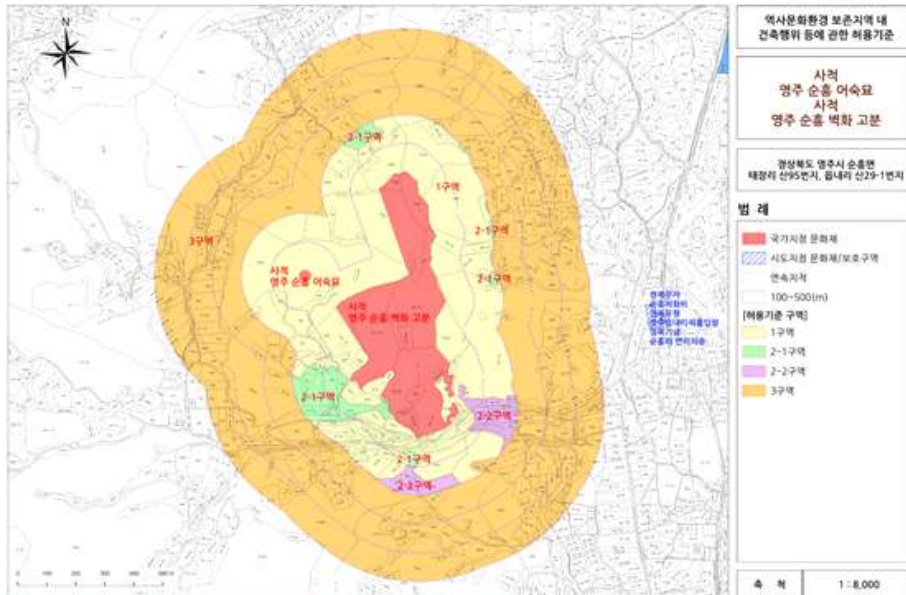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적 「영주 순흥 어숙묘」와 「영주 순흥 벽화고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순흥 어숙묘와 영주 순흥 벽화고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별도 접수 의견 없음 : 2024.04.02.~04.22.(20일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영주 순흥 어숙묘(사적 / 1974.09.05. 지정),
영주 순흥 벽화고분(사적 / 1985.11.07. 지정)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읍내리 등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변동없음)



본 도면은 설계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공판의 효력에 불응할것을 통보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 도면도적 사용을 금합니다.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20.12.18. 고시)		허용기준 조정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내 재·개축은 허용)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높이규제 표준안 사용
2-2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높이규제 표준안 사용
3구역	○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표준안 사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표준안 사용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사항 표준안 추가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중첩부분 명확화/ 개별검토 용어수정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표준안 추가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타법관련 삭제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불필요 문구 삭제
			○ 2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불필요 문구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표준안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협의기준 추가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33. 광주 충효동 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사적 「광주 충효동 요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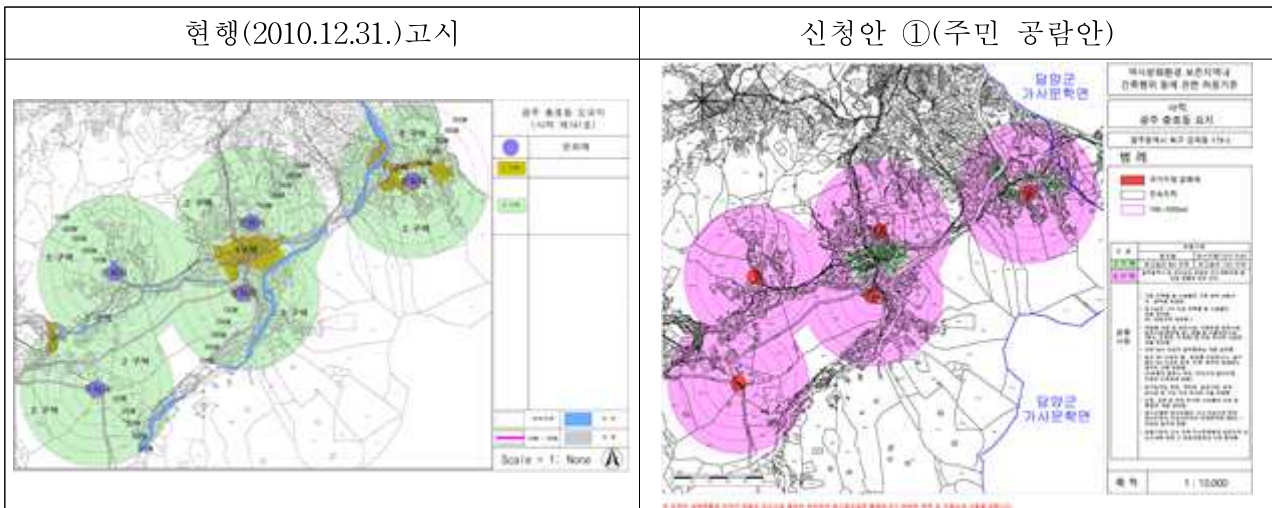
○ 광주 충효동 요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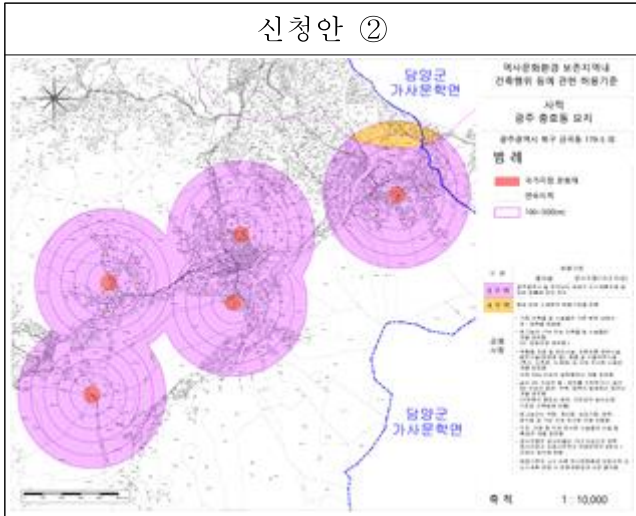
※ 주민의견 수렴 실시

- (광주광역시 북구) '23.11.22.~12.12.(21일간) / 의견 없음.
- (전라남도 담양군) '23.12.08.~12.28.(21일간) /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충효동 요지(사적 / 1964.08.29. 지정)
 - 소재지 : 광주 북구 금곡동 179-5 일대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2010.12.31.)고시		구분	신청안 ① (주민 공람안)		구분	신청안 ②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담양군 도시 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 향검토구역 내에서 관 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3구역	○광주광역시 및 전 라남도 담양군 도 시계획조례 등 관 련 법률에 따라 처 리		4구역	○명승 담양 소 쇄원의 허용기 준을 따름	
공통 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 존건축물 개·재축 가 능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자구수정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 심의		○최고높이 17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담양군은 제외함.)					자구수정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 도와 채도가 낮은 색		삭제					색상관련 내용삭제

구분	현행(2010.12.31.)고시		구분	신청안 ① (주민 공람안)		구분	신청안 ②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발전시설 추가, 개별검토 용어수정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굴착내용 추가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용어수정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자구수정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경사지붕 기준추가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도시계획 관련추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2.06./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광주 충효동 요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 충효동 요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1종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 허용기준은 건물이 있는 1종 주거지역과 임야의 자연녹지지역이며, 1종 주거지역은 2층 규모(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의한 2구역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좌측 마을은 공원(무등산공원) 구역으로 개발이 어려우므로 2구역(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의한 구역)으로 하고, 기존 마을의 1종 주거지역은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신청안 1안으로 할 것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34. 사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소재 사적 「인천 계양산성」 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천 계양산성 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및 허용기준 조정 및 보존지역 범위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명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소재지	비고
1	인천 계양산성 (사적 / 2020.05.22. 지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 10-1	
2	강화 삼랑성 (사적 / 1964.06.10. 지정)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3	강화산성 (사적 / 1964.06.10. 지정)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통합
4	강화 고려궁지 (사적 / 1964.06.10. 지정)	○○○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관청리)	
5	강화 부근리 지식묘 (사적 / 1964.07.11. 지정)	○○○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라. 참고사항

- 시·도별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구분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서울	100	100	50	50
부산·대구·광주·울산	200	500	200	500
인천·대전·세종·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	200	500	200	300
제주	500	500	3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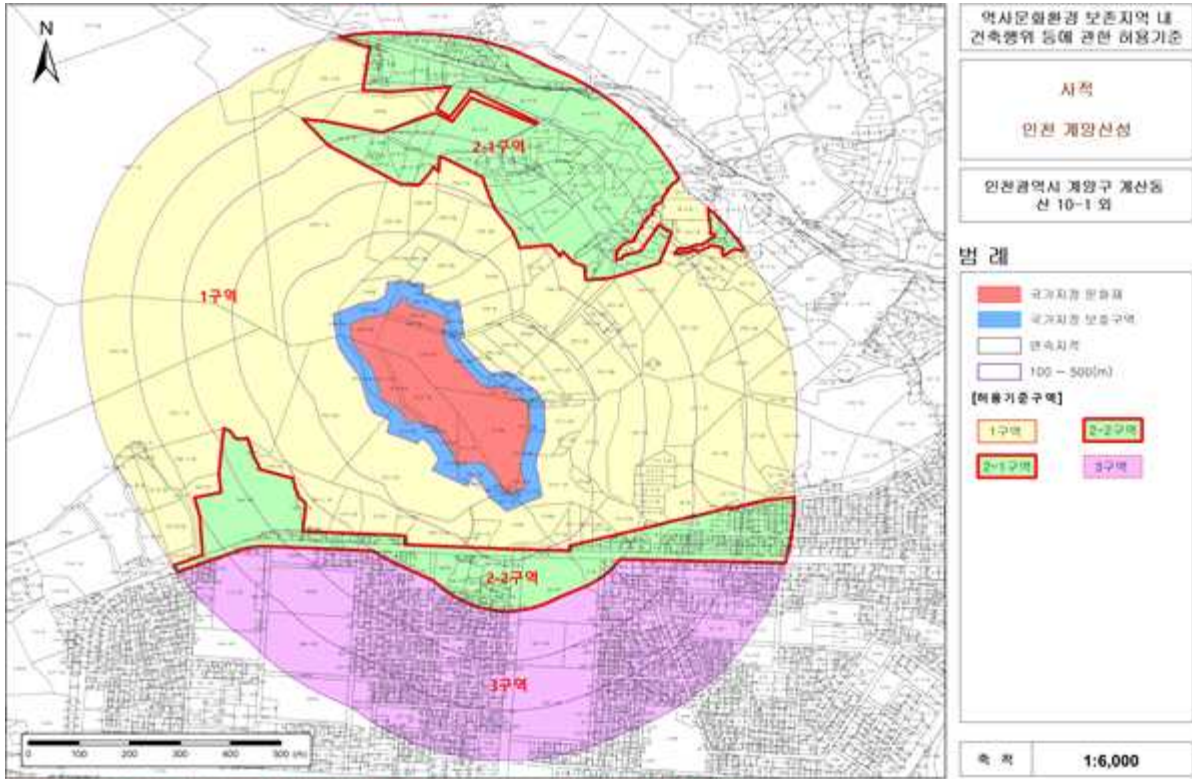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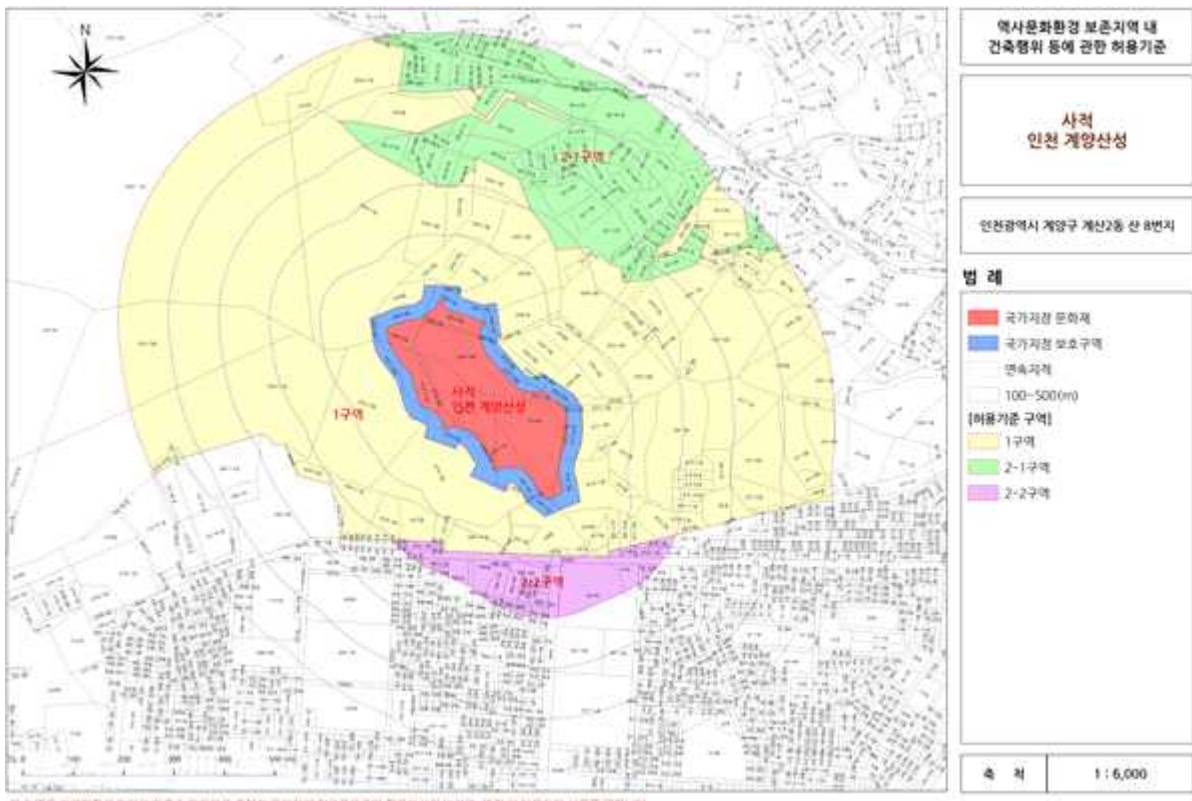
붙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4부.

붙임 1) 사적 「인천 계양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변경 전)



○ 허용기준 도면(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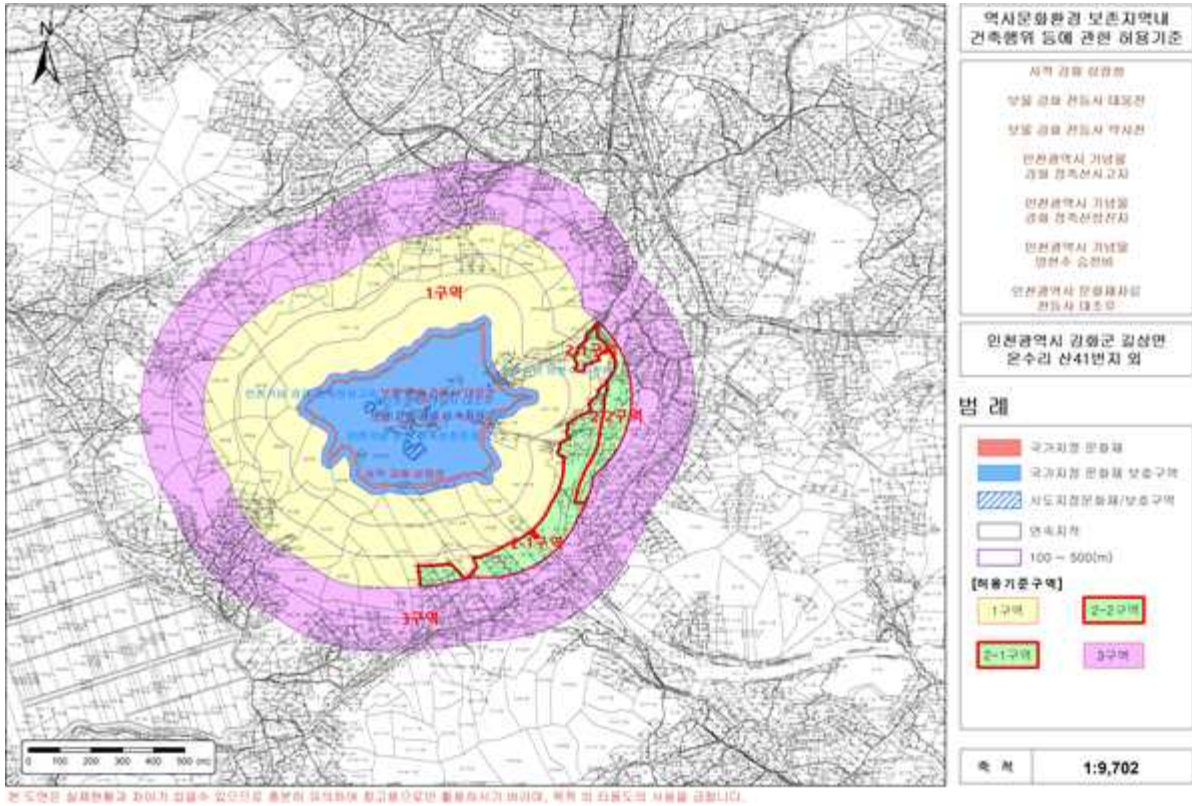


○ 허용기준(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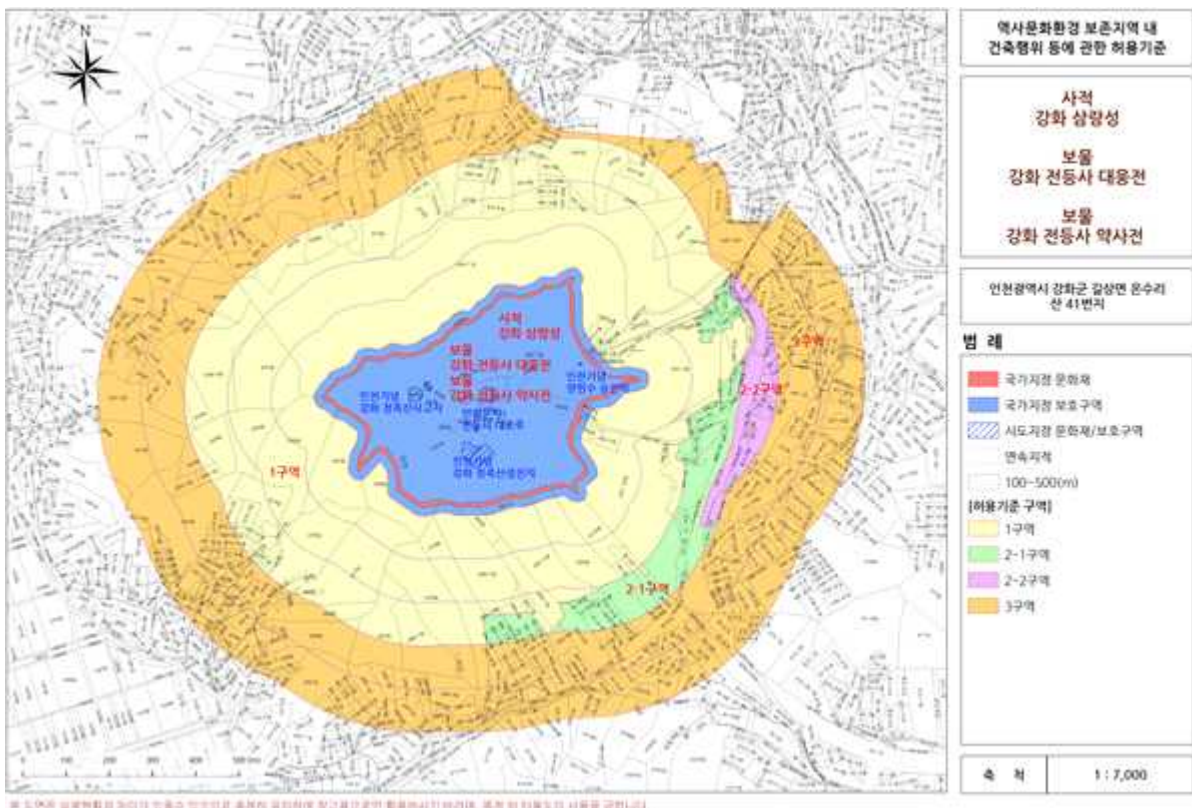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2-2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2) 사적 「강화 삼랑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현황)



○ 허용기준 도면(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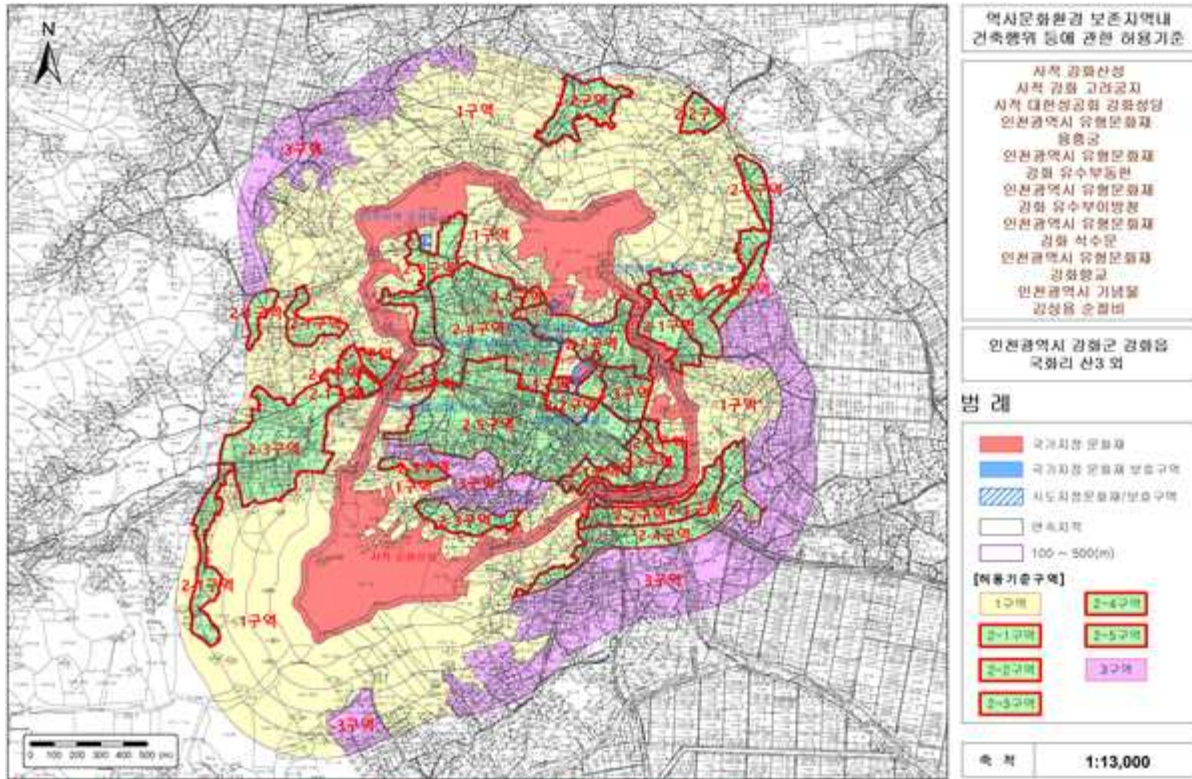


○ 허용기준(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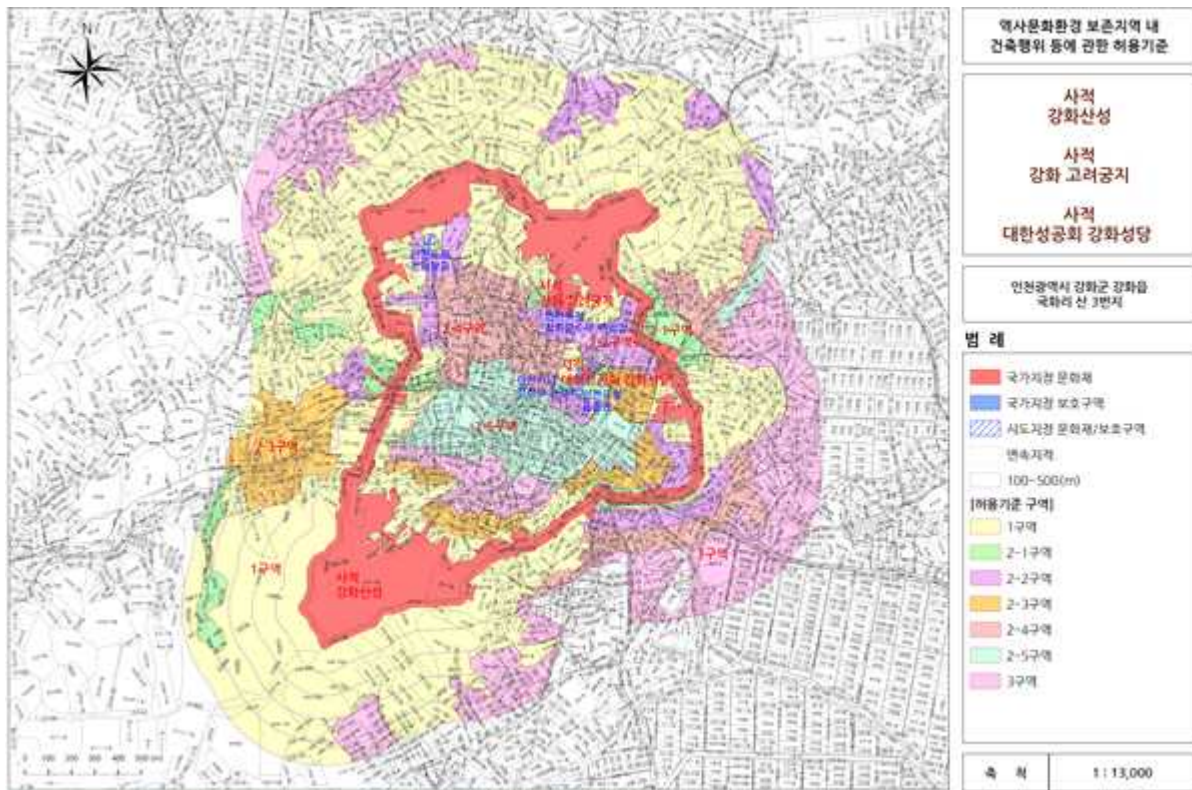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3) 사적 「강화산성」 및 「강화 고려궁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현황)



○ 허용기준 도면(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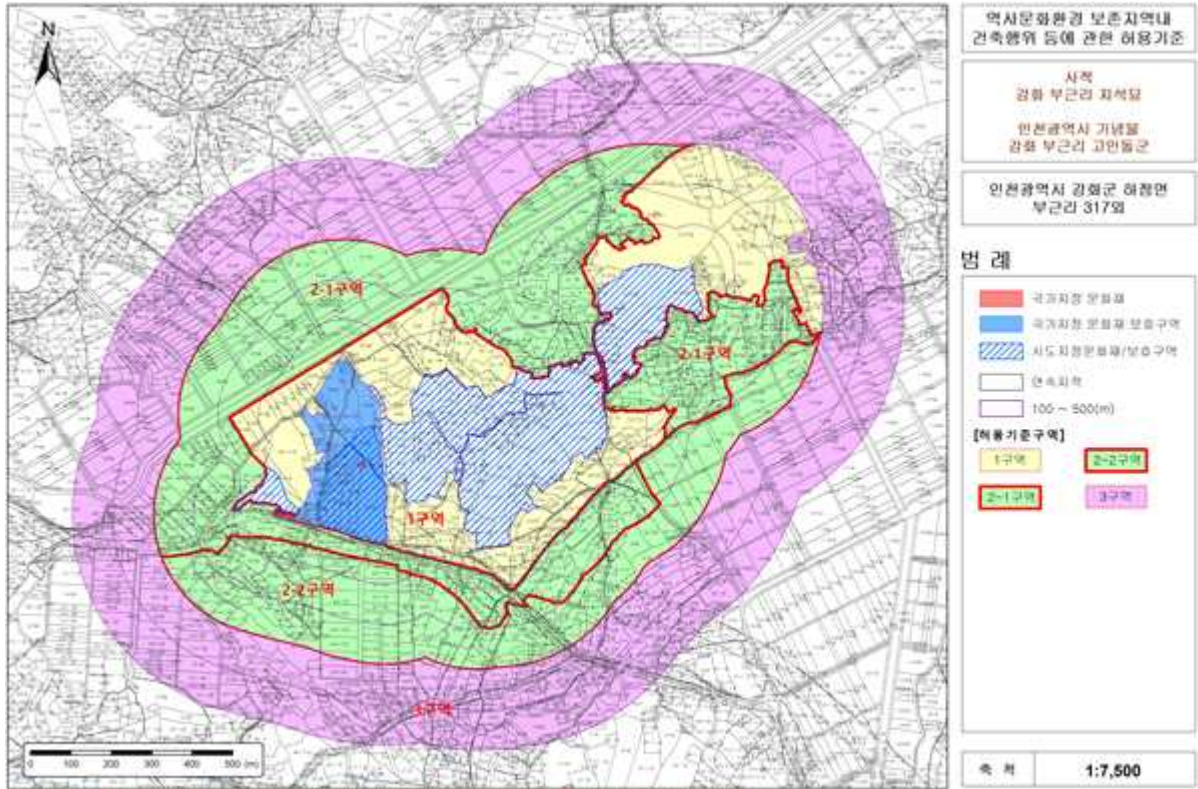


○ 허용기준(변경없음)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4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5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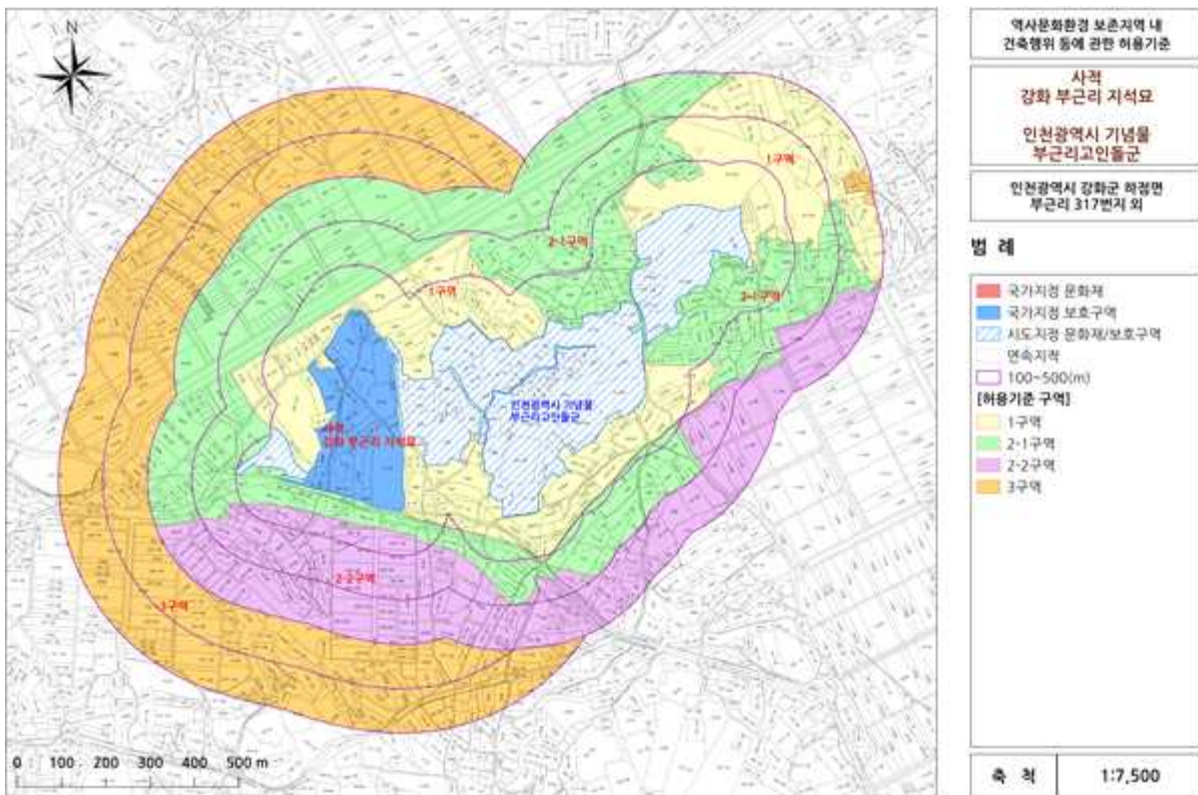
붙임 4) 사적 「강화 부근리 지석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현황)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여 참고용으로서 활용하시기바라며, 목적 외 사용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허용기준 도면(변경)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여 참고용으로서 활용하시기바라며, 목적 외 사용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허용기준(변경없음)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세계유산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봄.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4-05-035

1. 성주 회연서원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사적 「성주 회연서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주 회연서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테마별 사적(서원·사우) 공모 결과 접수된 36건 중 전문가 심사('15.7.)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
 - '17년 2차 위원회('17.02.15.)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7년 4차 위원회('17.04.12.) 보류 : 건물배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성주 회연서원(星州 檜淵書院)(도유형문화재 / 1974.12.10. 지정)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동강한강로 9(신정리)
- (3) 지정신청 범위 : 문화재구역 14필지 17,520㎡
- (4) 관리단체(안) : 청주정씨 문목공파종중
- (5) 신청사유
 - 성주 회연서원은 한강 정구를 주향으로 배향하는 서원으로서, 영남학파의 주맥인 한강학파가 형성된 중요한 거점이었던 곳임. 기록유산과 주변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사적지정 추진경과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1974.12.10.)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12.12.17.)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성주 회연서원 사적지정 신청서 제출(경상북도→문화재청 : 2016.04.01.)
-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6.12.02.)
- '17년 4차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 보류(2017.04.12.)
 - 건물배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 보완자료 제출(성주군→문화재청 : 2023.12.04.)
-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2차 현지조사(2024.02.16.)

(2) 주요 연구성과

- 회연서원(2019, 정우락, 김학수, 이창일, 박정해,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한강 정구와 무흘문화(2018, 한강학연구원·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역락)
- 남명학연구원총서 5(2011, 남명학연구원, 예문서원)

(3) 현지조사의견

- 1차 현지조사의견('17.02.27/문화재위원 ○○○, ○○○)
 - 서원관련 기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강당건물은 대원군의 서원철폐 시 훼손되지 않았고 17C 건립된 후 19C 말 중건되고 지속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확인됨.
 - 조선 후기 회화(그림)에 묘사된 회연서원 관련 건물지 등은 상당히 세밀하게 회연서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강당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1970년대 이후 건립된 것임.
 -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크나 시굴조사 등으로 역사기록(문집)과 진경산수에 묘사된 서원의 건물배치, 시기 등과 관련된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시굴조사 결과 검토 후 지정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차 현지조사의견('24.02.16./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
 - 본 건물은 성주 회연서원을 사적으로 지정·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성주 회연서원은 한강 정구 선생을 모신 곳으로 1622년 건립, 1690년 사액 받았음. 이후 대원군 서원 철폐령에 의해 1868년 철폐되었으나 강당만은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판단됨
 - 현 회연서원은 1975년 발굴·시굴조사 없이 재건립 되어 원래의 배치, 건물의 위치는 확정할 수 없음

- 서원의 지정에 있어서는 터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배치, 건물의 규모, 성격 등이 판명되는 것이 중요한데 현황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 사적으로는 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단, 강당은 상량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건물의 배치, 규모 등 규명이 어려워 '사적'으로 지정 어려움
 - 강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치 규명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4.2.16.(금)	대상 문화재	성주 회연서원(星州 檜淵書院)	
조 사 자	성 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 (직책)
	○○○	건축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	한국사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	고문헌	사적분과	(前)문화재전문위원
	○○○	성곽	사적분과	문화재전문위원
	○○○	건축사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전문위원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성주 회연서원(星州 檜淵書院)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14필지, 17,520㎡/“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해당없음 < 보호구역 > 해당없음
보 호 관 리 사 항 검 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제출자 :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 · ○○○, 전 사적분과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문화재청장 귀하

성주 회연서원(星州 檜淵書院)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4. 2. 16.(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전 사적분과 문화재전문위원 ○○○, 전문위원 ○○○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성주 회연서원(星州 檜淵書院)으로 신청되었으며, 지역명+문화재명으로 **성주 회연서원(星州 檜淵書院)**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성주 회연서원은 주향으로 배향되는 한강 정구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건립한 회연초당(檜淵草堂)이 있던 곳에 창건된 서원이다. 회연서원의 입지환경과 풍수논리에 대한 박정해의 연구(박정해, 「회연서원의 입지환경과 풍수논리」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6권)에 의하면 회연서원의 입지는 풍수논리에 다양한 각도에서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회연서원의 주산은 이름 없는 봉우리로 보이지만, 횡룡입수의 필수요건인 귀성과 낙산을 갖춘 모습으로 회연서원 주산의 역할에 충실하다 하였다. 둘째, 회연서원의 혈처에 강당인 경회당을 입지시킴으로써, 회연서원의 지향점을 학문탐구에 방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회연서원의 물길인 대가천이 회연서원 주산의 뒤쪽을 감싸고 있어 득수에 좋은 형세라 하였다. 넷째, 회연서원은 당시에 유행하던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적용하여 좌향을 정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학자로서 풍수지리 등에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던 한강 정구의 식견에 의해 회연서원이 입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회연서원이 위치한 경상북도 성주군 신정리는 서원의 주향자인 한강 정구의 후손들의 집성촌인 수성리 갖말마을에 이웃하여 있으며, 서원 경내에는 한강정구신도비가 서원 뒤쪽에는 구곡원림의 하나인 무흘구곡 제1곡 봉비암이 위치한다. 또한 서원 경내는 한강 정구가 100그루의 매화나무를 심어 조성했다고 전하는 백매원 등이 남아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성주 회연서원 주요 연혁

연대	내 용	관 련
1583	회연초당 및 백매원 건립	한강 정구
1592~1597	임진왜란으로 소실	
1605	회연초당 중건	한강 정구
1622	서원 건립 착공	석담 이윤우 등 문인 중심
1627	서원 완공, 한강 정구 위패 봉안	초대 원장 죽헌 최항경(1560-1638)
1628	동강 김우옹 위패 봉안	우복 정경세(1563-1633), 창석 이준(1560-1635) 주도
1668	신도비 서원 경내로 이건	묘소의 이장(창평산 → 인현산)
1677	석담 이윤우 종향	
1690	‘회연서원’ 사액	성천 사인(士人)의 상소 및 목내선(睦來善)의 역할에 의함
1729	동강 김우옹 위패 이안 → 청천서원	
1868	혜철 【강당은 참관(站館)으로 유지】	도한기(1836-1902)의 『읍지잡기(邑誌雜記)』 기록
1896	강당 중건	상량문(상량 후 275년)
1974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1호 지정	
1975 이후	복원사업 연차적으로 추진	정부지원, 지방 유림, 문중 등

- 회연서원은 1583년(선조 16)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의 한 사람인 한강 정구가 제자를 기르기 위해 건립한 회연초당(檜淵草堂)에서 비롯되었다. 처음 한강 정구는 그의 선영이 있는 창평산 한강(寒岡)에 정사(精舍)를 지어 10여 년 동안 자신의 학문적 성격을 찾고 이에 따른 강학활동을 시작하였고,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 자신의 학문적 성숙은 물론 문인들의 결속 및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강학활동을 위해 정사로부터 멀지 않은 위치에 초당을 건립하였다. 두어칸 규모로 건립한 초당의 이름을 회연이라 한 것은 여러 설이 있으나 초당의 배경이 된 봉비암(鳳飛巖)이 대가천변에 높이 솟아 있었는데, 그 아래에 회오리처럼 도는 깊은 소가 ‘회연(回淵)’이며 이것이 후에 ‘회연(檜淵)’으로 바뀌었다는 설과 회나무가 연못가에 있었기 때문에 ‘회연(檜淵)’이라 하였다는 설이 대표적이다. 이후 회연초당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정구에 의해 1605년(선조 38)경에 중건되었으나 그가 여러 이유로 무흘정사(武屹精舍), 사양정사(사양정사), 사빈정사(사빈정사)로 거처를 옮겨 다니는 와중에 퇴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강 정구의 사후 2년 뒤인 1622년(광해군 14) 정구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문인들과 지방의 유림들이 의견을 모아 회연초당이 있던 자리에 서원을 창건하기로 하여 5년간의 공사를 거쳐 1627년(인조 5)에 완공하고 선생을 주향으로 배향하고 제자인 죽헌(竹軒) 최항경(崔恒慶)이 초대원장을 맡아 서원으로서 체계를 갖추었다. 이어 1628년(인조 6)에는 성주 양강(兩岡)의 한 사람인 동강(東岡) 김우옹(金字顛)을 추향하였는데,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창석(蒼石) 이준(李竣) 등이 평소 두 사람의 친분을 고려하여 함께 봉안코자 한 것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후 1729년(영조 5)에 김우옹을 주향으로 모신 청천서원(淸川書院)이 창건됨에 따라 동강의 위패는 이안하게 된다. 한편 회연서원의 창건은 지역 유림의 공의(公議)가 결집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를 주도

적으로 이끈 이들은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와 등암(藤巖) 배상룡(裴尙龍) 등 성주지역의 문인들이었는데, 특히 이윤우는 한강 정구의 추향 사업의 대부분에 직접 관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활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강의 직전 제자로 인식되어 1677년(숙종 3) 회연서원에 종향된다. 1663년(현종 4) 창평산 묘소 아래에 조성되었던 그의 신도비도 같은 해 묘소가 성주의 진산인 인현산으로 이장(移葬)하게 되면서 1668년(현종 9) 서원 경내로 옮겨지게 되었다.

- 1689년(숙종 15) 회연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하는 성천(成川) 사인(士人)들의 청이 있자 앞서 성천의 학령서원(鶴翎書院, 1660년 사액)이 사액되어 첩설(疊設)을 금하는 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사액을 허락²⁾하여 1690년(숙종 16) 예조정랑 권만제(權萬濟)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회연서원’의 편액을 내려 사액서원이 되었다. 그 치제문에 따르면 선생은 김굉필(金宏弼)의 기풍을 잇고 이황의 적통을 이어받아 온화한 성품에 옛 도를 좋아하고 학문을 돈독히 하여 체용(體用)과 지행(知行)을 모두 온전히 함은 물론 후진 양성이 힘썼다고 하였다. 이후 회연서원은 한강학파의 중심 거점이자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인식되어 유지되었으나 1868년(고종 5) 서원 훼철령에 의해 강당과 한강 정구가 직접 조성한 백매원(百梅園)만 남기고 모두 훼철되었다.
- 이후 회연서원은 남아 있는 강당 및 백매원을 활용하여 서당으로 명맥을 잇다가 1974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1호 지정되었다. 1977년 정부의 지원과 지방 유림, 문중의 협력으로 사당과 동·서재 등을 건축 및 보수하였는데 『명당실기』에 따라 강당을 중심으로 서원을 복원하였으며, 1992년 회연서원의 경내 별사(別祠)로 향현사(鄉賢祠)를 건립하고, 여기에는 한강 정구가 ‘우리 고을의 선배들로 깨끗한 생활 속에서 깨끗한 절개를 지키는 자세가 매우 존경스럽다’라고 한 신연(新淵) 송사이(宋師頤, 1520~1592)와 그의 처남들인 용재(容齋) 이홍기(李弘器, 1531~1582), 육일헌(六一軒) 이홍량(李弘量, 1531~1592), 모재(茅齋) 이홍우(李弘宇), 그리고 처조카이며 제자인 동호(東湖) 이서(李 서)를 배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성주 회연서원은 70년대 이후 복원과정을 거쳤지만, 강당은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유일한 건물이자 중심건물이다. 2015년 해체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종도리 상량문에 의하면 1622년 11월 입주를 시작하여 12월에 상량했다 기록하고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1627년보다 5년 앞서고 있다.

2)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11월 4일 정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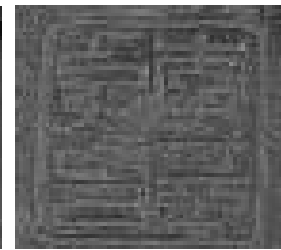


종도리 상량목서(1622년 12월 7일상량)_2015년 강당 해체수리보고서

- 도한기(都漢基, 1836-1902)의 『읍지잡기(邑誌雜記)』에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사실이 적기되어 있는데,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서원들이 훼손될 당시에 성주에서는 회연서원의 강당을 조정에서 성주에 내려오는 사신들을 머물게 하는 참관(站館)으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회연서원의 강당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하였으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연서당(檜淵書堂)’으로 한동안 유지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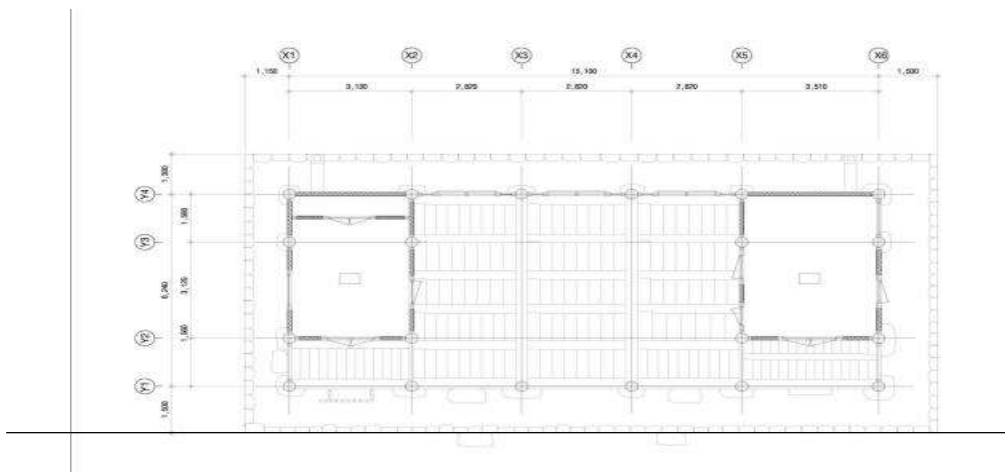


회연서당 현판
극암 이기윤 (1891~1971년)의 글씨



현판 낙관

- 강당의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중당협실형으로 중앙에 3칸 규모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정면 1칸 측면 1.5칸 규모의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당 평면도

3) 회연서당의 현판은 현재 유물전시관에 보관 중에 있으며 극암(克菴) 이기윤(李基允)의 글씨이다.



강당 기단 및 디딤돌



강당 초석

- 구조는 2고주 5량가의 홑처마 초익공 건물로 익공의 형상은 수서형으로 간략하고 초각은 되지 않았다.



강당 상부 가구



강당 익공



좌측은돌방 전면 창호



우측은돌방 전면 창호



좌측은돌방 좌측면 벽체구성



우측은돌방 우측면 벽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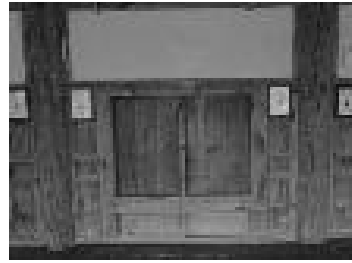
좌측은돌방 우측면 벽체구성



우측은돌방 좌측면 벽체구성



대청 배면 벽체구성(외부)



대청 배면 벽체구성(내부)



좌측은돌방 벽장



좌측은돌방 상부 다락문

■ 성주 회연서원 강당의 이력

- 회연서원의 강당 건물은 2015년 해체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종도리 상량문⁴⁾에 ‘天啓二年 壬戌十有 一月初三 日建’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천계이년(天啓二年) 임술(壬戌)은 1622년에 해당하므로 강당은 이때 건립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622년 상량문

4)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혁은 1627년에 서원이 건립되었다고 전하고 있어 상량문과 5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강 정구를 배향한 1627년을 서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적인 강당의 건립 연도는 162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日 建	一 月 初 三	壬 戌 十 有	天 啓 二 年
일 건	일 월 초 삼	임 술 십 유	천 계 이 년



정구의 제자 명단 목록-1

李 天 封	李 舒	朴 明 胤	張 顯 道	都 有 司	金 轅	一 有 司	院 營 建	檜 淵 書
이 천 봉	이 서	박 명 윤	장 현 도	도 유 사	김 주	일 유 사	원 영 건	회 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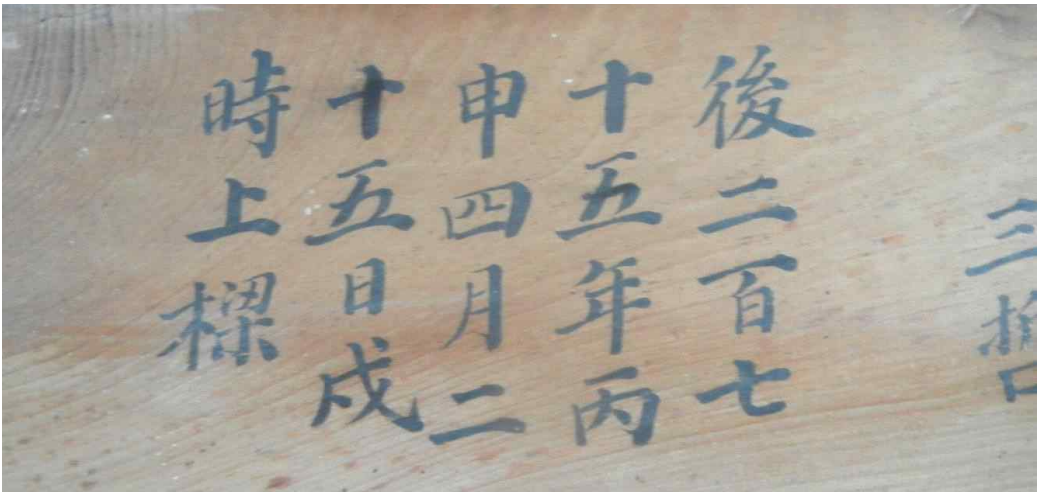
정구의 제자 명단 목록-2

崔 嶮	李 學	李 椒	呂 燦	李 善胤	諸 有司	宋 光宅	李 善繼	都 世雍	李 穰	都 監	裴 尙龍	李 埈	別 有司
최 은	이 학	이 숙	려 찬	이 선윤	제 유사	송 광택	이 선계	도 세웅	이 의	도 감	배 상웅	이 육	별 유사



정구의 제자 명단 목록-3

金 岾	柳 再昌	李 繼陶	都 望益	呂 焯	呂 焯	裴 尙虎	李 長立	李 炯
김 급	유 재창	이 계도	도 망익	려 작	려 욱	배 상호	이 장립	이 경



1896년 상량문

時 上 梁	十 五 日 戊	申 四 月 二	十 五 年 丙	後 二 百 七
시 상 량	십 오 일 술	신 사 월 이	십 오 년 병	후 이 백 칠

- 위 상량문에서 강당이 중건된 것을 알 수 있는데 ‘後二百七十五年丙申四月二十五日戊時上梁’ 후이백칠십오년(後二百七十五年) 병신(丙申)은 1896년이므로 이때 4월 25일에 중건된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의 서원은 1974년에 경북 유형문화재 51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정부의 지원과 지방 유림의 협력으로 사당과 양재 등을 건축하는 등 여러 차례 보수가 이루어졌다. 특히, 근년에 들어서는 서원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여러 건물을 새로 건립하거나 이 건하여 경역을 확장하였으며, 서원의 넓은 마당을 감싸고 있는 담장이 근래에 신축되어 일곽을 형성하고 있다.

년도	내용	비고
1975년	(구)사당, 사주문, 일각문 건립	
1976년	동재, 서재 건립	
1983년	(신)사당, 내삼문, 외삼문 건립, 관리사 이건	
1988년	관리사 건립, 협문설치	
1990년	문루, 유물전시관 건립	
1992년	향현사 건립	
1995년	관리사 개축	
1999년	강당 배면기와 보수, (구) 사당보수	
2002년	화장실 개축	
2002년	세면장 건립, 안내판 설치	
2005년	동재, 서재 번와보수	
2008년	관리사 및 담장 보수	
2009년	한강 신도비 이건	
2010년	신도비 이설	
2014년	강당 해체 보수	

1975년 이후 회연서원 수리이력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성주 회연서원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제자인 한강(寒岡) 정구(鄭逖)을 주향(主享)으로 1627년(인조 5) 창건한 서원으로서 이후 400여 년간 교육과 제향 공간으로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역사적으로는 퇴계 이황의 고제(高弟)로 인정받고 있는 한강 정구의 학문이 형성된 산실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강학활동을 통해 형성된 영남학파의 주맥인 한강학파의 거점이 되었던 곳이

다. 또한 인물사적으로는 예학자이자 성리학자이며 실학파의 선구인 한강 정구를 주향으로 모시고 있는 대표적인 서원이며, 경관적으로는 조선시대 자연과 철학과 예술이 통합된 구곡문화의 하나인 무흘구곡 제1곡 봉비암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건축사적인 측면에서는 고종조의 서원훼철에 따라 대부분의 건조물이 철거되었으나 강학의 중심 건물이었던 강당은 훼철되지 않고 현존하고 있으며, 현재 훼철되지 않는 강당 이외 서원 건물의 배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인물사적 가치 : 한강 정구 학문 형성의 산실

- 한강 정구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활동했던 학자이다. 그는 후대에 문묘 종사(文廟從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국 사림의 공론으로 거의 빠짐없이 우선순위에 꼽혔을 만큼 학덕을 공인받았던 거유(巨儒)였다. 특히 정구는 예학자로서, 성리학자로서, 실학파의 선구로서 한국유학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⁵⁾
- 한강 정구는 그의 별호인 ‘회연야인(檜淵野人)’이 상징하듯 평생 관직에 나가기보다는 초야에 묻혀 학문을 닦고 문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다만 부득이 관직에 나갈 경우에도 대부분을 외직으로 보냄으로서 확고한 출처관(出處觀)을 견지하였다.
- 정구는 심학(心學)과 예학(禮學)의 대가로 평가받았으며, 활발한 저술활동과 강학활동을 병행하여 문인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강학파’로 일컬어지는 그의 문인들은 이후 성주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사상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나아가 미수(眉叟) 허목(許穆)과의 사승관계를 통해 그의 학문과 사상은 영남을 넘어 근기지역으로 확대되었다.⁶⁾
- 따라서 정구는 그의 평생 동안 여러 곳의 서재(書齋)를 마련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학문연구와 강학을 통한 문인의 양성에 주력하였고, 그를 숭모하여 건립한 회연서원이 들어선 자리에 있었던 회연초당 또한 그러한 목적에서 건립되었다.⁷⁾
- 회연초당은 정구가 학통에 기반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학문적 열의를 실현하고자 마련한 교육공간이었다. 이 곳에서 그가 제정한 교육 지침들은 도학을 계승하고 그 이해의 심화를 추구하였던 정구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었으며, 여기에 정구의 학문적 입지와 지역 사회의 명망이 더해지면서 강학을 중심으로 그의 교육활동을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 정구가 회연초당에 머문 시기는 모두 8년 정도이나 이 시기에 자신의 학문을 보다 원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정진하였고 그가 지은 여러 저작들의 틀도 초당에 머문 시기에 거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자긍심을 영남학계로 표출시키는 공간으로 당시의 교육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정구의 문하에서 수학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지역적 범위 역시 확대되었다. 문인들 간의 학문적 공동체 의식은 갈수록 견

5) 최영성, 「한강 정구의 학문과 조선유학사에서의 위치」, 『남명학연구총서』 5.

6) 한강학연구원, 『한강 정구와 회연서원 문화』, 2019.

7) 김지은, 「한강 정구의 회연초당 건립과 교육활동의 의미」, 『역사교육연구』 35, 2019.

고해지고 정구를 중심으로 한 학파가 형성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⁸⁾

- 이후 정구가 여러 곳에 서재를 마련하여 거주지를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당이 있던 자리가 회연서원의 창건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연초당이 이러한 그의 학문 형성의 산실이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 인물사적 가치 : 한강학파 형성과 확산의 중요한 거점

- 한강 정구는 회연초당에 있으면서 그 자신의 학문적 성숙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파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철저한 강학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회연초당이 학문탐구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넘어 정구의 본격적인 강학활동의 중심으로 활용된 결과였다. 그는 초당이 완성되던 해부터 문하의 여러 인물들과 매월 강회를 갖는 이른바 ‘월삭강회계(月朔講會契)’를 만들어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어 엄격한 학문적 풍토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강학파가 형성될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되었다. 당시의 분위기는 “선생이 사문을 흥기시키고 후학을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자, 원근에서 그 소문을 듣고 흠모하여 경전을 들고 당에 오르는 자가 자리가 부족할 만큼 넘쳐났는데, 선생은 각기 그 재목에 따라 지칠 줄 모르고 가르쳤다”⁹⁾고 한 기록을 통해 느껴볼 수 있다.
- 한강 정구는 평생 학문의 도야는 물론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함으로써 300명이 넘는 문하를 두었으며, 이는 회연초당의 건립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의 강학활동의 결과였다. 이때 형성된 한강학파 문인들의 모습은 한강 정구의 생존시에 있었던 이른바 친목도모를 위한 ‘선유회합(仙遊會合)’¹⁰⁾과 ‘봉산욕행(蓬山浴行)’¹¹⁾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 문인들이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건립을 계획하면서 회연초당이 있었던 곳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 한강 정구의 사후에는 이윤우와 같은 문인들이 같은 해 4월 7일 졸곡제를 지내기가 무섭게 문집·저술의 편찬 및 간행, 행장·신도비명 등 전기류의 찬술, 서원의 건립 및 원향 등 추양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1621년(광해군 13)에 시작된 추양사업은 1636년(인종 14) 『한강집』을 초간본으로 간행하는 단계에서 일단락되었으며, 정점을 이룬 것은 서원의 건립과 신도비명의 찬술·건립이었다.¹²⁾
- 사문의 주향처로 회연이 선택된 것은 한강학파의 산실로서 상징성 때문이었으며, 여기에 회연은 선영 및 주거와 멀지 않으면서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

8) 한강학연구원, 『한강 정구와 회연서원 문화』, 2019

9) 『한강언행록(寒岡言行錄)』 권1. 「類編, 敎人」. “先生以興起斯文, 訓迪後學爲己任, 遠近聞風, 而慕執經升堂者, 坐不能容, 各目其材敎訓不倦.”

10) 한강 정구의 생존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선유회합’은 1605년 고령의 어목정(漁牧亭)에서 문인 서사원의 완락재(玩樂齋)에 도착하는 여정으로 낙동강을 유람한 ‘낙강선유(洛江仙遊)’, 1607년 흔히 ‘용화산하동범(龍華山下同泛)’으로 알려진 영산에서 함안으로의 ‘용화선유(龍華仙遊)’가 있다.

11) 봉산욕행(蓬山浴行)에 대해서는 한강 정구의 고제(高弟)로서 회연서원에 중향된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가 작성한 『蓬山浴行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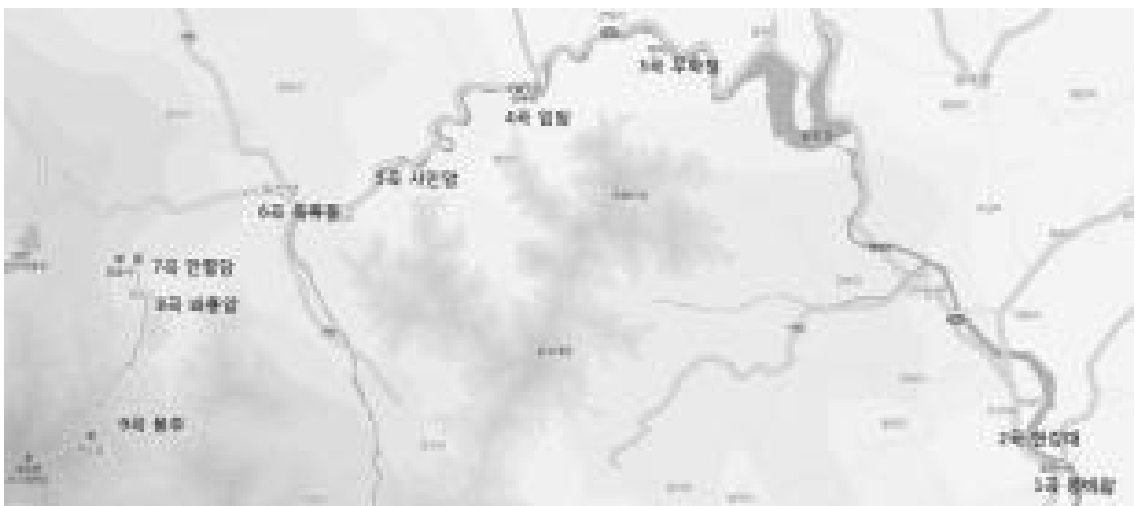
12) 정우락·김학수·이창일·박정해, 한국학중앙연구원, 『회연서원』, 2019.

고 있었기 때문에 후학들의 학문적 활용성 측면에서도 최적지였다. 이는 한강학과의 결속으로 이어졌고 물심양면의 지원 속에서 1627년(인조 5) 회연서원을 낙성하여 정구의 위패를 봉안하게 되었다. 회연서원은 한강학과의 형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서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다.

- 이처럼 한강 정구는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점, 다양한 분야의 저술활동으로 많은 서적을 찬술한 점, 다수의 서재를 경영하며 학문과 교육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점, 외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며 민생을 보살폈던 점 등 한강 정구의 학문과 교육에 열중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정구가 추구했던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

■ 경관적 가치 : 무흘구곡 제1곡의 역사·문화 경관을 담은 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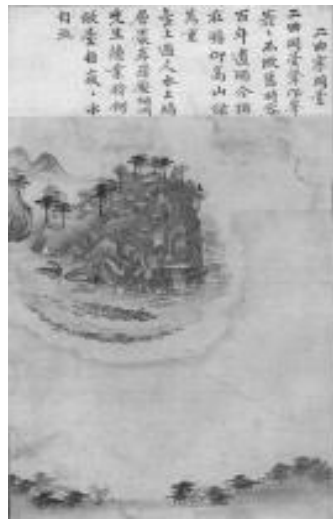
- 한강 정구는 성리학자로서 주자(朱子)를 매우 존숭하였는데, 주자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주자가 무이산(武夷山)에 은거하며 무이구곡(武夷九曲)을 경영하고 「무이도가(武夷權歌)」를 지은 것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주자가 경영한 무이구곡과 창작한 「무이도가」는 단순한 공간, 일반적인 시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주자의 삶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삶 속에 이를 구현하려 하였다. 그와 관련된 구곡원림(九曲園林)인 「무흘구곡(武屹九曲)」은 주회를 따라 배우려 한 한강 정구의 성향에서 비롯되었으며, 구곡의 출발점인 제1곡 봉비암(鳳飛巖)은 바로 회연서원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무흘구곡도」에 표현된 제1곡 봉비암 주변의 경관을 보면, 봉비암을 중심으로 좌측에 회연서원이 그려져 있어 당초 회연서원이 창건되었을 때의 주변 경관을 엿볼 수 있다.



<무흘구곡의 전체 배치도>



제1곡 「봉비암도」



제2곡 「한강대도」



제3곡 「무학정도」



제4곡 「입암도」



제5곡 「사인암도」



제6곡 「옥류동도」



제7곡 「만월담도」



제8곡 「와룡암도」



제9곡 「용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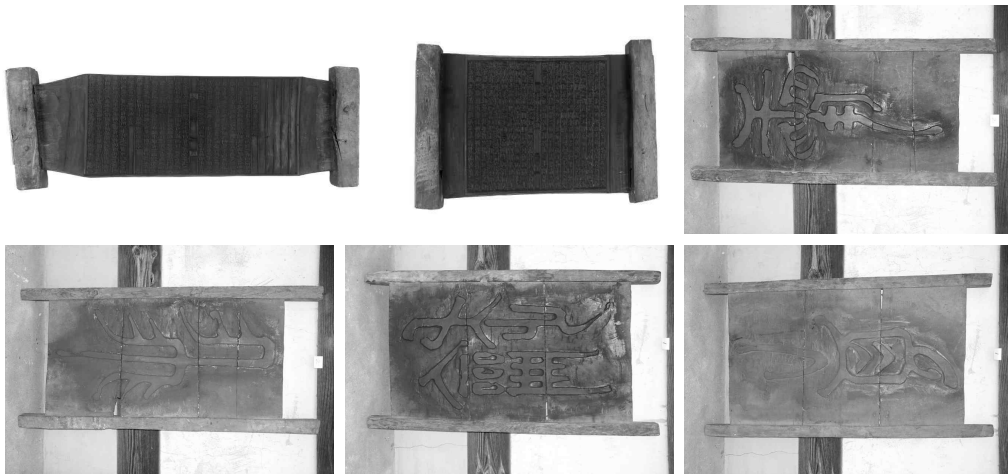
■ 학술적 가치 : 문집류, 서책 등 기록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서원(13)

- 성주 회연서원에는 90건의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대부분 한강 정구를 비롯하여 정창지(鄭昌旨)·정동리(鄭東里)·정규석(鄭奎錫)·정위(鄭煒)·정사용(鄭思容)·정재선(鄭在璇)·정두호(鄭斗鎬) 등 후손들의 교지(教旨)·교첩(教牒)·시권(試券)·유지(諭旨)등이다.



회연서원의 고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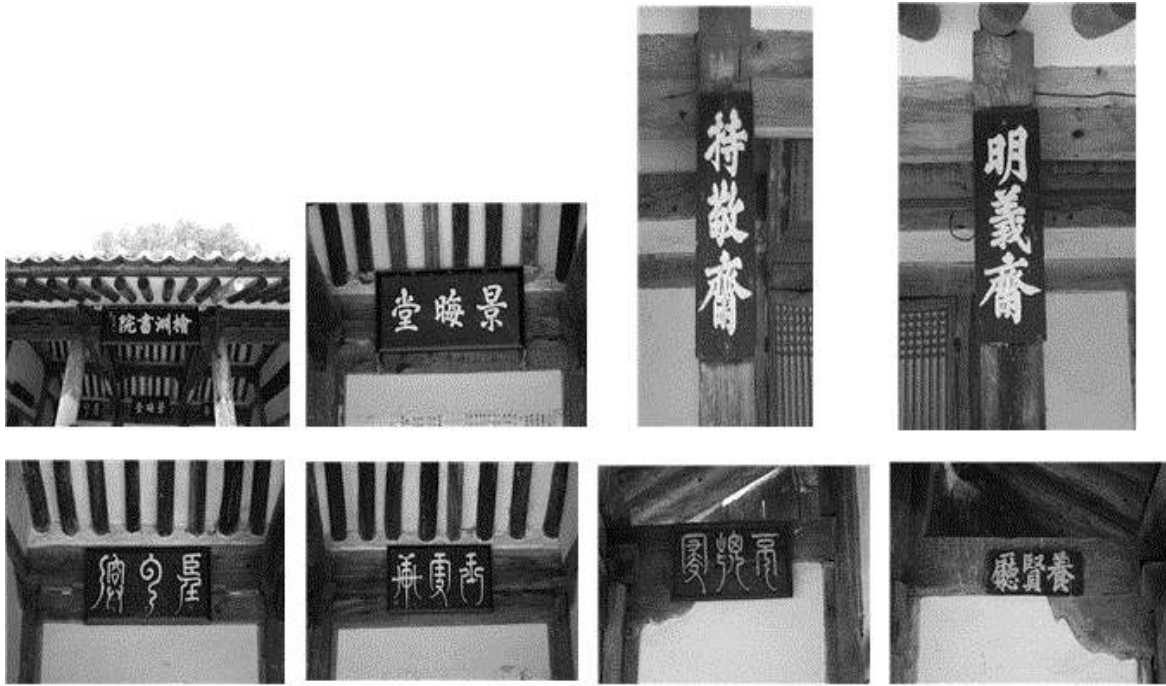
- 서원의 승모각에 소장하였던 책판을 통해 보면 서원에서는 판각 등을 통하여 별도로 서적을 간행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한강 정구의 문집인 『한강선생문집(寒岡先生文集)』과 그의 저서인 『심경발휘(心經發揮)』와 『태극문변(太極問辨)』·『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設分類)』을 비롯하여 『상곡선생문집(相谷先生文集)』·『백곡선생문집(栢谷先生文集)』·『만오선생문집(晩悟先生文集)』·『지애선생문집(芝厓先生文集)』 등 총 1,343장이 남아 있다.



회연서원의 책판

- 한편 서원의 각 건물에는 ‘회연서원(檜淵書院)’, ‘현도루(見道樓)’, ‘숭모각(崇慕閣)’, ‘옥설헌(玉雪軒)’, ‘망운암(望雲庵)’ 등 14개의 현판이 남아 있으며, 이 중 ‘회연서원’은 조선 중기의 명필 석봉(石峯) 한호(韓濩)의 글씨라 전해지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옥설헌’, ‘망운암’은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13) 성주 회연서원에 소장된 기록유산들은 도난의 우려 등으로 대부분 위탁보관 등 별도 보관 중에 있다.



회연서원의 편액

- 이상의 자료들로 보면 성주 회연서원에 소장된 기록유산은 교지 등의 개인문서와 문집의 판목 위주로서 서원의 운영 등과 관련된 서원자료는 거의 남아 않은 형편이다. 특히 서원이 조선 고종조에 훼손되면서 상당량의 자료들이 훼손·분실되었을 것이며, 일부자료는 도난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건축사적 가치** : 서원철폐령에 따라 대부분의 건조물이 철거되었으나, 강학의 중심건물이었던 강당은 훼손되지 않고 현존



회연서원 입지(봉비암)

- 회연서원은 1622년~1627년 사이에 창건된 이래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1868년 전

국적인 서원 훼손에 따라 강당인 경회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조물이 훼손되었다. 이후 회연서당으로 명맥을 이어오다 1974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건되었다. 다만 창건기의 건물배치, 이후의 변화상, 현재의 복원된 서원의 건물 배치 및 축조기법 등 역사적인 기초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없다.



회연서원 항공사진

- 회연서원 관련 문헌기록에서 배치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건물의 명칭과 동수 정도를 알 수 있다. 배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두 개의 그림이 있다.
 - 우선, 김상진이 그린 『무흘구곡도』의 제1곡 봉비암 주변을 살펴보면, 봉비암의 좌측으로 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외곽 담장 앞에는 비석으로 보이는 시설물이 있고, 그 뒤로 협문이 있으며, 협문을 들어서면 누각으로 표현된 건물과 팔작지붕의 규모가 큰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그 뒤로 우측 큰 나무에 일부가 가려진 건물이 있고 더 멀리에 솟을삼문과 건물 하나 있다.
 - 또한, 겸재 정선이 그린 회연서원도를 보면 봉비암 뒤쪽에 팔작지붕의 누각건물이 있고, 그 뒤에 지붕만 보이는 건물이 있으며, 이 건물 앞에는 사주문으로 보이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그 뒤에는 전면 3칸 측면 1칸반의 맞배지붕 건물이 있고, 전면에는 솟을삼문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가장 뒤편에는 전면 5칸의 팔작지붕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 이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유사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사당의 표현이다. 대부분의 서원이 솟을삼문을 통해 사당에 들어가듯이 이 그림에서 전면에 삼문이 있는 건물이 사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겸재 그림에는 사당의 표현도 세밀하여 전퇴가 있는 박공지붕 건물로 그렸고, 이는 사당의 가장 표준화된 형식으로 사당이 그린 것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가장 앞쪽의 누각 뒤에 숨어 있는 건물이 강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사당과 강당 사이에 남아있는 400년된 보호수도 겸재 그림에 나타나고 있어 회연서원의 배치는 좌묘우사의 배치이고 그 우측(강당 앞쪽)에 누각건물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 회연서원 건립이 완성되는 1627년에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많은 서원이 설립되었고, 서원의 배치 특성이 완성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서원과 향교의 일반적 배치 특성에서도 나타난다. 서원의 배치는 지형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된다. 사당과 강당이 전후로 배치되는 경사지의 경우 강당이 먼저 나오고 사당이 뒤에 자리잡는 위계를 가진다. 좌우 병렬로 배치되는 경우에도 지형인 높은 쪽에 사당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연서원 사당도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한 배치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경우는 성주향교의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성주향교도 명륜당을 거쳐 대성전에 들어가도록 동선을 계획하고 있다.
-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회연서원은 사당의 위치는 적절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으나, 회연서원의 누각과 관리사 등의 위치는 옛 배치에 어긋나게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의 한강 정구 제향 서원

- 천곡서원(川谷書院) : 경상북도 성주군
- 사양서원(泗陽書院) : 경상북도 칠곡군
- 연경서원(研經書院) : 대구광역시 북구
- 도동서원(道東書院) : 대구광역시 달성군
- 회원서원(檜原書院) : 경상남도 창원시
- 관산서원(冠山書院) : 경상남도 창녕군
- 반구서원(槃龜書院) : 경상남도 산청군
- 도림서원(道林書院) : 경상남도 함안군
- 도연서원(道淵書院) : 충청북도 충주시
- 운곡서원(雲谷書院) : 충청북도 충주시
- 도동서원(道東書院) : 충청남도 천안시
- 죽림서원(竹林書院) : 충청남도 천안시
- 삼양서원(三陽書院) : 충청남도 옥천군
- 도원서원(道源書院) : 전라남도 화순군
- 경덕사(景德祠) : 강원도 통천군
- 학령서원(鶴翎書院) : 평안남도 성천군
- 용천서원(龍泉書院) : 평안남도 성천군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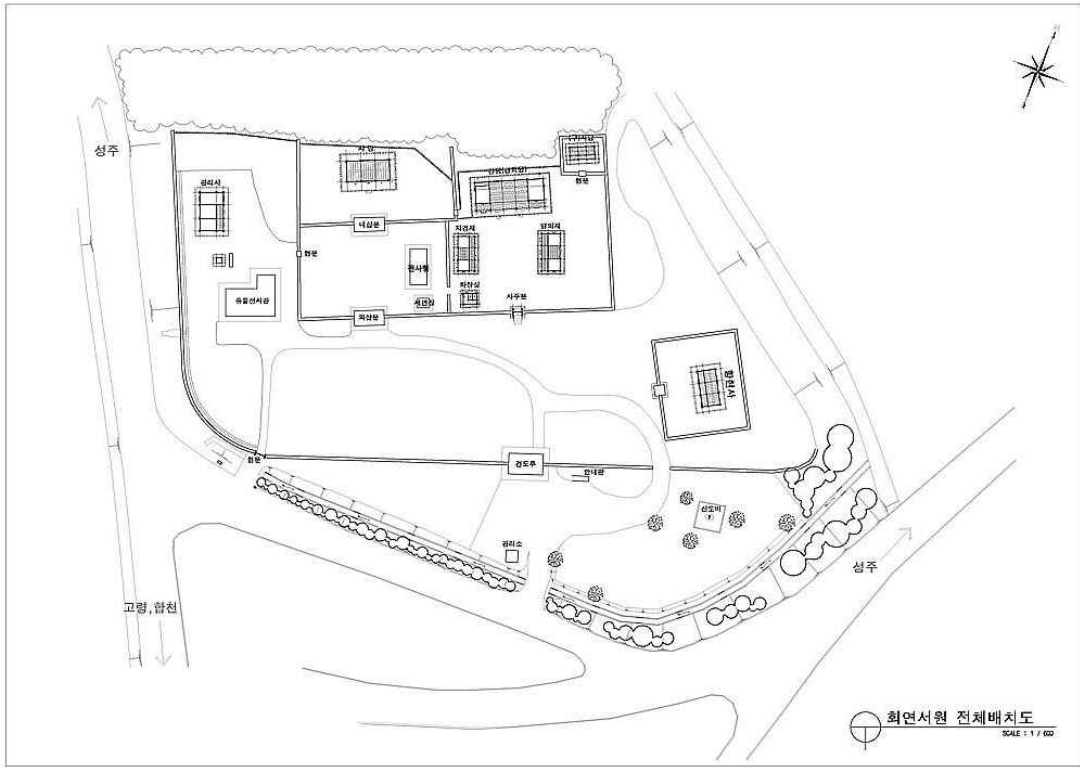
지정면적: 14필지 /17,52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55-1	전	377	377		
2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56-1	전	3,677	3,677		
3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57	임야	3,236	3,236		
4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58	대	2,737	2,737		
5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59	전	255	255		
6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60	대	218	218		
7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61	답	635	635		
8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62-1	전	423	423		
9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63-1	답	532	532		
10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311-1	전	209	209		
11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312-1	답	448	448		
12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313-1	전	384	384		
13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산53-1	임야	4,045	4,045		
14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66	도로	1,069	344		
계			14필지	18,245	17,520		

■ 위치도



위치도



■ 지적도



고지도



해등지도(1724~1776)



광여도(1737~1776)

■ 항공 사진 및 전경 사진



1992년 항공사진



2000년 항공사진



2010년 항공사진



2015년 항공사진

■ 회연 서원 전경사진



강당(경회당) 정면



강당(경회당) 배면



강당(경회당) 좌측면



강당(경회당) 우측면



강당(경회당) 기단 및 디딤돌



강당(경회당) 아궁이



강당(경회당) 상부 가구



강당(경회당) 기둥 상부



강당(경회당) 좌측 온돌방 전면 창호



강당(경회당) 대청 배면 창호



현도루 정면



강당 사주문



(구)사당 전경



(구)사당 정면



사당 전경



사당 내삼문



사당 정면



사당 내부



전사청 전경



향현사 전경



향현사 삼문



향현사 정면



향현사 내부



관리사 전경



승모각 전경



승모각 내부



동재(지경재)정면



서재(명의재) 정면



회연서원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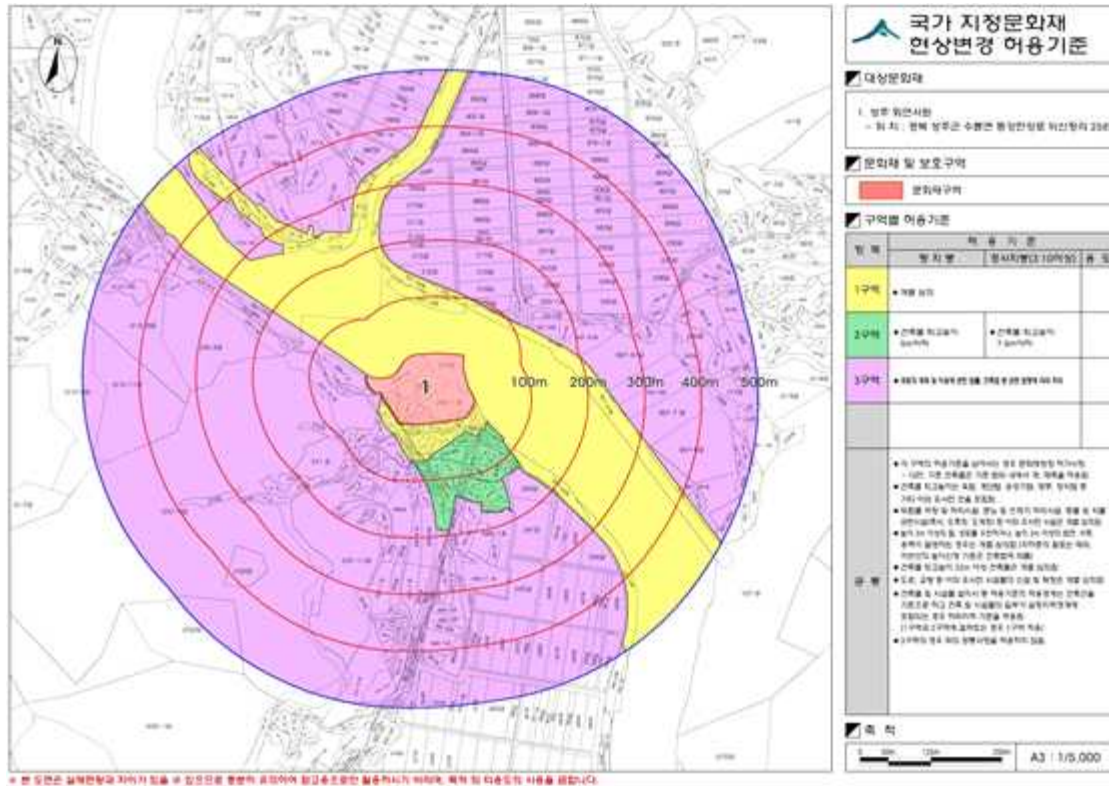


회연서원 전경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 의견 : 배면의 임야와 전면의 경관을 위해 행위제한 필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문화재 활용 계획

- 반나절, 1일, 1박 2일 등 코스별 문화관광상품 개발
 - 회연서원 주변의 전통적인 경관 요소인 무흘구곡을 거치는 트레킹 코스를 발굴·개발하여 활성화 한다.
 - 무흘구곡, 가야산의 등산로를 개발하여 활성화 한다.
 - 무흘구곡, 가야산 등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다.
 - 성주 유교 문화권 관광 코스와 같은 주변 문화유산 및 관광명소와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로 회연서원 방문을 활성화한다.
- 서원문화재 활용사업(2023년~)
 - 한강 정구와 그의 문인들이 회연서원 백매원과 무흘구곡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경영하면서 정신수양 및 성리학의 근원을 찾았던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고 체험을 통해 본받음으로서 현대인들 정신적 치유와 보람찬 여가생활 향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세부 프로그램 : 회연서원 자연찬가 콘서트, 회연서원 인성이 자라는 교실, 회연서원 백매원 카페

■ 회연서원과 역사문화 탐방

- 회연서원에서 출발하는 무흘구곡 역사문화 트레킹 코스와 회연서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역사문화 트레킹이 가능하다.
회연서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역사문화유산이 남아있다. 특히 무흘구곡의 제1곡으로서 역사적인 경관적인 가치가 높다. 회연서원을 중심으로 서북쪽으로는 무흘구곡이 펼쳐지고, 1.4km의 동쪽에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인 한강종택과 중매댁 등이 자리잡은 갯말 마을, 그리고 동북쪽의 고개를 넘어서는 동강 김우옹의 역사문화유적이 다수 자리 잡고 있다. 서쪽으로는 가야산 계곡에 자리한 만귀정, 남쪽으로는 운동 마을의 사우당 종택, 충신문 등이 자리를 잡아 성주의 유교문화유산이 벨트를 이루고 있다.



* 만귀정(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62호,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

* 한강종택(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14호)

- * 중매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86호)
- * 동강(東岡 金字顛) 유적 : 김창숙 생가(경상북도 기념물 제83호), 청천서당(晴川書堂,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1호)
- * 사우당(四友堂,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61호)
- * 충신문(忠臣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02호)



주변 문화유산 위치도

(A 사창서당 / B 사우당 종택 / C 가야산 산성 / D 오암서원 / E 심원사 삼층석탑 / F 충신문 / G 회연서원 / H 법수사지 삼층석탑 / I 농산정 / J 석조비로자나불상)

■ 성주 전통문화체험단지 스탬프 트레일

- 스탬프 트레일이란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스탬프 트레일 책자를 소지한 학생이나 시민이 관광명소를 찾아가면 그 기념으로 스탬프를 찍어주는 행사이다.
- 성주의 명소뿐만 아니라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탬프 트레일을 개발하여, 스탬프 트레일을 완성한 사람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명예홍보 대사로 위촉하는 등 자발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9. 종합의견

- 성주 회연서원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제자인 한강(寒岡) 정구(鄭逵)을 주향(主享)으로 1627년(인조 5) 창건한 서원이다.
- 무흘구곡 제1곡 봉비암을 서원의 배경으로 경관적으로 우수한 곳에 위치하며, 책판, 고문서, 현판 등의 기록유산이 잘 남아 있고 매년 봄·가을의 향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그러나 고종조의 서원 훼철령에 따라 1896년 대부분의 건조물이 철거되었으며, 강학의 중심 건물이었던 강당은 훼철되지 않고 보존되어 왔다.
- 성주 회연서원은 한강 정구 선생의 학문적 기반위에 무흘구곡이라고 하는 명승지에 위치하여 사적지정의 요소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70년대에 이후 이어진 복원사

업 중 학술적인 발굴이나 고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건축이 이루어져, 회연서원의 배치적 특성,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7년도 시굴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유구층이 교란되어 서원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적을 지정하기 위한 여건은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단, 회연서원의 강당은 2015년도 보수공사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천계 2년 임술 2월 7일에 상량함. 상대목은 신 화상님이다.[天啓二年壬戌二月初七日 上樑 上大木信和尚主]”라고 쓰인 목서가 발견되었고, 다른 위치 종도리에서 회연서원 영건의 일유사(一有司) 김주(金輅, 1564~1636) 이하에 유사와 도감 등 24명의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천계 2년(1622) 임술 11월 3일에 건립함[天啓二年壬戌十有一月初三日 建]”이라는 문구를 적었으며 그 뒤에 이어서 같은 글씨로 중수시(重修時) 도검거(都檢擧) 이병우(李炳瑀) 이하에 도감 7명, 도목수 1명, 부목수 4명, 고직 1명을 적고 “(창건) 후 275년째인 병신년(1896) 4월 25일 술시에 상량함[後二百七十五年丙申四月二十五日戌時上樑]”이라고 적혀있어, 1622년에 강당 건물이 완성되었고, 1896년에 중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창건했을 때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물로 지정된 ‘성주 향교 명륜당’ 건물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으며 건립 연대가 명확히 밝혀진 17세기 초 건축물로 평면구성과 창호수법 등에서 고식기법을 간직하고 있어 건축적·학술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성주 회연서원 강당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사적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시도기념물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蔚山 開雲浦 左水營城)
 - 소재지 : 울산시 남구 성암동 81번지 일원
- (3) 지정범위 : 문화재구역 91필지 34,564.7㎡, 보호구역 122필지 89,763.7㎡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4) 관리단체(안)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5) 신청사유
 - 동해안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개운포 좌수영성은 조선 초기인 태종 때에 수군만호영으로 출발하여 세조 때 경상좌수영으로 개편되었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울산지역 의병활동의 배후기지로 활용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개운포 수군이 부산으로 이진한 후 울산도호부의 읍전선을 관리 하던 선소로 사용된 역사적인 유적임.
 - 조선 전기 경상좌도 11개 수군진을 관할하는 경상좌수영성으로서, 조선 수군체제의 변화와 발전을 알 수 있는 중요 관방시설임.
 -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수영성 가운데 유구의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여 조선 초기 수군성의 축조방식과 구조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적 가치와 희소성을 지니고 있음.
 - 개운포 좌수영성은 조선시대 수군체제의 변화와 발전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관방시설로서 군제사, 성곽사 연구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라. 참고사항

(1) 사적 지정 추진경과

- (1997.10.09.) 울산광역시 기념물 지정(34,564.7㎡)
- (2023.11.8.) 사적지정 신청서 제출(울산광역시→문화재청)
- (2024.02.23.)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2) 현지조사의견('24.02.23./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울산 개운포에 위치한 좌수영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 초기 좌수영성으로 사용되고, 수군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나, 유적으로서 축성의 특성, 구조, 건물지의 배치·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러한 발굴조사 후 이러한 성과를 추가로 평가하여 사적으로 지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심해진 남해안은 일찍부터 수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수군이 위치할 곳은 해상 방어에 적합하며, 포진은 바람이 없고 광활하며 선박이 자유롭게 왕래 정박할 수 있는 자연의 요새로서 U자형의 지형이 적합하였다. 또한 바다 밑에 암석이 없고 사토(沙土)가 좋아야 하며, 썰물 때도 정박시킬 수 있고, 포진 밖에 병선을 정박시킬 수 있어야 하였다. 게다가 주변 영진(營鎭)과의 관계나 왜구의 침입로인 요해처(要害處) 및 포간(浦間) 거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군의 입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군진은 남해안에만 일정간격으로 20여개가 존재했으며, 중요도에 따라 좌도수군도안무처치사, 우도수군도안무처치사 등 수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총괄하게 하였다.
- 이러한 중에 1459년(세조 5)에는 동래 부산포에 있던 경상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의 본영이 울산 개운포로 이전되었다.¹⁴⁾
- 이후 왜인의 삼포왜란에 의해 왜인들의 침략이 예상되는 동래 지역의 방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이를 위해 수영을 다시 동래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 개운포는 수군만호(현재의 수군 대대급)로 되돌려졌으나, 위치의 중요성으로 일부 기능은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 『세조실록』 15, 5년 1월 20일 계묘, 『慶尙道續撰地理誌』蔚山郡, 關防.

- 임란 이후에는 그 기능이 축소되며 1895년(고종 32)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영이 폐지될 때까지 선소로서 기능이 유지되며 명맥을 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울산 개운포 좌도수영성은 1997년 울산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5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쳤고, 문지, 체성부, 마른해자(황), 내부 건물지 일부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선전기 수영성의 구조 및 형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수영성임이 밝혀졌다.
- 또한 그 둘레가 1,245m가 달하여 동해안에 위치한 수군관련 성곽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확인되었다.
- 그리고 주변은 공업단지로서 지정된 후, 개발이 되지 않아 수군성으로 가지는 특수한 입지조건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수군성 연구에 상당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또한 수군성과 연계된 가리봉 봉수를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수영성으로서, 수군성의 그 운영에 관한 연계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 이렇게 울산 개운포 경상좌도수영성은 조선 전기의 수군 사령부인 좌도수영성으로서 그 입지, 성곽, 문지, 마른해자, 봉수 등 연계유적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유적들이 잘 잔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선전기의 수영성으로서의 다양한 가치가 잘 남아 있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지정 명칭은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이 타당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4.02.23 (금)		대상 문화재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蔚山 開雲浦 左水營城)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건축	○○대학교	교수
	○○○	성곽	○○대학교	교수
	○○○	고고학	○○대학교	교수
	○○○	건축사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주요지정사항검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蔚山 開雲浦 左水營城)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 보호구역 >				
보호관리사항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2월 23일</p> <p>제출자 : 문화재위원 ○○○ · ○○○ · ○○○ 문화재전문위원 ○○○</p> <p style="text-align: right;">문화재청장 귀하</p>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蔚山 開雲浦 左水營城)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4.2.23.(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 · ○○○, 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蔚山 開雲浦 左水營城)
-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蔚山 開雲浦 左水營城)으로 신청되었으며, 경상 좌수영성은 초축은 개운포이나 이후 부산 해운포로 이성되는 좌수영성의 위치가 변화가 있었으므로 개운포라는 지명을 붙여주는 것이 적절하며, 좌수영성 또한 경상·전라·충청 등의 도(道)명이 붙으므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蔚山 開雲浦 慶尙左水營城)**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좌수영성지가 2개소 터로서 잔존하므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지(蔚山 開雲浦 慶尙左水營城趾)**의 검토도 가능함.

사례) 해남 전라우수영, 보령 충청수영성 등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개운포 좌수영성은 북쪽으로 구릉이 솟아있고, 남쪽은 외항강에 면하여 저지대를 이루는 북고남저형의 지형에 입지하고 있다.
- 개운포는 예로부터 동해안에서 적침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사·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바람과 파도로부터 안전하며 조수간만의 차가 적고 퇴적의 영향도 거의 없어 전선 출입 및 운용이 상시 가능한 천혜의 양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지상의 탁월성으로 인해 개운포는 조선시대 내내 수군기지로 사용되었고, 500년간 수군문화와 역사를 축적해 왔다.
- 1459년(세조 5)부터 1544년(중종 39)까지 85년간 경상좌도 수군의 총지휘부인 경상좌수영으로 운영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울산도호부의 선소로 사용되다가 1895년 군사제도가 혁파될 때까지 수군기지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개운포 좌수영성의 변천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수군사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으므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된다.
- 개운포 좌수영성의 성곽 유구 대부분이 보존되어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보존 정비 및 발굴 등의 학술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개운포 좌수영성의 지정대상 내 토지는 사유지가 약 30%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개운포 좌수영성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개운포 좌수영성 성곽, 해자, 성문지 발굴조사● 2005년 개운포 좌수영성 성곽, 성문지 발굴조사● 2013년 개운포 좌수영성 남쪽구간 체성 해체 후 수리● 2017년 개운포 좌수영성 치성, 건물지 발굴조사● 2018년 개운포 좌수영성 서문지 발굴조사● 2016년 개운포 좌수영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개운포 수군 및 좌수영성의 연혁

- ▶ 개운포 수군 및 좌수영성의 연혁은 그 성격과 기능, 규모, 성곽의 축조와 이용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개운포 수군 및 좌수영성 연혁

구분	내용	비고
조선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94년(태조 3) : 경상도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둠 - 태종 대 : 각 도에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를 둠 - 1407년(태종 7) 이전 : 개운포 만호진 설치 - 1420년(세종 2) :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를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로 명칭 변경 ※ 당시 경상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는 동래(東萊) 부산포(富山浦)에 있었음 - 1457년(세조 3) : 개운포 만호진 혁파 - 1458년(세조 4) : 개운포 만호진 복설 - 1459년(세조 5) : 경상좌도 도안무처치사(慶尙左道 都安撫處置使) 본영을 개운포로 이설 - 1466년(세조 12) :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를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로 명칭 변경 - 1477년(성종 8) : 개운포 좌수영의 부산포 이설 논의 - 1510년(중종 5) : 개운포 좌수영의 성곽 축조 - 1544년(중종 39) : 개운포 좌수영, 동래 해운포(海雲浦)로 이설 - 임진왜란 이전까지 개운포 만호진 운영 - 임진왜란 기간 : 개운포에서 왜군과의 전투 개시, 3차 전투에서 의병장 이용춘(李應春) 전사 	<p>만호진 (萬戶鎭) ↓ 좌수영 (左水營) ↓ 만호진 (萬戶鎭)</p>
조선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왜란 이후 개운포 만호진 재건, 부산지역으로 이진(移鎭) - 1624년(인조 2) : 읍전선(邑戰船) 신설 후 도산[왜성] 아래 배치 - 1654년(효종 5) : 전선(戰船)을 개운포로 옮겨 선소(船所) 운영 - 조선후기 울산도호부 읍수군, 좌수영과 통제영 수조(水操) 참가 - 1895년(고종 32) : 읍전선 혁파 	<p>읍수군 (邑水軍)</p>

1) 조선 전기

(1) 수군의 편제와 만호진의 설치

- ▶ 남부 지방의 해안 지역이 군사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 왜구의 침입이 극심해지면서였다. 공민왕대에 이르러 왜구의 노략질이 격심하게 되어 그 피해가 커지자 그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선군(船軍) 즉 수군이 재건되었다. 고려말의 수군은 육군인 병마절도사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된 지휘체제를 갖지는 못하였다.
- ▶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조선 전기 경상도는 관방에 있어서 육군보다 수군이 비중이 더 컸다. 세종·세조 연간의 경상도 읍수군 배치 상황을 보면 육군은 불과 6진(동래진·울산진·영일진·창원진·영해진·사천진)에 2,875명의 군사가 배치되었고, 그 영진(營鎭)도 연안지역이었으므로 유사시 해방(海防)에 동원 가능하도록 배려된 것이었다. 이에 반해서 수군은 21개 영진에 병선 285척, 군사 16,594명으로 육군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것이다.

- ▶ 수군은 조선왕조 개창과 함께 각도별로 수군도절제사가 설치되면서 독립된 지휘편제를 갖게 되었다.¹⁵⁾ 각도별로 1인 또는 2인의 수군도절제사가 머무는 수영이 설치되었고, 다시 각 바닷가 요새지에는 도만호, 만호 등을 지휘관으로 하는 포진(浦鎭)이 설치되었다. 수군도절제사는 세종 2년에 일시 혁파되었다가 이듬해에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로 다시 설치되었다.¹⁶⁾
- ▶ 군항으로서의 포진은 해상 방어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 설치되었다. 포진은 바람이 없고 광활하며 선박이 자유롭게 왕래 정박할 수 있는 자연의 요새로서 U자형의 지형이 적합하였다. 바다 밑에 암석이 없고 사토(沙土)가 좋아야 하며, 썰물 때도 정박시킬 수 있고, 포진 밖에 병선을 정박시킬 수 있어야 하였다. 또한 포진은 주변의 백성과 토지를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그 위에 주변 영진(營鎭)과의 관계나 왜구의 침입로인 요해처(要害處) 및 포간(浦間) 거리도 고려되었다.¹⁷⁾
- ▶ 조선초의 수군 체제 개편에 의거하여 울산의 개운포에는 만호진이 설치되었다. 개운포에 만호진이 설치된 것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407년(태종 7) 이전에는 설치되었다고 생각한다.¹⁸⁾ 그런데 이 시기는 수군 배치가 처음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포진의 이전과 치폐가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였다.
- ▶ 1407년(태종 7)에는 경상도병마절제사의 건의에 의해 개운포 만호진을 장생포로 옮기고, 서생포만호는 장생포만호로 하여금 겸하게 함으로써 울산 지역에는 한 곳에 포진을 두는 조치가 취해졌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얼마가지 못하고 다시 복구되었으며,²⁰⁾ 오히려 울산지역의 포진은 3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즉 기존의 개운포와 서생포에 이어 염포가 새로 신설되었던 것이다.²¹⁾ 조선초기 수군의 규모와 각 도별 방위 상태는 1432년(세종 14)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중 경상도 지역 수군의 편제와 분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5) 육군본부,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1968, 105~108쪽.

16) 『세종실록』 11, 3년 2월 12일 을사.

17)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39~41쪽.

18) 『태종실록』 14, 7년 7월 27일 무인.

19) 『태종실록』 14, 7년 7월 27일 무인.

20) 『태종실록』 22, 11년 11월 14일 신미.

21) 『태종실록』 34, 17년 10월 22일 갑진.

세종대 경상도 수군 편제

장관명 (將官名)	포진 소재지 (浦鎮 所在地)	선수 (船數)	수군수 (水軍數)
좌도수군도안무처치사	동래 부산포(富山浦)	33	1,779
도만호(都萬戶)	울산 염포	7	502
만호	영해 축산포	12	429
만호	영덕 오포	8	353
만호	홍해 통양포(今泊豆毛赤浦)	8	218
만호	장기 포이포(今泊加嚴浦)	8	589
만호	경주 감포	6	387
만호	울산 개운포	12	420
만호	울산 서생포	20	767
만호	기장 두모포	16	843
만호	동래 해운포	7	589
만호	동래 다대포	9	723
우도수군도안무처치사	거제 오아포(吾兒浦)	28	2,601
도만호	고성 가배량(今泊巨濟玉浦)	22	1,122
만호	김해 체포	9	882
만호	거제 영등포	8	700
만호	거제 견내량(今泊巨濟玉浦)	20	940
만호	고성 번계(今泊固城唐浦)	15	722
만호	진주 구랑량(今泊固城蛇梁)	16	748
만호	진주 적량(今泊加乙串)	13	720
만호	진주 노량(今泊平山浦)	8	568
합 계		285	16,594

▶ 그 후 1457년(세조 3)에는 다시 개운포 만호진이 폐지되었다.²²⁾ 개운포가 경상도병마도절제사영과 가까울 뿐아니라 염포 수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운포의 수군은 염포로 이속시키고 개운포에는 경선(輕船) 3·4척 만을 정박시켜 수호케 하는 조처가 취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듬해인 1458년(세조 4) 경상도 도순찰사의 건의에 의하여 다시 개운포에 만호진을 설치하는 것으로 복구되었다.²³⁾ 복구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는데, 개운포의 전략적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개운포는 염포(鹽浦)와 서생포(西生浦)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해로(海路)가 굽고 먼데다가, 또 도절제사영과 거리가 멀고, 염포에 사는 왜인들이 또한 항상 왕래하고 있으니, 이들은 모두 방어(防禦)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²⁴⁾

▶ 염포와 서생포 사이의 해로가 멀리 돌아있기 때문에 포진 설치의 필요성

22) 『세조실록』 6, 3년 1월 16일 신사.

23) 『세조실록』 14, 세조 4년 11월 14일 무술.

24) 『세조실록』 14, 세조 4년 11월 14일 무술.

이 있으며, 염포를 오가는 왜인들의 왕래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폐지를 주장한 이는 개운포가 병영과 가깝다는 논리를 폈는데, 복구를 주장한 이는 병영과 거리가 멀다는 논리를 제기한 점도 흥미롭다. 이러한 요충지로서의 입지 조건을 인정받아 후술하듯이 이듬해에는 수영이 개운포로 옮겨지는 조치가 취해졌다.

(2) 경상좌수영의 이전 설치

- ▶ 1457년(세조 3) 진관체제로 전국의 군사방어체제를 재편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며, 이 때 수군도 진관체제에 맞추어 재편되었다. 1459년(세조 5)에는 동래 부산포에 있던 경상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의 본영이 울산 개운포로 이전되었다.²⁵⁾
- ▶ 부산포에 있던 수영을 개운포로 옮긴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삼포 개항이후 왜인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그 첫 길목인 부산포에 수영이 위치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었다. 조선 수군의 여러 정보가 왜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영은 개운포로 옮겼으나 부산포의 왜인들은 개운포로 옮기지 않았던 것이다.²⁶⁾ 다른 하나는 경상좌도 수영의 관할 구역이 낙동강 하구 동쪽으로부터 동해안의 영해에 이르는데, 이 긴 구간의 원활한 통제와 일처리를 위해서 중간 지점 정도에 수영이 위치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런 점에서 개운포는 거의 중간 지점으로서 수영의 최적합지로 주목을 받은 것이었다.
- ▶ 1466년(세조 12)에는 관제가 개편되면서 관직의 명칭이 바뀌었다. 수군도안무처치사가 수군절도사로, 도만호는 첨절제사로 바뀌었다. 수군의 진관체제화는 지휘체제도 일원적으로 확립시켰다. 즉 주진(水營), 거진, 제진의 진관 편성에 따라 각각 수군절도사, 첨절제사, 만호가 배치되게 되었다. 당시 각도의 수군 최고지휘관은 정3품 수군절도사였는데, 경상도는 전라도와 함께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2인의 전임수군절도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경상좌도의 수군절도사는 주진인 울산 개운포에 있었고, 경상우도의 수군절도사는 주진인 거제 오아포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여러 포진들은 좌도의 거진인 부산포와 우도의 거진인 제포 등 두 진관하에 각기 편성되어

25) 『세조실록』 15, 5년 1월 20일 계묘, 『慶尙道續撰地理誌』 蔚山郡, 關防.

26) 『세조실록』 20, 6년 6월 6일 신해. 이 때 병조에서는 경상도도체찰사(慶尙道都體察使)의 單子에 의거하여 “경상좌도수영(慶尙左道水營)은 옮겨 설치할 것을 이미 살펴서 정하였습시다. 그런데 왜인들은 邊將의 營에 섞여서 거처하는 것이 불가하니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 기사는 1년 전에 부산포에서 개운포로 수영을 옮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이 때 왜인들은 수영이 있는 개운포로 옮기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경상좌수영성지』(부산시립박물관, 2001, 13쪽)에서는 이 기사를 개운포에서 부산포로 수영을 옮기려는 논의의 증거로 잘못 제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있었다. 다만 수군의 진관편제는 육군의 그것과는 달라서 반드시 행정조직과 일치되지 않았고 전략상 요충지에 포진을 설치한 것이 상례였다.²⁷⁾

- ▶ 세조대에 확립되어 『경국대전』에 실린 경상도 수군의 편제를 병선 보유 상황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²⁸⁾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운포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가 머무는 주진으로서 수하에 부산포진관을 총괄하고 있었다. 동래 부산포가 거진으로서 수군첨절제사가 배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10곳에 만호가 배치되어 있었다. 병선도 개운포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크고 작은 군함을 합쳐서 총 17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군은 이 병선들에 나누어 타고 항시 바다 위에 떠서 경계를 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 ▶ 이후 개운포의 수영을 동래의 해운포로 옮기려는 의논이 수차례 걸쳐 나타나났다. 먼저 1477년(성종 8)에 이조참판 이파(李坡)와 호조참판(戶曹參判) 이서장(李恕長)이 부산포와 같은 요해지의 방어가 부실함을 이유로 수영을 다시 부산포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다.²⁹⁾ 그러나 이 건의는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였던 듯 흐지부지 되었다.
- ▶ 부산 쪽으로 수영을 옮기려는 논의는 1510년(중종 5)에 일어난 삼포왜란을 계기로 활발하게 다시 일어났다. 주지하듯이 삼포왜란은 삼포 즉 제포·부산포·염포에 머물면서 각종 경제적 활동을 하던 왜인들이 일으킨 난동으로 이 때 부산포첨사가 왜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을 뿐아니라 조선인 수백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삼포지역에 머물던 왜인들은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는 조치가 취해지고,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도 전면 중단되었다. 조선은 왜인들의 침략이 예상되는 동래지역의 방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그를 위해 수영을 다시 동래지역으로 옮겨서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재발을 방지코자 하였던 것이다.

27) 육군본부,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1968, 280~281쪽.

28) 『경국대전』, 병진, 諸道兵船, 경상도. 우인수, 『조선시대 울산지역사연구』, 국학자료원, 2009, 58~59쪽 참조. 그런데 진단학회에서 편찬한 『韓國史(近世前期篇)』(1962, 249쪽)에서 『經國大典』에 근거하여 육군과 수군의 진관체제 조직표를 만들면서 당시 경상좌도의 수영을 울산의 개운포가 아니라 동래라고 잘못 파악하였다. 이후 많은 책에서 이를 그대로 轉載하였기 때문에 오류는 수정되지 못하고 확대 재생산되었다. 육군본부 편찬의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1968, 164쪽),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제23권)』(1994, 239쪽), 方相鉉의 『朝鮮前期 水軍制度』(민족문화사, 1991, 63쪽), 『慶尙南道史』(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1988, 810쪽), 『釜山市史』(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89, 595쪽), 『慶尙北道史』(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1983, 713쪽) 등이 그 예이다.

29) 『성종실록』77, 8년 윤2월 11일 기유.

세조~성종대 경상도 수군 편제와 병선 보유 현황

장관명 (將官名)	포진 소재지 (浦鎮 所在地)	병선수 (兵船數)				소계 (小計)	
		대맹선 (大猛船)	중맹선 (中猛船)	소맹선 (小猛船)	무군소맹선 (無軍小猛船)		
좌도수군절도사 (左道水軍節度使)	울산 개운포 (蔚山 開雲浦)	2	7	6	2	17	
부산 포진 관	침절제사	동래 부산포	1	3	5	1	10
	만호	영해 축산포	-	-	6	1	7
	만호	영덕 오포	-	-	4	1	5
	만호	홍해 칠포	-	-	4	1	5
	만호	장기 포이포	-	1	6	1	8
	만호	경주 감포	-	-	6	1	7
	만호	울산 염포	1	4	5	2	12
	만호	울산 서생포	1	1	4	1	7
	만호	기장 두모포	1	3	3	1	8
	만호	동래 해운포	1	1	4	1	7
만호	동래 다대포	1	2	6	1	10	
우도수군절도사 (右道水軍節度使)	거제 오아포 (巨濟 吾兒浦)	2	11	8	10	31	
제포 진관	침절제사	웅천 제포	1	5	5	5	16
	만호	웅천 안골포	1	2	3	4	10
	만호	거제 지세포	1	4	7	5	17
	만호	거제 조라포	1	2	3	3	9
	만호	거제 옥포	1	5	4	6	16
	만호	거제 영등포	1	3	3	6	13
	만호	고성 사량	1	2	4	5	12
	만호	고성 당포	1	4	3	5	13
	만호	진주 적량	1	3	3	6	13
	만호	남해 평산포	1	3	3	6	13
합 계		20	66	105	75	266	

세조~성종대 경상좌도 수군 편제 및 위치



(3) 개운포 좌수영성의 축성

- ▶ 한편 개운포에는 석성이 축조되었다. 수군의 포진에 성곽을 축조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대부터였다. 원래 수군은 병기와 식량을 병선에 싣고 선상에서 대기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포에 성보와 같은 방벽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수군은 침입해오는 적군을 해상에서 맞이하여 제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선상근무가 기본 원칙이었다.
- ▶ 그러나 선상근무는 실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오랫동안 병기를 선상에 두면 손상되기 쉬웠기 때문에 적의 침입이 잠시 그쳐 평화가 계속된 성종 초년 이래로 수군 지휘자들은 선상에 머물지 않고 해안가에 임시 머물 집을 마련하여 병기도 갈무리하고 휴식처로도 삼는 경향이 뚜렷해졌다.³⁰⁾ 이러한 경향은 해상 방비의 허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병기의 손상이 특히 강조되어 성종대 이후 포진에 성보(城堡)를 축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해안 요소에 성곽을 축조하는 것은 수군의 병력이 부족할 경우 육군의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의미도 있었다.
- ▶ 개운포의 성곽은 1510년(중종 5) 무렵 해안 요새지를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석성으로의 축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해 3월 농사철과 맞물리면서 농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배려에서 가을 추수 후에 축조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즉 1510년(중종 5) 3월 참찬관으로 경연에 참가한 손중돈은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여 허락을 받은 바가 있었다.

滯獄九年不決。令村民轉相守直。且開雲浦無城。故
 近日建議築之。然今此農月。拾石修築。妨農害畜。弊
 皆不貲。傳曰。築城事問兵曹。滯獄事問刑曹。以啓
 刑曹啓。青松四人尹鎮壽等四人。壬戌。被囚。遭廢朝
 多事。不得鞠問。丁卯五月。報政府。是後。未知何以不
 決也。兵曹啓曰。拾石築城。果害穀畜。待秋獲畢。築。
 十八日壬寅。晴。日暈。御經筵。○賀正使安瑋。自燕
 京還。書。啓中朝事略曰。臣留中朝五十二日。皇
 帝視朝。只二日。不御經筵。諫諍路絕。好馳聘。游戲。選
 外方男子三百人入闕內。同日割勢。死者三人。其餘
 還入內。有姓董者。美容貌。賜姓朱。稱閣老。晝夜同處。
 不接後宮。陝西監生劉烈。稱劉備後。擁衆數萬。以叛。
 太監谷大用遣家人。奪我麻苧百餘匹。弓扇魚物。以
 輕價償之。○遂安君讚卒。輟朝二日。
 十九日癸卯。晴。停仗。
 二十日甲辰。晴。御經筵。
 二十一日乙巳。小雨。御經筵。聽輪對。○刑曹佐郎
 安潤國曰。今方痛斥異端。請毀興德。貞陵等寺。材瓦
 造成讀書堂及司諫院。傳于政院曰。安潤國輪對
 雖云。然讀書堂已令勿造。司諫院亦令後日造成。

冲齋集 卷五

『충재집(冲齋集)』에 실린 개운포 좌수영성 축성 기록, 한국고전번역원

30) 『성종실록』 171, 15년 10월 계미.

그리고 개운포에는 성곽이 없기 때문에 근일(近日)의 건의로 성곽을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농사철이어서 돌을 모우고 성곽을 축조하는 것은 농사에 해를 끼치어 폐단이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³¹⁾

- ▶ 이에 중종은 병조에 하문케 하였고, 병조는 가을 추수를 한 후에 축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던 것이다. 때마침 같은 해 4월에 일어난 삼포왜란을 계기로 개운포성의 축조는 탄력을 받아 예정대로 완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곽이 완성되는 것과 동시에 성곽 안팎에는 수군절도사영의 격에 맞추어 각종 시설물들도 들어섰을 것이다.

(4) 경상좌수영의 동래 해운포 이전 및 만호진 복귀

- ▶ 삼포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511년(중종 6) 방어청에서 경상좌도 수영을 부산 쪽으로 옮기는 일은 널리 의견을 구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는 것으로³²⁾ 미루어 이미 삼포왜란 이후에 수영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방어청의 건의에 의거하여 중종은 의정부 대신을 비롯한 병조와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들에게 좌수영 이전의 득실을 따져보게 하였다. 다수의 재상들은 장단점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부산 쪽으로 옮기면 왜적이 들어오는 첫머리인 관계로 방어하기는 편한 장점이 있으나 수영이 너무 한 곳에 치우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경상도 관찰사·병사·수사의 의견을 들어본 후 다시 의논하자고 하였다.³³⁾ 지방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정에서는 부산 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다만 시기가 농사철이니 추수 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면서 결정을 미루었다.³⁴⁾
- ▶ 1513년(중종 8)에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수영 이전에 대한 회의론이나 반대론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그동안 바뀐 경상도 관찰사는 수영의 부산포 이전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수영이 관할 구역의 한 쪽에 너무 치우치게 되는 점, 부산포가 협소하여 수영의 구성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점, 수영과 수사가 왜인에게 노출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다시 제기하며 난색을 표하였다.³⁵⁾ 그리고 이어 원로인 영사(領事) 김응기(金應箕)는 반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다.

31) 孫仲暉, 『愚齋集』 1, 論死囚及築城啓(중종 5년); 權檣, 『冲齋集』 5, 日記, 경오(1510년, 중종5) 3월 17일 신축.

32) 『중종실록』 13, 6년 2월 22일 계묘.

33) 『중종실록』 13, 6년 2월 22일 계묘.

34) 『중종실록』 13, 6년 4월 13일 임진.

35) 『중종실록』 18, 8년 8월 9일 갑진.

- ▶ 즉 김응기는 왜인이 왕래하는 첫 길목에 수영이 위치해서는 안된다는 점, 좌수영 전역을 가운데에서 골고루 통제하고 처치하기 어렵다는 점, 수영에 소속된 둔전과 노비의 이전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로써 수영의 부산포 이전은 당분간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경상좌도 수영이 지금 개운포(開雲浦)에 있으니, 부산포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여 석을 파종할 수 있는 둔전과 노비 60여 구(口)는 이 수영의 소유입니다. 울산에서 폐단이 없는데, 갑자기 부산포를 옮긴다면 두 성을 수축해야 하므로 더욱 안 되며 노비 60여 구가 어떻게 백리길을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각사(各司)의 노비를 서로 바꾸어야 할 터이니, 더욱 안 될 일입니다. 당초에 주장(主將)은 왜인이 왕래하는 첫 길목에 있어서는 안 되므로 수영을 개운포로 옮겼습니다. 이제 가령 왜인이 많이 나온다면, 제포와 부산포 두 길이 다 접대하는 곳이 되니, 부산포로 결코 옮겨서는 안 됩니다. 당초 수영을 개운포에 둔 것은 주장이 가운데에서 처치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왜 갑자기 고칩니까?³⁶⁾

- ▶ 그러나 이전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1521년(중종 16)부터는 동래의 해운포가 수영의 이전처로 새롭게 거론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³⁷⁾ 1534년(중종 29)에는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부산포를 다대포로 옮기고, 부산포 자리에 좌수영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³⁸⁾ 그리고 그 뒤에는 다대포가 수영의 이전처로 거론되기도 하였다.³⁹⁾ 이렇게 동래 쪽으로 좌수영을 옮기는 데 있어 그 후보지로 부산포, 해운포, 다대포 등이 거론되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 ▶ 드디어 1544년(중종 39) 9월 14일과 18일의 기사에는 해운포가 좌수영의 최적지라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었다.⁴⁰⁾ 이어 9월 26일 기사에는 좌수영이 해운포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다.

좌도(左道)의 형세는 수영이 해운보(海雲堡)에 있어서 북으로 동래(東萊)와 5리 떨어지고 서쪽으로 부산포와 15리 떨어졌으므로, 동래의 군졸을 거느리고 부산포와 다대포(多大浦)를 구원하고, 또 양산(梁山)과 울산(蔚山) 좌병영(左兵營)이 뒤에서 이어 구원합니다.⁴¹⁾

- ▶ 이로 미루어 보건대 1544년(중종 39) 무렵에 경상좌수영을 울산 개운포에서 동래 해운포로 이전한 것은 확실한 듯하다.⁴²⁾ 그로부터 몇 년 뒤인

36) 『중종실록』 18, 8년 8월 12일 정미.

37) 『중종실록』 42, 16년 8월 10일 기축 ; 『중종실록』 53, 20년 2월 12일 신축.

38) 『중종실록』 78, 29년 9월 29일 임진.

39) 『중종실록』 104, 39년 9월 14일 경술 ; 『중종실록』 104, 39년 9월 18일 갑인.

40) 위와 같음.

41) 『중종실록』 104, 39년 9월 26일 입술.

42) 그 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은 1636년(인조 14)부터 1652년(효종 3)까지 10여 년간 동래 감만포로 옮겨 설치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1895년(고종 32) 7월 수영이 폐지될 때까지 해운포에 존재하였다.

1547년(명종 2)에는 개운포만호가 새로 임명된 기록이 실록에 나오는 것을⁴³⁾ 볼 때 1544년 무렵의 좌수영 이전은 더욱 확실시 된다. 그리고 1544년 이후 실록에서 더 이상 ‘해운포’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방증 자료가 될 수 있다. 해운포에 좌수영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더 이상 ‘해운포’라는 단어로 그곳을 나타낼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 결국 개운포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존속한 기간은 1459년(세조 5)부터 1544년(중종 39)까지 약 85년간이었다. 따라서 좌수영을 선조대나 임진왜란 직전에 울산 개운포에서 동래 해운포로 옮겼다는 기록은[1832년 울산읍지 등] 오류인 셈이다.
- ▶ 이처럼 1544년(중종 39) 무렵 개운포에 있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은 동래 해운포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개운포는 다시 만호진으로 복귀하였다.
- ▶ 이즈음 수군제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제승방략 체제가 수군에도 적용되면서 연해제읍(沿海諸邑)의 여러 군현들이 직접 수사(水使)의 관할 아래에 들어가는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군현의 수령들도 군선을 타고 직접 해안 방어의 일선에 나서게 된 점이였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던 수군이 차츰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에 방군수포(放軍收布)가 일반화되어 갔다. 부유한 수군들은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했으며, 첨사(僉使)와 만호들은 수군에게 면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또한 양천불명자(良賤不明者)나 죄인 등이 수군으로 충원되면서 수군역은 천역화하기 시작하였다.
- ▶ 군선으로 판옥선이 개발되는 변화가 있었다. 판옥선은 1555년(명종 10) 개발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1592년(선조 25)까지 약 40년 동안 기존의 맹선(猛船) 체제(體制)를 판옥선 중심 체제로 변화시켰다. 맹선은 일종의 평선(平船)이며, 상장(上裝)이 중시되는 후기의 판옥선과는 다른 구식의 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크기나 규모를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 판옥선은 큰 것은 저판장(底板長)이 65~70척, 탑승 인원은 160명, 노는 16자루 정도였으며, 조금 작은 것은 저판장이 50~55척, 탑승 인원은 125명, 노는 12~14자루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병선의 편제는 대형 병선인 판옥전선(板屋戰船)·거북선, 중형 병선인 방선(防船)·병선(兵船), 소형 병선인 사후선(伺候船)을 적절히 배합한 형태가 되었다. 이와 함께 함선에 장착하는 화기의 개발도 이루어져서 천자포와 지자포 등 해상용 중화기가 만들

43) 『명종실록』 5, 2년 1월 18일 신미.

어졌다. 해상용 대형 화기의 등장은 판옥선의 탄생과 때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수군의 위력을 극대화시켰다.

(5) 임진왜란의 발발과 개운포 전투

- ▶ 1592년(선조 25) 4월 드디어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차례로 함락될 무렵 경상좌수영도 맥없이 무너졌다. 개운포 만호진의 수군도 변변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다. 울산의 주요 거점들은 일본군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다. 관군과 의병이 힘을 합쳐 영천성을 탈환한 데 이어 9월에는 경주성을 수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은 조선군과 일본군이 접경한 지대였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 ▶ 그 중 개운포에서도 의병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운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⁴⁴⁾ 1592년 9월에는 이응춘(李應春)을 위시한 울산의 의병장들이 개운포에서 일본군을 막은 사실이 있었으며, 10월에는 울산군수 김태허가 이끄는 관군과 전응충·서인충이 이끄는 의병이 합세하여 수륙 양면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사실이 있었다. 그 뒤에도 개운포는 일본군에 대한 방어와 격퇴에 자주 등장하는 요충지였다. 특히 1593년(선조 26) 10월 의병장 이응춘은 개운포에서 일본군을 맞이하여 결전에 나서기 직전 다음과 같은 편지를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바 있었다.

수일 전에 진영(陣營)을 개운포로 옮겼다. 어제 큰 적군이 갑자기 다가와 온종일 세 차례 대항하여 그 세력을 물리쳤으나 큰 전선이 또 무수히 닥쳐오는데 힘은 다되고 후원은 없어 형세가 건디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아 온지라 이 같은 큰 국란을 당하였으니 충의로써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겠다. 나는 오늘 반드시 죽기를 결심하였으니,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잘 보호하여 선대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라. 진중이 시끄럽고 바쁘기도 하여 할 말 다 못한다.⁴⁵⁾

- ▶ 이 전투에서 이응춘은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일본군에 맞서 격전을 벌인 끝에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한편 『인조실록』에는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에 서울과 외방에서 충(忠)·효(孝)·열(烈)에 대해 장계(狀啓)로 정부에 보고한 것을 분등(分等)하여 초계(抄啓)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충신증직질(忠臣贈職秩)
울산(蔚山)의 고 통정(通政) 이응춘(李應春)과 그의 아들인 고 훈련정(訓練正) 이승금(李承金)은 왜변(倭變) 때에 부자(父子)가 창의(倡義)하여 이응춘은 개운포(開雲浦)에서 전사(戰死)하였고 이승금은 힘쓴 공적이 많은 자이다.⁴⁶⁾

44) 우인수, 「울산의병의 활동과 그 성격」, 『울산입란사 재조명』, 울산 충의사, 2015, 259~264쪽.

45) 울산박물관 소장 이응춘 편지.

46) 『순조실록』 32, 32년 4월 기축.



이용춘 유서, 울산박물관

學	聖	忠	士	張	士	壽	張	洪	士	金	牙	人	德	氏
知	廟	臣	建	川	人	生	李	豐	致	妻	山	崔	表	故
崔	尚	贈	人	氏	士	俊	妻	姓	人	任	故	學	故	士
命	裕	職	金	德	士	時	張	故	士	安	士	一	學	人
孫	關	秩	九	氏	大	瑞	妻	人	人	故	士	金	生	遂
麻	坡	位	恒	氏	利	妻	安	人	人	前	士	昌	權	山
四	府	板	安	士	人	氏	故	人	人	平	李	文	故	張
故	出	時	通	士	人	故	故	海	一	強	人	金	漢	公
進	士	人	日	節	申	良	故	故	李	安	人	豐	州	人
鄉	韓	義	昌	婦	益	鄭	平	士	人	人	人	人	光	李
贊	泰	停	死	閭	旗	鄭	環	人	全	人	人	人	光	李
那	鎮	在	死	閭	旗	鄭	環	人	全	人	人	人	光	李
智	鎮	在	死	閭	旗	鄭	環	人	全	人	人	人	光	李
故	九	鳳	子	益	李	北	士	孫	濟	人	人	人	人	人

『영조실록』 이용춘 기록

2) 조선 후기

(1) 임진왜란 후 개운포 수군진의 이진(移鎭)과 읍전선(邑戰船) 신설

- ▶ 동남해안쪽에 왜성을 쌓고 머물던 일본군이 모두 도망간 뒤 임진왜란은 종식되었다. 경상좌수영 휘하의 수군들도 속속 제자리를 찾으면서 복구에 나서게 되었다. 이 때 수군 운영에 변화가 일어났다. 경상좌수영의 경우 울산 북쪽 동해안의 포진들이 대거 동래 부근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조처에 따라 개운포진도 울산에서 동래로 옮겨가게 되었다. 옮겨진 시점은 선조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종식된 1598년(선조 31) 등의 설이 있는데, 임진왜란기 일본군과의 전쟁을 겪고 난 이후의 경험에 의거한 조처였을 가능성이 크다.⁴⁷⁾
- ▶ 동래로의 포진 이동은 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통로 쪽에 수군을 촘촘히 집중 배치하려는 전략상의 고려 때문이었다. 또한 경상도 동해안지역의 지형적인 조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영조대의 경상도관찰사 민백상이 올린 상소의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좌도(左道) 연해(沿海)는 동래(東萊)·기장(機張) 이북(以北)은 애초에 밀물이나 썰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일이 없는데 파도(波濤)가 스스로 서로 부딪쳐 언덕 위를 때립니다. 그리고 또 언덕의 돌이 높고 날카로우니 우리나라의 선척은 비록 흑시 간간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경박(輕薄)한 왜선 같은 것은 애당초 무리를 지어 일제히 정박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왜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좌도 연해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주의 감포(甘浦), 영해의 축산포(丑山浦), 흥해의 칠포(漆浦), 장기의 포이포(包伊浦)는 임진년 이후로 그곳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도(本道)의 감영(監營)으로부터 장문(狀聞)하여 동래 수영성(水營城) 밑으로 이전시킨 것입니다.⁴⁸⁾

- ▶ 개운포진이 동래 좌수영 근처로 옮겨갔을 때 군선과 수군 및 수군 가족들, 토지 등 기존의 개운포진을 지탱하였던 인적 물적 자원들이 모두 함께

47)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조선시대사학보』53, 2010, 10~12쪽.

48) 『영조실록』 73, 27년 1월 3일 신축.

동래로 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동래로 옮겨갔음에도 ‘개운포’라는 명칭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울산의 개운포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군선과 군사들은 당연히 옮겨갔을 것이지만, 그를 지탱하던 토지를 비롯한 물적 기반과 수군역을 지던 일반 백성들은 그대로 울산지역에 남아있었다고 생각한다.

- ▶ 한편 한편, 17세기 초·중엽 군선의 배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읍전선(邑戰船)의 존재이다. 「경국대전」 반포 당시에는 군선이 수군진에만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침입이 점차 늘어나자 조선 정부는 을묘왜변을 기점으로 경상·전라·충청도의 연해 군현에도 군선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수령이 군선에 탑승해서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해 활약하는 사례로 이어졌다. 이러한 활약으로 인해 임진왜란 이후 읍전선을 추가로 건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상태였다. 광해군 3년(1611) 종사관 최현은 "지금 충원하는 격군이 다만 각 포의 수군일 뿐이기 때문에 방수의 형세의 굳건한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해 군현을 덜어내어 주사에 소속시켜 옛 규정에 따라 전결을 기준으로 격군을 세우고, 그 군사의 다소에 따라 전선을 건조해 지급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그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전선이 경기와 평안도를 제외한 대부분 연해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생각된다.⁴⁹⁾
- ▶ 임진왜란이 끝나고 경상좌도의 수군진들은 중앙 정부의 국방정책에 따라 개운포진을 비롯하여 울산 북쪽 동해안의 포진들이 서생포동침절제사진만 남겨놓고 대거 동래 부근으로 옮겨갔다. 그 결과 동해안의 해방(海防)이 다소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울산도호부와 기장현에는 읍전선(邑戰船)이 배치되었다. 임진왜란 후 울산도호부의 읍전선에 대한 기록은 울산의 읍지인 『학성지』에 처음 등장한다.⁵⁰⁾ 『학성지』에 의하면 울산도호부는 1624년(인조 2)에 전선을 보유하게 되면서 선소를 도산성(울산왜성) 아래에 두었다는 것이다. 이제 연해지역의 군현들도 자체의 전선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선박을 보관하고 수리하며 제작까지 하는 선소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화강 도산성 아래 선소가 모래의 퇴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1654년(효종 5)에 선소를 개운포로 옮겨 설치하였다고 한다. 만호진이 옮겨간 이후 비어있던 개운포 지역은 울산도호

49) 송기중, 『조선시 후기 수군 연구』, 2019, 77~78쪽.

50) 『학성지』, 戰船.

부의 선소로 활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개운포성과 주변 시설들은 울산도호부의 전선이 혁파될 때까지 선소(船所)로 활용되었다.

- ▶ 이렇게 개운포에 울산도호부의 전선이 배치되었지만 문제는 수군의 확보였다. 수군진과 연해 군현에 근무하는 인원들 가운데 전투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은 수군 병력이었다. 수군 병력의 충원 문제는 전투력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다. 임진왜란 직후 수군진의 병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였다. 이는 선조 39년(1606) 개운포의 사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전(前) 경상좌수사 안위(安衛)의 첩정 내에 도내 개운포 전선의 원군(元軍)은 42명이었는데, 강원도의 군사 120명 내 20명을 개운포에 지급하여 원군의 합이 62명이 되었고, 나머지 100명은 김해의 전선에 분방(分防)하도록 했습니다. 각 포에는 100명의 군사로도 오히려 부족함이 있는데, 개운포 격군은 다만 62명이라 배를 제어하는데는 방도가 없습니다.⁵¹⁾

- ▶ 이 시기 개운포에 배치된 수군은 42명 정도였다. 강원도에서 부방한 병력 20명을 합산한다 해도 6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 인원으로는 전선의 승선 인원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진에 수군이 부족하면 유사시에 군선을 출동시키기 힘들 뿐 아니라 진을 운영할 재정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임진왜란 직후 수군의 부족이 심각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진에 배치되는 주력 전투 선박이 전선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전선은 조선이 여태까지 운영해온 군선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고 생각된다. 그에 따라 승선 인원도 이전의 주력 전투 선박에 비해 가장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임진왜란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이다. 특히 수군진이 집중되어 있는 경상도 연해 지역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오랫동안 주둔해서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컸다. 따라서 백성이 유망할 때가 많아 한정(閑丁)이 매우 감소해 있는 상태였다. 이에 수군진에서 충원할 수 있는 병력과 충원해야 하는 병력 사이에 괴리가 클 수밖에 없었다.⁵²⁾

(2) 개운포 선소의 운영

- ▶ 조선후기 울산도호부가 보유하고 있던 군선은 판옥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었다. 참고로 영조대의 상황을 반영한 『여지도서』에 수록된 경상좌수영 관할 구역의 영진과 군현이 보유한 군선을 제시하면 다음 표3.과 같다.⁵³⁾

51) 『啓本臚錄』, 萬曆 34년(선조 39, 1606) 6월 10일.

52) 송기중, 『조선시 후기 수군 연구』, 2019, 85~86쪽.

영조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의 군선 보유 현황

구분	군선 보유 상황	계
본영	戰船 2척, 龜船 1척, 偵探船 1척, (龜體無頭)兵船 4척, 伺候船 9척	17척
우후영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4척
부산진	전선 1척, 귀선 1척, 병선 2척, 사후선 4척	8척
다대진	전선 1척, 귀선 1척, 병선 2척, 사후선 4척	8척
개운포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4척
두모포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4척
서평포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4척
서생진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4척
포이포	귀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4척
울산도호부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4척
기장현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4척
합계	戰船 11척, 龜船 4척, 偵探船 1척, 兵船 16척, 伺候船 33척	65척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 울산도호부는 판옥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 등 총 4척의 군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운포는 울산부가 보유한 배들을 위한 선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선소는 군선의 정비, 관리, 제조 등을 담당하던 곳이었다. 이를 위해 선소에는 대장(代將) 1인, 병선장 1인이 배치되어 각각 전선과 병선을 담당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를 포함하여 울산도호부에 소속된 군함별 수군의 배속 상황을 『여지도서』에 의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⁴⁾

戰船 1척 : 대장(代將) 1인, 기패관(旗牌官) 7인, 도훈도(都訓導) 1인, 군기감관(軍器監官) 1인, 사부(射夫) 20명, 교사(教師) 10명, 포수(砲手) 24명, 타공(舵工) 2명, 요수(繚手) 2명, 정수(碇手) 2명, 노군(櫓軍) 114명
兵船 1척 : 병선장(兵船將) 1인, 사부 10명, 포수 10명, 타공 1명, 노군 14명
伺候船 2척 : 타공 각 1명, 노군 각 4명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산도호부에는 크고 작은 군선 4척에 수군 장졸 총 23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하층의 군졸들은 각 면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군포를 바치고 또 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수군들은 스스로 당번 기간 중 본인의 식량을 마련하여 개운포를 왕래하면서 수직(守直)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극심하였다. 이에 영조대 경상도 관찰사 남태량은 울산도호부의 군선과 관련된 백성들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53) 『여지도서』하(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경상도, 수군절도영, 戰船.

54) 『여지도서』하, 경상도, 수군절도영, 수군, 울산부.

울산(蔚山) 전선(戰船)에서 제일가는 고질적인 폐단은 선창(船艙)이 멀리 30리 밖인 개운포(開雲浦)에 있고 감직(監直)의 월료(月料)는 단 미곡 6두(斗) 뿐이며, 사포수(射砲手)는 모두 각 면(面)에 흩어져 있어서 수로(水路)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번(番)드는 양식을 마련하느라고 농사철을 생각하지 않고 가서 전함(戰艦)을 수비하고 있을 때에 모두 속히 죽기를 원하고 있고, 기타 노동과 비용도 매우 많아 종전에 자살한 수군도 2명이나 되었습니다.⁵⁵⁾

- ▶ 이에 그 해결 방안으로 울산도호부 소속의 군선을 서생포 침절제사영으로 옮기는 안이 제시되어 조정에서 수차에 걸쳐 논의되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못하게 되었다.⁵⁶⁾
- ▶ 1808년(순조 8)에 편찬된 『만기요람』에도 울산도호부에 소속된 군선의 규모가 역시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으로 파악되어 있다.⁵⁷⁾ 1832년(순조 32)에 편찬된 울산도호부 읍지에도 개운포에 선소(船所)가 존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가운데, 이곳에 전선과 병선이 각각 1척씩 있었고, 대장(代將)과 병선장이 각각 1인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⁵⁸⁾

55) 『국역비변사등록』119, 영조 25년(1749년) 2월 17일.

56) 『국역비변사등록』119, 영조 25년(1749년) 2월 17일, 5월 27일.

57) 『만기요람』, 군정편4, 舟師, 경상좌수영.

58) 『울산부읍지』(1832년,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관액(關陔), 선소.

조선 후기 각종 고지도에 나타나는 개운포의 울산도호부 전선소(戰船所)

<p>학성지의 울산지도 (1749년경)</p>	<p>해동지도 울산부 (1724~1776)</p>	<p>비변사방안지도 (1745~1760)</p>
<p>여지도 울산부(1736~1767)</p>	<p>경주도회 좌통지도 (1700년대 말)</p>	<p>지승 울산부(1700년대 말)</p>
<p>광여도 울산(1800년대 초)</p>	<p>경상도읍지 울산부(1832)</p>	<p>학성각면산천도로총도 (1832~1864)</p>
<p>각읍지도 울산지도 (년대 미상)</p>	<p>조선지도 울산지도 (년대 미상)</p>	<p>울산군읍지(1899년)</p>

- ▶ 1871년(고종 8)의 울산부읍지에 첨부된 지도에도 선소가 개운포에 그려져 있다.⁵⁹⁾ 1870년(고종 7)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성암동 부근의 토지와 경작자의 모습을 알려주는 완문도 울산도호부에 소속된 수군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조선말 1895년(고종 32)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폐지될 때까지 울산도호부의 군선과 수군 편성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이 1895년경에 편찬된 울산부읍지에는 군선으로 원래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⁶⁰⁾

(3) 개운포 읍수군(邑水軍)의 수조(水操) 참가

- ▶ 수조(水操)는 수군의 전투력 향상과 유사시의 대비를 위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조련으로서 1660년대 후반에 춘·추 수조(水操)로 제도화 되었다. 2월의 춘조(春操)는 통제사 주관 하에 삼도 수군 이상이 연합선단을 구성하는 합조(合操)를, 8월의 추조(秋操)는 각 도(道)의 수사가 주관하는 도수조(道水操, 營操)를 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었고 이외에 진(鎭) 단위에서 주관하는 진조(鎭操)도 있었다. 그 중 추조(秋操)는 충실하게 실시된 반면 합조는 숙종 20년(1694)부터 잠정적으로 폐지되어 18세기 후반까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 즉 조선후기의 수조 시행 실태를 보면 영(營) 아래의 읍진(邑鎭) 군선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추조는 비교적 충실히 실시된 반면, 대규모 선단과 다수의 군병이 동원된 합조는 수시로 정지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유행병, 가뭄과 농형사정, 해상의 일기불순 외에도 군역 부담의 과다와 재정 악화 등이 주요인으로 해당 도의 관찰사 건의에 따르거나 조정에서 관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통제영계록』, 『비변사등록』 등에서 자주 확인된다. 삼남 합조의 규모를 밝혀주는 『수조홀기』와 『삼도주사도분군도』에 의하면 군선이 각기 195척, 192척 그리고 해상전투원과 대기원, 가왜군, 산성군, 친군을 포함한 동원군액이 6,627, 6,399명에 달하는 대규모로서 당시 삼도 각 영의 군선 보유수와 비교하면 80% 내외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조와 관련된 제 법규는 엄격해서 관하 수사 이하 제 진장, 수령의 수조 임무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 ▶ 한편 임진왜란 후 다시 재건된 개운포의 울산도호부 읍수군과 읍전선 또한 통제사 주관 하에 시행되는 2월의 합조(合操, 春操)와 각 도(道)의 수사

59) 『울산부읍지』(1871년,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첨부 지도.

60) 『울산부읍지』(1895년,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關防, 船所 ; 邑事例, 舟師所 · 舟師色.

가 주관하는 8월의 도수조(道水操, 秋操, 營操)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 제작된 수군조련도(水軍操鍊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헌을 통해서도 개운포의 울산도호부 읍수군과 읍전선의 수조 참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영조 11년(1735)부터 영조 14년(1738)까지 울산 도호부사를 역임한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이 약 58년 동안 쓴 『청대일기(淸臺日記)』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부산 경상좌수영에서 진행된 추조에 참가한 수조전선(水操戰船)은 울산도호부 전선을 포함하여 도합 54척의 대소 군선이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삼도수군조련도」, 국립해양박물관



「삼도수군조련도」의 울산 읍전선

「각선도본」의 전선

- ▶ 통제영에서 행하는 합조시 절차는 통제영과 경상좌수영에서 해상훈련인 수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 절차를 기록한 『수조홀기(水操笏記)』와 정조 때 간행된 『병학지남(兵學指南)』 등을 볼 때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절차는 첨방(添防)의 준비 과정이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각도 수군이 통제영에 도착하는 데 대략 10~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기한보다 최대 1개월 정도 일찍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절차는 점고(點考)이다. 점고는 병장기와 인원을 점검하는 행사로, 병력이 도착한 직후에 바로 시행했다. 세 번째 절차는 수조와 수토(搜討)인데 경상·충청·전라도의 수군이 연합하여 수조를 시행했다. 합조의 장소는 한산도 앞바다

였다. 수조가 끝나면 바다를 순찰하는 활동인 수토를 했다. 네 번째 절차는 방수(防守)로 수조와 수토가 끝나고 나면 군선과 병력은 정해진 파수처(把守處)에서 방수했다. 다섯 번째 절차는 파방(罷防)과 복귀이다. 각도에서 온 수군은 파방하고 호궤(犒饋)를 한 후에 본래 있던 개운포로 돌아왔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5.1 성곽현황

- ▶ 개운포 경상좌수영 성곽은 위치로는 강안성, 지형적으로는 평산성(平山城), 축성방법으로는 편축성, 축성재료로는 석재로 쌓은 석성이며, 평면형태로는 방형과 원형의 중간형태인 부정형성(복주머니형)으로 볼 수 있다.
- ▶ 성곽의 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된 문헌기록이 없지만 전체길이는 금번 측량 조사를 통해 약 1,245m이며 면적은 99,296㎡(30,037평)이다. 문지 3개소와 치성 3개소, 퇴수로 2기가 확인되었다.
- ▶ 동성벽은 동문지를 중심으로 약 262m 길이고 토석혼축으로 쌓았다. 동성벽 전구간에는 외부로 약 5~6m 이격시켜 폭 약 5.3m, 깊이 약 1m 내외의 황(隍, 마른 해자)을 조성하였다. 동문은 북문과 함께 좌수영성에서 가장 잘 남아 있으며 옹성을 설치하였다. 치(雉) 1기가 확인된다.
- ▶ 남성벽은 (추정)남문지를 중심으로 약 265m 길이고 석축으로 쌓았다. 평지성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과거 선수마을이 있었을 때는 주로 민가 사이의 담장으로 이용되었다. 남성벽 구간은 좌수영성에서 중심지역으로 지금까지 남문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수군의 운영이나 선소와의 관계, 상징성 등을 고려 할 때 주요 성문으로서 축조되었다고 추정된다. 지형상 퇴수로와 성내에 연지 등도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된다. 발굴조사에서 체성 면석의 남쪽 약 7m 거리에 폭 420cm 정도의 해자가 확인되었으며 해자 내측 양안에 호안석축을 조성하였다.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남문지 좌우 측 성벽을 잔존 상태에 가깝게 수리·정비하였다.
- ▶ 서성벽은 서문지(퇴수구)를 중심으로 약 388m 길이고 구간에 따라 토성과 석성이 공존하고 있다. 서문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퇴수로 2기가 확인되었는데, 상부의 것은 후대에 수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문지 남측에는 치(雉) 1기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북측 일부 구간은 훼손되었다.
- ▶ 북성벽은 약 320m 길이고 토석혼축으로 쌓았다. 북성벽 전구간에는 외부로 일정거리를 이격시켜 황(隍, 마른 해자)을 조성하였다. 조선시대 좌수영

성의 북쪽에 위치한 울산도호부 치소와 경상좌병영으로 연결되는 북문은 동문과 함께 개운포 좌수영성에서 가장 잘 남아 있으며 용성을 설치하였다. 서성벽과 북성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치(雉) 1기가 설치되어 있다.

개운포 좌수영성의 구간별 성곽 현황

구분	길이 (m)	축성재료	해자 형태	치(雉)	성문지	비고
동성벽	동북성벽	160	토석혼축	황(隍)	1	1
	동남성벽	104	토석혼축			
	계	264				
남성벽	남동성벽	107	석축	해자	미확인	
	남중성벽	58	석축			
	남서성벽	109	석축			
	계	274				
서성벽	서남성벽	107	석축	황(隍), 일부 해자	1	1 (水口?)
	서중성벽	188	토석혼축			
	서북성벽	94	토석혼축			
	계	389				
북성벽	북서성벽	79	토석혼축	황(隍)	1	1
	북중성벽	137	토석혼축			
	북동성벽	101	토석혼축			
	계	317				
합계	1,245					



개운포 좌수영성의 성곽 현황, 1954년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5.1.1 시설물현황

- ▶ 개운포 좌수영성은 조선 전기 성곽임에도 불구하고 체성이나 성문지, 치(雉), 마른해자(황, 隍) 등 성곽시설물의 본존 상태가 국내 어느 수영성보

다 양호하다.

- ▶ 성문지는 현재 동문지·북문지·서문지가 확인되며 동문지·북문지에는 반원형에 가까운 옹성을 조성하였다. 옹성 개구부는 동문지는 북쪽에, 북문지는 서쪽에 두었다.
- ▶ 치(雉)는 기존의 보고서에서는 3기가 보고되어 있지만 이외에 이번 조사에서 4기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치는 최소 7기 정도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 ▶ 현재 성내에는 3기의 곡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배수를 위해 3기의 퇴수로가 있어야 하지만 서퇴수로 1기만 확인되었다. 특히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남중성벽과 남서성벽의 중간지점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퇴수로나 연지는 향후 발굴조사가 실시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5.1.2 건축물현황

- ▶ 개운포 좌수영성 내에는 운영 당시 다양한 공해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영성이 주로 조선 전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건물과 관련된 기록이 많지 않고 주민들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 ▶ 성 내부 관아 건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객사, 수사의 근무처인 동헌과 내아, 우후의 관아, 문루 등으로 그 위치는 객사면디라 부르는 곳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발굴조사에 의해 규모와 배치, 원형을 고증할 필요가 있다.
- ▶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 전기 지리지와 이후의 각종 울산부읍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체오정(掣鰲亭)과 제승정(制勝亭)도 발굴조사로 규모와 배치, 원형을 고증할 필요가 있다.
- ▶ 군사적인 성곽에서 중요한 건물 중 하나가 군신(軍神)을 상징하는 독기(纛旗)를 모시는 독제당이다. 조선 후기 부산 경상좌수영성지나 영해도호부 읍치였던 영해면소재지에는 지금도 독당이 남아있고 울산의 경상좌병영 고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라좌수영이었던 여수시와 통제영에서는 독제를 축제화하여 매년 거행하고 있다. 일반 읍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영성의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그 자리를 정확히 고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시굴에 의해 그 위치를 찾아보고 추정 복원하는 것이 수군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관광콘텐츠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 ▶ 조선시대 수영성이나 수군진성, 읍전선(邑戰船) 정박처에서 군선(軍船)의 접안과 수리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선소는 주민들에 의하면 남문

밖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현상이 변경되어 지표상에서 정확한 자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5.2 개운포 좌수영성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5.2.1 역사적·학술적 가치

1) 최초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

- ▶ 개운포에는 조선 초기 태종대에 이미 수군만호 영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후 세조 5년(1459)에 부산포 수군도안무처치사 영이 적이 침입할 때 맨 먼저 적을 맞게 되는 것이 마땅치 않으므로 이곳 개운포로 이설되었다. 이후 『경국대전』 단계에서 수군도안무처치사가 수군절도사로 변경되면서, 개운포성은 최초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되었다.

2) 전국 유일의 조선 전기 수군절도사영성

- ▶ 개운포 좌수영성은 세조 5년(1459) 부산포에 있던 경상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 영이 개운포로 옮겨 오고 난 후, 51년이 지난 중종 5년(1510)에 영성(營城)으로 축조되었다. 그러나 34년 뒤인 중종 39년(1544) 다시 동래 남촌[해운포]으로 이진하게 되면서 만호진으로 복귀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중앙의 정책에 따라 개운포 만호진마저도 부산포 인근으로 옮겨 가고 잠시 폐영으로 있다가 울산도호부의 읍전선을 정박시켜 놓고 수리·관리하는 선소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울산부 읍수군 시기의 주 운영 선박은 전선 1척과 병선 1척 정도여서 공간사용 범위도 외항강변의 선창 중심이었다. 따라서 개운포 좌수영 성곽의 주사용 시기는 조선 전기로 한정되며 현재 남아있는 유구는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어 많은 수축과 증개축이 일어난 타 지역의 수영성과 달리 조선 전기 성곽의 구조와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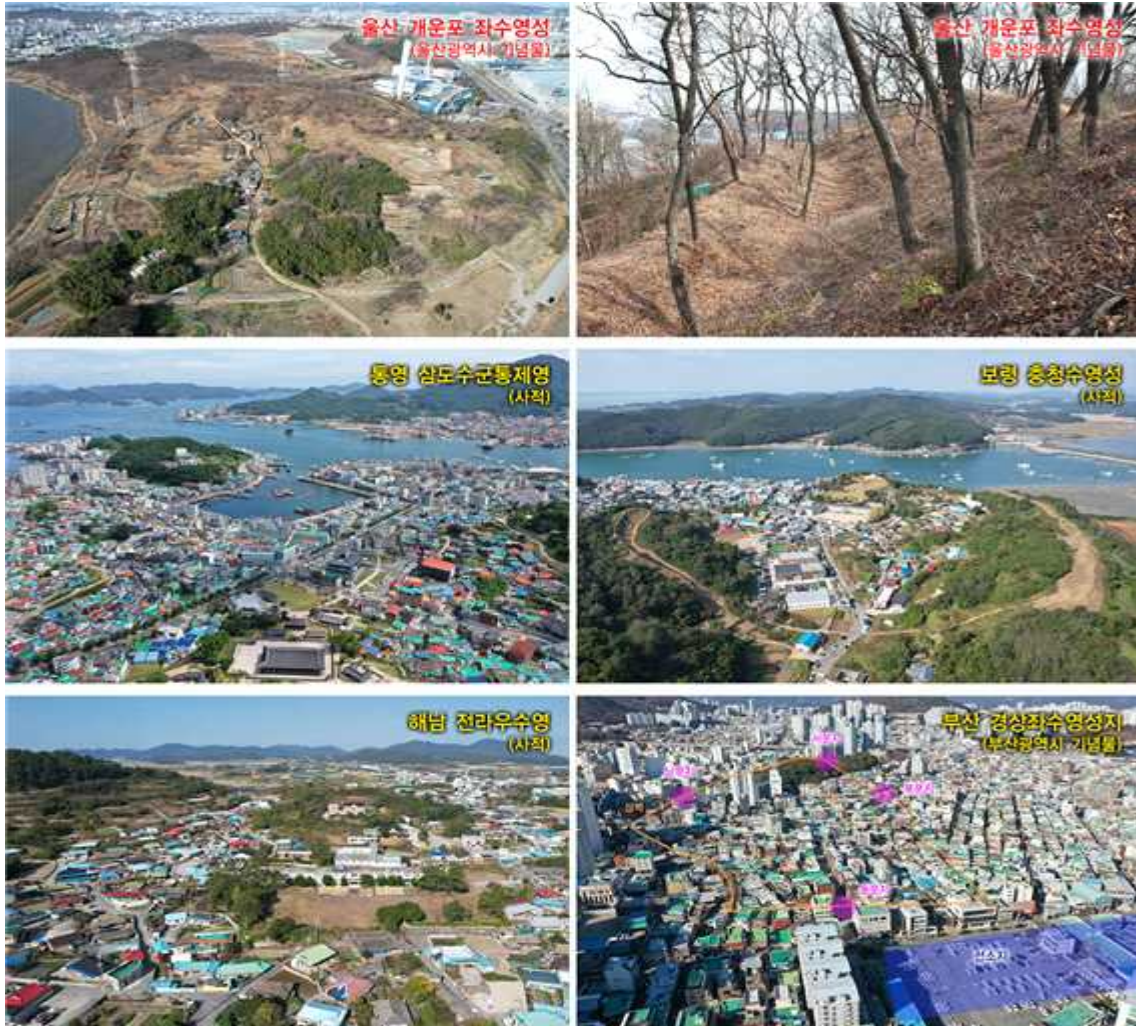
3) 조선시대 수군의 역사와 운영 및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와 발전을 살필 수 있는 관방시설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

- ▶ 개운포 좌수영성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 초기인 태종대에 만호진으로 출발하여 세조 5년(1459)~중종 39년(1544)의 85년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경상좌수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다시 만호진으로 복귀하였고, 조선후기에는 읍전선의 정박처인 선소로 이용되기까지 수군의 역사와 전통, 변천과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국방유적이다.

4) 조선 전·후기 수군 행정 및 운용을 연구하고 지역사를 정립할 수 있는 기록 보유

- ▶ 각종 개운포 관련 고문헌, 고지도, 시문(詩文), 완문(完文) 등의 문적을

통해 조선 전·후기 수군 행정과 지역사를 정립할 수 있다. 또한 개운포 좌수영성보다 먼저 축조·운영되었던 울산 경상좌병영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육·수군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전국 수영성 현황

5.2.2 유구적 가치

1) 전국의 수영성 가운데 성벽과 해자, 성문지 등의 성곽시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조선 전기 동해안 수군성 가운데 최대 규모를 지닌 관방 유적

- ▶ 개운포 좌수영성은 처음부터 수군 성곽 중 가장 위계가 높은 수영성(水營城)으로 계획하여 축조하였으므로 성벽 둘레가 1,245m가 달하며 동해안에 위치한 수군관련 성곽 중 규모가 가장 크다.
- ▶ 개운포 좌수영성은 3개소의 성문지와 옹성, 치 3개소, 체성 밖 전구간에 걸쳐 조성된 해자, 퇴수로 1개소 등 다양한 시설물을 갖춘 조선 전기 군사적 성격의 성곽이며,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수영성 가운데 유구의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여 조선 초기 수군성의 축조방식과 구조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적 가치와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

- ▶ 또한 조선 후기 남문 밖에는 평시 울산도호부의 전선(邑戰船)을 정박·관리하고, 노후화된 선박을 수리하기 위한 선소(선창)를 설치하였다. 선소는 전문 수군진이나 읍전선 운영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로서 석축으로 조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수군진으로서 탁월한 입지와 방어성을 담보해주는 천혜의 요지

- ▶ 예로부터 동해안은 해류가 빠르고 해풍을 막을 수 없는 구조여서 선박의 운항이 쉽지 않으며,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도 거의 없기 때문에 양항(良港)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개운포 좌수영성은 동해로 유입되는 외황강(外隍江) 하류역의 좌안에 위치한 침식성 저구릉과 그 말단부에 조성되었는데, 이곳은 균향이 들어서기 좋은 최상의 조건을 지닌 곳이었다.
- ▶ 이곳은 바다와 이격된 내만한 지점이어서 바람과 파도로부터 안전하며, 담수와 해수가 혼재한 기수역(汽水域)임으로 따개비와 같은 패류의 영향이 적어 전선을 연훈(煙燻)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적고 퇴적 현상도 거의 일어나지 않아 선박 운항에 지장이 주지 않는다. 선소의 동측에는 저구릉이 위치하여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시계를 자연스럽게 차단해줌으로써 왜구의 정탐이나 기습을 막고 전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탁월한 방어성을 담보해주고 있다.

3) 방어시설인 수군진과 통신시설인 봉수대, 조선용 목재의 공급처인 봉산(封山)의 연계

- ▶ 개운포의 좌수영성은 바다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외황강 하류에 입지하여 해양 관측이 쉽지 않으므로 동쪽 약 3km에 있는 가리봉수대와의 연계를 통해 바다의 상황을 24시간 전달 받았다. 선박 건조용 목재는 남서쪽 약 2.7km 거리에 위치한 대천봉산(大川封山, 현 거남산) 및 용굴봉산(龍窟封山, 현 서생면)에서 공급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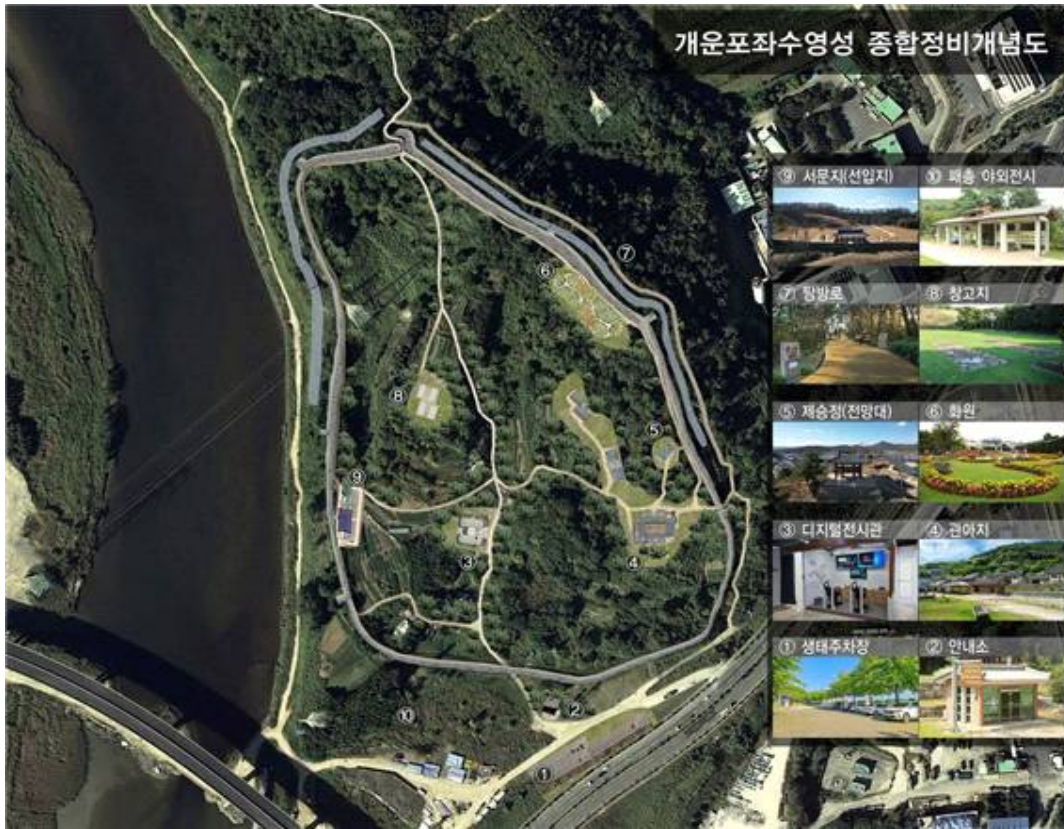
5.2.3 활용적 가치

1) 발굴·복원정비를 통한 학술적 가치 증대

- ▶ 개운포의 좌수영성은 성곽과 문지, 해자 등 성곽시설물의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재 구역(기념물)로 지정된 108필지 34,567.7m² 약 70%가 국·공유지로서 발굴조사 및 정비·복원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좌수영성 주변이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1992년 성내마을과 인근 거주민들이 모두 이주하였으므로 사적 지정 후 민원 발생의 우려가 거의 없다.
- ▶ 성내부의 관아건물 역시 그 위치에 대한 확인과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높아 발굴조사 및 정비·복원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용계획

- ▶ 외항강 유역은 선사시대부터 인간의 삶이 시작된 울산 역사의 발원지이자 문화 창달의 터전이라 할 수 있으며 개운포 좌수영성 주변에는 수천년의 시간이 흐르며 쌓인 역사문화유적이 분포해 있다. 즉 개운포 좌수영성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에 선사유적인 세죽유적과 패총유적, 관방유적인 함월산성지와 가리봉수대지, 처용유적, 마채염전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육로와 해로 모두 연계가 가능한 상태로써 향후 활용측면에서 유리하다.
- ▶ 개운포의 좌수영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호응도가 높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한 활용계획으로 문화재와의 공존이 가능하다.



개운포 좌수영성의 정비계획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면적: 문화재구역 91필지 /34,564.7㎡, 보호구역122필지/89,763.7㎡

합: 213필지/124,328.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남구 성암동	81	전	1,055.0	38.5		
2	남구 성암동	86	전	1,339.0	970.6		
3	남구 성암동	90	전	1,233.0	430.1		
4	남구 성암동	90-1	전	1,068.0	119.8		
5	남구 성암동	92	전	390.0	386.1		
6	남구 성암동	306-2	대	470.0	254.3		
7	남구 성암동	307	대	426.0	343.2		
8	남구 성암동	308	대	2,991.0	1,379.8		
9	남구 성암동	309	도	93.0	2.6		
10	남구 성암동	310-1	답	450.0	234.5		
11	남구 성암동	310-2	전	3,283.0	1,142.5		
12	남구 성암동	310-3	답	298.0	241.8		
13	남구 성암동	311-2	전	73.0	73.0		
14	남구 성암동	312-1	답	470.0	100.2		
15	남구 성암동	363-2	전	582.0	3.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6	남구 성암동	364	전	868.0	25.9		
17	남구 성암동	365	전	389.0	2.3		
18	남구 성암동	369	전	1,391.0	14.1		
19	남구 성암동	378	전	63.0	63.0		
20	남구 성암동	379	전	145.0	28.4		
21	남구 성암동	380	전	608.0	201.2		
22	남구 성암동	390	전	1,577.0	1,168.0		
23	남구 성암동	393	전	635.0	566.1		
24	남구 성암동	406	전	354.0	198.6		
25	남구 성암동	408	전	8.0	8.0		
26	남구 성암동	408-1	전	17.0	17.0		
27	남구 성암동	408-2	전	50.0	50.0		
28	남구 성암동	408-3	전	170.0	170.0		
29	남구 성암동	408-4	전	62.0	62.0		
30	남구 성암동	409	전	251.0	251.0		
31	남구 성암동	426-3	임	658.0	163.9		
32	남구 성암동	426-5	대	301.0	37.4		
33	남구 성암동	426-10	도	60.0	43.7		
34	남구 성암동	426-11	대	274.0	9.0		
35	남구 성암동	426-12	임	46.0	1.9		
36	남구 성암동	426-13	대	182.0	2.0		
37	남구 성암동	429-1	대	400.0	11.9		
38	남구 성암동	429-2	대	205.0	42.1		
39	남구 성암동	429-7	전	274.0	36.4		
40	남구 성암동	429-8	전	440.0	309.1		
41	남구 성암동	429-17	임	479.0	317.6		
42	남구 성암동	429-18	전	251.0	199.3		
43	남구 성암동	429-19	전	169.0	1.5		
44	남구 성암동	429-21	도	126.0	3.5		
45	남구 성암동	430-6	전	1,084.0	319.7		
46	남구 성암동	430-10	전	1,485.0	363.6		
47	남구 성암동	430-15	전	13.0	13.0		
48	남구 성암동	443-1	전	166.0	59.3		
49	남구 성암동	444	전	181.0	155.2		
50	남구 성암동	444-1	전	411.0	186.1		
51	남구 성암동	444-2	전	13.0	4.7		
52	남구 성암동	445	전	187.0	187.0		
53	남구 성암동	445-1	전	198.0	198.0		
54	남구 성암동	445-2	전	193.0	193.0		
55	남구 성암동	445-3	대	732.0	513.1		
56	남구 성암동	446	전	178.0	145.6		
57	남구 성암동	446-1	전	242.0	242.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58	남구 성암동	446-2	전	570.0	570.0		
59	남구 성암동	447	전	502.0	502.0		
60	남구 성암동	447-2	전	160.0	160.0		
61	남구 성암동	447-3	전	15.0	15.0		
62	남구 성암동	447-4	전	434.0	434.0		
63	남구 성암동	448	전	2,833.0	1,089.0		
64	남구 성암동	448-1	전	565.0	417.6		
65	남구 성암동	450-1	전	1,577.0	180.5		
66	남구 성암동	451-2	전	529.0	198.1		
67	남구 성암동	451-7	전	334.0	143.2		
68	남구 성암동	477	도	3,721.0	396.9		
69	남구 성암동	산186-3	임	10,194.0	661.7		
70	남구 성암동	산187-3	임	485.0	19.6		
71	남구 성암동	산188-2	임	1,950.0	21.2		
72	남구 성암동	산190-2	임	1,313.0	10.6		
73	남구 성암동	산190-3	임	1,983.0	390.5		
74	남구 성암동	산191	임	1,587.0	1,500.8		
75	남구 성암동	산192	임	2,281.0	375.3		
76	남구 성암동	산196	임	397.0	349.8		
77	남구 성암동	산197	임	2,479.0	875.2		
78	남구 성암동	산198	임	3,237.7	858.3		
79	남구 성암동	산200	임	7,041.0	7,041.0		
80	남구 성암동	산204	임	1,091.0	1,091.0		
81	남구 성암동	산205-2	임	2,876.0	1,537.4		
82	남구 성암동	산206	임	2,380.0	1,345.2		
83	남구 성암동	산207	임	253.0	253.0		
84	남구 성암동	산207-1	임	9.0	9.0		
85	남구 성암동	산207-2	임	141.0	141.0		
86	남구 성암동	산207-3	임	93.0	93.0		
87	남구 성암동	산208-1	임	395.0	395.0		
88	남구 성암동	산208-2	임	1,090.0	922.7		
89	남구 성암동	산209-2	임	1,999.0	113.9		
90	남구 성암동	산209-5	임	445.0	42.8		
91	남구 성암동	산209-13	임	3,445.0	105.0		
계				88,161.7	34,564.7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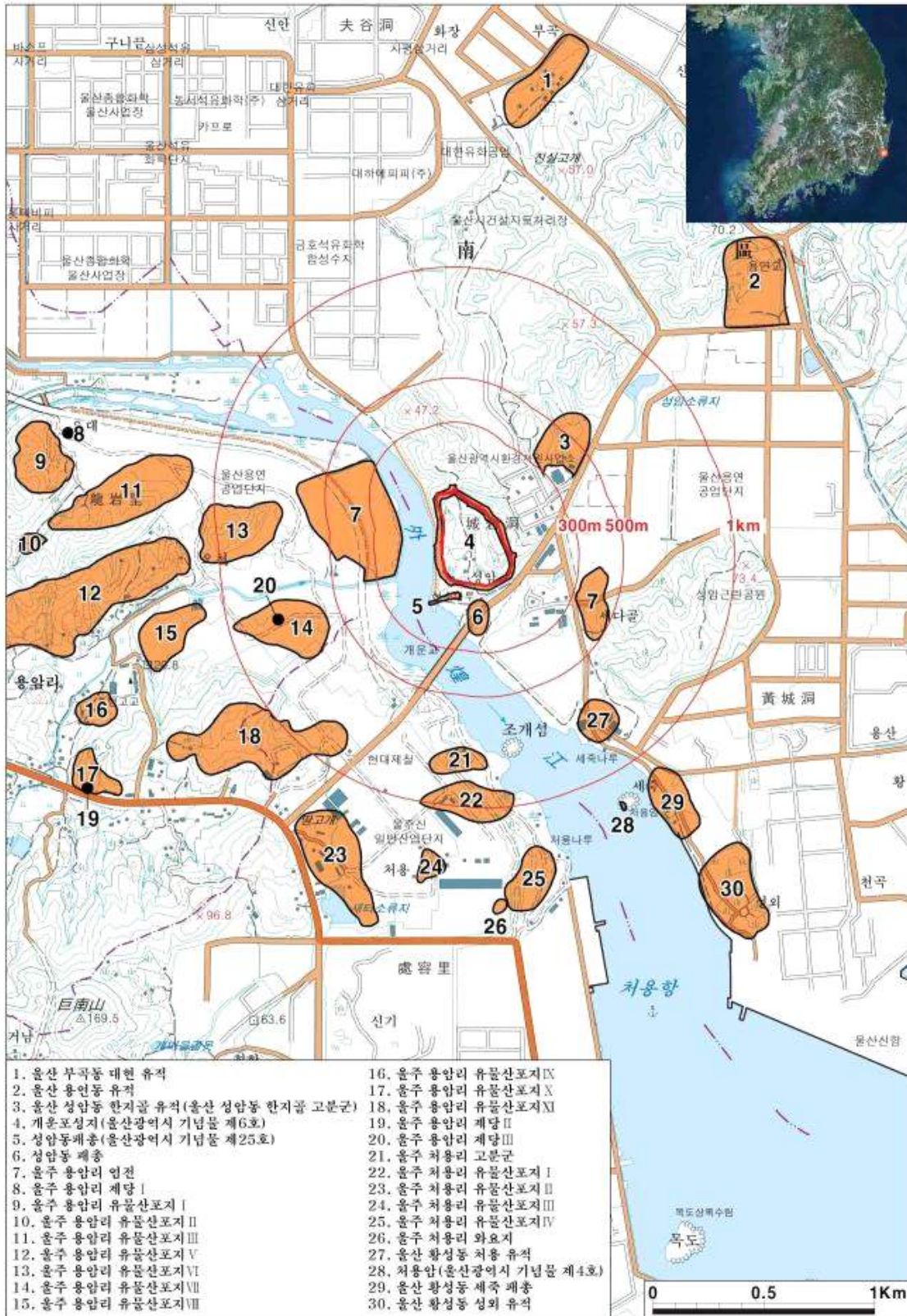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남구 성암동	81	전	1,055.0	1,016.5		
2	남구 성암동	82	전	869.0	869.4		
3	남구 성암동	83	전	1,041.0	1,041.0		
4	남구 성암동	84	전	902.0	902.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5	남구 성암동	85	전	615.0	615.0		
6	남구 성암동	88	전	466.0	466.0		
7	남구 성암동	89	대	248.0	248.0		
8	남구 성암동	90	전	1,233.0	802.9		
9	남구 성암동	90-1	전	1,068.0	948.2		
10	남구 성암동	90-2	대	496.0	496.0		
11	남구 성암동	308	대	2,991.0	1,611.2		
12	남구 성암동	310-2	전	3,283.0	2,140.5		
13	남구 성암동	310-5	전	185.0	185.0		
14	남구 성암동	310-6	전	1,117.0	1,117.0		
15	남구 성암동	310-7	전	575.0	575.0		
16	남구 성암동	310-8	전	969.0	969.0		
17	남구 성암동	310-9	전	281.0	281.0		
18	남구 성암동	310-12	전	1,488.0	1,488.0		
19	남구 성암동	310-13	전	549.0	549.0		
20	남구 성암동	310-14	전	588.0	588.0		
21	남구 성암동	310-15	전	364.0	364.0		
22	남구 성암동	379	전	145.0	116.6		
23	남구 성암동	380	전	608.0	406.8		
24	남구 성암동	381	대	1,008.0	1,008.0		
25	남구 성암동	382	대	231.0	231.0		
26	남구 성암동	383	대	853.0	853.0		
27	남구 성암동	384-1	대	502.0	502.0		
28	남구 성암동	384-2	대	485.2	485.2		
29	남구 성암동	385	대	1,302.0	1,302.0		
30	남구 성암동	386	전	1,223.0	1,223.0		
31	남구 성암동	387	전	2,397.0	2,397.0		
32	남구 성암동	388	대	526.0	526.0		
33	남구 성암동	389	대	261.0	261.0		
34	남구 성암동	390	전	1,577.0	409.0		
35	남구 성암동	392	전	169.0	169.0		
36	남구 성암동	393	전	635.0	68.9		
37	남구 성암동	394	전	76.0	76.0		
38	남구 성암동	396	전	764.0	764.0		
39	남구 성암동	397-1	전	469.0	469.0		
40	남구 성암동	397-2	전	350.0	350.0		
41	남구 성암동	398	전	757.0	757.0		
42	남구 성암동	399	전	423.0	423.0		
43	남구 성암동	400	전	701.0	701.0		
44	남구 성암동	401	전	149.0	149.0		
45	남구 성암동	402	전	99.0	99.0		
46	남구 성암동	403	전	106.0	106.0		
47	남구 성암동	404	전	962.0	962.0		
48	남구 성암동	405	전	721.0	721.0		
49	남구 성암동	405-1	전	298.0	298.0		
50	남구 성암동	405-2	전	155.0	155.0		
51	남구 성암동	410	전	595.0	595.0		
52	남구 성암동	411	전	450.0	450.0		
53	남구 성암동	412	전	1,666.0	1,666.0		
54	남구 성암동	413	전	1,666.0	1,666.0		
55	남구 성암동	414	전	1,577.0	1,5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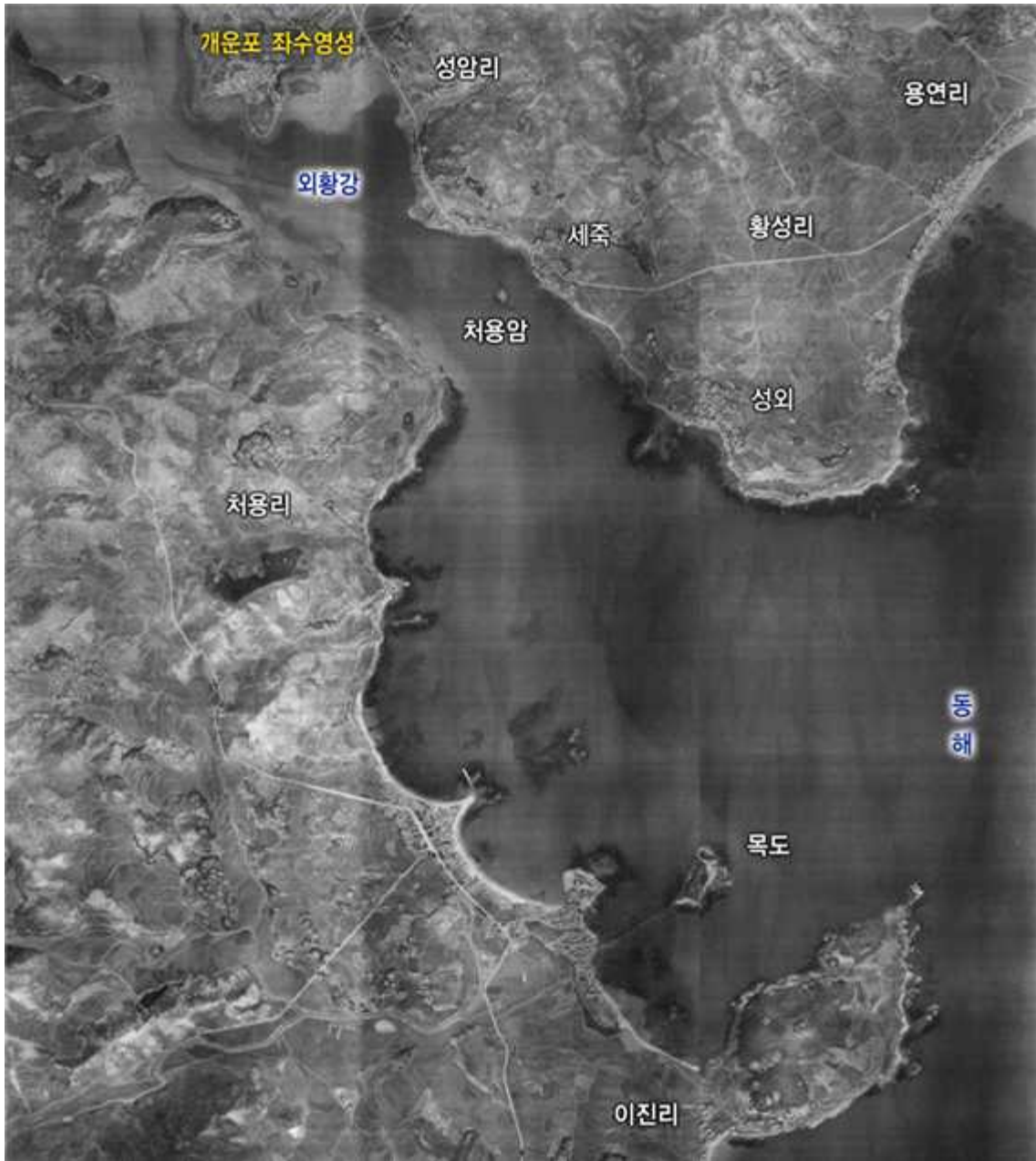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56	남구 성암동	415	전	1,180.0	1,180.0		
57	남구 성암동	416-1	전	740.0	740.0		
58	남구 성암동	416-2	전	1,137.0	1,137.0		
59	남구 성암동	417	전	483.0	483.0		
60	남구 성암동	418-1	전	476.0	476.0		
61	남구 성암동	418-2	전	367.0	367.0		
62	남구 성암동	418-3	전	264.0	264.0		
63	남구 성암동	418-4	전	707.0	707.0		
64	남구 성암동	419	전	803.0	803.0		
65	남구 성암동	420	전	1,200.0	1,200.0		
66	남구 성암동	421	전	1,081.0	1,081.0		
67	남구 성암동	422	전	479.0	479.0		
68	남구 성암동	423	전	2,618.0	2,618.0		
69	남구 성암동	424	전	1,458.0	1,458.0		
70	남구 성암동	425-1	임	922.0	922.0		
71	남구 성암동	425-2	대	205.0	205.0		
72	남구 성암동	426-3	임	658.0	494.1		
73	남구 성암동	426-10	도	60.0	16.3		
74	남구 성암동	426-11	대	274.0	265.0		
75	남구 성암동	426-12	임	46.0	44.1		
76	남구 성암동	426-13	대	182.0	180.0		
77	남구 성암동	426-14	대	271.0	271.0		
78	남구 성암동	426-15	임	638.0	638.0		
79	남구 성암동	430-2	전	926.0	926.0		
80	남구 성암동	430-3	전	869.0	869.0		
81	남구 성암동	430-4	전	212.0	212.0		
82	남구 성암동	430-5	임	175.5	175.5		
83	남구 성암동	430-6	전	1,084.0	755.4		
84	남구 성암동	430-9	전	195.0	195.0		
85	남구 성암동	430-10	전	1,485.0	1,121.4		
86	남구 성암동	430-12	도	50.0	50.0		
87	남구 성암동	430-14	임	40.0	40.0		
88	남구 성암동	431-1	대	681.0	681.0		
89	남구 성암동	431-2	임	400.0	400.0		
90	남구 성암동	431-3	임	182.0	182.0		
91	남구 성암동	432-1	임	255.0	255.0		
92	남구 성암동	432-2	임	142.0	142.0		
93	남구 성암동	433-1	임	426.0	426.0		
94	남구 성암동	433-2	임	60.0	60.0		
95	남구 성암동	433-3	대	413.0	413.0		
96	남구 성암동	434-1	전	575.0	575.0		
97	남구 성암동	434-2	전	559.0	559.0		
98	남구 성암동	435	전	1,494.0	1,494.0		
99	남구 성암동	436	전	2,076.0	2,076.0		
100	남구 성암동	437-1	전	354.0	354.0		
101	남구 성암동	437-2	대	559.0	559.0		
102	남구 성암동	438	전	1,111.0	1,111.0		
103	남구 성암동	439	전	436.0	436.0		
104	남구 성암동	440	묘	502.0	502.0		
105	남구 성암동	441-1	전	817.0	817.0		
106	남구 성암동	441-2	임	1,160.0	1,16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07	남구 성암동	442	전	972.0	972.0		
108	남구 성암동	443	임	601.0	601.0		
109	남구 성암동	443-1	전	166.0	106.7		
110	남구 성암동	448	전	2,833.0	1,744.0		
111	남구 성암동	448-1	전	565.0	147.4		
112	남구 성암동	477	도	3,721.0	1,007.0		
113	남구 성암동	산192	임	2,281.0	1,905.7		
114	남구 성암동	산194	대	496.0	496.0		
115	남구 성암동	산195	대	496.0	496.0		
116	남구 성암동	산196	임	397.0	47.2		
117	남구 성암동	산197	임	2,479.0	1,603.8		
118	남구 성암동	산201	임	5,752.0	5,752.0		
119	남구 성암동	산202	임	1,091.0	1,091.0		
120	남구 성암동	산205-2	임	2,876.0	1,338.6		
121	남구 성암동	산208	전	498.0	498.0		
122	남구 성암동	산208-2	임	1,090.0	167.3		
계				104,090.7	89,7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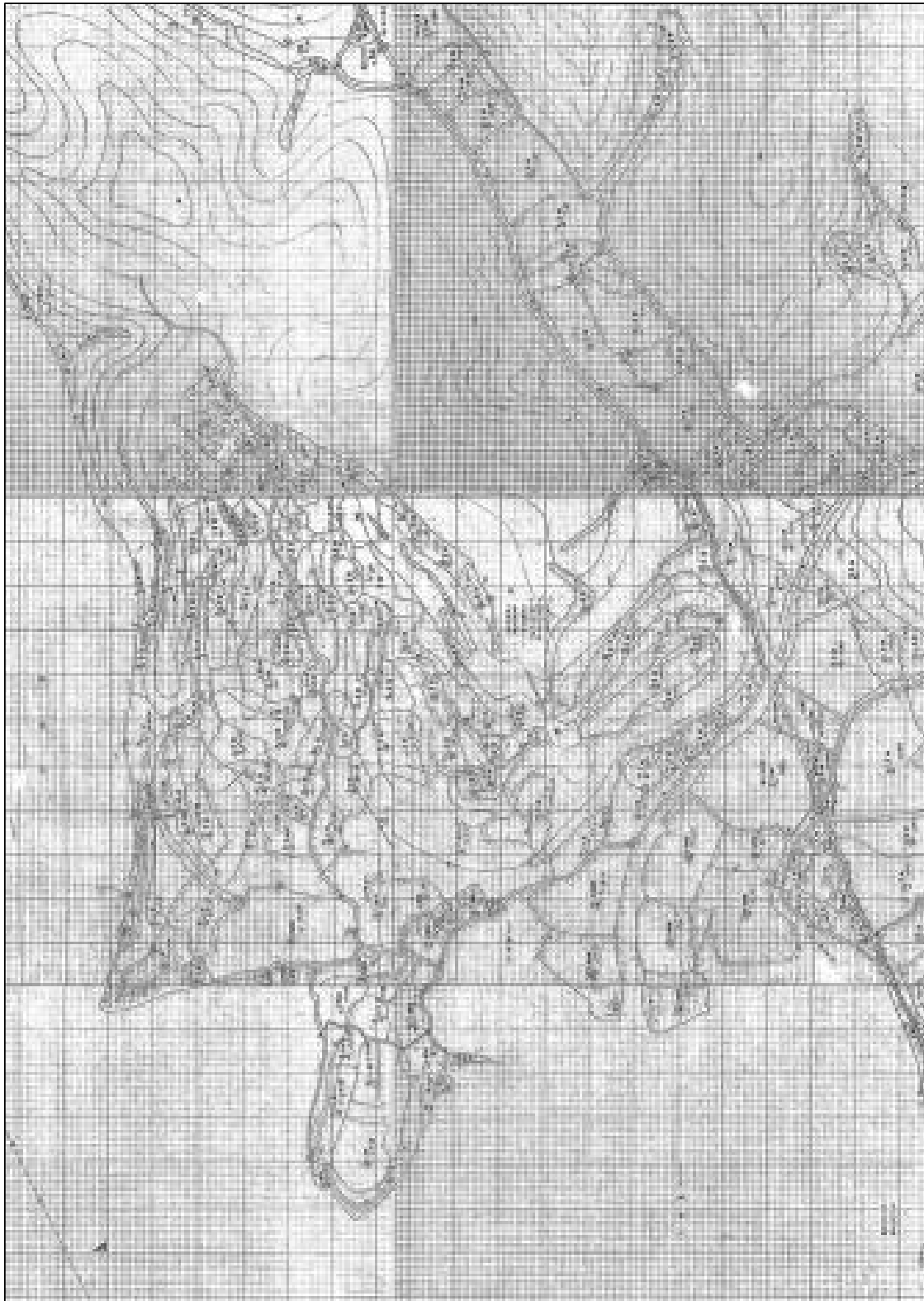
개운포 좌수영성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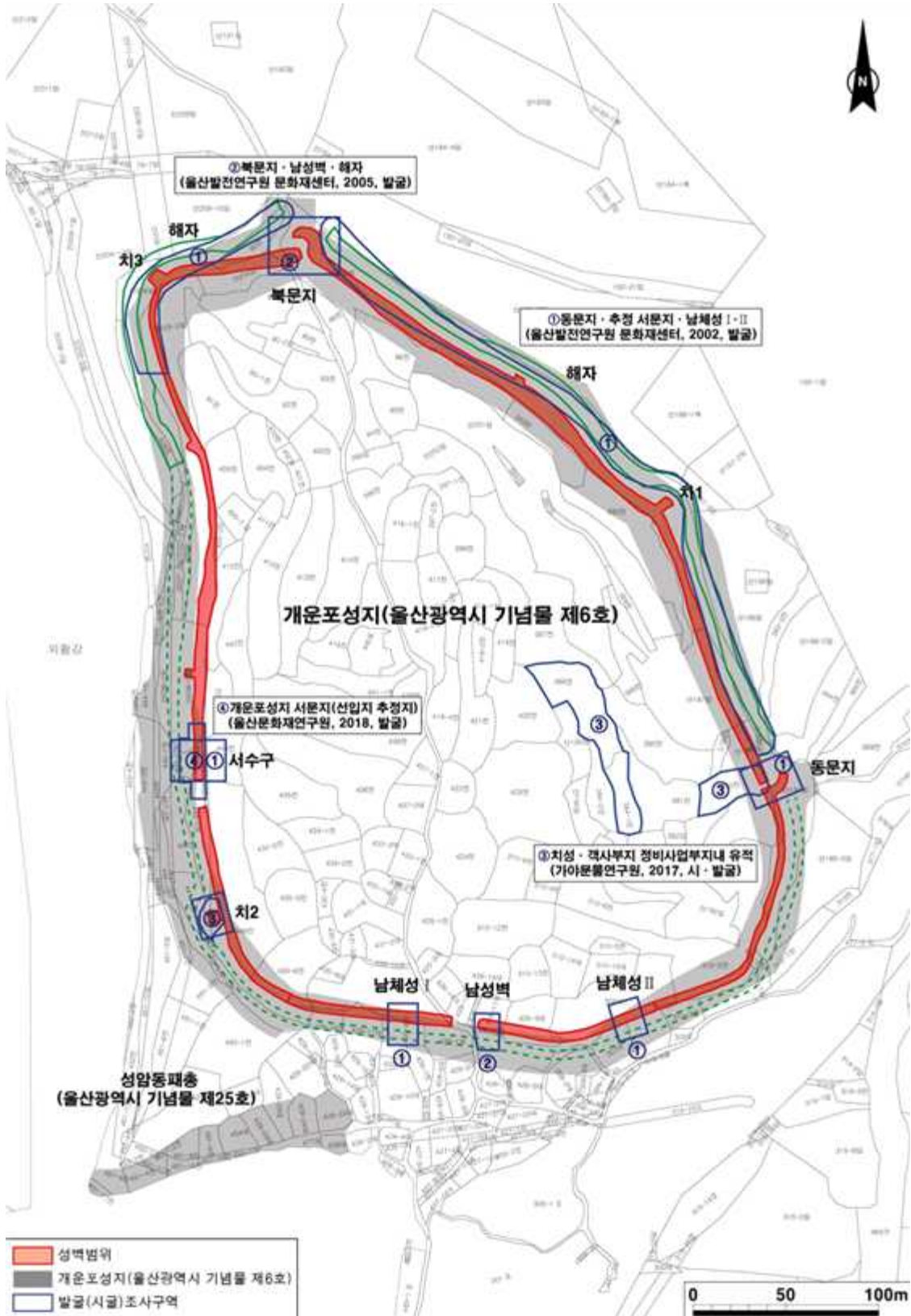
1954년 항공사진에서 본 개운포 좌수영성 자연지리환경, 국토지리정보원



일제강점기 제작 개운포 좌수영성 주변 지적원도, 국가기록원



개운포 좌수영성 성벽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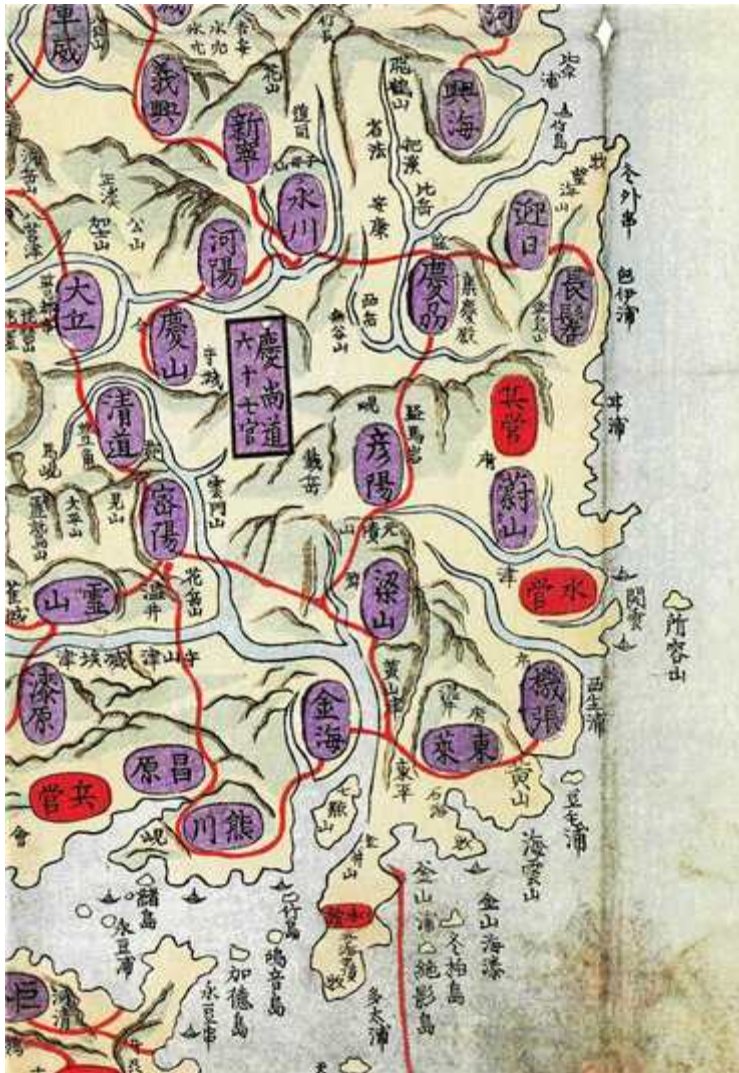
지적원도(1912)에서 토지현황과 성벽 겹침



경상좌수영지도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 영남대 박물관



개운포 좌수영성의 성벽 위곽도, 1954년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개운포 좌수영성의 성곽 현황도, 1954년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1) 항공사진

▶ 1954년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 1967년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 1969년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 1975년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 1987년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2. 유적사진



개운포 좌수영성 전경



개운포 좌수영성 건물지



개운포 좌수영성 동쪽 구간 체성



개운포 좌수영성 남쪽 구간 체성



개운포 좌수영성 서쪽 구간 체성



개운포 좌수영성 북쪽 구간 체성



개운포 좌수영성 동문지 발굴조사,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개운포 좌수영성 동문지 현황



개운포 좌수영성 북문지 발굴조사,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개운포 좌수영성 북문지 현황



개운포 좌수영성 추정 남문지 현황



개운포 좌수영성 추정 서문지 현황



개운포 좌수영성 동쪽 구간 마른 해자(隍)



개운포 좌수영성 북쪽 구간 마른 해자(隍)



개운포 좌수영성 서쪽 구간 마른 해자(隍)



개운포 좌수영성 남쪽 구간 해자 발굴조사,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개운포 좌수영성 동쪽 구간 치성1



개운포 좌수영성 서쪽 구간 치성2



개운포 좌수영성 북쪽 구간 치성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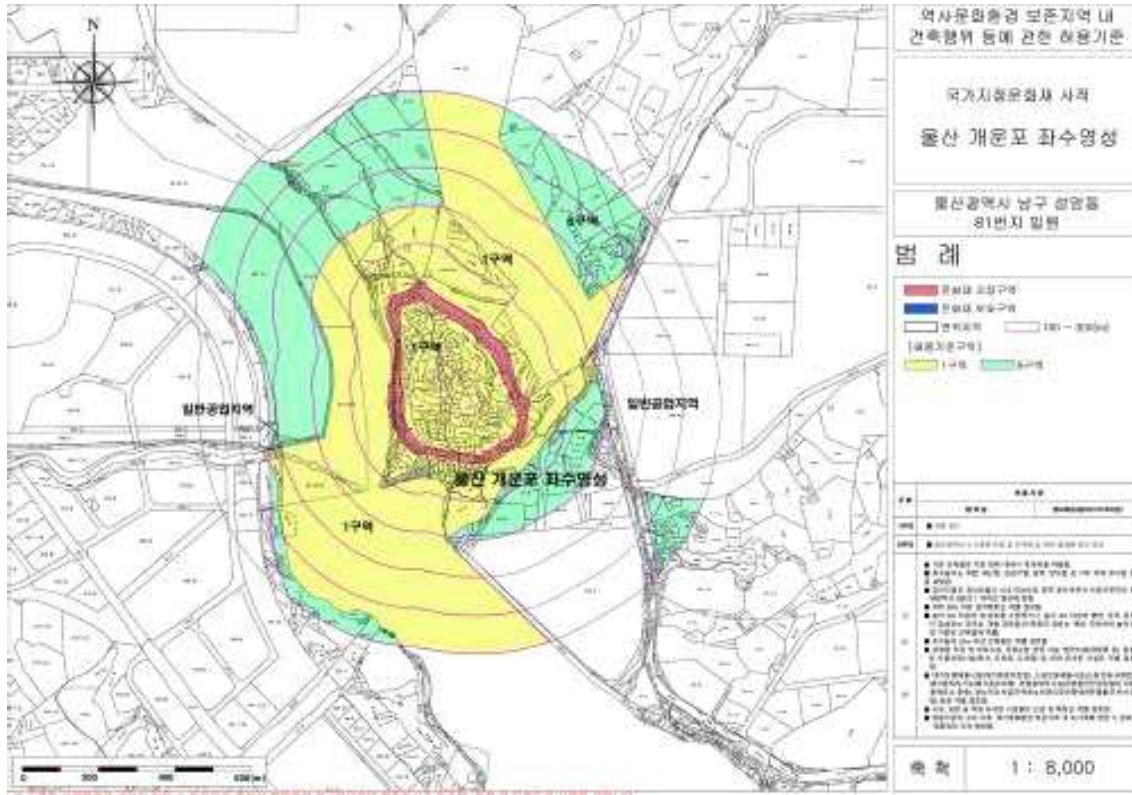


개운포 좌수영성 북쪽 구간 추정치4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은 주변이 공업지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구역은 200m 범위까지로 하고, 그 외 하천과 임야 등 일체성이 있는 구역을 1구역(개별심의구역)으로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개운포 좌수영성 현상변경허용기준(안)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1. 기본구상

1.1 기본방향

1) 보존 정비계획의 목표 및 기본 원칙

- ▶ 유적 본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원형보존 최우선
- ▶ 필요 복원구간은 원형 고증에 의한 최소한의 정비
- ▶ 철저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수리 기본원칙 준수
- ▶ 유적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최대한 고려
- ▶ 유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 ▶ 개운포 좌수영성에 내재된 역사문화의 문화산업화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방안 제시
- ▶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 ▶ 관련법규·재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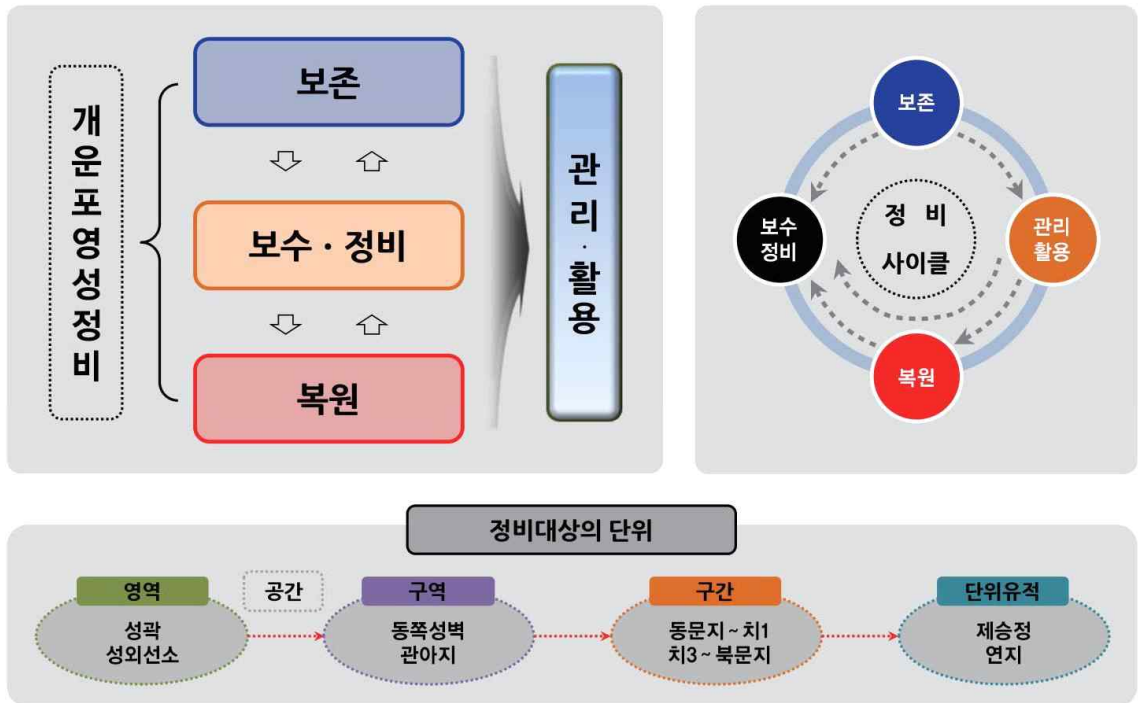
계획의 목표

- 1차 목표 개운포 좌수영성의 정비 및 복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2차 목표 정비대상의 유형 검토와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기본방향

- ① **개운포 좌수영성 복원정비 방향의 설정**
발굴조사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운포 좌수영성의 복원기준을 검토하여 향후 정비사업의 방향 설정
- ② **중장기적이고 광역적인 문화유적 복원정비 계획 수립**
정비대상을 검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정비방안 확보
- ③ **원형보존 구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타 구간 정비 실행**
보존구간과 복원정비구간을 엄격히 구분하고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정비 실행
- ④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극대화한 활용계획 구축**
정비된 문화재의 실질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장체험의 교육장 활용방안 구상
- ⑤ **자연친화적 정비계획 구축**
개운포 좌수영성의 자연식생 생태보호와 이를 통한 활용방안 구상

▶ 계획의 체계



2) 보존 정비계획의 내용

(1)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학술조사계획

- ▶ 개운포 좌수영성의 보존, 정비,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 ▶ 개운포 좌수영성의 성격규명, 원형고증을 위한 학술조사계획

(2) 개운포 좌수영성 정비

- ▶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확대 지정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
- ▶ 관아 및 성곽 복원정비
- ▶ 성내 간선로 회복
- ▶ 체성 주변 수목 정비
- ▶ 우물 등 조선 후기 선수마을 역사문화 보존

(3) 성내·외 주요 공간에 대한 원형 경관 회복 후 활용도 제고

- ▶ 개운포 좌수영성 내 관아지의 정비 후 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
- ▶ 남문 앞 및 선소 등은 수영성의 상징 및 진입마당으로 활용
- ▶ 인근 문화유산과 장소를 연계하여 활용방안 모색

(4) 개운포 좌수영성 전면에 주차장 및 안내센터 조성

- ▶ 개운포 좌수영성 경관과 유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운로에서 좌수영성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친환경 그린주차장 건립
- ▶ 종합안내센터 및 개운포 좌수영성 디지털전시관을 건립하여 조선전기 경상좌수영의 운영 및 개운포 좌수영성에 대한 소개와 안내
- ▶ 개운포 좌수영성 내부차량 통행 제한 / 성곽 둘레길 조성

1.2 종합구상

1.2.1 개운포 좌수영성

1) 관아건물 및 성곽시설물에 대한 학술조사

- ▶ 관아건물지 시·발굴조사
- ▶ 체성과 황(隍)에 대한 추가 시·발굴조사
- ▶ 남문지 및 서문지의 정밀 시·발굴조사
- ▶ 연못 및 수구 시·발굴조사
- ▶ 선소 추정지 시·발굴조사
- ▶ 발굴조사 성과를 정립하는 학술심포지엄 개최

2) 성내 간선로 조사 및 도로구조 회복

- ▶ 조선 전기 개운포 좌수영성의 성내 원형 가로망 조사·연구
- ▶ 간선로 회복 후 탐방로로 활용

3) 수목 정비

- ▶ 유구 훼손과 주변 경관 조망에 장애를 주는 체성·황(隍) 주변 수목 조사
- ▶ 간벌계획 수립

4) 조선 후기 선수마을 역사문화 보존

- ▶ 우물 등 관련 유적조사 및 보존계획 수립
- ▶ 선수마을 모형 및 기념 공간 조성

1.2.2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확대지정

- ▶ 문화재 지정구역 검토 및 확대 : 발굴조사 후 확인된 주요 건물지 등
- ▶ 문화재 보호구역 검토 및 확대 : 성곽 및 해자(隍) 인접지역, 관아건물 추정지 등

1.2.3 편의시설계획

1) 개운포 좌수영성 남측 외곽에 주차장 신설

- ▶ 개운포 좌수영성 내·외부차량 통행제한

2) 종합안내센터 및 개운포 좌수영성 디지털전시관 건립

- ▶ 개운포 좌수영성 관련 역사문화 전시·홍보
- ▶ 조선 후기 선수마을 민속, 민구 등 전시·홍보

3) 성곽 상부 및 외곽에 탐방로 조성

- ▶ 탐방객이 성곽 둘레를 돌며 관람할 수 있는 순환 탐방로 조성
- ▶ 탐방 순로에 따라 스토리와 안내시설 배치

1.2.4 활용계획

1) 성곽 활용계획

- ▶ 관아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후 교육 및 체험공간 조성
- ▶ 성곽과 외황강변의 연계를 통해 수군의 인식 증진과 정체성 확립

2) 주변 유적 연계 및 활용

- ▶ 인접한 성암동패총, 처용암, 마채염전, 가리봉수대 등을 연계한 탐방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500여년에 걸친 조선시대 개운포의 수군 관련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구축

2.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2.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확대지정

2.1.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현황

- ▶ 문화재 지정구역 : 성벽과 해자(隍)
- ▶ 문화재 보호구역 : 없음
- ▶ 건물 추정지와 성곽 인접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필요
 - 유적지 보호와 문화재 경관을 위한 완충공간 확보
- ▶ 개운포 좌수영성 내 일부 사유지 토지매입 필요
 - 발굴조사의 수월성과 경작행위에 의한 유구 훼손 방지를 위해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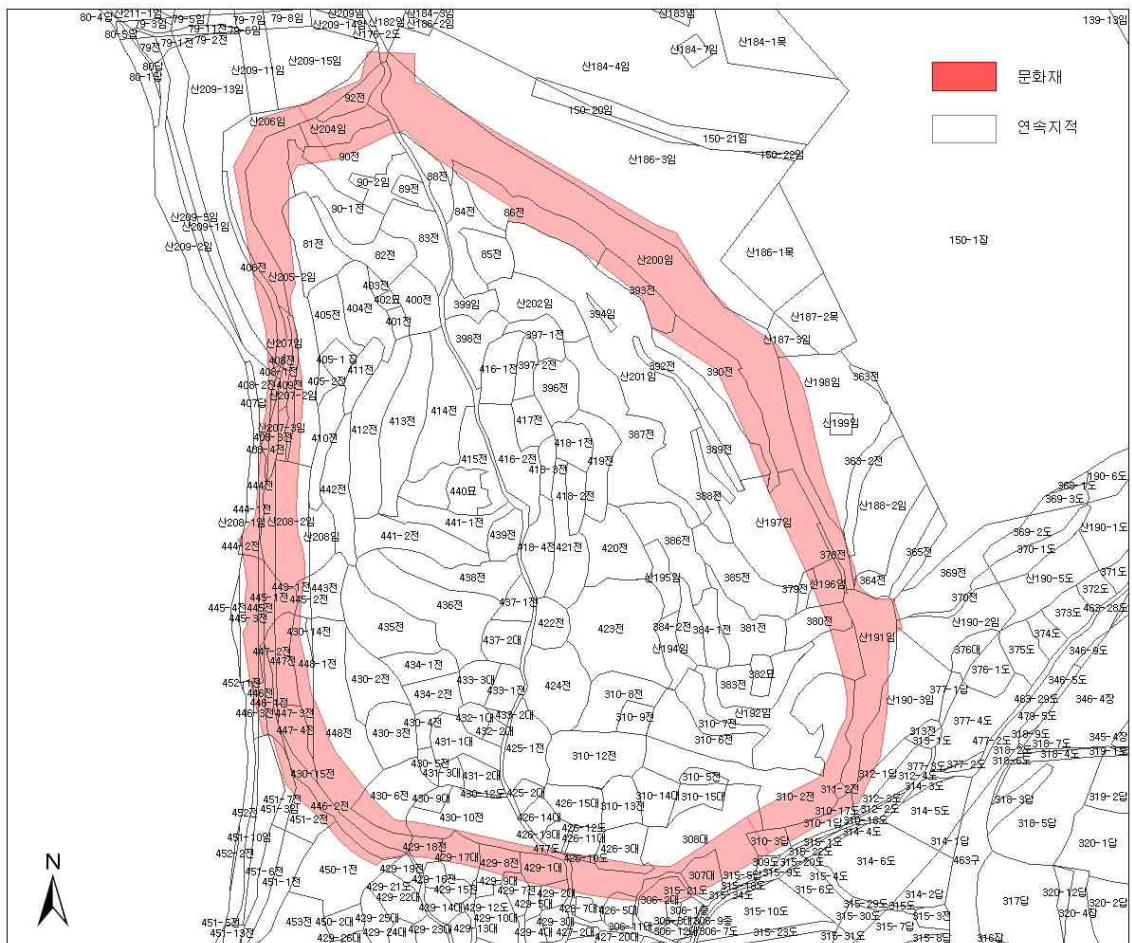


그림 9-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현황

2.1.2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정비

- ▶ 문화재 지정구역 정비 : 성곽 및 해자 건물지(객사 및 동헌, 내아, 제승정터, 창고지

등)

- 학술조사를 통하여 추후 성곽시설물(남문지 등) 유구 및 건물지, 선소가 확인되는 지역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보호

▶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 : 성곽 및 해자 인접지역, 관아건물 추정지

- 장기적으로 성곽 내부는 모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

1) 정비목적

▶ 개운포 좌수영성의 보존·정비 및 관리의 효율성 확보

-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보존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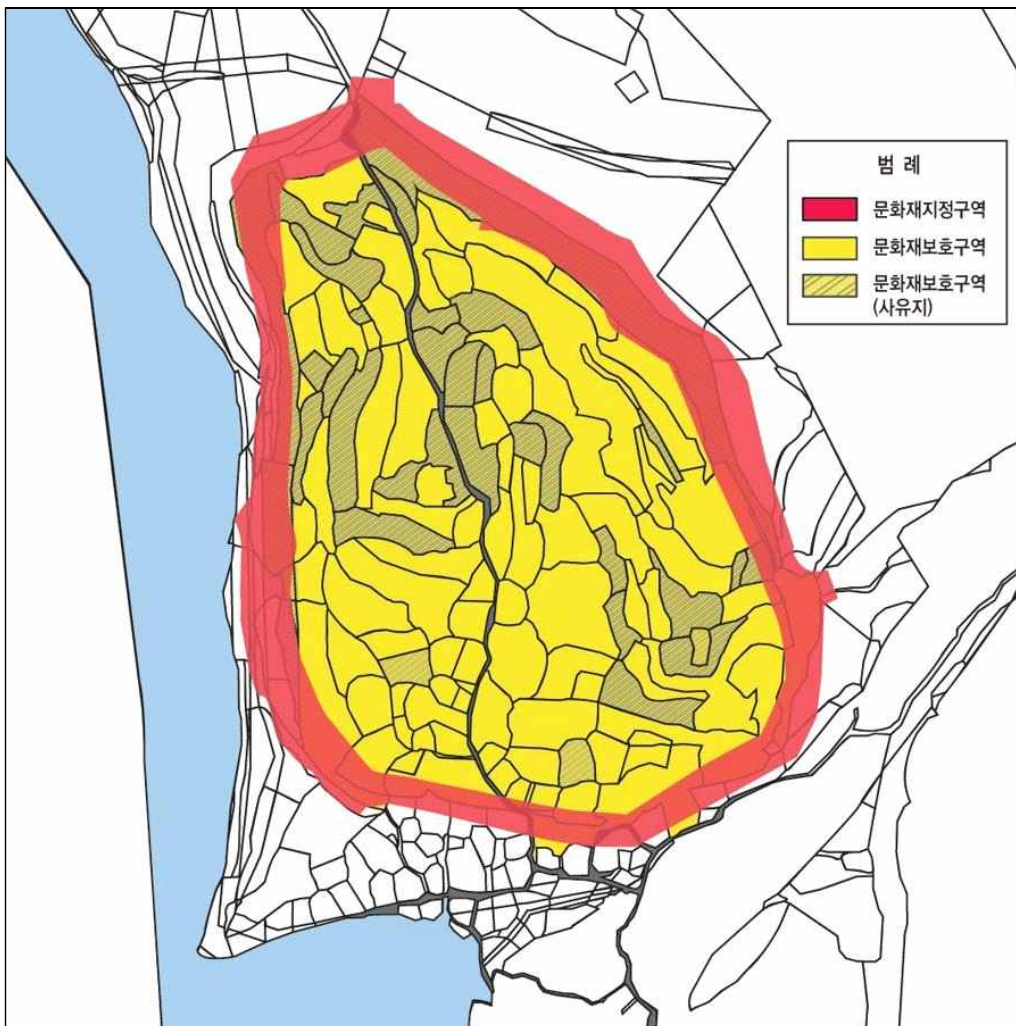


그림 9-2.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정비계획

2)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 성곽의 정확한 위치(통과선) 규명

- 학술조사와 정밀실측조사를 통해 성곽 경계를 명확히 구분
-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 성곽 및 용성·치·해자 등 성곽시설물 인접지역, 매장문화재의 분포 가능성이 있는 관아건물 추정지 등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
 - 장기적으로 성 내부는 모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
- ▶ 문화재 지정구역 지정
 - 학술조사를 통해 향후 성곽 및 건물지가 확인되는 지역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보호
-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발생 고려
 - 문화재 지정구역의 조정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일부 사유지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리적인 문화재영향 검토구역의 현상변경처리기준의 조정 필요

2.2 학술조사계획

2.2.1 정밀실측조사

1) 조사목적

- ▶ 훼손·멸실되어 가는 성벽 잔존구간에 대한 현상을 기록하고 보존이 필요
 - 성곽 및 외곽경계를 베타베이스화 하여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함
 -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정비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내용

- ▶ 정밀실측조사 전 선행작업
 - 원활한 정밀실측조사를 위해 성벽 내·외측 일정구간에 대한 수목 및 잡풀 등 제거
- ▶ 성곽 내·외측에 대한 정밀한 조사 실시
 - 정밀실측조사 내용을 도면화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촬영을 하며, 현상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성돌의 크기, 재질, 다듬기 등 기초자료를 보고서에 수록
- ▶ 지적 경계 측량 병행
 - 지적 경계 측량을 병행하여 지형도 및 지적도 상에서도 개운포 좌수영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해 향후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2.2.2 발굴조사

▶ 조사 분석된 성곽의 측량현황 및 유구조사에서 파악된 성곽유구의 상태를 근거로 하여 발굴지역의 범위를 정함

1) 발굴 대상 지역

▶ 관아건물 지역

- 문헌자료나 기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조선 전기 유구라는 점에서 객사, 동헌, 내아, 중영, 기타 창고지 등에 대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굴조사로 유구 확인

▶ 성문지 지역

- 성문지 중 동문지와 북문지는 발굴조사로 문지의 구조가 파악되었으나 지금까지 위치나 규모, 구조가 불분명한 남문지와 서문지를 심층조사하는 것이 원칙

▶ 선소추정지

▶ 기타 주차장, 디지털전시관 조성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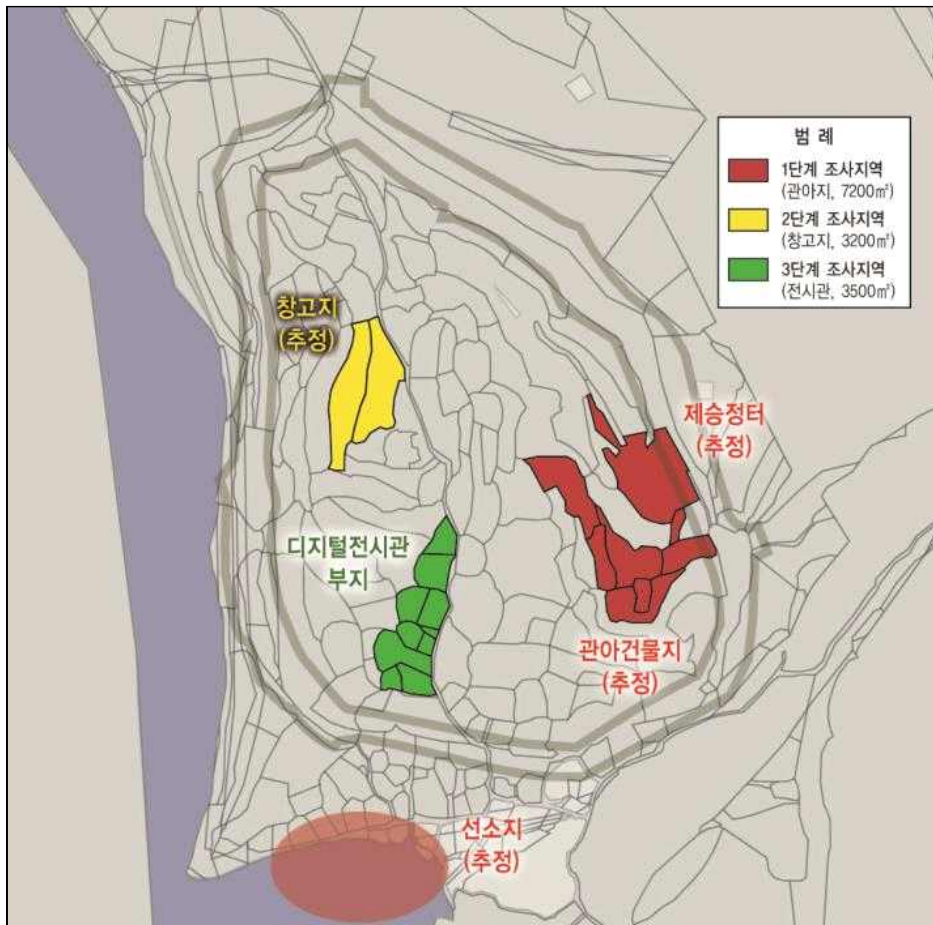


그림 9-3. 발굴대상 범위 및 우선순위

2) 발굴 우선순위

▶ 발굴조사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는 유구의 상태, 대상지의 범위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

여 순위를 선정하였으며 그 시기와 사업의 시행은 발굴의 성과 및 시행주체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전제

2.2.3 토지매입계획

1) 사업목적

- ▶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지정구역 대상지에 대한 사유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하며, 순차적인 사유지 매입이 바람직

2) 토지매입 사유지

- ▶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매입이 필요한 사유지는 26필지, 25,034㎡임

표 9-1. 개운포 좌수영성 내 사유지 연차별 매입계획(안)

구분	지번	면적(㎡)	지목	공시지가(원/㎡)	비고
1차	산200	7,041	임	18,600	1체성
	산205-2	2,876	임	16,800	체성
	378	63	전	71,900	체성
2차	381	1,008	전	75,900	관아지
	382	231	묘	79,700	관아지
	383	853	전	75,900	관아지
3차	389	261	전	75,900	화원부지
	310-6	1,117	전	90,300	관아
	산194	496	임	20,500	관아
4차	434-2	559	전	79,700	전시관
	379	145	전	71,900	제승정
	산196	397	임	18,800	제승정
5차	415	1,180	전	77,500	창고
	310-13	549	전	75,900	
	88	466	전	77,500	
	산204	1,091	임	19,300	
	90-1	1,068	전	72,700	
	90-2	496	임	21,100	
	82	869	전	75,900	
	402	99	묘	79,700	
	405-1	298	잡	90,900	
	411	450	전	79,700	
	412	1,666	전	75,900	
	410	595	전	75,900	
441-2	1,160	전	75,900		
합계		25,034			

2.2.4 학술심포지엄 개최 계획

1) 사업목적

- ▶ 발굴조사를 토대로 개운포 좌수영성의 성격, 축조방법, 특성 등을 연구·분석하여 조선 전기 수영성으로서의 가치 및 정체성 정립

2) 심포지엄 개최계획

- ▶ 연차별로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 개최
- ▶ 전문가, 시민, 관계자 참여

표 9-2. 개운포 좌수영성 관련 심포지엄 개최계획(안)

구분	주제	비고
기초	발굴조사를 통해 본 개운포 좌수영성의 구조와 축성법	고고학 + 건축학
	발굴조사를 통해 본 개운포 좌수영성의 성격 및 변화과정	고고학 + 역사학
	발굴조사를 통해 본 개운포 좌수영성의 건물지 배치와 규모	건축학 + 고고학
심화	개운포 좌수영성을 통해 본 조선 전기 수영성의 운영	역사학
	개운포 좌수영성의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방향	건축학 + 고고학
	개운포 좌수영성의 활용과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학



사진 9-1. 심포지엄 개최 예시

2.3 보존·정비계획

2.3.1 성곽 및 성곽시설물 정비

1) 기본방향

- ▶ 현존 유구를 최대한 보존
- ▶ 성곽 정비·복원 시 미조사 구간은 발굴조사 선행
 - 성곽 추정지에 대한 토지매입
 - 선 발굴조사 실시, 발굴조사 결과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한 고증
- ▶ 장기적으로 기 발굴조사로 구조가 확인된 동문지의 고증 후 복원 추진
- ▶ 발굴조사 후 노출되어 있는 치성2의 정비 추진

2) 성곽 보존·정비 기준

- ▶ 정비 기준
 - 좌수영성으로 사용되었던 조선 전기로 설정
 - 발굴조사 성과, 1950년대 항공사진 분석 결과 반영
 - 국내 정비·복원 사례 참조

3) 성곽 및 성곽시설물 보존·정비

- ▶ 체성, 치성
 - 북문지 주변 북쪽 성벽 보존·정비
 - 치성2·치성3의 보존·정비
 - 발굴조사로 유구 기저부 및 축성기법 확인 후 정비
- ▶ 선소
 - 수군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소 정비
- ▶ 성문
 - 충분한 연구와 고증 후 추진
 - 발굴조사로 이미 구조가 확인되었고 상징성도 큰 동문을 우선적으로 복원
 - 동문 좌우로 30m씩 체성 복원

2.3.2 관아시설물 복원정비

1) 기본방향

- ▶ 학술조사 및 고증을 통하여 관아지 정비
 - 문헌자료(고문헌, 고지도 등)를 고증하여 관아지 추정
 - 관아 추정지에 대한 토지매입
 - 발굴조사 실시

- 조선 전기 건물의 경우 정확한 구조나 형태 고증이 어려우므로 복원 보다는 유구를 복토하여 보존한 후 그 상부에 건물 규모와 평면형태를 표시하여 노출전시



사진 9-2. 노출전시 사례, 익산 미
특사지

사진 9-3. 노출전시 사례, 일본 명
護屋城址

2) 관아지 추정 및 정비 기준

- 좌수영성으로 사용되었던 조선 전기로 설정
- 발굴조사 성과, 1950년대 항공사진 분석 결과 반영
- 국내 정비 사례 참조

3) 관아 정비·복원 계획

▶ 건물지 정비

- 복원 보다는 유구 복토 후 상부에 건물구조 노출전시

▶ 제승당 복원

- 발굴조사에서 유구 미확인 시 추진 보류
- 발굴 결과 유구의 구조와 형태가 확인되면 충분한 연구와 고증 후 장기적으로 복원 추진

2.3.3 수목 정비

1) 기본방향

- ▶ 유구 훼손과 주변 경관 조망에 장애를 주는 체성, 해자(隍)m 성문지 주위의 밀식된 수목을 대상으로 함
- ▶ 선부른 벌목작업은 오히려 성벽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여름철 휴식에 필요한 그늘을 지나치게 제거하여 이용객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각 구간별로 제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수목정비 범위

잡목제거 (10m)	간벌(90%) (5m)	개벌(概伐) (변화치수)	간벌(50%)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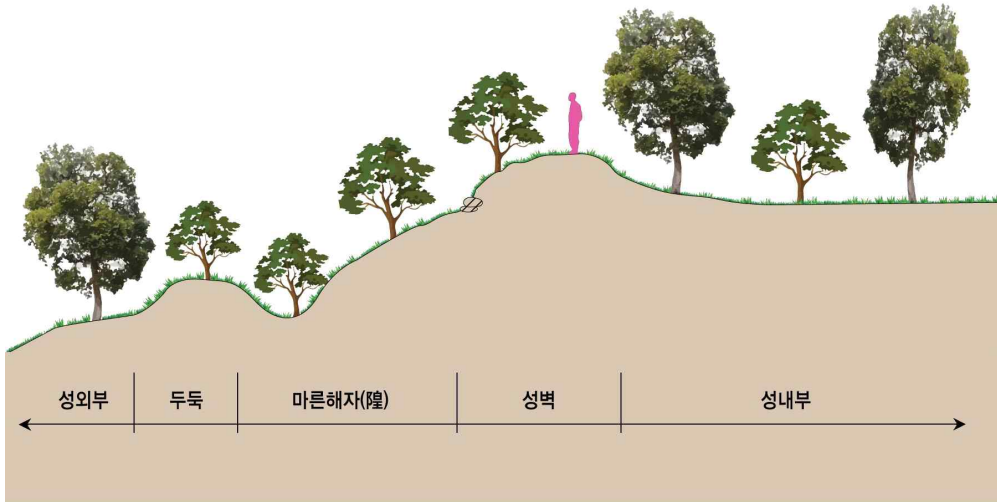


그림 9-4. 수목정비 개념도, 정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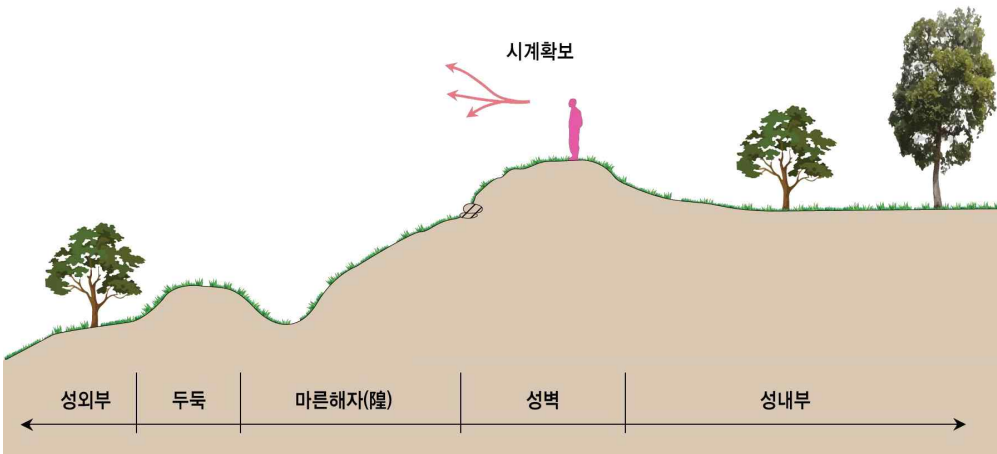


그림 9-4. 수목정비 개념도, 정비 후

2) 수목 정비계획

- ▶ 성곽 주변의 수목 중 성곽에 지장을 주는 수목과 성곽 가지권내의 시야를 가리는 수목을 성곽내부는 3~10m를, 성곽 외부는 20m중 10m범위 내는 완전 벌목하고 나머지 10m는 간벌하고 성곽에 기생하는 넝쿨을 제거하여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함

2.3.4 탐방로 정비

1) 기본방향

- ▶ 성벽 내측과 해자(陰) 두둑 상부를 따라 개운포 좌수영성을 일주하는 순환 탐방로 조성. 유구 보존을 위해 가급적 성벽 상부로의 탐방로 설치는 지양

- ▶ 경사가 다소 급한 구간은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로프를 설치해 보행안전성 확보

2) 탐방로 정비계획

- ▶ 성벽 및 관련 시설물·해자(隄)·건물터·연못·우물 등의 성내시설 관람과 휴식공간이 조화로운 내부탐방로 설치
- ▶ 탐방로를 연결하되 스며있는 역사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함으로써 탐방객이 교육과 체험을 병행하며 즐겁게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길 조성
- ▶ 탐방로의 주요지점에는 탐방객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



그림 9-5. 성곽 순환 탐방로 정비계획도

2.3.5 조선 후기 선수마을 역사문화 보존

- ▶ 조선 후기 울산도호부의 읍전선 정박처로서의 역사를 현시하기 위해 우물 등 관련 유적조사 및 보존
- ▶ 1992년부터의 이주사업으로 실향민이 된 원주민들의 애향심과 그리움을 달래 줄 수 있는 당시의 선수마을 모형 및 기념 공간 조성

2.3.5 편의시설

1) 주차장 및 화장실

- ▶ 주차장

- 현재 남문지 남쪽 공지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나 경관 유지와 유적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운로에 최대한 붙여 소규모의 생태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차량의 성내 출입을 막고 탐방 편의를 제공

▶ 화장실

- 개운포 좌수영성 일원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어 탐방객의 불편이 상존하므로 유적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지점에 적정 규모의 화장실 설치. 단 성벽이나 성문지 주위에 화장실 설치하는 지양

2) 안내판 및 휴게시설

▶ 종합안내판은 각 진입 위치에 설치하며, 각 유구 주변에는 개별 유적안내판을 설치

▶ 유적안내판에는 발굴 당시의 사진과, 발굴도, 추정복원도를 설명문구와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함

▶ 조망안내판은 개운포 좌수영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고지 주변에 설치하여 탐방객의 이해를 돕도록 함

▶ 방향표지판은 진입로 초입부터 주요지점별로 설치하며 개운포 좌수영성 진입을 유도하고, 성문, 객사, 동헌·내아 등의 건물지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공간에도 배치하여 개별 유적의 위치를 안내

▶ 과도한 설치에 지양하고 시설의 초입이나 유적지 등 안내가 필요한 곳에만 적정수량을 설치하되, 지역이미지를 살린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유도하며, 장기간 관리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

▶ 벤치나 음수대, 호우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대피용 소형 퍼골라 등의 휴게시설은 친환경 재료로 제작하되 필요한 곳에만 적정수량을 설치

3) 종합안내센터 및 개운포 좌수영성 디지털전시관 건립

▶ 개운포 좌수영성 관련 역사문화 전시·홍보

▶ 조선 후기 선수마을 민속, 민구 등 전시·홍보

▶ 개운포 좌수영성은 조선 전기 최고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성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알릴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교육 및 체험, 흥미유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

▶ 개운포 좌수영성과 주변지역의 역사성과 성곽 구조 등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전시관 기능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방문자센터 기능을 통합한 다목적 특화시설을 건립

▶ 전시관은 도서관(Library) + 기록관(Archives) + 박물관(Museum) 기능을 수행하는

라키비움(Larchiveum) 형식으로 건립하되 내부 콘텐츠는 대부분 디지털화하여 탐방객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춘

2.4 활용계획

2.4.1 성곽 활용방안

1) 발굴조사체험

- ▶ 추후 실시하는 학술발굴조사의 진행과정을 현장학습으로 활용
- ▶ 발굴계획에 따라 조사기관과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고고학 체험을 위한 발굴조사훈련과 체험코스를 개발

2) 성곽 탐방

- ▶ 개운포 좌수영성의 성곽 및 성곽 시설물을 관람하고 성곽의 구조를 이해
- ▶ 성곽쌓기 체험으로 조선시대 성곽의 축조방법에 대해 이해
- ▶ 조선 전기 군사적 요충지였던 개운포 좌수영성지의 역사적 의의를 이해
- ▶ 선소, 가리봉수대, 봉산(封山), 마채염전 등 개운포 좌수영성지와 주변 관방유적과의 관계 및 방어시스템을 이해

2.4.2 교육프로그램 개발

1) 기본방향

-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의 탐방과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선시대 수군성곽인 개운포 좌수영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창출.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더불어 역사적, 교육적 정보제공과 의식전환의 기회를 제공

2) 추진 사업

- ▶ 학술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반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변 역사문화자원과와 탐방벨트를 구축하고 정비 후에도 전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후대에 전승. 특히 정비된 개운포 좌수영성을 콘텐츠화하여 활용하는 것은 일차적인 체험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유적의 활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임
- ▶ 전문 해설사를 양성하여 탐방객이 해설사의 안내를 따라 정해진 코스를 관람하는 방식과 자율적으로 유적 곳곳을 돌아보며 관람하는 2가지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탄력성 확보



그림 9-6. 현재 진행중인 개운포 좌수영성 대상 지역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2.4.3 주변 유적 연계 및 활용

1) 기본방향

- ▶ 개운포 지역은 고대부터 울산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한 중심장소 중 하나였기에 여러 시기를 거치며 축적된 많은 문화재와 유적이 산재해 있음
- ▶ 개운포와 외항강변에 남아있는 역사문화 유적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개설하고 이 길에 스며있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함으로써 탐방객이나 시민들이 걸으면서 이 지역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도[역사만나로]를 조성

2) 주변 유적 연계 및 활용

- ▶ 인접한 성암동패총, 처용암, 마채염전, 가리봉수대 등을 연계한 탐방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500여년에 걸친 조선시대 개운포의 수군 관련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구축
- ▶ 역사탐방로 개설과 함께 앞서 언급한 스토리텔링 및 안내책자(E-Book)를 제작해 탐방객으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나 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사체험의 감동을 증대시킴



그림 9-7. 주변 유적 연계 역사탐방로[역사만나길] 조성계획(안)

2.5 관리운영계획

2.5.1 기본방향

- ▶ 관리운영계획은 방문객의 욕구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물의 특성 규모 입지여건에 부합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 역사문화자원 방문객 시설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시설별 행위제한과 개발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하며, 관리구역과 대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함

2.5.2 세부계획

- ▶ 개운포 좌수영성은 사적 지정 후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외항강 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된 유적지 등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더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탐방객 관리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 ▶ 관리운영 담당자는 탐방객의 안전관리와 서비스관리, 이미지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관리운영체계를 수립하며, 각 시설물에 대한 보존 안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 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 각 시설현황을 도면 등으로 정보화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시설목록을 작성하고, 시설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 따라서 분야별 세부사항에 따른 관리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관리, 환경관리, 마케팅관리, 방문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 개운포 좌수영성 및 주변의 문화유적의 보존, 정비, 활용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 하도록 한다.
- ▶ 관리운영조직은 전시, 교육,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학예팀과 개운포 좌수영성과 주변 문화유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유산팀 및 행정 및 일반관리를 담당하는 행정팀으로 구분하고 관장 아래 실장은 학예팀과 유산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 ▶ 학예팀의 주요업무는 개운포 좌수영성의 학술연구, 학술교류, 유물의 수장관리, 전시 자료의 구입 대여 평가 열람, 전시관련 자료의 제작,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의 전시운영, 전시관의 홍보, 관람객 대상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기획 지도를 담당한다.
- ▶ 유산팀은 개운포 좌수영성 및 주변 문화유적의 보수, 정비, 관리, 방재 등 개운포 좌수영성 유적의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 ▶ 행정팀은 전반적인 사무행정, 수입 운영예산의 관리 및 시설관리, 자원봉사 및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9. 종합의견

-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심해진 남해안은 일찍부터 수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수군이 위치할 곳은 해상 방어에 적합하며, 포진은 바람이 없고 광활하며 선박이 자유롭게 왕래 정박할 수 있는 자연의 요새로서 U자형의 지형이 적합하였다. 또한 바다 밑에 암석이 없고 사토(沙土)가 좋아야 하며, 썰물 때도 정박시킬 수 있고, 포진 밖에 병선을 정박시킬 수 있어야 하였다. 게다가 주변 영진(營鎭)과의 관계나 왜구의 침입로인 요해처(要害處) 및 포간(浦間) 거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군의 입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군진은 남해안에만 일정간격으로 20여개가 존재했으며, 중요도에 따라 **좌도수군도안무처치사, 우도수군도안무처치사 등 수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총괄하게 하였다.**
- 이러한 중에 1459년(세조 5)에는 동래 부산포에 있던 경상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의 본영이 울산 개운포로 이전되었다.⁶¹⁾
- 이후 왜인의 삼포왜란에 의해 왜인들의 침략이 예상되는 동래 지역의 방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이를 위해 수영을 다시 동래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 개운포는 수군만호(현재의 수군 대대급)로 되돌려졌으나, 위치의 중요성으로 일부 기능은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임란 이후에는 그 기능이 축소되며 1895년(고종 32)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

61) 『세조실록』 15, 5년 1월 20일 계묘, 『慶尙道續撰地理誌』蔚山郡, 關防.

이 폐지될 때까지 선소로서 기능이 유지되며 명맥을 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울산 개운포 좌도수영성은 1997년 울산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5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쳤고, 문지, 체성부, 마른해자(황), 내부 건물지 일부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선전기 수영성의 구조 및 형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수영성임이 밝혀졌다.
- 또한 그 둘레가 1,245m가 달하여 동해안에 위치한 수군관련 성곽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확인되었다.
- 그리고 주변은 공업단지로서 지정된 후, 개발이 되지 않아 수군성으로 가지는 특수한 입지조건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수군성 연구에 상당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또한 수군성과 연계된 가리봉 봉수를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수영성으로서, 수군성의 그 운영에 관한 연계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 이렇게 울산 개운포 경상좌도수영성은 조선 전기의 수군 사령부인 좌도수영성으로서 그 입지, 성곽, 문지, 마른해자, 봉수 등 연계유적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유적들이 잘 잔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선전기의 수영성으로서의 다양한 가치가 잘 남아 있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동헌터 복원·정비계획(안)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나주목 관아와 향교」 동헌터 복원·정비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동헌터 복원·정비계획(안)에 대한 걱정 여부를 검토받고자 부의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 2007.07.31.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계동 일원
- (3) 신청내용<동헌터 복원·정비계획(안) 검토>
 - 위치 : 전남 나주시 금계동 33-8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 (1단계) 잔디광장, 휴게공간, 소공연 무대 등 조성
 - (2단계) 1단계의 잔디광장 및 소공연무대 등은 유지
 - (1안) 최소한의 복원 / 발굴유구 노출, 연지 복원, 금남동행정복지센터 건립, LED 꽃정원 조성 등
 - (2안) 동헌 등 복원 / 건물 및 연지 복원, 금남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24.04.19./ (전)문화재위원 ○○○)
 - 동헌터 광장 위에 발굴조사된 유구를 토대로 동헌터를 재현복원하여 나주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나주목 관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근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측면에 있어 동헌터 정비 방향은 제안한 계획 중 최소한의 복원을 전제로 유구의 성격이나 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구를

다각적으로 정비(노출정비, 재현정비, 복토정비 등)하여 전시요소로 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발굴조사 결과 동헌터 내부에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거 나주목을 관리하던 지방관청 동헌터의 의미를 되살려 일부 건축물의 재현 복원을 통하여 행복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적인 공간구조나 건물의 배치형태 등에 대한 고증연구를 토대로 재현 복원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나주목 동헌터에서 조사된 유구는 그 성격이나 시대성이 불명확하여 추가적인 조사와 더불어 고증연구를 추진하여 유구의 역사성을 확보하고,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공간 구성과 간아시설의 배치형태 등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자료보완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 보고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24-05-038

1. 고도지역(익산) 문화유산 주변 지반조사 보고

가. 제안사항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고도지역(익산) 문화유산 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대응기술 연구> 학술용역 관련, 익산지역의 문화유산 주변 지반조사 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문화재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에서 추진 중인 <고도지역(익산) 문화유산 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대응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익산지역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반 주변에 대하여 지진으로부터의 지반 안정성에 대한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지반조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지역의 문화유산 3개소 주변 지반(붙임1)
- (3) 조사기간 : 2024. 5월 ~ 7월(3개월)
- (4) 추진방법 : 국립문화재연구원·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과학기술대학교·(주)희송지오텍 공동 추진
- (5) 추진내용
 - 시추조사(3개소 대상 2공 수행): 무수보링 적용, 최대 30m 또는 기반암 2m 확인, 표준관입시험 및 실내토질시험 병행
 - 물리검층(3개소 대상 2공 수행): 하향식 탄성파탐사, 밀도검층 수행
 - 조사장비 붙임2 참조

라.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

[붙임1] 익산지역 문화유산 지반조사 대상 및 위치(안) 1부

[붙임2] 조사장비 1부. 끝.

[붙임1] 익산지역 문화유산 지반조사 대상 및 위치(안)

연번	지역	분류	문화유산	조사방법				문화유산과 이격거리
				시추 조사	하향식 탄성파탐사	밀도 검층	물리탐사 (표면파탐사)	
1	익산	국보	미륵사지 석탑	O	O	O	X	남동쪽 약 70m
2		보물	미륵사지 당간지주					남동쪽 약 120m
3		국보	왕궁리 오층석탑					남동쪽 약 8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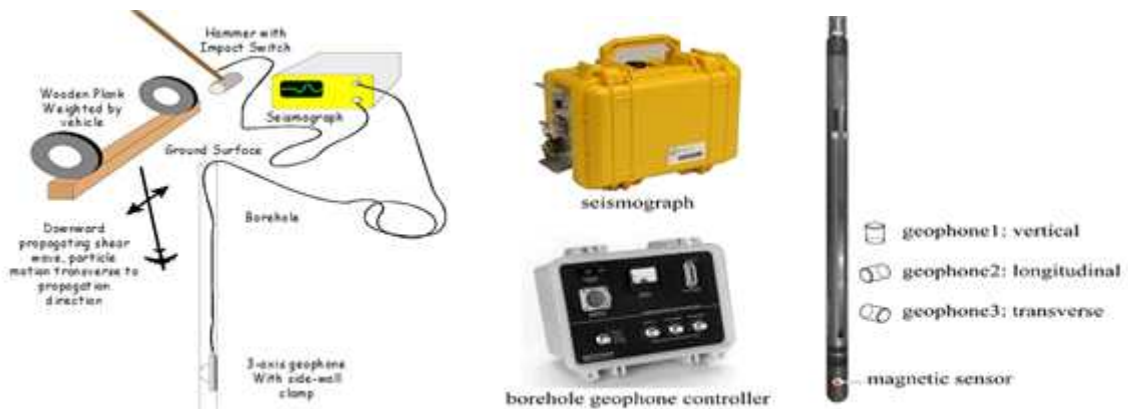
[붙임2] 조사장비

구분	무수보링 시추장비	투입장비
모델명	SP4500	
크기	1.8m × 4.8m × 2.2m	
무게	4.5ton	
마력	100HP	
회전수	1,800rpm	
토크	400kg.M	
굴진구경	200mm 이상 굴진 가능	
굴진능력	NX구경 300m 이상 굴진 가능	

무수보링 모식도



하향식 탄성파탐사 장비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연천 구석기 축제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64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도 연천군	○○○	<p><제31회 연천 구석기 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29번지 선사관리사업소, 전곡구석기 유적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텐트 설치 200동(5m×5m 100동, 3m×3m 100동) - 모바일화장실(컨테이너) 10동, 유아휴게실(컨테이너) 4동 - 매표소(컨테이너) 4동, VR체험관(컨테이너) 4동 - 체험마당 부스(D5m) 8동 및 아트그늘막(D20m~30m) 3동 - 대형텐트 10m×60m 15개소 - 주제전시관(20m×8m) 1식 - 주무대(트러스트 구조) 1식(13m×10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전 과정에서 문화유산 훼손,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등 	조건부 허가	'24.04.12.
사적 연천 당포성	경기도 연천군	○○○	<p><단독주택 및 농지 부지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번리 39번지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5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1,949m² - 옹벽설치 : H 0.0 ~ 3.8m, L 169.7m - 절토/성토 : 0 / 2,950.2m³(성토 최대 높이 3.5m) 	허가	'24.04.2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양주 대모산성	경기도 양주시	○○○	<p><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77번지 13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432㎡ · 건축면적/연면적 : 154㎡/154㎡ · 층수/높이 : 지상 1층/7.8m(경사지붕)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식생토 옹벽 : H=0.3m~2.8m, L=43.5m · 포장(아스콘, 잡석) : 235㎡ (T=200~300mm)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432㎡ · 건축면적/연면적 : 169.1㎡/323.1㎡ · 층수/높이 : 지상 2층/9.9m(경사지붕)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식생토 옹벽 : H=0.3m~2.8m, L=32.5m · 포장(아스콘, 잡석) : 225㎡ (T=200~300m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4.04.12.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가설건축물(농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68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2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 20㎡/20㎡ - 층수/높이 : 지상 1층, 2.6m - 구조 :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허가	'24.04.12.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6번지 15호 외 2필지(26-16, 26-6) (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578㎡(부지 487㎡, 도로 91㎡) - 건축면적/연면적 : 58.05㎡/58.05㎡ - 층수/높이 : 지상 1층/5.05m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 포장 : 잡석포장 424㎡(T 10cm), 콘크리트 포장 109㎡(T 20cm) 	허가	'24.04.1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6번지 5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680㎡ - 건축면적/연면적 : 95.4㎡/95.4㎡ - 층수/높이 : 지상 1층/4.6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 옹벽(H 0.5~3.5m) 34m, 펜스(H 1.2m) 46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4.04.15.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6번지 13호 외 2필지(26-14, 26-12) (문화재구역으로부터 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754㎡ - 건축면적/연면적 : 125.43㎡/120.68㎡ - 층수/높이 : 지상 1층/4.6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24.04.22.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가설건축물(농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280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9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 20㎡ / 20㎡ - 층수/높이 : 1층 / 3m 	허가	'24.05.02.
사적 파주 운관장군묘	경기도 파주시	○○○	<p><기존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54번지 3호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396m 이격/1, 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면적 : 231.27㎡ · 태양광 설치 최대높이 : 1동 12.3m, 2동 11.0m · 설비용량 : 50kW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면적 : 245.84㎡ · 태양광 설치 최대높이 : 1동 14.0m, 2동 13.5m · 설비용량 : 52.955kW * 기존 건축물 높이 : 각 8.7m 	허가	'24.04.1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파주 윤관장군묘	경기도 파주시	○○○	<p><소음 배출 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54-3호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396m 이격/1, 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배출시설 : 압축기(20HP) 1대 설치(방지지설 : 방음창 및 방음시설 1,011.5㎡) 	허가	'24.04.29.
사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경기도 파주시	○○○	<p><태양광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454번지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447m 이격/2-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10,578㎡(2-1구역 포함면적 5,079㎡) - 설비용량 : 1,397.97kW - 패널수량 : 2,219장(2-1구역 패널수량 994장) - 태양광 높이 : 3.8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4.04.22.
사적 파주 혜음원지	경기도 파주시	○○○	<p><공장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93-5, 29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4m 이격/2-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3,913㎡ - 건축면적/연면적 : 1,327.75㎡/1,665.50㎡ - 층수/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동 : 지상1층/4.3m · 2동 : 지상 2층/12.0m · 3동 : 지상 1층/9.7m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허가	'24.04.30.
사적 하남 이성산성	경기도 하남시	○○○	<p><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303번지 17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0m 이격 /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24㎡ - 건축면적/연면적 : 207.15㎡/471.90㎡ - 층수/높이 : 지상 3층/14.5m(경사지붕) - 건축구조 : 철골조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4.04.1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하남 동사지	경기도 하남시	○○○	<비닐하우스 설치>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398번지 83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4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설치면적 : 165.96㎡ - 높이 : 3.3m	허가	'24.04.17.
사적 하남 동사지	경기도 하남시	○○○	<비닐하우스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398번지 79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73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당초 : 비닐하우스 1동 설치(91㎡, 4.5m) - 변경 : 비닐하우스 2동 설치(331㎡, 4.5m)	허가	'24.04.22.
사적 고양 행주산성	경기도 고양시	○○○	<덕양정 주변 난간대 설치>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5번지 4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설치길이 : 36m - 난간규격 : L 1.5m × H 1.2m - 설치수량 : 24개	허가	'24.04.12.
사적 김포 덕포진	경기도 김포시	○○○	<지역난방개발을 위한 시추공 굴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40번지 4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2-2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52㎡(2공 지열천공) - 굴착깊이 : 150m - 굴착구경 : 150mm ○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4.04.17.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경기도 용인시	○○○	<하수관로 정비>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23번지 11호(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대상면적 : 4,795㎡(문화재구역 130㎡, 1구역 215㎡) - 하수관로 신설 : D=200mm, L=3,358m (문화재구역 95m, 1구역 158m) - 굴착 폭 : 1.26~1.68m - 매립깊이 : 1.30~4.9m	허가	'24.05.0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북한산성	경기도 고양시	○○○	<p><담방로 전기·광 재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68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163㎡(수배전반 43㎡, IP 전주 17㎡, 선로(ELP) 103㎡) - IP주(2.5m~5.8m) 17개소, 고압수배전반(4×4×3m) 4개소 - 선로(노출) L:1,374m, W=70m/m(ELP관 1줄) - 선로(매설) L:25m, W=70m/m(ELP관 1줄)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4.04.17.
사적 강화 삼랑성	인천시 강화군	○○○	<p><보호구역 내 전등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4번지 등 4필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8,234㎡ - 건축면적/연면적 : 107.73㎡(가동 107.73㎡)/775.90.㎡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2동(지하연결)/최고높이 13.68m(지하층 포함)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 한식목구조(지상) -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 절토(H=7.5m) 7,213㎡, 성토(H=3.1m) 1,271㎡, 사토 6,383㎡ · 구조물공 : 자연석쌓기(6목 H=1.0~2.5m, L=95m), 한식 담장(H=1.2m, L=81m)-담장기와 포함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A=190㎡ · 조경공 : 철쭉(150주), 측백(150주), 눈주목(100주) · 부대공 : RPP가설 방음벽(H=4.0m, L=214m), 이동식세륜시설 1개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각 1개소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관조사 등 매장문화재 조사 후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24.04.2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강화 광성보	인천시 강화군	○○○	<p><보호구역 내 유희시설 및 연결 인도 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60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쉼터(매점)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1동 - 건축면적/연면적: 29m²/29m² - 건축규모: 지상 1층 - 건축구조(지붕형태): 목조(기와) - 건축 철거공사 2) 쉼터(매점) 연결 인도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약 160m² - 인도소재: 돌보도블럭 - 인도 철거공사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시 관계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 - 해당부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매장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 	조건부 허가	'24.04.22.
사적 강화 갯곶돈	인천시 강화군	○○○	<p><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갯곶리 868(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4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규격 : 87.05m²(12.57m×7.14m×3.92m) - 시설높이 : 기존건물 높이 3.28m , 태양광시설물 높이 3.92m(건물높이포함 총 7.2m) - 설비용량 : 19.82kwp(620w) 	허가	'24.04.29.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07번지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0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799m² → 806m²(부지 7m² 편입) - 최고높이 : 5.8m → 5.7m - 건축면적 117.90m² → 119.92m² - 연면적 97.65m² → 99.52m² 	허가	'24.04.1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전신주 1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87-3(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3m 이격/2-5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면적 0.56㎡(1본) - 설치높이 13.5m ○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 관련법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조건부 허가	'24.04.30.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91-23, 291-27(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2-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548.0㎡(사업부지 548.0㎡) - 구조물공 : 보강토옹벽(H=0.0~4.4m) L=41.0m - 성토 최대 H=4.4m 	허가	'24.04.19.
사적 단양 적성	충북 단양군	○○○	<p><발굴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산 28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 적성 고분군 37호, 127호 발굴조사(500㎡) 	허가	'24.05.01.
사적 제2로 직봉-제천 오현 봉수	충북 제천시	○○○	<p><농업용 창고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 19-3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동, 1층 높이 5.4m(경사지붕), 경량 철골조 	허가	'24.05.01.
사적 부여 나성	충남 부여군	○○○	<p><전기차 충전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2-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1기 H1,200mm×W1,000mm(기초베이스W1,000×D1,200×H300) - 분전반 1기 H600mm×W800mm(기초베이스W700×D500×H300) - 신설 전주 1기 H8m - 지중공사 D600mm×H600mm×L8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굴착에 따른 관계전문가 입회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4.04.1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부여 금강사지	충남 부여군	○○○	<p><버섯재배사 및 지붕위 태양광 설치 (기간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222-17(문화재구역으로부터 298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재배사 신축 : 건축면적 684㎡, 건물높이 4m(2동) - 태양광 시설 규모 : 684㎡(동당 136매 / 총272매) /태양광 높이 2.36m 	허가	'24.04.11.
사적 부여 군수리 사지	충남 부여군	○○○	<p><가설 컨테이너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85-7(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가로 6m, 세로 3m, 높이 3m - 면적 : 18㎡ - 용도 : 농업용 창고 	허가	'24.05.01.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	<p><2024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98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행사기간 : 2024.5.3.~5.6.(4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준비 및 철거 4~5월 ○ 행사내용 : 구석기 퍼레이드, 구석기 사냥픽, 부교건너기 등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행사진행과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이행 	조건부 허가	'24.04.24.
사적 공주 학봉리 요지	충남 공주시	○○○	<p><부지조성 및 도로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88-18(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8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659㎡ - 부지조성 : 1식 - 도로개설 : 면적 173㎡, 폭 4m, 총연장 30.2m 	허가	'24.05.01.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산사태 복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산 35, 산38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415㎡ - 토공 : 흙깎기, 퇴메우기, 사토운반, 피해목 정비 - 배수공 : 돌수로, 찰붙임 등 - 구조물공 : 깻돌 찰쌓기, 골막이 등 	허가	'24.04.1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진출입 도로개설(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양리 283-12(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61㎡ - 도로 콘크리트 포장 61㎡, L형 옹벽 설치(22.6m) 	허가	'24.04.15.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등산로 긴급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산 48, 산103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 : 목재평상 1개소, 목재평의자 3개소, 안전울타리 15경간, 콘크리트 평의자 4개소 등 - 정비 : 야외테이블 2개소 설치, 등나무쉼터 보수 1개소, 산석붙임(토사 40㎡, 콘크리트 150㎡), 데크 계단 1식 	허가	'24.04.24.
사적 김해 구지봉	경남 김해시	○○○	<p><보호구역 내외 구산지구 노후상수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김해시 대성동, 봉황동, 서상동 일대(문화재보호구역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산2블럭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76번지 외 160필지 - 구산3블럭 : 경남 김해시 봉황동 409-35 번지 외 160필지 - 구산4블럭 : 경남 김해시 서상동 340번지 외 184필지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산2블럭 : 배수관로(D300~75mm) 2,794.0m / 급수관로(D40~16mm) 510.0m / 감압변(D150,100mm) 3개소 - 구산3블럭 : 배수관로(D300~75mm) 2,787.0m / 급수관로(D40~16mm) 385.0m / 감압변(D200mm) 1개소 - 구산4블럭 : 배수관로(D200~50mm) 4,830.0m / 급수관로(D40~16mm) 1,325.0m / 감압변(D150mm) 1개소 ○ 허가조건 : 허용기준 공통사항에 따라 신설구간 매장유구 조사 시행여부 검토 	조건부 허가	'24.04.3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김해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	<p><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김해시 서상동 312 김수로왕릉(문화재구역 내외) ○ 행사명 :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 행사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로왕릉 : 미디어과사드 2개소, 경관조명, 아트마켓, 중계스크린 1개소 등 - 왕릉 앞 광장 : 전통공연 한마당 무대, 객석 등 	허가	'24.04.15.
사적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	<p><세계유산 표지석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세계유산 표지석 설치(2개) 	허가	'24.04.16.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함안군	○○○	<p><농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설치(3m×6m, 1층) ○ 허가조건 : 농막 컨테이너 설치는 허가일로 부터 3년(2024. 05. 02. ~ 2027. 05. 01.)까지 임시로 허가하며, 허가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조건부 허가	'24.05.02.
사적 함안 성산산성	경남 함안군	○○○	<p><숲가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73번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141,622㎡ - 사업내용 : 숲아베기 12.94ha, 산물수집 12.94ha, 작업로 개설 1,600m ○ 허가조건 : 굴착 시 관계공무원 참관 	조건부 허가	'24.05.02.
사적 경주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	<p><2024 형산강 연등 문화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772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간 : '24. 5. 2. ~ 5.26 - 설치구간 : 약320m(금당지 약176m, 목탑지 144m) - 콘크리트 기초석/고정석 : 19개/30개(지름 0.6m×높이 0.23m) - 동근 스텐 기둥봉 : 21개(지름 0.076m×높이 3.2m)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24.04.1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홍륜사지	경북 경주시	○○○	<p><황남공영주차장 조성(허가사항 변경 허가)></p> <p>○ 위치 : 경북 경주시 사정동 285-6 외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4m 이격/1구역)</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1년 소위5차</th> <th>금회 신청</th> </tr> </thead> <tbody> <tr> <td>사업면적</td> <td>49,443㎡</td> <td>49,963㎡</td> </tr> <tr> <td>주차장면적</td> <td>46,506㎡</td> <td>47,248㎡</td> </tr> <tr> <td>주차면수</td> <td>1,081</td> <td>998</td> </tr> <tr> <td>관리사무실</td> <td>59.4㎡</td> <td>83.16㎡</td> </tr> <tr> <td>화장실</td> <td>182.28㎡</td> <td>166.32㎡</td> </tr> <tr> <td>가로등</td> <td>-</td> <td>스텐가로등주 113본</td> </tr> <tr> <td>주차관제 시스템</td> <td>-</td> <td>1식</td> </tr> </tbody> </table> <p>○ 허가조건 : 보완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되 시굴조사 후 실시</p>	구분	'21년 소위5차	금회 신청	사업면적	49,443㎡	49,963㎡	주차장면적	46,506㎡	47,248㎡	주차면수	1,081	998	관리사무실	59.4㎡	83.16㎡	화장실	182.28㎡	166.32㎡	가로등	-	스텐가로등주 113본	주차관제 시스템	-	1식	조건부 허가	'24.04.16.
			구분	'21년 소위5차	금회 신청																								
사업면적	49,443㎡	49,963㎡																											
주차장면적	46,506㎡	47,248㎡																											
주차면수	1,081	998																											
관리사무실	59.4㎡	83.16㎡																											
화장실	182.28㎡	166.32㎡																											
가로등	-	스텐가로등주 113본																											
주차관제 시스템	-	1식																											
<p><단독주택(5동) 신축></p> <p>○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26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8m 이격/1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3,219.00㎡ - 건축면적/연면적 : 495.00㎡/495.00㎡ - 최고높이 : 6.3m - 구조 : 목구조 / 한식기와 - 성토량 : 5,406㎾ - 계획고 : 50.02~50.18 - 성토고 : 0.30~1.53m - 지반고 : 48.65~50.02 - 보강토옹벽 : H=0.25~2.50m (L=178.0m) - 콘크리트포장 : T=20cm /257㎡(도로), T=20cm / 36㎡(농업기반시설) <p>○ 허가조건 : 보완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되 시굴조사 후 실시</p>	조건부 허가	'24.04.1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331-1,332(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2,476㎡ - 건축면적 : 278.97㎡(92.99㎡×3동) - 건물구조(높이) : 일반목구조(5.87m) - 절·성토 : 보강토옹벽(부지 우측부 4.5m, 후면부 4.5m), 성토(부지 6.5m) ○ 허가조건 : 보완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되 시굴조사 후 실시 	조건부 허가	'24.04.18.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p><2024 봉황대뮤직스퀘어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4.05.10.~09.07.(매주 금, 20:00~21:30) * 총 11회(행사전일까지 설치 익일까지 철거) - 무대 : 약 43평 (20m×7.2m) - 음향 : 메인 스피커 22~24개 (30kW) - 조명 : 레이어 (6m×6m×6m) - LED모니터 : 200~300인치 2대 - 대기천막 : 몽골텐트 5~7동(3×6m 1동, 3×3m 4~6동)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24.04.18.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p><2024 경주 EDM 페스티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4. 5.25(토). 18:00~21:00 - 무대 : 약 39평(12m×7.2m) - 음향 : 메인 스피커 12개, 서브우프 4개(80~100db) - 조명 : 레이어(4m×10m), 조명 60개 - 부스 : 천막 5동(5m×5m)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24.04.2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동부사적지 대	경북 경주시	○○○	<p><침성대 in 품지락만들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118-9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4. 5. 4.(토) ~ 5. 6.(월) - 제작 테이블(145cm×600cm×2000cm) 14개 - 듀라 테이블(1830cm×760cm×740cm) 10개 - 예상사용면적 : 2800cm×260cm - 음향, 조명, 무대, 가스, 전기 : 사용없음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24.04.25.																											
사적 경주 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	<p><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211-1(문화재구역으로부터 31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승인</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td> <td>840m²</td> <td>좌동</td> </tr> <tr> <td>연면적</td> <td>166.50m²</td> <td>좌동</td> </tr> <tr> <td>건물높이</td> <td>4.93m</td> <td>좌동</td> </tr> <tr> <td>터파기</td> <td>166.50m²</td> <td>좌동</td> </tr> <tr> <td>되메우기</td> <td>162.00m²</td> <td>좌동</td> </tr> <tr> <td>성토</td> <td>23.0m³</td> <td>좌동</td> </tr> <tr> <td>절토</td> <td>75.0m³</td> <td>좌동</td> </tr> <tr> <td>콘크리트 포장</td> <td>A=153m², T=20cm</td> <td>A=917m², T=20cm</td> </tr> </tbody> </table>	구분	승인	변경	대지면적	840m ²	좌동	연면적	166.50m ²	좌동	건물높이	4.93m	좌동	터파기	166.50m ²	좌동	되메우기	162.00m ²	좌동	성토	23.0m ³	좌동	절토	75.0m ³	좌동	콘크리트 포장	A=153m ² , T=20cm	A=917m ² , T=20cm	허가	'24.04.25.
구분	승인	변경																														
대지면적	840m ²	좌동																														
연면적	166.50m ²	좌동																														
건물높이	4.93m	좌동																														
터파기	166.50m ²	좌동																														
되메우기	162.00m ²	좌동																														
성토	23.0m ³	좌동																														
절토	75.0m ³	좌동																														
콘크리트 포장	A=153m ² , T=20cm	A=917m ² , T=20cm																														
사적 경주 진덕여왕릉	경북 경주시	○○○	<p><가설건축물(산립경영관리사)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 48(문화재구역으로부터 81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건축면적 : 199.00m²/49.00m² - 구조/층수/높이 : 경량철골조/지상 1층/3.2m - 토공 : 10m³ - 사면다짐 및 땅 고르기 : 296m³ - 작업로 주변 횡단배수로 : 2EA ○ 허가조건 : 공사 시 참관조사 실시, 3년(존치기간) 후 재심의 	조건부 허가	'24.05.0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강원도 삼척시	○○○	<p><계단 및 난간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785(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계단 및 난간 철거 1식 - 자연석 계단 설치 : 17.835m - 안전난간 설치 : 16.3m - 수목 이식 2주(동백나무), 신설 2주(동백나무) - 기타공사 : 가설창고 설치(9㎡) 	허가	'24.04.24.
사적 원주 법천사지	강원도 원주시	○○○	<p><가설건축물(농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810(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면적 : 18㎡ - 높이 : 2.5m 	허가	'24.04.23.
사적 남한산성 행궁	경기도 광주시	○○○	<p><탐방로 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935-1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화마사토 포장 : T200, B=2.8m, A=560㎡ - 횡단배수로설치 : B=0.5m, H=0.45, L=3m - 연결관 : D150, L=12m ○ 허가조건 : 해당 지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므로 매장문화재는 매장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 	조건부 허가	'24.04.30.
사적 수원 화성 행궁	경기도 수원시	○○○	<p><야간개장에 따른 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조명 및 조형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레이어 : 1.8m × 3.4m × 4개소 (봉수당 입구 2개소, 우화관 입구 2개소) - 연꽃 조형물 : B=8m, H=5m - 행사기간 : 5.3. ~ 10.27. 	허가	'24.04.30.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p><전주 철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18-13, 177-20, 195-15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전주(4주)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규모 : W=1.2m, D=1.2m, H=1.9m - 허가기간 : 2024.04.30. ~ 2024.05.31. ○ 허가조건 : 굴착시 관계전문가(또는 관계공무원) 참관 	조건부 허가	'24.04.3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희궁지	서울시 종로구	○○○	<p><방범용 CCTV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경희궁공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규모 : 지주대 높이 4m, 콘크리트기초 H=0.4m, W=0.3m - 기타 : 전기인입을 위한 터파기 및 배관배선 작업 * 터파기 구간 약 300m, 도로컷팅 약 7m, 보도블럭 구간 약 10m - 허가기간 : 2024.04.29.~2024.05.31. ○ 허가조건 : 굴착시 관계전문가(또는 관계공무원) 참관 	조건부 허가	'24.04.29.
사적 의성 금성면 고분군	경북 의성군	○○○	<p><전선지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1161-12, 313, 1161-5, 378-5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전주 4주 철거, 지장배전선로 지중이설(L=230m) - 허가기간 : 2024.04.18.~2024.10.31. ○ 허가조건 : 굴착시 관계전문가(또는 관계공무원) 참관 	조건부 허가	'24.04.18.
사적 김제 벽골제	전북 김제시	○○○	<p><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301-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농가주택 1동, 농가창고 1동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건축·연면적 108.77㎡, 최고높이 4.9m(경사지붕), 경량목구조, 세라믹사이딩 마감 - (창고) 건축·연면적 105㎡, 최고높이 4.7m(경사지붕), 경량철골구조, 판넬 마감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색상 등은 문화유산 경관과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할 것. 	조건부 허가	'24.04.1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전북 고창군	○○○	<p><생태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856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전시관 위치 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종 서식지 원형보전을 위해 전시관 기존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100m 이동(연면적 536㎡, 높이 8m / 면적 및 높이 변경없음) - 전시관 위치 이동에 따른 조경계획 변경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계획 변경 관련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조건부 허가	'24.04.11.
사적 화순 운주사지	전남 화순군	○○○	<p><벌채 후 조립(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 6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벌채 후 조립, 배수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사업(벌채 후 조립) 내용 동일함. - 토사수로(폭 0.5m, 깊이 0.5m, 연장 210m) 및 침사지 2개소 설치 등 	허가	'24.04.11.
사적 화순 운주사지	전남 화순군	○○○	<p><보행용 교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화순군 용강리 385-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보행용 교량 1식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12m, 폭 2m, 목재 데크 마감 	허가	'24.04.11.
사적 나주읍성	전남 나주시	○○○	<p><석가탄신일 기념 임시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나주시 남내동 116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시설물 규격 2.5×2.5×12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설치 후 철거 	조건부 허가	'24.04.11.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	광주시 광산구	○○○	<p><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279-36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5m 이격/1, 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14동, 건축면적 790㎡, 연면적 2,209㎡, 높이 10.9m(배면부 / 14개동 동일), 주변 정비 등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굴조사 선 시행 	조건부 허가	'24.04.0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주목 관아	제주도 제주시	○○○	<p><돌하르방 이전 및 수목제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 19번지 등(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덕정 뒤편 하르방 2기를 제주목 관아 내 기존 하르방 주변으로 이전 - 관덕정 뒤편 소화시설 정비 - 가이즈까향나무 2주 제거 등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 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건부 허가	'24.04.23.
사적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도 제주시	○○○	<p><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임시 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50-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적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회) 2024.4.28. - 임시시설물 : 조리용 노지 4기, 천막 ①(5×5m) 2동, 천막②(3.6×7.5m) 8동 2) 상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회) 2024.4.20./12.7. - 임시시설물 : 소성용 노지 1기 3) 불을 담다(토기소성 및 조리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5회) 2024.5.11./9.14./10.12./10.14./11.2. - 임시시설물 : 소성용 노지 1기, 조리용 노지 10기 4) 선사인의 하루, 캠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4회) 2024.5.18.~5.19./6.1.~6.2./9.28.~9.29./10.26.~10.27. - 임시시설물 : 소성용 노지 1기, 조리용 노지 10기, 텐트(4.2×2.6m) 10동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전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 등에 대해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인 제주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실시할 것 - 문화재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체험자 및 관람객 안전 대책, 긴급사항 대비 대책 등을 철저히 수립·시행 등 	조건부 허가	'24.04.11.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